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2

누가복음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누 가 복 음

Luke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23:47)

*Ἰδὼν δὲ ὁ ἑκατοντάρχης τὸ γενόμενον
ἐδόξαζεν τὸν θεὸν λέγων, Ὅντως ὁ
ἄνθρωπος οὗτος δίκαιος ἦν.*

누가복음 차례

누가복음 서론	〈17제〉	11
제 1 장 세례 요한의 탄생	〈25제〉	22
제 2 장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	〈20제〉	34
제 3 장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족보	〈20제〉	43
제 4 장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전도를 시작하시다	〈24제〉	52
제 5 장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	〈19제〉	62
제 6 장 열 두 사도를 세우시다	〈27제〉	70
제 7 장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20제〉	81
제 8 장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26제〉	92
제 9 장 열 두 제자의 파송	〈40제〉	106
제 10 장 칠십 인 전도대의 파송	〈23제〉	124
제 11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4제〉	134
제 12 장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分辨)하라	〈35제〉	147
제 13 장 회개에의 촉구	〈29제〉	159
제 14 장 예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	〈24제〉	170
제 15 장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29제〉	179

제 16 장	이 세상의 부(富)에 대해서	〈28제〉	190
제 17 장	성도의 생활과 도래(到來) 할 하나님의 나라	〈26제〉	201
제 18 장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다	〈36제〉	211
제 19 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	〈39제〉	224
제 20 장	예수를 시험(試驗)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27제〉	237
제 21 장	종말을 예고하시는 예수	〈24제〉	247
제 22 장	최후의 만찬과 예수의 고난	〈33제〉	256
제 23 장	십자가에서 처형되다	〈25제〉	267
제 24 장	예수의 부활과 승천	〈25제〉	278

누가복음 특별 자료 차례

누가복음 서론 〈연구 자료〉	누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18
제 1 장 〈본장의 요절〉	33
제 2 장 〈화보 자료〉	예수 탄생 기념 처소	42
제 4 장 〈연구 자료〉	가난한 자와 복음(福音)	61
제 5 장 〈본장의 요절〉	69
제 6 장 〈연구 자료〉	인자(人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80

제 8 장	〈화보 자료〉	옥토(沃土)와 박토(薄土)	105
제 9 장	〈연구 자료〉	귀신(鬼神)의 정체	123
제 10 장	〈화보 자료〉	그리스도를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	133
제 11 장	〈연구 자료〉	올바른 기도	146
제 13 장	〈화보 자료〉	예루살렘을 인하여 애통하시는 그리스도	169
제 14 장	〈연구 자료〉	예수와 관련된 이적(異蹟)의 의미	178
제 15 장	〈화보 자료〉	회개하는 탕자	189
제 16 장	〈본장의 요절〉	200
제 17 장	〈화보 자료〉	금홀히 여김을 바라는 열 문둥병자	210
제 18 장	〈본장의 요절〉	223
제 20 장	〈화보 자료〉	로마 시대의 동전	246
제 21 장	〈연구 자료〉	맛사다(Masada) 항전(抗戰)	254
제 23 장	〈연구 자료〉	십자가형(十字架刑)과 십자가의 종류 ..	276
제 24 장	〈본장의 요절〉	286

누가복음 서론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에서는 저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승들은 헬라인 의사였으며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본서를 기록했다고 전한다.
- (2) 뿐만 아니라 교부(敎父)들, 즉 리용의 감독으로서 폴리갑(Polycarp, 69?-155) 문하에서 공부한 이레니우스(Irenaeus, 140?-200?),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서 바울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30?-10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6), 오리젠(Origen, 185?-254?) 그리고 무라토리아 단편(the Muratorian Fragment) 등도 누가를 본서의 저자로 인정하였다.
- (3) 한편 저자는 본서 첫머리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다(행1:1).
- (4) 뿐만 아니라 두 문서는 동일한 문체로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에 관한 유사한 가르침, 성령의 사역에 대한 뚜렷한 강조, 이방인에 대한 배려, 당시의 사건 등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유사점도 지녔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본서의 저자임이 확실하다.
- (5)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행16:10-17; 20:5-15; 21:1-18; 27:1-28:16).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였던 누가임을 보여 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도 역시 누가라고 볼 수 있다.
- (6) 이와 같이 교회의 전승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고려해 볼 때 본서의 저자는 누가임이 확실하다.

2. ㉠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 ㉠ (1) 누가는 헬라인으로서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의술(醫術)을 다소(Tarsus)에서 습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다소는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와 아테네(Athenes)에 못지 않는 학문의 중심지였다. 이 같은 요소는 본서에 의학적 용어(2:7)나 병의 증세에 대한 기록(4:38; 5:18)이 자주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또한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여서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원',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였다(행20:5-21:15; 27:1-28:15; 골4:14; 몬1:24; 답후4:11).
- (3) 그리고 본서의 서문은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전적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1장의 뒷부분과 2장에서 그 운율이 최고의 히브리적 색채를 띠고 있다. 또 10장과 15-18장에는 아름다운 비유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누가가 풍부한 감정과 다양한 문학적 자질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4) 뿐만 아니라 그는 불행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나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인간적 공감(共感)을 가졌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이는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11:5-13; 18:1-5).
- (5) 그는 본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데, 데오빌로는 개종한 로마 관리였다. 이것은 물론 누가 자신도 헬라인이었지만 지역적·인종적 굴레에 속박됨이 없이 사해 동포적(四海同胞的)인 사상을 가지고 세계사(世界史)의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했음을 보여 주는 것

12 누가복음 서론

이다. 이 같은 사상은 사도 바울의 사상과도 연결되고 있다(참조, 롬2:9, 10).

3. ㉠ 본서의 수신인은 누구인가?

㉠ (1)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본서신을 썼다.

(2)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4의 기록으로 보아 그가 믿음의 교훈을 전해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

(3)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이름의 의미로 볼 때 ‘데오빌로’가 수신인의 진짜 이름 대신에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상징적 명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Origen, Bruce).

(4) 그러나 ‘데오빌로’라는 용어는 하나의 고유 명사이며 ‘각하’라는 표현을 보전대 그 인물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실재의 인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래서 혹자는 ‘데오빌로’가 관직에 있는 로마 관리라는 견해를 취한다(Ramsay). 어쨌든 본서가 비록 데오빌로 개인에게 바쳐진 것이지만 데오빌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당시의 세계에 보내진 것이고,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1) 본서의 서론(1:1-4)에는 본서의 기록 목적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즉 누가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그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소유케 하고자 했다.

(2) 그리고 누가는 더 나아가 데오빌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음에 뒤따르는 구원의 확실성을 전달하고자 본서를 기록하였다.

(3) 또한 그는 기독교가 활발히 확장되며 전개되어 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즉 그는 본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파(a true sect of Judaism)로서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개하는 복음 전파의 합법성을 입증할 필요에 따라서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4) 따라서 그는 본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곤 했지만 그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23:1-25; 행25:23-27) 믿는 유대인 및 이방인 신자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

(5) 이같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 즉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나(12:49-59) 빈곤(14:12-14)과 부(16:1-31) 또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5:27-39)을 주제로 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수집하여 본서에서 다루고 있다.

(6) 이와 같이 누가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려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저술했던 것이다.

5.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1) 본서의 연대 문제는 사도행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사도행전 1:1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는 기록을 볼 때 본서가 먼저 쓰여졌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28장)에는 바울이 로마군에 의해 로마로 호송된 후 채투옥 되기까지 자유롭게 전도 사역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본서의 기록 연대가 A. D. 63-65년경에 발생한 바울의 순교 이전임을 뒷받침해 준다.

(3)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서 사도행전에 A. D. 64년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 네로(Nero)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들 수 있다.

(4) 한편 일부 학자들은(Bleek, De Wette, Keim 등)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암시(눅21:20

-24)가 있는 점을 들어 본서가 A. D.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파괴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5) 그러나 21장의 기록은 하나의 예언이고, 누가는 미래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학설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 (6)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누가는 2년간에 걸친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이 끝났을 때 자신의 기록 생활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이며 본서의 기록 연대를 A. D. 63년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6. ㉠ 본서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에는 본서의 기록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는 자료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 그래서 학자들은 본서의 저작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을 주장한다. 즉 아가야와 보이오티아설(Jerome), 로마설(Holtzmann, Hug, Keim, Lekebusch, Zeller), 가이사라설(Michaelis, Schott, Thiersch, Tholuck), 소아시아설(Hilgenfeld, Overbeck), 에베소설(Köstlin), 고린도설(Godet) 등이다.
- (3) 그런데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었을 때 쓰여졌다면 본서는 바울과 누가가 가이사라를 떠나기 전에 또는 그들이 로마에 도착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쓰여졌을 것이다.
- (4) 본서의 집필 장소가 어디든 분명한 사실은 누가가 팔레스틴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수집한 많은 자료들을 본서에서 반영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의 선교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 이방의 땅에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7. ㉠ 본서의 내용상 두드러진 특징을 말하여라.

- ㉠ (1) 첫째는 보편 구원설이다. 이 특징은 구원의 약속을 ‘이방을 비추는 빛’(2:32)으로 묘사한 사실과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인 나아만에 관해 언급하는 예수의 나사렛 설교(4:25-27), 대잔치 비유(14:23),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과 회개에 전해지리라는 말씀(24:47) 등에도 잘 나타난다.
- (2) 둘째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다. 이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부자들에게 화를 전하는 설교(6:20-26)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의 빛진 자, 어리석은 부자, 망대를 세우는 자, 부자와 나사로 등의 비유와 구제, 쉬는 것, 여흥에 관한 언급에서도 볼 수 있다(2:7; 7:36-50; 9:12; 10:38-42; 11:41; 12:33; 13:26; 21:37 등).
- (3) 셋째는 버림 받은 자, 죄지은 자, 사마리아인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이는 5:1-11; 7:36-50; 9:51-55; 10:29-37; 17:11-19; 18:9-14; 19:1-10; 23:39-43 등에 나온다.
- (4) 넷째는 여인들에 관한 관심이다. 이 관심은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나인 성의 과부, 회개한 창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의 봉사, 마르다와 마리아, 잃어버린 동전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등에 언급된 여인들에 관한 묘사에서 예증되고 있다.
- (5) 다섯째는 기쁨, 기도, 성령에 대한 강조이다. 기쁨은 ‘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2:10)을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에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기도에서(5:16; 6:12; 11:1; 22:32, 41, 42; 23:46), 성령은 4:1, 14; 10:21; 24:49에서 잘 나타나 있다.
- (6) 여섯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한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서에서 예수를 가리켜 ‘주’라는 칭호를 10회 이상 사용한 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참조, 7:13, 19; 10:1).
- (7) 일곱째는 수난에 대한 관심이다. 본서에는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리라는 예수 자신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9:51; 12:50; 13:32; 22:37).

8. ㉠ 본서에 나타난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 ㉠ (1) 흑자는 누가가 거의 기원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약의 저술자들 가운데 유일한 문학자라고 주장하였다(Moulton). 이처럼 본서의 문체나 구문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본서는 문체에 있어서 셈어적인 문체(Semitic style)와 헬라어의 고전적인 문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히브리어, 아랍어 또는 그 두 가지가 다, 70인역의 표현법(septuagintisms) 등이 나타나 있다.
- (3) 그리고 누가는 구문(structure)에 있어서도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가 사용한 주요한 구문 형식으로 교차 대귀법(chiasm), 즉 반대 순서로 반복해서 주제들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4) 또한 반복과 변형(repetition and variation)이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때때로 어떤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표현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표현했다(1:80; 2:40, 52).
- (5) 그리고 배열과 집중(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이다. 누가는 어떤 용어를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 번 사용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용했거나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6) 용어에 있어서도 누가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에 사용된 몇 가지 용어를 바꾸어 표현했다. 예를 들면 서기관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그람마투스〉 대신에 율법사를 의미하는 〈노미코스〉로 사용하였다 (참조, 7:30; 10:35; 11:45, 46, 52; 14:3).
- (7) 결론적으로 본서에는 언어와 문체 그리고 구문에 있어서 누가의 문학적인 창작 능력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9. ㉠ 누가는 본서에서 성령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 ㉠ (1) 누가는 예수의 활동에 있어서나 사도들의 활동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것은 성령에 관해서 마태복음에 12회, 마가복음에 6회 언급된 반면 본서에 17회나 있고 거기다가 사도행전의 57회까지 합치면 74회나 언급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참조, 행 1:8; 2:4, 33, 38; 5:32; 8:15).
- (2) 그 예로서 누가는 본서에서 성령이 엘리사벳(1:41)과 세례 요한(1:15), 마리아(1:35), 사가랴(1:67), 시므온(2:27)에게 역사했다고 증거하였다.
- (3) 그리고 그는 예수가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으며(4:1), 구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고(11:13) 보내신다는 약속을 언급하였다(24:49).
- (4)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공적 활동기로 들어갈 때(4:14)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변천될 때 성령께서 예수와 교회 사이에 중요한 연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참조, 행 1:8).
- (5) 즉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는 그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었지만 교회 시대에는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 및 교회와의 관계를 맺어 주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10. ㉠ 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과 그 교훈은 무엇인가?

- ㉠ (1)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 여러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그중에도 마태복음에 3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4회 언급된 데 비해 본서에는 11회나 언급되어 있다.
- (2)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결단이 필요할 때 더욱 기도에 힘쓰셨다. 즉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3:2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최초의 논쟁을 하시기 전에(5:16), 12사도를 택하실 때(6:21),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전(9:18), 변화산상에서(9:29),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11:1),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3:34, 46) 기도하셨다.

- (3) 이것은 기도란 특히 위태로울 때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왕하19:4; 스10:13; 시102:17; 109:4; 롬12:12).
- (4)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기도문과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11:1-13),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18:1-18)를 들어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셨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18:11-13)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와 인정치 않는 기도와의 차이점을 교훈하셨다.
- (5)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독특한 부분, 즉 베드로의 당할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의 모습(22:32, 40) 등이 기록되어 있다.
- (6) 그리고 누가는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했는데(11:8; 18:1; 21:36) 이 같은 사상은 바로 바울과도 공통되는 점이다(롬12:12). 이와 같은 기도의 강조는 누가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가리킨다.

11. ㉠ 본서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라.

- ㉠ (1)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테이>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
- (2) 즉 예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했고(2:49),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셔야만 했다(4:43).
- (3) 또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9:22; 마16:21; 막8:31)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곧 십자가에 달리실 길을 가셔야만 했다(13:33).
- (4)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에 들어가기 이전에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다(24:7, 26, 44-47).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셨다.

12. ㉠ 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라.

- ㉠ (1) 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 (2) 이 말은 1:2의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이라는 문구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 (3)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8:4-15)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예수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 (4) 그리고 누가는 예수의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4:22, 32, 36)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의 말씀도 성취되었음을(4:16-21; 19:32) 언급하였다.
- (5) 그러므로 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헬, 로고스)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照明)을 통해 역사하는 말씀(헬, 레마)으로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Kittel).

13. ㉠ 본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

- ㉠ (1)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1:26-33),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용어를 예수께 사용했다(1:32, 33, 68-75).
- (2) 그리고 구세주가 오신 것은 이방인에게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밝았음을 선포하였다(2:25-38).

16 누가복음 서론

- (3) 또한 예수 자신도 열 두 살 되던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2:42-49).
- (4) 뿐만 아니라 누가는 물고기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로서 예수의 행위를 언급하였다(9:10-17). 그리고 나서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의 승천에 관한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9:10-20).

14. ㉠ 본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을 지적하라.

㉡

내 용	예 언	성 취
여자의 후손	창3:5	2:7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	창12:3; 18:18	3:34
야곱에게 약속된 자손	창28:14; 민24:17	3:34
유다 지파의 후손	창49:10	3:33
베들레헴 탄생	미5:2	2:4-7
탄생의 시각	단9:25	2:1, 2, 4-7
동정녀 탄생	사7:14	1:26-35
유대인들의 배척	시2:2; 사53:2	4:29
성경	시45:7; 사11:2-4	2:52; 4:18
죄인들과 함께 묵박함	사53:12	23:33
원수를 위하여 기도함	시109:4; 사53:12	23:34
부활	시16:10	24:36-48
승천	시68:18	24:50, 51

15. ㉠ 본서의 별칭을 ‘인자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인자(人子)’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다(겔2:1, 3, 6, 8; 3:1, 3, 4, 10, 17, 25; 4:1; 단7:13; 10:16).
- (2) 특히 단7:13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칭호는 그 개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인격화시킬 때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으나(Herbert G. May) 보다 깊은 의미에서 메시아를 제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Kennedy).
- (3) 그리고 히브리서에 인용되기도 했던 시8:4의 ‘인자는’ 인간과 동등하게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참조, 히2:6, 9, 10).
- (4)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묘사된 ‘인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사용되어 그의 구속하시는 사역에 적용되었다(19:10; 마9:6).
- (5) 한편 묵시 문학 시대에서도 ‘인자’에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에 적용되어 불리어지기도 했다(참조, 외경 에녹37-71장; 에스드라하13:1-4).
- (6) 그러나 예수께서 ‘인자’라는 용어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사용한 것은 단순히 이러한 묵시 문학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묵시 문학에 나타난 인자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Champell, Strachen).
- (7) 그리고 이러한 묵시 문학적 배경으로 인해 예수께서 전도 활동하실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 ‘인자’라고 불렀던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 (8) 따라서 본서가 ‘인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네 생물의 형상 가운데 그 얼굴 모양이 사람의 얼굴로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7:13)와

계시록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붙여지게 된 것이다(참조, 제1:13).

- (9) 또한 그 명칭은 본서에서 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한 것에 깊은 연관이 있다(참조, 6:20-26;9:12;10:38-42;11:41;12:33;13:26;21:37 등).

16.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서언: 기록 목적과 방법/1:1-4
- (2) 인자(人子)로 오신 그리스도/1:5-4:13
- ① 출생 설화/1:5-2:52
 - ② 세례 요한의 사명/3:1-20
 - ③ 인자의 세례받으심/3:21, 22
 - ④ 인자의 족보/3:23-38
 - ⑤ 시험받으신 인자/4:1-13
- (3) 인간을 위한 인자의 사역/4:14-9:50
- ① 갈릴리 전도의 시작/4:14-30
 - ② 인자의 권위/4:31-6:11
 - ③ 사역의 일꾼들/6:12-49
 - ④ 사역의 발자취/7:1-9:50
- (4) 배척당하신 인자/9:51-19:27
- ① 사마리아의 배척/9:51-56
 - ② 세상에 얽매인 자의 배척/9:57-62
 - ③ 제자 70인의 파송/10:1-24
 - ④ 율법사의 배척/10:25-37
 - ⑤ 베다니 나사로 집안의 영접/10:38-42
 - ⑥ 기도예 관한 교훈/11:1-13
 - ⑦ 예수와 바알세불/11:14-36
 - ⑧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배척/11:37-42
 - ⑨ 배척당하며 베푸신 교훈/12:1-19:27
- (5) 인간을 위한 인자의 수난/19:28-23:56
- 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19:28-21:38
 - ② 배반과 재판과 죽음/22:1-23:56
- (6) 인간 앞에서 증거되신 인자/24:1-53
- ① 사망에 대한 승리자/24:1-12
 - ② 예언의 성취자/24:13-35
 - ③ 부활 생명의 양식(樣式)/24:36-43
 - ④ 교회의 머리/24:44-48
 - ⑤ 성령을 주시는 자/24:49
 - ⑥ 주의 승천/24:50-53

17. ㉠ 본서의 중심 요절은 무엇인가?

- ㉠**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23:47).

연구자료

누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상세히 인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비교적 많이 인용되어 있다(참조, 2: 32; 3: 4-6; 19: 10; 24: 47).

장절	내용	출처
1: 15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민 6:3; 사 13:4, 5, 7, 14; 삼상 1:11
1: 17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 3:1; 4:5, 6
1: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단 8:16; 9:21
1: 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 7:14
1: 32, 33	저가 큰 자가 되고...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삼하 7:12-17
1: 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제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창 18:14
1: 46-54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삼상 2:1-10
1: 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창 17:12; 레 12:3
1: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시 72:18; 111:9
1: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삼상 2:10; 삼하 22:3; 시 18:2
1: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시 18:4; 106:10
1: 72, 73	우리 조상을 공홀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창 17:7; 레 26:42; 시 105:8, 9; 미 7:20
1: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말 3:1
1: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홀을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말 4:2
1: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 8:22; 9:2; 42:7
2: 21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창 17:12; 레 12:3

2 : 23, 24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출 13:2, 12; 레 12:1-8
2 :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 52:10
2 :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 42:6; 49:6
2 : 41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출 23:14-17; 신 16:1-8
2 : 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삼상 2:26
3 : 4 - 6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사 40:3-5
3 : 22	성령이...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시 2:7; 사 42:1
3 : 23-38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헐랴오...그 이상은 하나님이니시니라	대상 1:1-4, 24-28; 2:1-15; 3:17; 룻 4:18-22
4 : 4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라	신 8:3
4 : 8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 6:13
4 : 10, 11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라...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 91:11, 12
4 : 12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 6:16
4 : 18, 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 2:18, 19; 35:5, 6; 61:1
4 : 25-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왕상 17:1-9; 18:1, 2; 왕하 5:1-14
4 : 34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시 16:10
5 : 14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레 14:2-32
6 :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출 20:10; 신 5:14; 23:25
6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 할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삼상 21:1-6
6 : 21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 61:2
7 : 2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 2:18, 19; 35:5, 6; 61:1

7:27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말 3:1
8:10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6:9, 10
10: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창 19:24
10: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사 14:12-15
10:27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 신 6:5
11:29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은 1:17-2:10
11: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나와	왕상 10:1-3
11: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문을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나와	은 3:5-10
11: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학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레 27:30; 미 6:8
11:51	곧 아벨의 피로부터...곧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 4:8; 대하 24:20
12:53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분쟁하리라	미 7:6
13: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출 20:8-11; 신 5:12-15
13: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단 4:9-28
13:27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시 6:8
13:29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시 107:3; 사 49:12
17: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레 13:45, 46
17: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 13:49; 14:1-3
17:26, 27	노아의 때에...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창 6:9-7:24
17:28, 29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 듯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창 18:20-22; 19:24, 25
17:32, 33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창 19:26
18:20	간음하지 말라...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17; 신 5:16

19: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만일 뉘 것을 토 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출 22:1; 민 5:6, 7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 이니라	사 49:12
19:38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여...	시 118:26
19:46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사 56:7; 렘 7:11
20:9-16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 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시 80:9; 사 5:1-7
20:17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 니라	시 118:22
20: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저 를 가루로 만들어 흙으리라	사 8:14, 15; 단 2: 34, 35
20:28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 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 이 죽거든...	창 38:8; 신 25:5, 6
20:37, 38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출 3:6, 15
20:42, 43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 셨도다	시 110:1
21: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단 9:27
21: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니라	사 34:8; 63:4; 단 12:1; 호 9:7
21:25, 26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이는 하 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단 8:10; 욥 4:16; 암 5:20; 8:9
21:27, 28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질 32:7, 8; 단 7:13 ; 습 1:14-16; 습 2:6
22:37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사 53:12
22:69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 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시 110:1; 단 7:13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시 31:5
24:46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호 6:2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 49:6

제 1 장 세레 요한의 탄생

단락구분 1.4 누가의 인사말 / 5-25 전사가 세레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다 / 26-38 전사 가브리엘이 그리스도의 잉태를 전하다 / 39-56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잔미 / 57-66 세레 요한이 태어나다 / 67-80 사가라의 예언

-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 2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군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 4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 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 7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 8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 9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 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 11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 12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 13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 15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 17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 18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 20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하더라
- 21 백성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 22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병어리대로 있더니
- 23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 24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 25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 28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 30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 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 3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9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 큰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44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4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이다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공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6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공홀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61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62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63 저가 서편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64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5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66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리라

67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2 우리 조상을 공홀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74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6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흠을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본장에는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 예고대로 탄생한 세례 요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종교는 외식만 남았고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필요가 있었다(갈4:4, 5).
-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할 광야의 예언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5-25, 57-66절).
- (4) 이와 같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써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1:26-35, 51-55).
- (5) 이것은 예언의 성취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다(사7:14; 마1:18). 따라서 누가는 이 같은 확신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1:3, 4).

2. **㉠ 본서를 기록한 누가의 자세는 어떠한가? (1-3절)**

- ㉠** (1) 누가는 처음부터 곧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의 말씀과 사역을 목격한 자들과 복음을 위해 일군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來歷)을 저술하였다.
- (2) 여기서 ‘전하여 준 그대로’는 구전과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가 자신이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자기보다 앞서 복음의 기사를 기록한 자들의 정보와 전승(tradition)의 전달이 타당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본서를 차례대로 기술했다. 이것은 그가 본서를 저술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즉 전승과 먼저 붓을 든 사람들의 글을 자료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정확한 지식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가리킨다.
- (4) 따라서 본서 전체의 기록이 주의 깊은 역사적인 탐구를 통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세례 요한이나 그리스도의 초기 역사를 언급하게 된 이유이다.
- (5)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수단, 즉 병 고침이나 재물에 대한 축복 등만을 강조하며 전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순수한 주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다(참조, 요6:44, 45; 행1:8; 갈1:6-12).

3. **㉠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본서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여기서 ‘그 배운 바’란 예수와 그 복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곧 데오빌로가 예수와 복음에 관해서 전혀 무지한 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 (3) 이처럼 데오빌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모두 배운 인물이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가 배운 진리에 대하여 확신 또는 확실함을 필요로 하였다.
- (4) 그것은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20:27; 마22:23; 행23:8)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Gnostics, 고전6:12-18; 8:1; 13:18; 딤후1:4; 6:20; 딤후3:6; 딤후1:14; 요일4:1-3)의 미혹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 (5) 그와 같은 종교적인 갈등은 단순한 사색을 통하여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복음 기사를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가의 본서신은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며 그를 도와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 (6)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무수한 비진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비진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뿐이다(답후 3:13-17).

4. ㉠ 장차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5-7절)

- ㉠ (1) 사가랴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두 사람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이었다.
- (2) ‘사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지녔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로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레21:14) 이 같은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4) 누가는 이들의 생활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같은 삶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 말은 그들이 전혀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낸다.
- (5) 당시에는 계명, 즉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전승(傳承)된 613개의 규례가 유대인들의 생활을 이끄는 실제적인 법이었다. 이러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들이 행한 것은 곧 내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나타낸다.
- (6)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같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들은 대를 이을 혈육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다.
- (7) 우리에게 설령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을 만한 단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을 고쳐서 장점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시75:7; 147:6; 막10:31).

5. ㉠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때는 언제인가? (8-11절)

- ㉠ (1) 유대 제사장 반열의 차례대로 아비아의 반열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례를 따라서 그 임무를 감당할 제사장을 예비롭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사가랴가 뿔혀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 (2) 먼저 제사장 직무의 유래를 살펴보자.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 일년에 두 차례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다(대상24:1, 6-19).
- (3) 그 후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24반열 중 4반열, 즉 여다야, 임멜, 바수르, 하림 반열만 돌아오게 되었다(스2:36-39). 그리하여 이 4반열이 다시 나뉘어 옛 이름을 취하고 24반열이 되었다.
- (4) 각 반열은 1년에 두 번 일주일씩 매일의 성전 회생 제사를 수행하였다. 이 두 주간 이외에 그들은 또한 3차의 연례적인 순례 절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였다.
- (5) 그런데 흑자에 따르면 당시 제사장의 수가 약 1만 8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고 한다(Jeremias). 따라서 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일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향을 피우는 이 순간은 그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요, 극적인 순간이었다.
- (6) 이것은 사가랴의 일생 중에 바로 이 순간이 유대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의 장(章)이 열리는 시점과 연결되는 순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7)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때에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시

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전12:13; 마6: 33).

6. **㉠ 사가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7, 13, 18절)**

- ㉠** (1)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사가라는 자녀 갖기를 간구했다(7, 13절).
- (2) 여기서 ‘들린지라’는 과거 시제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가라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옛날부터 계속해 왔음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18절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사가라는 나이를 많이 먹어 감에 따라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하리라고 실망하여 체념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 (4)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범 죄의 결과라는 인과적(因果的)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창11:30; 출18:26; 신7:14; 사13:2; 삼상1:6; 사47:9; 렘22:30).
- (5) 그래서 슬하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제사장인 사가라에 있어 슬픈 일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수치로 당하는 요인도 되었다.
- (6)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전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삼상1:26-28).

7. **㉠ 하나님께서는 사가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들을 달라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과 할 일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다.
- (2) 이와 같이 아이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아이를 당신의 종으로 삼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준다.
- (3) 또한 천사를 동원할 필요 없이 그냥 역사를 진행하셔도 괜찮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신 것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대한 특별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렘3:20; 빌4:19).

8. **㉠ 천사는 사가라에게 장차 태어날 그의 아들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전하였는가? (14-17절)**

- ㉠** (1) 첫째, 아들이 없어 슬픔에 잠겼던 늙은 사가라 부부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고대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예고하는 것이니 기쁨을 줄 것이라고 했다.
- (2) 둘째,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7:28; 마11:11)고 전하였다. 여기서 ‘주 앞에’라는 말은 요한의 위대함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만 국한되었음을 의미한다.
- (3) 셋째, 그의 생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민6:5)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제시했다. 댁커(Danker) 같은 학자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요한을 백성을 회개케 하는 제사장적 인물로 보았다.
- (4) 넷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다.
- (5) 다섯째로, 엘리야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에게 개심과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의인의 슬기’ 곧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며, 아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 가정이 본래의 위치, 즉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6) 세례 요한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철저하게 메시아를 위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롬15:2; 빌1:27; 약3:13; 벧전2:12; 벧후3:11).

9. ㉠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에 사가라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18-20절)

- ㉠ (1) 그는 늙고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 (2) 과거에 그토록이나 아들을 열망하면서 기도하였던 사가라가 실제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현재의 자기 사정을 변명하면서 믿지 않았다.
- (3)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창17:17)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은 사가라의 불신적 행동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면서 의심의 대가로 아들을 낳기까지 병어리가 되는 징벌을 받았다.
- (5)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은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 (6) 우리는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과소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상29:12; 대하25:8).

10. ㉠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육신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 (26, 27, 31절)

- ㉠ (1) 부친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며 그 모친은 마리아였다. 그런데 현재는 정혼만 하였지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서 부부 관계를 맺은 상태는 아니었다.
- (2) 요셉은 3:23-38과 마1장에 기록된 족보를 살펴볼 때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 또한 마리아도 3:23-27의 족보를 살펴보면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마1:1).
- (3) 그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한 삶을 살았다. 남편될 사람인 요셉은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마1:19). 그의 아내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보여 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더욱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38절).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정도였고 그 기간 내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처녀는 돌로 쳐죽이게 되어 있었다(신22:23, 24). 따라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 (5) 그런데 이 같은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신앙이나(1:38) 천사의 명령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요셉의 행동은 보통 담대한 신앙이 아니었다(마1:20-25).
- (6)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의 부모가 되리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과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

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다(롬9:11, 16).

11. **㉠** 마리아가 천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라(28-38절).

㉠ (1)

1 차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사의 은혜로운 인사(28절) · 이에 대한 마리아의 두려움과 당황함(29절)
2 차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사의 재확인-천사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매우 특별한 아기 곧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확신시킨다(30-33절) · 마리아가 설명을 요구함-그녀는 아직 남편과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34절)
3 차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천사의 대답(35-37절) ·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마리아의 용기 있는 표현. 이후에 천사가 떠남(38절)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응답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 우리의 환경이나 그 이상의 것들을 동원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민 22:2-35).

12. **㉠**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는 메시야는 어떤 분이신가? (31-35절)

- ㉠** (1) 첫째,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35절의 ‘덮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태어나실 분이심을 가리킨다.
- (2)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32, 35절). 이것은 태어날 아기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하 7:12-14의 말씀과 같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참조, 시 2:7-9; 89:26-29).
- (3) 셋째, 다윗의 위를 계승하실 분이시다(32절).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삼하 7:12-16; 시 89:29; 132:11; 사 9:7). 이 예언들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예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 (4) 넷째, 그의 통치하실 범위와 기한은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지상적 혹은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시 46:7, 11)로 삼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영원한 왕국이다. 이 왕국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국이라 하였으며(롬 14:17),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이라고 표현하였다.
- (5) 이와 같은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는 의미를 통하여서 그가 만민을 구원하실 사명을 지니셨음을 명백히 밝혀 주고 있다.

13. **㉠**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39-42절)

- ㉠** (1)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 엘리사벳의 복중(腹中)의 아이가 뛰놀았을 뿐 아니라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크게 기뻐하였다.
- (2) 그런데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라는 표현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 즉 대개 6개월경부터 힘차게 뛰놀기 시작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 (3) 하지만 15절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복중의 아이의 움직임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움직임이었다. 즉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는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장차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할 메시아의 모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그의 모친의 몸 속에

서 뛰놀았던 것이다(44절).

- (4)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은 그의 모친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해 그녀의 마음에 놀라움과 감사, 사랑을 가득 채워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모친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었다(42-45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요15:11; 롬15:29; 갈5:22, 23).

14. **㉠**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찬가는 무엇인가? (42-45절)

- ㉠** (1) 그녀는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면서 복을 기원하였고,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시켰다.
- (2)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을 기원하면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최상의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적·아람어적 표현 방법으로서(삿5:24; 아1:8) 마리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 (3) 또한 엘리사벳의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모친’이라 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벳이 메시아가 ‘만물의 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시110:1).
- (4)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엘리사벳의 터져 나오는 모든 환성에는 질투심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제사장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투기하기는커녕 이를 기뻐하였다.
- (5) 그런 이유로 1:41-45까지를 ‘엘리사벳이 부른 사랑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 (6)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를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함이 마땅하다(롬9:5).

15. **㉠**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은 후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46-55절)

- ㉠** (1) 마리아의 찬가는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46-48절) ② 하나님의 품성, 즉 그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49, 50절) ③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찬양(51-53절) ④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54, 55절).
- (2) 이와 같은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점이 많다(삼상2:1-10). 그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찬가	한나의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46, 47절)	삼상 2:1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49절)	삼상 2:2
교만한 자를 흠으셨고(51절)	삼상 2:4, 9, 10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52절)	삼상 2:8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들 공수로 보내셨도다(53절)	삼상 2:5, 7

- (3) 이와 같이 유사점이 많은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교육 구조에 기인한다(딤후3:15). 즉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마리아가 매우 기쁨 때에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쁨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5) 또한 수많은 문장 가운데서도 같은 여인인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귀절을 이용했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16. ㉠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6-48절)

- ㉠ (1)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卑賤)함을 돌아보시고 그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가리켜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그 계집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목수의 아내라는 낮은 사회적 신분 에 대한 인식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서 나온 고백이다.
- (3) 즉 나사렛의 목수의 아내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은 데 대한 그녀의 감격과 겸손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함으로 자신의 노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마리아 자신도 구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 (5) 그리고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는 기록은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영화롭게 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사실을 가리킨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가 비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모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마리아에게 소원을 간구하고 축복을 부탁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17. ㉠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51-53절)

- ㉠ (1)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 부자를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와 주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고 찬양하였다.
- (2) 여기서 ‘그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능력은 성도를 돕고 일으키는 데에 사용되며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데도 쓰인다.
- (3)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당신을 반대했던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시며(출15:1-11; 단4:24-27) 겸손한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던 사실(창41:16; 단1:8-21)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찬양하였다.
- (4) 또한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 사실에 대해서는 마리아 자신이 가장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1:48).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린 자를 먹이시는 분이셨다. 여기서 ‘주린’이란 육신과 영적인 배고픔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배고픔(삼상21:1-6; 왕상 17:1-16; 왕하4:42-44; 시37:25)과 영적인 배고픔(사55:1,2; 암8:11)을 채워 주셨다.
- (6)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측은히 여기실 일을(5:27-39; 14:12-14) 예언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 (7)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뱀전5:5,6).

18. ㉠ 마리아는 그의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54,55절)

- ㉠ (1)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신 대로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심을 찬양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창12:3) 이삭과(창26:3,4) 야곱에게(창28:14) 맺으신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신 사실을 가리킨다(사63:9).

- (3)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였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기간은 그리스도의 도래와 복음 선포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증거였다(미7:20).
- (5)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확산되었다.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참조, 창17:8; 출6:7)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서 실현되게 되었다(참조, 갈3:9, 16, 29).

19. **㉠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57-63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13절).
- (2) 당시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거행하고(창17:12; 레12:3) 이웃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습이었다(룻4:17).
- (3)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관습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지닌 요한이라고 지은 것이다.
- (4)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즉 첫째는 아이가 없던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요, 둘째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다(1:16).
- (5) 사가랴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었듯이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삼상15:22).

20. **㉠ 사가랴가 서판(書板)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쓰자마자 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64-79절)**

- ㉠** (1)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
- (2)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20절).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아들이 출생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그 징계가 풀어진 것이다.
- (3) 다시 말하자면 그의 입은 불신으로 인하여 봉하여졌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리게 된 입을 가지고 사가랴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4) 그리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으로 받게 될 백성들의 축복을 예언하였다(68-79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과 불신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 되는 영예도 부여하였다.
- (6)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 즉 욕, 시기, 질투 등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자(참조, 갈5:19-21; 약3:3-18).

21. **㉠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8, 69절)**

- ㉠** (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贖良)하시며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그 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돌아보사’란 말은 ‘방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은혜로 돌보심을 가리킨다.
- (3) 또한 ‘속량하시며’는 ‘구속을 성취시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목적, 즉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속량 행위를 가리킨다.
- (4) 그리고 ‘빨’은 능력(왕상22:11; 단8:3)과 왕권(단7:23, 24; 8:20-23; 계17:12)을 상징하는 것이니만큼 ‘구원의 빨’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원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참조, 시18:2; 132:17).
- (5) 사가라가 구원자를 다윗의 집안과 관계시킨 이유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즉 첫째로, 이 구원자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라는 것과 둘째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을 ‘내 주’(43절)라고 한 바로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 (6)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이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신 종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하다.

22. ㉠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70-75절)

- ㉠** (1) 원수들의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내적 타락과 외적 시험으로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려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이다.
- (2) 이와 같은 구원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물질과 이방,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약의 그것(창26:31; 출14:13; 삼하19:2; 대하20:17)과는 달리 신령한 것으로서 사단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총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창22:16, 17) 기억하여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신의(信義)를 입증하신 것이다.
- (4)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종신(終身)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기서 ‘성결’이란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의’는 구원받은 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 (5) 이처럼 성결과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누릴 특권인 것이다.
- (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생활을 하지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참조, 갈4:8, 9).

23. ㉠ 사가라는 그의 아들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76-78절)

- ㉠** (1) 사가라는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예언하였다.
- (2) 즉 이 고백은 사가라가 자기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 (3) 또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 (4)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볼 수 있듯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선행을 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롬10:9; 엡2:8).

- (5)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있다(마28:19; 행26:17, 18).

24. ㉠ 사가라는 하나님의 공물로 인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78, 79절)

- ㉠ (1) 메시아가 듣는 해처럼 임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여기에서 ‘듣는 해’는 메시아를 가리키며 평강의 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절망과 공포, 두려움과 탄식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 (3)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에게(엡2:1) 생명의 빛을 비취심으로(사9:2; 마4:16) 그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 곧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
- (4) 주께서는 물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고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대하7:14; 시91:15; 사58:9).

25. ㉠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나서서 회개를 촉구하기까지 요한의 성장 과정은 어떠한가? (80절)

- ㉠ (1) 그는 성장하면서 심령(心靈)이 강하여져 갔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서 생활하였다.
- (2) 본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30여 년 간의 전기(傳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심령이 강건해졌으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고독한 생활 가운데 영적인 단련을 받으면서 때가 왔으니 일을 하라는 주의 신호를 기다렸다.
- (3) 이러한 외로운 생활은 그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기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 요단 지역으로 갔다(3:2, 3).
- (4)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0여 년간 빈 들에서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함을 교훈하신다(롬12:12).
- (5) 하나님으로부터 소명(召命)을 받은 자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와 포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기 보다는 그 소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참조, 약1:2-4).

본장의 요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30절).



제 2 장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

단락구분 1-7 예수의 탄생 / 8-15 전사가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을 알리다 / 16-20 목자들의 방문 / 21 예수의 할례 / 22-24 성전에서 예수를 주께 바치다 / 25-35 시므온의 송가 / 36-38 안나의 김사 / 39-40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다 / 41-52 성전에 계신 소년 예수

1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다

하나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

각하니라

20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들은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22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도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 과부 된 지 팔십 사 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39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1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 두 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8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성장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 (2)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의 탄생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이(4절) 선지자들의 예언(미5:2)을 성취시키신 것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8-15절),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25-38절) 등을 통하여서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입증된다.
- (3) 또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급하심으로(49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받으시고(21절) 성인식(42절)을 경험하셨으며, 또한 아들로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51절).
- (5) 한편 본장의 기록은 예수께서 공생애에 돌입하시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이다(참조, 마13:55; 막6:3).

2. ㉠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Caesar Augustus, B. C. 27-A. D. 14)는 천하로 다 호적(戶籍)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 까닭에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 (2) 여기서 ‘천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로마는 당시 14년마다 호적, 즉 인구 조사를 했다. 이 같은 인구 조사에 참여하려면 자기의 고향에서 인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다.
- (3) 한편 이 같은 여행 길에 마리아가 동행하였는데 이때에 이미 이들은 동거 생활에 들어가 있었다(마1:24).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라는 문구는 요셉이 그의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하지만 혹자에 따르면 당시 로마법에는 여자가 직접 호적하러 갈 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lummer). 따라서 요셉이 해산의 기한이 다 된 마리아를 동행한 것

은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좋지 못한 소문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 어쨌든 이러한 일을 통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었다(미5:2).
- (6)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듯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참조, 렘25:9).

3. **㉠**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 강보(襁褓)로 싸서 구유에 누인 이유는 무엇인가? (6, 7 절)**

- ㉠** (1) 그 이유는 사관(舍館)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사관’은 여관이나 객실(참조, 막14:14)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 때때로 사악한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여관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객실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그곳이 다윗 왕가의 고향으로 많은 다윗 계통의 손님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다.
- (4) 둘째는, 베들레헴 마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할 책임이 부여된 사람들, 즉 로마 정부의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비유대인들과 접촉하기를 심히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가능한 한 가정 집이 아닌 공공장소 곧 여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나심은 그의 부모의 극빈성과 아울러 해산의 기미가 보이는 여인에게조차 방을 양보할 줄 몰랐던 당시 사람들의 부패한 도덕성을 말해 준다. 또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의 겸비(謙卑)를 나타내기도 한다.
- (6) 목을 방이 없어서 예수의 탄생을 경험할 수 없었던 사관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명예, 욕심 그리고 아기 뱀 여인에게조차도 방을 내어주지 못하는 도덕적 부패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4. **㉠**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두려워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8, 9 절)**

- ㉠** (1) 그것은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섰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기 때문이다.
- (2) 즉 양들의 울부짖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에 갑자기 거룩하고 능력 있고 빛나는 주의 천사가 목자들 옆에 서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시로 간주되는 천상(天上)의 빛이 비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다.
- (3) 한편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의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하였는데 이것은 복음이 맨 먼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음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이 처음 목격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본서만의 독특한 기사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벧전2:25) 은유하고(요40:11) 헌신적인(요10:11) 양의 큰 목자 예수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 (5)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복음은 여전히 비천한 자, 즉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무리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 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준다(마5:3).

5. **㉠**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어떤 위로를 주었는가? (10-12 절)**

- ㉠** (1)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이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라는 위로를 주었다.
- (2) 여기에서 ‘너희’라는 호칭은 전인류를 가리킨다.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인류와 관계 있는, 즉 전인류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임을 의미한다.
- (3) 또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은 구약의 예언(미5:2)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 (4) 한편 천사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칭호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구주요, 둘째는 그리스도, 즉 기쁨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메시아, 셋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고 지칭하였다.
- (5) 그러므로 천사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직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만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표적이라고 말하였다.
- (6)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찾아가야 될 분명한 표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참조, 시119:105).

6. **Q** 천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심을 어떻게 찬송하였는가? (13, 14절)

- A** (1)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였다.
- (2) 즉 전반부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는 노래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관한 예언이다.
- (3) 그리고 후반부는 그리스도를 평화 주시는 분으로 찬양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닌 분으로서(5:24; 마9:6; 막2:10),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죄에 대한 평화를 허락하심을 가리킨다.
- (4) 이런 진실되기도 영속적인 평화는 택한 백성들 곧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참조, 롬5:1, 10).
- (5) 이와 같이 천사들은 인간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 곧 죄에 대한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하다(참조, 롬5:2).

7. **Q** 목자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15-17절)

- A** (1) 그들은 천사가 가르쳐 준 표적대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사실을 고하였다.
- (2) 여기에서 '빨리 가서'는 '지체함이 없는', '즉시'(at once)라는 의미이다.
- (3) 이처럼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 준 표적만 믿고 지체함이 없이 행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하고 완전한 섬김으로써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참조, 마11:29).

8. **Q**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난 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가? (20절)

- A** (1) 그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모습과 천사의 가르침이 일치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 (2) 즉 목자들은 '구세주', '그리스도', '주'(참조, 11절)가 되신 분이 구유에 있는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위축되지 않았고, 태어나신 그 장소가 비천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다.
- (3) 이와 같이 모든 사건이 그들이 들은 그대로인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 (4) 이처럼 주를 만난 자들의 한결 같은 특징은 예수를 영접한 장소가 어디였든지 간에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성도들도 이 신령한 기쁨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롬15:13).

9. **㉠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1절)**

- ㉠** (1) 그들은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지시한 대로(1:31)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 (2)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모세의 율법(레12:3)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요셉도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이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지녔다(마1:21).
- (3) 한편 할례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며, 또한 인간의 부패한 성질을 제거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그런데 예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히2:16). 또한 그가 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암시한 것이다.
- (5)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그들의 의견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우리들은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다(참조, 요일2:6).

10. **㉠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22-24절)**

- ㉠** (1) 모세의 법대로 결례(潔禮)를 행하고 아기를 주께 드리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斑鳩)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였다.
- (2)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을 말한다. 즉 산모가 사내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수 있었다(참조, 레12:4-6). 이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를 가리켜 ‘결례’라고 한다.
- (3) 그런데 이 같은 결례의 예물은 주로 1년 된 어린 양이었지만 이를 바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반구(산비둘기)로 바쳤다. 따라서 마리아가 비둘기나 반구로 제물을 삼은 것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4)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그들의 장자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출애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장자 재앙에서(출13:12)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구원받은 이래로 그들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른 것이다.
- (5) 이같이 예수가 주께 바쳐졌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을 증보자로서 주께 드림을 상징한다.
- (6) 산모가 결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원죄의 더러움과 부패에서 영적인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참조, 겔18:31).

11. **㉠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5, 26절)**

- ㉠** (1)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 (2)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가리킨다(참조, 사40-55장). 이처럼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의 근원이었다.
- (3) 그러나 이 메시아가 언제 도래하실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인내하면서 소망했다. 이 같은 시므온의 태도는 기도의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 (4)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곧 인간에 대해서는 ‘의롭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건하게’ 살았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열망하며 경건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시므온에게 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응답을 주셨다(26절).
- (6) 본질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준다. 우리는 심판

의 주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의롭고 경건된 삶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비교, 마25: 1-13).

12. C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27-32절)

- A** (1)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성령의 지시(26절)가 실현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가 바로 그가 기다린 메시아임을 찬송하였다.
- (2) 그의 노래 가운데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의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그는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대망(待望)해 왔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향해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 (4) 그러면서도 그는 메시아를 ‘이방을 비취는 빛’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보았음을 의미한다.
- (5)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빛과 같은 형태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무지의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필요로 했고 유대인들은 천대와 학대 속에 살면서 영광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 (6) 우리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과 겸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안는 것이다(참조, 요이1:9).

13. C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께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34, 35절)

- A** (1) 시므온은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예언하였다.
- (2) 그는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장차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함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흥할 것이지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을 가리킨다.
- (3) 또한 그는 아기 예수를 가리켜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르시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23:1-34).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와 그의 복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가는 곳마다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 (4) 이와 같은 시므온의 예언은 엘리사벳의 노래(1:42-45)나 사가랴의 예언(1:68-75)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2:10-14)과는 반대로 어두운 면, 즉 예수께서 비방받는 표적을 지니고 있었다.
- (5)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 아들이 비방받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 (6) 예수께서 비방을 받듯이 성도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이런 핍박을 이겨 내야 한다(마5:10).

14. C 아기 예수가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증거한 여선지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6-38절)

- A** (1)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지닌 바누엘의 딸이었다.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안나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여인임을 나타낸다.

- (2) 또한 그녀는 나이가 많은 과부였다. 본절에는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팔십 사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유대인 처녀들은 14세를 전후하여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때에 안나의 나이는 $14 + 7 + 84 = 105$ 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 (3) 이와 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인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4) 한편 안나는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의 송가(頌歌)를 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송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 (5)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안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이후로 메시아의 증거자가 되었다.
- (6) 이 말씀은 안나가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초림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재림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고전1:7).

15. **㉠** 예수께서는 어떤 성장 과정을 밟으셨는가? (40, 52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 (2) 이 말은 예수께서 정상적으로 성장했음을 나타낸다. 즉 키가 자랐다는 것은 신체적 성장을,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정신적 성장을 그리고 ‘은혜 가운데’는 영적 성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께서 유년기를 통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한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시게 되었다.
- (4) 우리는 주위에서 신앙의 연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영과 육으로 고루 성장하셨듯이 우리들도 신앙의 연령이 깊어짐에 따라 신앙 또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참조, 고전13:11).

16. **㉠** 예수께서 열 두 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41, 42절)

- ㉠** (1)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는 부모를 따라 올라간 설과, 둘째는 예수님이 아직 13세가 안 되었어도 부모는 성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를 성전에 데려갔다는 설이다.
- (2) 당시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너희는 매년 삼 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출23:14-17; 신16:16)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3차례, 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성전에 찾아오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3) 그러나 로마 제국 전역과 타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3번 모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1년에 1번 유월절 때 참석하였다.
- (4) 한편 유대 사회에서는 소년들은 13세가 되면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여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 집단에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며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 (5) 그러므로 아직 13세가 되지 않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신 것은 성년이 되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이자 바로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유월절이었기에 부모를 따라 그곳을 찾아가셨음에 틀림없다.

17. **㉠**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아이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는가? (43-46절)

- Ⓐ (1) 그들은 아이 예수를 친족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 보았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결국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다.
- (2) 여기서 ‘사흘 후’라는 표현은 ‘사흘째 되는 날에’를 뜻한다. 즉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날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 (3) 첫째 날 그들은 예수가 없어진 것을 모른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둘째 날 예수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은 오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서 찾다가 늦게서야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세째 날 그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4) 본절은 그리스도를 찾는 자만이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위안을 잃어버린 자들이나 그와의 관계를 상실한 자들은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리스도와 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참조, 계2:5).

18. ⓐ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성전에서 발견하였을 때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46, 47절)

- Ⓐ (1) 그때에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
- (2) 선생들은 이러한 예수의 지혜와 답변에 대해서 기이히 여겼다. 여기서 ‘기이히 여겼다’는 표현은 마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 넋을 잃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여기서 ‘선생들’이란 랍비 곧 율법 학자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선생들과 대화를 나눈 이 사건은 아이 예수가 지적 이해력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소년들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이 같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는 깊은 통찰력, 즉 사물들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지적 능력과 이해력을 보여 주었고, 선생들의 어려운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함으로써 그의 놀랄 만한 지적·영적 성장을 나타내 보였었다.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할 지적인 부분의 성장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체험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히2:14, 17, 18; 4:15, 16).

19. ⓐ 예수께서는 걱정하면서 찾았다는 부모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49절)

- Ⓐ (1)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서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곧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표현을 예수께서 사용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3) 또한 ‘있어야 될 줄을’이란 표현은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는 당위성(I must be)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 (4) 한편 ‘내 아버지 집’을 KJV에서는 ‘내 아버지 일’(about my father's business)이라고 번역되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심은 예수께서 12살밖에 안 되었지만 예수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깊이 자각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 (5)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참조, 고전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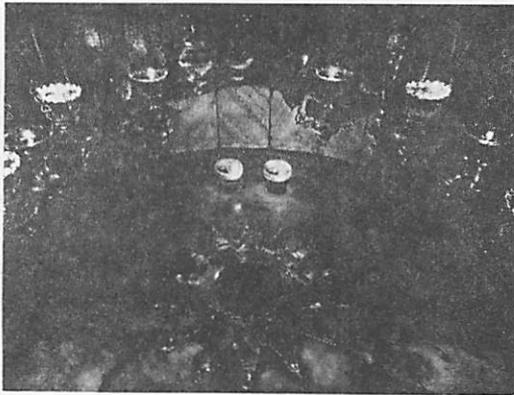
- (6)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찰스 쉘돈).

20. **㉠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받들었는가? (51절)**

- ㉠** (1) 예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2) 여기서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번역된 헬라어 <헨 휘포타쏘메노스>의 형태는 수동태 미완료형으로 계속되는 습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음을 의미한다.
 (3) 예수께서는 이후 18년간 나사렛에 살면서(참조, 3:23) 성장하시고 이제 다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마13:55) 나사렛의 목수(막6:3)가 되셨다.
 (4) 따라서 본절의 기록은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18년간의 생활을 요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적인 부모에게 복종하셨듯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고 복종하여야 한다(엡6:1; 골3:20).

화보자료

예수 탄생 기념 처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구유(7절) 자리가 바로 이 별 모양의 한복판이라고 한다.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기뻐하여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성육신(成肉身)은 인간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첫 단계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요 3:16).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는 출생시부터 인간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대신 수모를 받으셨으니 곧 마땅한 방 한 칸이 없어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점이다(7절).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탄생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성격의 것이었으므로 그때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의 찬송이 있었다(13, 14절).

제 3 장 세레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족보

단락구분 1-2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다 / 3-14 세레 요한이 회개의 세레를 전파하다 / 15-20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세레 요한의 증언 / 21-22 예수께서 세레 요한에게 세레를 받으시다 / 23-38 예
수의 족보

1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는 지 열 다섯 해
끝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
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무사니아가 아
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
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레를 전파하니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
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
케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파 같으니라

7 요한이 세레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를 피하라 하더나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
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
리라

10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
을 하리이까

11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
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 세리들도 세레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14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
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
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5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

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기 심중에 의논하니

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
는 물론 너희에게 세레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
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
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
에게 세레를 주실 것이요

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
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
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
한에게 책망을 받고

20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21 백성이 다 세레를 받을새 예수도 세레를 받
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
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
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
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24 그 이상은 맛단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벨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
셉이요

25 그 이상은 맛다디야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셀리요 그 이
상은 낙개요

26 그 이상은 마앗이요 그 이상은 맛다디야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27 그 이상은 요안나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28 그 이상은 벨기요 그 이상은 앳디요 그 이
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바담이요 그 이상
은 에르요

29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맛단이요 그 이상

은 레위요

30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아집이요

31 그 이상은 펠레야요 그 이상은 펜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32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33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톤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34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35 그 이상은 스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레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36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벳이요

37 그 이상은 므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벳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38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다.
- (2) 빈 들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는 메시아의 준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사역은 첫째,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 분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한편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기록은 본장을 마지막으로 본서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철저히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본장의 기록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철저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고 헌신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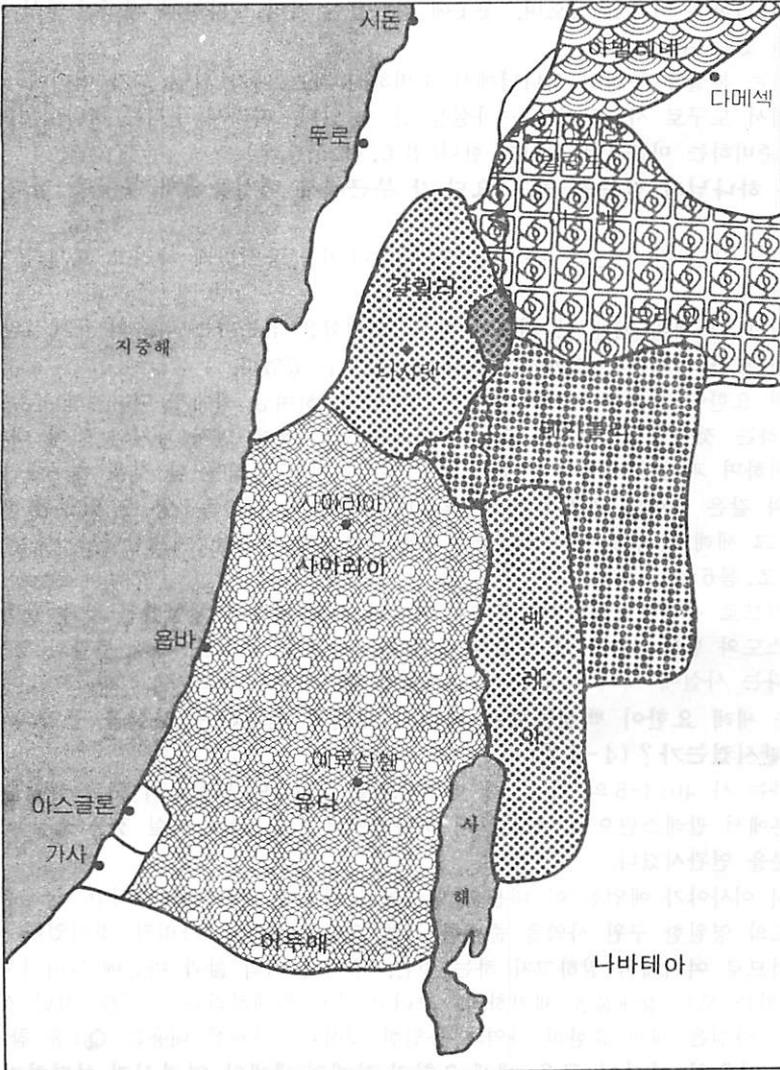
2. **㉠**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때는 언제인가? (1, 2절)

- ㉡** (1)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가 다스리던 15년째 되던 해, 즉 A. D. 26년경에 요한에게 임하였다.
- (2) 여기서 ‘디베료 가이사’는 A. D. 14년 8월 19일 사망한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Tiberius, A. D. 14-37)를 가리킨다.
- (3) 그런데 그는 독자적 통치권을 공식으로 행사하기 2년 전(A. D. 12)부터 로마 원로원에 의해 아우구스투스와 공동으로 로마의 모든 속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 시기는 A. D. 26년경이라고 할 수 있다.
- (4) 그리고 B. C. 37년에 즉위한 헤롯 대왕은 그의 즉위 19년(B. C. 19)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의 첫 유월절을 보내신 때는 성전이 46년째 건축되고 있던 시기였다(참조, 요2:20). 따라서 그때는 A. D. 27년으로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는 A. D. 26년의 후반기이며,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는 그보다 6개월 앞선 A. D. 26년의 전반기로 볼 수 있다.
- (5) 뿐만 아니라 마 2장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죽기 얼마 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 하셨다. 그런데 헤롯은 B. C. 4년 4일경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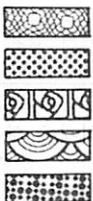
는 B. C. 5년 후반기로 볼 수 있으며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한 때에 30세쯤 되시니라’(3:23)는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예수의 사역 시작 연대를 A. D. 26년의 후반기로, 또한 요한의 사역 연대를 6개월 앞선 A. D. 26년의 전반기로 각각 확정할 수 있다.

3. **㉠**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의 유대 나라의 통치자와 행정 구역을 도표로 나타내어라(1, 2절).

㉠



〈범례〉



헤롯 아퀼라오(B. C. 4 - A. D. 6)의 통치령(마 2 : 22)

헤롯 안디바(B. C. 4 - A. D. 39)의 통치령(눅 3 : 1)

헤롯 빌립(B. C. 4 - A. D. 33)의 통치령(눅 3 : 1)

루사니아(Lysania)의 통치령(눅 3 : 1)

로마 원로원의 직속령

4. **㉠**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는가? (2절)

- ㉠** (1)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
 (2) 즉 요한이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서 메시아에게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곳은 바로 빈 들이었다.
 (3) 이 ‘빈 들’은 서쪽으로는 유대의 산지와 동쪽으로는 사해와 요단의 저지대 사이에 있는 기복이 심한 황무지를 가리킨다. 이곳은 매우 황량한 지대로 메마른 석회질의 땅이 넓게 기복을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잡목들이 자라고 자갈과 깨어진 암석 조각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다.
 (4)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는 때가 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참조, 마25:6, 7).

5. **㉠**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 강 부근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파하였는가? (3절)

- ㉠** (1) 요한은 요단 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2) 여기서 ‘회개의 세례’란 회개한 자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표시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었다.
 (3) 한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요한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과거의 죄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며 과거의 잘못과 관계를 끊겠다는 진지한 결심을 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4) 이와 같은 요한의 세례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권위는 그 세례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참조, 롬6:4).
 (5)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감사 감격해야 할 것이다(참조, 갈2: 20).

6. **㉠** 누가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실을 구약의 어떤 기록과 연관시켰는가? (4-6절)

- ㉠** (1) 누가는 사 40:3-5의 기록,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연관시켰다.
 (2) 당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은 백성들의 해방에 관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킨 것이었다.
 (3)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너의 삶과 마음에 들어가시는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리고 즉시 회개하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7을 참조하라.

7. **㉠**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 글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연관시켜 설명하라 (4-6절).

- ㉠** (1)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4절 사40:3)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설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5절 사40:3)	진정한 회개에 의해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회개를 외치는 요한의 임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5절 사40:4)	겸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은총으로 부요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5절 사40:4)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오만한 태도를 제거하여야 한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5절 사40:4)	굽은 심령 곧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습관들은 모두 교정하여야 할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5절 사40:4)	하늘 가는 길 곧 구원의 길을 막고 방해하던 난관들, 즉 무관심, 냉정함, 고집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6절 사40:5)	유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2) 본절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교만한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총의 길을 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닦아질 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할 수 있다.
- (3)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만을 버리고 불경건한 모든 행위를 멀리하여야 한다(참조, 엡5:3).

8. **㉠**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는가? (7절)

- ㉠** (1)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 (2) 여기서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악인(시58:3-5; 사59:5)과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시91:13)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다(참조, 마3:7).
- (3) 요한이 이와 같이 그들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뿐만 아니라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이면에는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세속적인 명예심 등의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5) 본절의 말씀은 참된 성도라면 형식적인 예배나 외형적인 교회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12:1-12).
- (6)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삼상 16:7; 참조, 마18:35).

9. **㉠** 요한은 진실한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권고하였는가? (8절)

- ㉠** (1) 요한은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 맺기를 권고하였다.
- (2) 즉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먼저 내적으로 변화된 후 그 변화를 행동을 통해 외부로 나타낼 것을 권고하였다.
- (3) 이 같은 요한의 권고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구원은 혈

통과 같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에 있음을 의미한다.

- (4)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우리 조상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조건을 우리의 구원과 관계 없으면,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더라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참조, 겔18:10-20).

10. **㉠ 요한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떤 결과를 당하리라고 하였는가? (9절)**

- ㉠** (1)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도끼’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요한의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한다.
- (3) 요한의 이와 같은 심판의 예언은 일차적으로 A. D. 70년에 발생할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을 의미한다(참조, 말4:1; 마18:8; 막9:43; 요15:6).
- (4)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변화된 모습을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음을 또한 가르쳐 준다.
- (5) 본절의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신앙의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갈6:9; 엡5:8-11).

11. **㉠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묻는 무리들에게 무엇이냐 대답하였는가? (10, 11절)**

- ㉠** (1)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 (2) 요한의 이 같은 대답은 형식적인 제사 의식을 벗어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가리킨다.
- (3) 여기서 ‘옷’이란 외투 안에 입는 남녀 공용의 속옷을 가리킨다. 당시 부유한 자들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두 벌의 속옷을 입고 그 외에 한두 벌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다.
- (4) 요한은 이와 같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발적인 구제’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였다.
- (5)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물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이 마땅하다(참조, 롬14:8).

12. **㉠ 요한은 세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였는가? (12, 13절)**

- ㉠** (1)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 (2) 당시 징세 청부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수출입에 대한 관세나 상품의 통과세에 대한 징세권을 얻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장(19:2)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재판매했으며 세리장은 세리를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 (3) 따라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능한 한 거액의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4)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직책을 이용해서 세금을 과도히 부과하거나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무거운 부담을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 (5) 한편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그들에게 그 직위를 사임하고 더 이상 세무소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다만 그 직위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 (6)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법대로 시행할 것을 명령하신다(참조, 레19:35, 36; 잠11:1).

13. **㉠** 요한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군인들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가? (14절)

- ㉠** (1)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고 대답하였다.
- (2) 당시 그들은 정세를 위한 재산 소득의 신고 과정에서 가끔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봉급 외에도 비인간적인 방법, 즉 위협하거나 강탈함으로써 돈을 착취하여 국가에 바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도 했다.
- (3) 이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그들에게 무장을 해제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짓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죄악에서 보존하는 길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요한이 각 집단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선을 위해 일을 해야지 악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요한의 세 대답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 (5) 본절의 말씀은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시민을 괴롭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잘못된 일이 없는 동료들 상관계 잘못되었다고 고자질하는 행위가 옳지 못함을 교훈한다(참조, 엡6:9; 골4:1).

14. **㉠**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16, 17절)

- ㉠** (1) 요한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장차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증거하였다.
- (2) 요한은 먼저 그의 사역과 그보다 능력 많으신 분의 사역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즉 그는 종의 사역 곧 그의 신들매 푸는 사역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밝혔다.
- (3) 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불처럼 우리의 죄로 오염된 부분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4) 이와 같은 요한의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고(행2:3)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던지실 것이다(참조, 벧후3:7).
- (5)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14:8).

15. **㉠**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인가? (19, 20절)

- ㉠** (1) 분봉왕 헤롯(Herod Antipas, B.C.3-A.D.39)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Herodias)의 일과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요한의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 (2) 여기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란 헤롯이 그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Herod Philip)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결혼한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마 2

장㉓3). 이와 같은 사건은 간음이었을 뿐만 아니라(롬7:2, 3) 율법이 금하는 근친혼이었다(레 18:16; 20:21).

- (3) 이같이 헤롯을 질책하는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요한을 사형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헤롯은 이를 받아들여 요한을 체포했던 것이다(마14:1-12).
- (4) 누가는 본서에서 이 같은 헤롯의 죄를 헤롯이 저지른 악행 중에서 가장 악한 죄였다고 기록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요한에게 손을 대어 그의 복음 전파를 침묵시켰기 때문이다.
- (5) 오늘날에도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불의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평안한 일이 아니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잠29:27).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본받아 어떠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불의에 대하여 담대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의침도 감당해야 한다(참조, 삼하12:7-14).

16. ㉓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21, 22절)

- ㉓ (1)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 왔다.
- (2) 이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성부와 성령의 공동 사역임을 의미한다. 즉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향한 공생을 시작하시고, 성령도 성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협동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며, 성부도 그 일을 시작한 아들에게 하늘을 열고 땅을 향해 기쁨과 승인의 음성을 발하셨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죄인이므로 회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 죄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으로서(사53:6) 의를 성취하시는 걸음의 하나였다(마3:15).
- (4) 한편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죄를 고백하지 않으시고 단지 기도를 하셨다. 이 같은 본서의 기록은 마태복음(마3:13-17)과 마가복음(막1:9-11), 요한복음(요1:29-34)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5) 본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빌4:6).

17. ㉓ 상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습과 특성을 설명하라(22절).

㉓

불	신자의 삶에서 죄를 소멸시키며 성결케 하는 능력(사6:1-7; 행2:3)
바람	깊이 감추어져 있으나 강력하며 중생케 하는 힘(요3:8)
물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힘(요7:37-39)
인침	신자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교호(交好)를 약속하심(엡1:13)
기쁨	사역을 위해 부여되는 능력(행10:38)
비둘기	은유하고 부드러우며 평화스런 속성(막1:10)

18. ㉓ 본서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3-38절)

- ㉓ (1) 본서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소급해 올라가서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전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이른다.
- (2) 이것은 본서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起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이 족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심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을 가리킨다.
- (4) 즉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의 은혜의 초청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며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 (5) 한편 이 족보는 예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째 아담과 대조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둘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다.
- (6) 우리는 예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 (요일5: 18).

19. **㉠** 본서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순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	누가는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다음에 예수의 족보에 관해서 말했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족보는 구약 및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예수로부터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께로 소급시켰다. 이것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3	누가는 단순히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한다	마태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족보를 언급한다
4	다윗 다음으로 나단으로 이어지며 인원수는 34명에 이른다(마태복음과 일치함 스룹바벨과 스알디엘, 27절)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며 인원수는 24명에 이른다(1:12)
5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다말)

20. **㉠** 본서와 마태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다른 이름들이 등장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

- (1) 두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일치하지만,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 (2) 일부 학자들은 그 이유를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제시했으며, 누가는 마리아의 가계에 근거하여 족보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engel, Olshan, Ebrard, Clarke, Ellicott 등).
- (3)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이유를 수혼(媾婚;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의 가능성으로 보았다(Africanus 등). 당시 유대 관습은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부인을 남겨 두고 사망했을 때, 전(前)남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남편의 동생과 재혼하여 아들을 낳을 경우 법률상 전남편의 아들로 취급할 수 있었다.
- (4) 이 이론에 따르면 야곱은 요셉의 생부이고 헬리는 양부이거나 또는 헬리와 야곱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의붓 형제가 되어야 한다.
- (5) 이외에도 예수의 족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이 같은 문제를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고 해서 예수의 족보에 대한 마태나 누가의 기록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 4 장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전도를 시작하시다

단락구분 1-13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다 / 14-15 사역의 시작 / 16-30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시다 / 31-37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다 / 38-41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 / 42-44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잠수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3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들들에게 명하여 떡 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

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말을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뢰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28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29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30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31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32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37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40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42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러 하며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나사렛 전도와 가버나움 전도 등 예수의 초기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 (2) 인류의 타락은 첫째 아담이 마귀 시험에 굴복한 데서 생겨났다. 이제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인성(人性)이 받아야 할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1-13절).
- (3)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뒤 예수의 공생애는 시작된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강한 힘을 힘입어 말씀 전파와 기적을 베풀고 이를 통하여 마귀가 저항하거나 반격할 수 없는 공격을 가하신다(14-44절).
- (4) 예수께서는 한 순간도 신뢰와 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해 나가셨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의 '순종과 신뢰, 인내'를 배워야 한다.

2. ㉠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 강에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1, 2절)

- ㉠ (1) 그때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비교, 마4:1; 막1:12).
- (2)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셨다. 따라서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의 인성(人性)이었다.
- (3) 이처럼 인간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었다. 그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께서 완전한 복종을 배우시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히5:8).
- (4) 한편 예수의 40일 동안의 광야 시련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였던 사건(민14:34)과 모세의 40일간의 시내 산 체류(출34:28), 40주야에 걸친 엘리야의 호렙 산 여행(왕상19:8)을 연상시켜 준다.
- (5)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이를 시기

하는 마귀의 유혹 또한 더욱 기승을 부림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참조, 욥1:6-2:7).

3. **㉠ 예수에 대한 마귀의 첫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2,3절)**

- ㉠** (1) 마귀는 예수께서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고 음식에 관한 시험, 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였다.
- (2) 여기에서 사용된 '만일'의 해당되는 헬라어 <에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같은 마귀의 시험은 다만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려고 했던 것이다.
- (3) 또한 마귀가 떡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사실을 연상시켰다(출16:14, 15).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이적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했었다(요6:30, 31).
- (4) 결국 마귀가 예수께서 들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던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 (5) 우리는 마귀가 굶주린 예수께 가장 필요한 것, 즉 먹을 것으로 시험했듯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창3:1; 대상21:1).

4. **㉠ 예수께서는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4절)**

- ㉠** (1) 예수께서는 신명기 8:3의 말씀 곧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인용 하셔서 대답하셨다.
- (2) 한편 마 4:4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기록이 첨가 되어 있다.
- (3)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간에 들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먹여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 (4) 따라서 예수의 대답은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는 떡이 전부라는 그릇된 마귀의 생각을 책망하고 있다.
- (5)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답변한 내용은 그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6) 우리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낼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고전10:31).

5. **㉠ 마귀가 예수께 시도했던 두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5-7절)**

- ㉠** (1) 마귀는 예수께 천하 만국(天下萬國)을 보여 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다.
- (2) 여기에서 마귀는 세상 권세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이처럼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은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엡2:2). 그러나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 (3) 그런데 마귀가 이 같은 권세와 영광을 주는 조건으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절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귀의 잔악한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만약 예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절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마귀의 두번째 시험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것이었다.
- (6) 성도는 그것이 비록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단호히 뿌리치고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때때로 이 세상에 속한 권세나 명예를 미끼로 성도를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수7:21).

6. **㉠ 예수께서는 마귀의 두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겨 내셨는가? (8절)**

- ㉠** (1) 예수께서는 신 6:13, 즉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겨 내셨다.
- (2) 이처럼 예수께서는 마귀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의 신적 특권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마귀를 정복하셨다. 즉 그는 권위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인간으로서 마귀의 도전에 대처했던 것이다.
- (3)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려는 그리스도(참조, 요5:30;6:38)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려는 마귀(참조, 창2:17)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 (4) 또한 본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주인 곧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교훈한다(참조, 마6:24).

7. **㉠ 예수에 대한 마귀의 세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9-11절)**

- ㉠** (1)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였다.
- (2)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3) 그러나 마귀는 시91:11, 12을 인용하면서 고의적으로 ‘네 모든 길에’라는 귀절을 빼 버렸다. 게다가 여기에 인용된 시편은 택한 백성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아니었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설리를 방해하는 일이나 아무런 보장도 없이 충동적으로 위험 속에서 뛰어드는 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엄히 징계하신다고 가르치지만(참조, 신6:16;18:20;사45:9) 마귀는 이런 진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생략해 버렸다.
- (5) 오늘날에도 마귀는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거짓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참조, 마22:29;고후2:17).

8. **㉠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세번째 시험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의 증거가 될 표적을 충분히 주었으니 더 이상 그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 (2) 이와 같은 예수의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맛사에서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출17:1-7)를 배경으로 하는 신6:16을 인용한 것이다.
- (3) 그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 속으로 던지는 행동이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다.
- (4) 또한 예수께서는 마귀가 인용한 시 91:11, 12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를 위한 것이었지 결코 어떤 무모한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5)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전혀 자기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뿐이다.

9. **㉠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내신 후 누구에 의해 갈릴리로 돌아가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2) 이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강림하시고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다시금 그를 갈릴리로 강하게 인도하셨음을 의미한다.
 (3) 한편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유를 그가 요한의 투옥 사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마4:12; 막1:14).
 (4)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갈5:16).

10. **㉠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가? (14, 15절)**

- ㉠** (1) 예수에 관한 소문이 주위에 널리 퍼져서 그가 친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稱頌)하였다.
 (2) 예수께서 이처럼 칭송을 받은 이유는 그의 가르침에 생동력, 권위, 논리 정연함, 실제적 적용, 흥미, 진리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참조, 31, 32절; 마7:28, 29).
 (3)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온 무리들의 칭송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4) 처음에는 열심으로 찾아왔지만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선입견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자 그들은 반대로 비판적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 적대적 행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본장에도 기록되어 있다(28, 29절).
 (5) 성도는 복음 전도자가 나이가 어리고 불행한 과거를 가졌으며 비천한 집안의 태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딤편4:12-16).

11. **㉠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그의 규례(規例)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2) 여기서 ‘규례대로’는 ‘전에 하던 대로’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나아간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누가는 예수께서 경건 생활을 준행하셨음을 강조한다.
 (3) 이와 같은 누가의 강조는 예수께서 이처럼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준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했다는 사실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4) 예수께서 경건 훈련의 모범을 보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건 훈련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길이며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딤편4:7).

12. **㉠ 예수께서 그의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읽은 성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7-19절)**

- ㉠** (1) 예수께서 인용하신 성경은 사 61:1, 2의 70인역(LXX)으로서 첫째, 사람들에게 이 큰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와 둘째, 이사야의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자신임을 의미한다.
 (2) 이사야의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첫째, 성령을 받은 자이며 둘째, 복음의 선포자이며 셋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 (3) 본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란 제사장(출28:41), 선지자(왕상19:16), 왕(삼상10:1)이 성별(聖別)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 (4)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란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가리켰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한다.
- (5) 그리고 ‘가난한 자’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 놓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소유케 하실 것을 가리킨다.
- (6)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킨다.
- (7)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란 표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가리킨다.
- (8) ‘주의 은혜의 해’란 빛들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50년마다의 회년을 가리키는 것으로(레25:8-17),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시기를 가리킨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 (9)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그가 그의 사명을 똑똑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13. **㉠**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신 후 그 글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는가? (21절)

- ㉠** (1)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오늘날’이란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현재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3) 즉 예수께서 인용하신 사 61:1, 2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자신이 그 메시아이심을 의미한다.
- (4) 성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세상의 심판주로서 장차 재림하리라는 약속(행1:11)도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주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빌3:10-14).

14. **㉠**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2절)

- ㉠** (1) 그들은 모두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히 여겼다.
- (2) 본절의 ‘증거하며’를 RSV에서는 ‘칭찬하며’(speak well of)로 번역하였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 (3) 즉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들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임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기 시작했다.
- (4)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큰 감흥(感興)과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었다.
- (5)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면, 즉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
- (6) 따라서 예수를 기이히 여기며 칭찬하던 분위기가 속덕공론과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돌변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던 자들 가운데서 급격하고도 과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7)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수양(修養)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교훈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요3:36; 8:24).

15. **㉠ 예수께서는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하셨는가? (23, 24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이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그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나사렛에서도 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예언하셨다.
- (2) 여기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의 의미는 의사가 자기 약으로 자기를 고쳐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가버나움과 기타 등지에서 행하신 일들을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분히 예수께 대하여 빈정거리는 어투였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 (4) 이와 같은 예수의 예언은 더 나아가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5) 오늘날에도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시험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성도는 이런 류의 폄박을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은 곧 성도의 소속이 하늘나라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마 5:12; 고전 4:12; 벧전 4:16).

16. **㉠ 예수께서는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셨는가? (25-27절)**

- ㉠** (1) 예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을 때(비고, 왕상 17:1; 18:1; 약 5:17)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은혜를 베푼 일과 엘리사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만을 고쳐 준 사건을(왕하 5:1-14) 인용하셨다.
- (2) 여기서 ‘사렙다’와 ‘수리아’는 모두 이스라엘의 이방으로서,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다(왕상 17:12, 16, 18, 24; 왕하 5:14).
- (3) 이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속사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다. 즉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서 진실되게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마 8:11; 요 6:37).
- (4)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외형적인 열심, 경건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인정하며 참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신 6:5).

17. **㉠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예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8-30절)**

- ㉠** (1) 그들은 격분하여서 일어나 예수를 회당에서 끌어낸 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 (2) 이런 형벌은 과거 남유다의 왕 아마샤(B. C. 796-767)가 세일 자손을 죽일 때에 사용했던 방법으로(대하 25:12)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다.
- (3)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형벌을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께 가하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단지 예수께서 그들을 사렙다의 한 과부나 수리아의 문둥병자보다 더 낮게 취급하시므로 인하여(4:25-27) 그들의 마음속에 살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4) 한편 나사렛은 산 중턱에 건설된 마을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낭떠러지가 많이 있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낭떠러지는 나사렛 동네 남서쪽으로서 그 밑에는 마로나이트 수도원(Maronite convent)이 있었다고 전하여진다.
-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아직 그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셨다.
- (6) 우리는 시기, 질투심이 신앙 생활에 얼마나 큰 적인가를 나사렛 사람들의 행위에서 알 수 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시기나 질투심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갈6:22).

18. **㉠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한 첫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33-36절)**

- ㉠** (1)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하셨다.
- (2) 여기서 ‘더러운 귀신들린’이란 표현은 의학적 분석이라기 보다는 영적인 분석으로서 때때로 육체적 병이나 불구가 귀신의 장난임을 알 수 있다.
- (3) 예수께서는 ‘나오라’는 단 한 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께서는 어떤 주문을 외운다거나 다른 이의 권위를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단지 그의 권위로 명령했을 뿐이다.
- (4) 이와 같은 예수의 명령에 대해 귀신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항복하였다. 우리는 예수의 이 같은 모습에서 그가 이미 악한 영을 정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 (5) 공관 복음서에는 귀신과 더러운 영에 관하여 아래 도표와 같은 회수로 언급되어 있다.

구 분	귀 신	더러운 영
누가복음	23회	5회
마태복음	10회	2회
마가복음	13회	11회

- (6)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주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대신에 이상한 주문이나 마술로 쫓아내려는 것은 잘못이다.

19. **㉠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무엇이라고 꾸짖으셨는가? (34, 35절)**

- ㉠** (1)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라는 질문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셨다.
- (2) 예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의 정체는 때가 이르기 전에 알려지는 것을 금하시는 첫 행동을 볼 수 있다.
- (4)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그분을 잘못 이해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가들의 지도자로 추대할 것을 염려하신 것이고 둘째, 진실한 신자들이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고 참된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7: 18- 23) 세째,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릇된 방법으로 알리는 것, 즉 귀신이 비록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 해도 귀신들에 의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 (5) 한편 우리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주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 즉 불의와 폭력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 **㉠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38절)**

- ㉠** (1)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이 예수께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시기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여인의 사정을 누구

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시몬, 곧 베드로라고 추측할 수 있다(참조, 막1:29, 30).

- (3) 하여튼 그 ‘사람’은 병자가 있는 집에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병자의 아픔을 대신 호소하는 열의를 보임으로써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신 예수로부터 응답(그녀가 완쾌되는)을 받을 수 있었다.
- (4) 이것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다(참조, 9:38).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건강한 삶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中保)의 사역이 요구된다(참조, 약5:13-18).

21. ㉠ 예수께서는 각색 병(各色病) 환자를 가족으로 둔 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40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다.
- (2) 우리는 여기서 ‘일일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 때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고쳐 주신 것이 그 특징이다(참조, 요5:8, 9).
- (3)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 간의 일 대 일의 만남의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한편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는 ‘해질 적’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기 때문이다. 안식일이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시간 중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참조, 창2:2, 3; 출34:21).
- (5)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동일하게 치료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자(신24:17; 시82:2; 말2:9).

22. ㉠ 날이 밝았을 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42절)

- ㉠ (1)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비교, 막1:35).
- (2) 본질의 ‘날이 밝았을 때’를 마가는 ‘새벽 오히려 미명(未明)에’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아직 캄캄하고 동이 뜨기 시작할 무렵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때에 기도하신 것은 그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셨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예수께서 한적한 곳, 즉 조용하고 외진 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 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었다.
- (4) 오늘날 우리는 정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때로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23. ㉠ 예수께서는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래 대답하셨는가? (43, 44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대답하셨다.
- (2) 이와 같은 예수의 대답은 그가 사랑받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의 긴박함을 느끼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 (3) 한편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셨다(18절; 9:48; 10:16 등).
- (4)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말씀하셨음을 의미한다. 즉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 (5) 우리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뜻이 맞는 자들끼리만 서로 복음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골 3:11).

24. Q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43절)

- A (1)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의 주제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혹은 ‘왕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 근원, 목적 등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권은 그의 백성의 마음에 인정되고 그들의 삶에 작용할 뿐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며, 그들로 교회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권속을 이루게 한다.
- (3) 이 같은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주권자라는 중심 사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자씨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13:19; 마 13:31, 32).
- (4)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진리를 확증하셨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이다.
- (5) 한편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마 7:21)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말과 형태만 다를 뿐 근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일치한다.

연구자료

가난한 자와 복음(福音). 본장에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18절).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사 61:1)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말은 마 11:5에도 나오는데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부유한 자들에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참조, 9:1-6; 막 13:10).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의 제자가 된 세례 마태(5:27, 28)도 결코 가난한 자는 아니었다(참조, 5:29). 그렇다면 위의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은 대개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차지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는 그다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마 19:23, 24)는 말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3)는 말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장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

단락구분 1-3 예수께서 시몬의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 4-11 큰 물고기 때를 잡은 기적 / 12-16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 17-26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 27-32 레위를 부르시다 / 33-39 금식에 관한 교훈

1 무리가 웅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계내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9 이는 자기와 밋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좃으니라
 12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14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15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0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2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23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27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좃으라 하시니
 28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30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3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4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때

았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사건과 문둥병자와 증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예수께서 당시 하류 계급인 어부들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받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신 사건은 그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3) 즉 예수께서 베루신 구원의 초대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구원의 필요를 깊이 느끼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회개란 완전한 변화, 즉 지·정·의(知情意)와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서 맞이했던 모든 자들은 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참조, 19:8).
- (5)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할 때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계3:20).

2. ㉠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는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의 배를 타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 (2)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란 팔레스타에서 제일 큰 호수로서 '갈릴리 바다' 혹은 로마식 이름으로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웠다.
- (3) 예수께서 이처럼 배를 타신 이유는 모인 군중의 수가 너무 많아 밀리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참조, 막3:9). 시몬의 배는 밀릴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중을 보다 잘 볼 수 있었고 음향 전달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방법에는 부자연스럽거나 판에 박힌 점이 전혀 없었다. 때로는 회당(4:15)이나 산에서(마5:1), 때로는 광야(막8:1,4)나 묘지(요11:38) 등에서도 가르치셨다.
- (5)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외형적 조건, 즉 환경, 시간, 시설 등을 때론 유효 적절(有效適切)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용'이란 위법(違法)이나 불의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하고 주의 선하신 뜻에 일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3. ㉠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시몬은 그 명령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4,5절)

- ㉠ (1) 시몬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대답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 (2) 이 같은 시몬의 태도는 몇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의미한다.

- (3) 여기서 몇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란 첫째, 시몬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 온 경험이 많은 어부였지만 예수께서는 고기잡는 일에 전혀 경험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둘째,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난 후로 이미 탈진된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물에 던지다는 것이 헛수고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시몬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6, 7절).
- (5)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고 쓸데없는 일같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출4:2-4).

4. **㉠**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명령대로 행하여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 예수께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8절)

- ㉠** (1)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 (2) 이와 같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고기잡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사실과 예수의 신성(神性)을 동시에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3) 이전까지만 하더라도(5절) 그는 예수를 가리켜 랍비 또는 그보다 더 큰 지식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 (4) 그런데 지금은 예수께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 헬라이어 <퀴리오스>로 70인역(LXX)에서는 빈번히 여호와의 대한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 (5)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에 대한 그의 생각이 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는 예수께서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6) 그는 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죄있는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
- (7)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참자아(自我)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로 영접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자(참조, 15:18).

5. **㉠** 예수께서는 고기 잡힌 사건을 목격하고 놀라는 시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가? (9, 10절)

- ㉠** (1)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취하리라’는 말은 헬라이어 <조그레오>로 ‘죽이지 않고 생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마태와 마가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기록하였다(마4:19; 막1:17).
- (3) 친절한 목자되신 예수께서는 시몬의 놀란 감정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즉 지금까지는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물을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생명을 나눠 주기’ 위해 일할 것을 말씀하셨다.
- (4)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은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본서와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개되다가 드디어는 그가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인다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예시하는 것이었다(행10:9-48).
- (5) 예수께서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권고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롬14:8; 고전10:31).

6. **㉠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을 취하라는 예수의 권고를 듣고 어떤 자세를 보였는가? (11절)**

- ㉠** (1)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아갔다.
 (2) 즉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잡았던 그 고기들을 내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고기도 예수께서 알게 해준 진리에 비하면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신 예수께서 물고기를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오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신 예수께서는(요16:12) 아마도 그 잡은 물고기들을 고용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이다.
 (4) 그러므로 그들이 여지껏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입을 올렸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듯이 성도는 재물을 얻고 세상의 명예를 획득할 만한 절호에 기회가 바로 눈앞에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을 과감히 버릴수 있는 신앙의 결단력이 필요하다(참조, 14:33).

7. **㉠ 예수께서는 문둥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2, 13절)**

- ㉠** (1)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2)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 라는 예수의 답변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문둥병자의 간구에 문자 그대로 대답하신 것이다.
 (3) 즉 예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자기와 같이 하찮은 자에게도 예수께서 병을 고쳐 주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는 말로 그의 의심을 종결지으셨다.
 (4)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문둥병자(참조, 레 13:45)에게 손을 내미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그의 사역(마4:23; 8:17)을 수행하심과 동시에 병든 자에 대한 그의 사랑과 인자함, 관심을 나타낸다.
 (5) 한편 혹자는 그 사람의 문둥병을 죄로 인해 감염된 육신의 병으로 보기도 한다.
 (6)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엎드린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영적 문둥병을 자각하고 죄로 불결해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도록 예수께 간구할 때 저는 미쁘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신다(요일 1:9).

8. **㉠ 예수께서는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후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저회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하신 이유는 아마도 민족주의자들이 그를 정치적인 메시야로 내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흥분을 하지 못하게 예방하기 위함인 것 같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조용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다.
 (3)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먼저 일종의 건강 진단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었다. 만일 제사장이 완치되었음을 인정하면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후에는 동족들에게 또한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었다(레 14:1-9).
 (4) 예수께서 이처럼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은 첫째,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과 그의 사랑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 (5) 예수께서는 병을 깨끗케 해주신 후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죄에서 깨끗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골3:15).

9. **㉠**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15, 16절)

- ㉠** (1) 예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2) 본절에서 ‘모여오되’와 ‘물러가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문이 계속 퍼지므로 인하여 무리들도 계속 예수께 몰려왔으며 예수께서도 이들을 계속 피하셨음을 의미한다.
 (3)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몰려왔다. 첫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몰려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얻게 될 명성을 하찮은 명예로 여기셨다.
 (4)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물러나심은 그의 마음을 기도에 쏟음으로써 성부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었다.
 (5)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고 또한 그것이 극히 선한 사업이라고 해도 시간을 정해 놓고 변함없이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참조, 단6:10).

10. **㉠**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8-20절)

- ㉠** (1)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2) 즉 예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자들의 중재에 응답하셨다.
 (3) 예수께서는 이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 자신이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셨다(24절).
 (4) 그런데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앞서서 예수께서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 것은 육체적 질병의 치료보다 죄의 용서가 더 시급하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을 교훈하신 것이다.
 (5) 우리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본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신앙의 이웃들의 기도도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약5:16).

11.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예수의 말씀에 관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21절)

- ㉠** (1) 그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수군거렸다.
 (2) 이처럼 죄 사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여긴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
 (3) 따라서 그들은 ‘죄를 사하여 준다’는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을 곧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4)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비록 그들이 구약에 능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을 갖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참조, 요16:13-15).

12. **㉠** 본절에 기록된 인자(人子)에 관해서 설명하라(24절).

- Ⓐ (1) 본서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총 26회가 언급되고 있는데 본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 (2) 또한 복음서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80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데 요 12:34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본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하였다. 이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순수한 인간’ 또는 ‘이상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 (4) 그러나 단순히 ‘이상적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심판을 손에 쥐신 분이심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것은 두 가지 사상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죄를 위해 겪으실 비천과 고난을, 다른 하나는 인간들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함과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13. Ⓢ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설명하라 (27, 28 절).

- Ⓐ (1) 예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 (2)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계층으로서 창녀 혹은 가장 미천한 자들과 동류(同類)로 취급되었다. 그것은 세리가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세하여 로마에 바치고 개인의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예수께서 당시 반민족주의자요 착취자라고 미움을 받았던 세리를 부르신 것은 그가 세리와 같은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 (4) 레위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자 즉시 전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모든 것을 버리는 소극적인 면과 예수를 따르는 적극적인 면을 모두 보여 준 것이다.
- (5) 한편 누가는 ‘레위’로,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막2:14)로 기록한 반면, 마태복음에는 ‘마태’(마9:9)라고 기록되었다. 이 같은 기록을 볼 때 우리는 ‘레위’가 그의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난 후 새로 얻은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6) 레위는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제자도(discipleship)를 보여 준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히 11:8).

14. Ⓢ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비방하였는가? (30절)

- Ⓐ (1)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였다.
- (2) 그들에게는 식탁에서의 교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지닌 행위였다. 따라서 유대인의 신앙과 생활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데 헌신하였던 그들의 신앙으로는 불경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제자들의 행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 (3) 즉 그들은 인간 쓰레기나 폐물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이 의식적(儀式的)으로 부정하다고 보았다.
- (4) 이 같은 그들의 비난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예수와 제자들이 혐오의 대상이었다.
- (5)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세상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사회의 손가락질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다

(참조, 요일2:9-11). 더우기 그 사람의 인격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을 가지지 않는 새로운 인격, 즉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참조, 고후5:17).

15. **㉠ 예수께서는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31, 32 절)**

- ㉠** (1)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서 '건강한 자'는 '의인'을,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 (3)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그들의 의인인 체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실상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롬3:10).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의인이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과 구원의 필요를 깊이 느끼는 자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신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고후10:5).

16. **㉠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34, 35 절)**

- ㉠** (1) 예수께서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 (2) 이것은 본서에 기록된 예수의 첫번째 비유로서 '신랑'은 '예수'를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옆에 서서 신랑을 수종드는 신랑의 친구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함께 하는 현재가 그가 자비로운 사역을 베풀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결혼 잔치와 같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자연스럽게 슬퍼하며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금식을 강제로 하거나 단순히 기계적인 절차로 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 것을 교훈하신다(참조, 행13:2, 3).

17. **㉠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다는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6 절)**

- ㉠** (1) '새 옷'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낡은 옷'은 유대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서 율법을 오해하여 가르치던 유대주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
- (2)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약이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새 것과 옛 것을 섞으려 하지 말고 새롭고 능력 있고 활기 찬 그리고 기쁨을 주는 예수의 가르침과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 (3)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에 변화를 받은 자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에는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금식이 차지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4) 한편 본서에서는 새 옷을 버려 현 옷을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비유한 반면, 마가 복음에서는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경우 생베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어 버린다고 비유되었다(막2:21).

- (5) 그 까닭은 예수께서 이 예화를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며 여러 번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행했던 옛 습관과 사머니 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제거해야 된다(참조, 골3:7-10).

18. Q 예수께서는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셨는가? (3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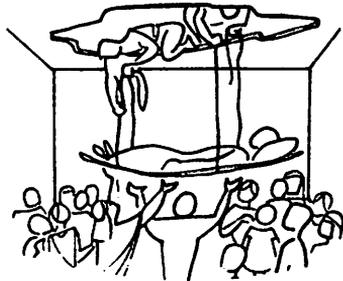
- A** (1)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의 가르침을,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이 패쇄적으로 준수하고 있던 율법을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의 은혜로운 가르침이 율법의 낡은 형태 속에 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염소의 가죽을 이용해서 포도주용 가죽 부대로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무척 탄력성이 좋지만 오래 되면 점점 탄력성을 잃고 새 포도주의 발효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터져 버리고 만다.
- (4) 예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며 기쁨이 없는 금식은 그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 생활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참조, 골 3:11-14).

19. Q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39절)

- A** (1)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 니라’고 비유하셨다.
- (2) 예수의 가르침과 유대주의는 혼합될 수 없다. 새 복음에 참여하려면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옛 종교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하여 율법이 제시할 그 메시야가 곧 자기 자신이며 자기를 통해 성취될 새 언약으로 돌아오길 촉구하셨던 것이다.
- (4)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충실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엄하게 책망했던 것이다(참조, 갈2:14-19).
- (5)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현재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참조, 빌3:8).

본장의 요절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19절).



제 6 장 열 두 사도를 세우시다

단락구분 1-5 안식일의 주인 / 6-11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다 / 12-16 열 두 사도를 세우시다 / 17-19
예수의 치료하시는 능력 / 20-23 복 있는 자 / 24-26 저주받는 자 / 27-36 원수를 사랑하라 / 37-42
비판하지 말라 / 43-45 나무와 열매 / 46-49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어 먹으니

2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병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8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9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12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16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7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도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30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

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 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37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9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떼리라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질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6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49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무리들에게 새 교훈을 주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예수께서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행하는 일이 필수적이고 자비를 위한 일이라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 (3)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교훈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들의 그릇된 신앙 상태를 들추어내시고 의식하는 신앙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다.
- (4)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48절).
- (5) 그러므로 성도는 남의 잘못을 경책(警責)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2. ㉡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기 때문에 비난하였다.
- (2) 나그네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은 위법이 아니었다(신23:25).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는 구실로 비난하였다.
- (3) 즉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자른 행동에서는 추수를 금지한 규정을, 손으로 비빈 행동에서는 탈곡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꺾질을 붙여 날린 행동

은 키질을 대신한 것이며, 먹은 행동은 그들이 양식을 마련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출34:21).

- (4)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참조, 미6:8) 저버리고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하여 예수와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할 때 의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복음의 의미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참조, 요14:15; 갈5:6).

3. **㉠**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3, 4절)

- ㉠** (1) 예수께서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陳設餅)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준 사건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 (2) 여기서 '진설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둔 12개의 떡을 가리키는 것으로(출25:30; 레24:5-9)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레24:9).
- (3) 그런데 예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을 위한 음식으로 율법에서 지정한 진설병을 먹은 사건(삼상21:1-6)을 인용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 (4) 본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을 교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1:5-7).

4. **㉠**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

- ㉠** (1) 예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출20:8-11).
- (3)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특별하신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表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안식에 대한 모형이었다(참조, 출31:13-17; 골2:16, 17).
- (4) 여기서 '인자'는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약에서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그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리면 성도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릴 것을 교훈하신다(참조, 사58:13, 14).

5. **㉠** 서기관에 대하여 설명하라(7절).

- ㉠** (1) '서기관'이란 말은 '계산할 수 있는'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소페르>에서 유래되었다.
- (2) 포로기 이전에는 그 용어가 종교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고 단순히 세속적인 관리에게 적용되었다. 렘36:26에 보면 그 용어가 매매 증서와 같은 법적 문서들을 맡고 있었으며 궁전에 특별한 방을 가지고 있던 한 관리에게 적용되었다.
- (3)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사장 계층에서 율법 해석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서기관이라

는 말이 적용되었다. 그 당시 율법은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은 문필가로서 이스라엘의 성문서를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수집하는 데에도 몰두하였다.

- (4) 게다가 그들은 필사자들, 편집자들 그리고 성경의 본문적 순수성을 수호하는 자들로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이들을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로 묘사하였다.
- (5) 서기관이 율법의 교사요 해석자로서 확고하게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발휘했던 시기는 에스라 지도하의 귀환 시대였다. 에스라 자신도 포로기 후기의 율법 학자의 전형적인 인물로서(스7:6,11,12; 느8:1,4,13; 12:26,36)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요 ‘여호와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스7:10) 서기관이었다.
- (6)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기의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가족들로부터 뽑혀졌으며(대하34:13; 느8:7), 그들 자신의 조직과 족속을 형성하고 있었다(대상2:55).
- (7) 헬라 시대(B.C. 4-2C)에 들어와 서기관 계급에 속해 있던 자들 가운데 백성들로부터 지지자와 동조자를 얻어서 그들 자체의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을 형성하였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라고 불렀다.
- (8) 그 후 서기관들의 역사 혹은 그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역사는 그때부터 바리새파의 역사로 전하여졌다.

6. C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을 엿보았는가? (6, 7절)

- A** (1)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는가를 지켜 보고 있었다.
- (2) 사실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거나 웅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를 끌어내는 등의 일은 했지만(참조, 마12:5, 11)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했다.
- (3)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음으로써 예수께서 어떤 조작된 행위를 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예수께서 병 고치는 일을 엿보았다. 이 같은 그들의 행동은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를 고소할 명분을 찾기에만 급급하였음을 보여 준다.
- (4)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경우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헐뜯기 위해 읽는 경우가 있다. 참된 성도라면 전자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참조, 신17:19; 요5:39).

7. C 예수께서는 송사(訟事)할 기회를 노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 (8절)

- A** (1)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자 그가 일어나 섰다.
- (2) 이것은 예수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만과 속임수에 대한 혐의를 물리치시기 위해 그의 병 고치는 이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음을 의미한다.
- (3) 한편 예수께서 저들의 생각을 어떻게 아셨는지에 관해서 누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실 수 있는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방법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4)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악한 길로 가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예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교훈하신다(참조, 약1:27).

8. **㉠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반문하셨는가? (9절)**

- ㉠** (1)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나’라고 반문하셨다.
- (2) 즉 이것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며 생명을 멸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 (3) 또한 예수의 질문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을 ‘태만’에 해당하는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 (4) 이와 같은 예수의 질문은 전혀 중립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즉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셨다.
- (5)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더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다면 심판의 주 예수께서 그 입에서 토해 내실 것이다(계3:15, 16).

9. **㉠ 예수께서는 열 두 사도를 세우시기 전 무엇을 하셨는가? (12, 13 절)**

- ㉠** (1) 예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 (2) 즉 예수께서는 그가 선택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준비를 위하여, 미래에 성취할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 (3) 그것은 예수께서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6:11)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일이 그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수행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 (4) 한편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예수의 기도하신 행동이 형식적이고 진부(陳腐)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 (5) 또한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기도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킴으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 (6)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본받아 무슨 일이든지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참조, 엠6:18).

10. **㉠ 예수께서 택하신 열 두 사도는 누구인가? (13-16절)**

- ㉠** (1)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고도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매, 마태,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사람 유다였다.
- (2) 이들의 행적에 관해서는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이름	성, 별칭	부 모	고향(집)	직업	저서	성경 및 전승 자료
시몬	베드로 계바 (반석)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벳새다와 가버나움	어부	베드로 전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바벨론 까지 전도. 전설에 의하면 로마 에서 순교(?)
야고보	보아나계	세베대와	벳새다	어부	요한복음; 요한1, 2, 3 서; 계시록	예루살렘과 유대에 전도. 헤롯 왕 에게 참살당함. A. D. 44년(?), 행12:1, 2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우뢰의 아들)	살로메	가버나움 예루살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요나 또는 요한의 아들	벳새다 가버나움	어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 스구 디아, 헬라, 소아시아에서 전도, 십자가에서 순교당함
빌립			벳새다			브루기아에서 전도. 히에라볼리 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하여짐 (?)
바들로매	나다나엘	탈마이	갈릴리의 가나			전설에 의하면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함 (?). 제롬에 의하면 바들로매가 복음서를 썼다고 함
도마	디두모		갈릴리			전설에 의하면 바대. 바사. 인도 에서 전도하다 섬 도마 산에서 순교했다고 함(?)
마태	레위	알패오	가버나움	세리	마태복음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함(?)
소야고보		알패오, 글로바와	갈릴리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했다고 함. 애굽에서 순교
유다	다대오, 르바오	마리아				앗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고 바 사에서 순교했다고 전함
시몬	셀롯 (가나안인)		갈릴리			십자가에 못박혀 순교했다고 함
유다	가롯	시몬	유다의 가롯			은 30에 예수를 팔고 후에 자살 마26:14-16;27:3-5

11. ㉠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
 (2)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참조,시40:17;70:5)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찬송하는 '경건한 자'(시40:17;70:5;74:21;86:1,2)와 동일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교만이나 욕심과 같은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4)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시82:4)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5) 성도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봉착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1:79).

12. ㉠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2) 예수께서는 여기서 '저희 것임이니라'(yours is)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서 현재 하늘나라가 그들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의지

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므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 (5)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항상 불만, 불평 가운데 살고 있다면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시16:11; 126:5).

13. ㉠ 예수께서 현재 주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예수께서는 현재 주린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 (2) 마태는 ‘주린’이란 말에다 ‘의에 목마르고’(마5:6)라는 수식을 덧붙였는데 누가는 여기서 ‘주린’이란 말을 사용하여 마태의 표현까지 함축시켰다.
- (3) 따라서 ‘주린 자’란 ‘영적인 주린 자’ 곧 하나님의 자비와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주림’은 일순간의 주림이 아니라 항상 주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 (4) 또한 ‘배부름을 얻는다’는 표현은 ‘영적인 풀이나 양식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죄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참조, 요10:9, 10).
- (5) 이와 같이 우리의 주림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주림이 중지된다면 예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복되다고 선언하시지 않을 것이다(참조, 사55:1).

14. ㉠ 예수께서는 지금 우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 ㉠ (1) 예수께서는 지금 우는 자들이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우는 자’란 자신의 죄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므로 받게 될 징벌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면서 웃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 (4)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행3:19; 골1:12).

15. ㉠ 예수께서는 인자(人子)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꺾박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22, 23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 때문에 미움과 따돌림과 모욕을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하늘에서 큰 상’이란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가리킨다(참조, 마5:10).
- (3) 따라서 예수께서 ‘하늘의 큰 상’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 곧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일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물려올 것이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암시한 말씀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義)의 꺾박을 받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벧전4:13).

16. ㉠ 예수께서 부요(富饒)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 ㉠ (1) 여기서 ‘부요한 자’란 ‘가난한 자’(6:20)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 (2)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족하며, 자신들의 교육, 학문, 지혜 등을 신뢰하고 세상의 평범한 것들을 신뢰한다.
- (3) 그러므로 '부요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화 곧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경고와 위협이 임하는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신다(잠16:18;21:4).

17. **㉠ 예수께서는 현재 배부른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5절)**

- ㉠** (1) 예수께서는 현재 배부른 자가 장차는 주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배부른 자'란 '주린 자'(6:21)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기 재물만을 신뢰하며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는 자들이다.
- (3)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배고픔이 따르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하신다. 이와 같은 현재와 미래의 대조는 '부자와 나사로'(16:19-31)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시40:17).

18. **㉠ 웃는 자는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 (25절)**

- ㉠** (1) 현재 웃는 자는 장차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웃는 자'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자들로 '우는 자'(6:21)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3) 그러므로 이들도 '부요한 자', '배부른 자'와 마찬가지로 고통이 따르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 (4)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쾌락으로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장차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욥2:12).

19.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달콤한 말로 비위를 맞추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선지자로 세우는 경향이 있다(참조, 미2:11). 왜냐하면 참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므로 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 바꿔 말하자면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명예와 영광만을 구하면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비굴하고 거짓된 아부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3)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칭찬받는 거짓 전도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꼬집어 내어 회개를 촉구하는 선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다.
- (4) 뿐만 아니라 본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동떨어진 사실만을 강조하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목자들을 칭찬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참조, 미3:5).

20. **㉠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무엇인가? (27-36절)**

- ㉠** (1)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핵심은 '사랑'의 요구이다. 예수께서는 사랑하고 싶은 자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 (2)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와 무관한 사랑이요, 사랑의 대상

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킨다.

- (3) 즉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등에 상관없이 그에게 참된 관심을 나타내며 친절로써 서로 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4) 예수께서 이같이 '사랑'을 강조하심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참조, 롬13: 8).

21. C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7-30절)

- A (1)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善待)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 (2) 즉 원수들에 대해서 선대하며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을 징벌을 주시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3)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사랑'(출23: 4,5; 레19: 18)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왜곡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마5: 43).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를 받은 것으로 정죄하고 있었다(요7: 49). 따라서 백성들간에는 미움과 복수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 (5)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미움과 복수'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그의 사랑은 종족, 국적, 당파, 나이, 성별 등의 모든 장벽을 초월하신 것이었다.
- (6)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타산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모든 요소들을 버려야 한다(참조, 엡5: 2).

22. C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죄인들과 비교하여서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는가? (31-34절)

- A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죄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다.
- (2) 여기서 '죄인'이란 이방인들(5: 47)과 세리(5: 46) 그리고 창기와 기타 죄인들이 포함된 소외된 모든 계층을 의미한다.
- (3) 그들도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들만을 선대하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거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돈을 빌려 준다.
- (4)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윤리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참조, 6: 35).
- (5) 성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동일한 환경에서 '죄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마 5: 46, 47).

23. C 예수께서는 물질로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38절)

- A (1) 예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가마니에 가득 차도록 곡식을 쟁여 담은 풍성함을 비유한 것으로서, 채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 (3)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 환경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 날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참조, 마25:34-40).

(4)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풍성하게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고후9:6).

24.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39, 40절)

- ㉠** (1)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그 결과는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소경이 영적 소경을 인도하고 지도한다면 인도한 자는 물론 인도함을 받은 자까지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
 (3)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경’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빛되신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였으며, 보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게 본다고 말하였다(요3:19; 9:40, 41).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빛보다 어두움에 거하기를 가르쳤다.
 (4) 그러나 예수께서 소경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참선생이신 예수의 훈련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도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다.
 (5) 본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길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인도자로서 행세하기를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마15:14).

25. **㉠** 예수께서 들보와 티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누구를 꾸짖기 위함이었는가? (41, 42절)

- ㉠** (1) 들보는 건물의 서까래로 쓰기에 적절한 무거운 목재를, 티는 미세한 나무 조각이나 밀집을 가리킨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들보와 티의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외식하는 자를 꾸짖으셨다.
 (2)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18:9)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이들의 눈에는 교만과 독선이라는 들보가 들어 있어서 이것이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며 정죄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3)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큰 결점을 고치기 전에는 다른 형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딤후3:16, 17).

26. **㉠** 예수께서 비유하신 나무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3-45절)

- ㉠** (1) ‘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은 내적인 창고요, 저장소이다. 그리고 ‘열매’는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즉 태도, 말, 행동을 의미한다.
 (2)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썩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듯이 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것이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할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는 자신들이 더욱 불의하고 불경건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선한 이웃들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음이 들어 있다(46절).
 (4)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악한 나무’라고 꾸짖으신다(비교, 갈5:22; 엡5:9).

27. **㉠**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는가? (46-49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셨다.
- (2) 즉 이것은 참된 신자의 표가 그의 말이나 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에 있다는 말이다.
- (3) 이 같은 예수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건축 양식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으로서 일단 비가 왔다 하면 보통 사나운 폭풍우를 동반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그로 인해 산에서 탁류가 흘러내려 사람들의 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 (4)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땅을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우는 힘든 작업을 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주위의 돌을 이용해서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
- (5) 그러므로 탁류가 흘러내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탁류’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시련과 궁극적으로 심판 날 받게 될 마지막 시험을 의미한다(고전3:11-15).
- (6) 예수께서 하신 산상 설교의 끝부분에 기록된 본질의 비유는 불신자들이 받게 될 비극적 결말에 대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구자료

인자(人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인자’ (人子)라는 용어가 약 90여 회 나온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사용하신 것이다(5, 22절; 11:30; 마 8:20; 막 14:41; 요 3:13). ‘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 휘오스 투 안드로푸〉인데 여자적(如字的) 의미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칭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인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이 이상(異像) 중에 본 ‘인자’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였던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단 7:13). 둘째, ‘인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관계된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이면 인간 형체를 입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인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즉 신성(神性)과 인간의 몸을 입으심, 즉 인성(人性)을 동시에 시사해 준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꾀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참조, 딤후 2:5, 6).

제 7 장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단락구분 1-10 백부장의 믿음 / 11-17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실했다 주시다 / 18-23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 24-35 예수께서 요한을 증거하시다 / 36-39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香油)를 붓다 / 40-43 두 빛진 자의 비유 / 44-50 예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다

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저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빛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8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좃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오사 그 판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20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2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는 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31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32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팔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33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잠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 예수를 칭찬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들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49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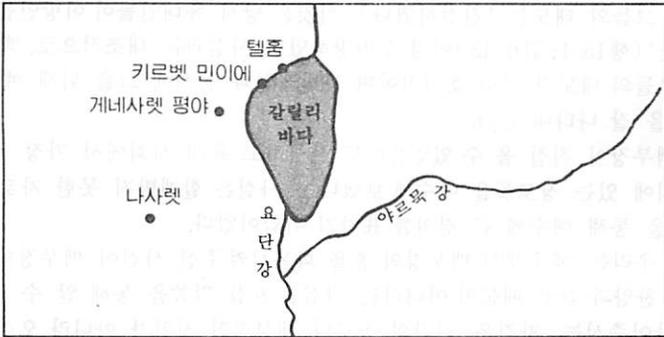
- ㉠ (1) 그리스도께서는 전장(前章)의 가르치심(6:20-49)을 가버나움에서의 두 가지 사건, 즉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일과(1-10절)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11-17절)을 통해 확증하셨다.
- (2)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과 그의 몇몇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 줄과 동시에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경멸하던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셨다(24-35절).
- (3) 또한 그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춘 후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심으로 그녀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셨다(36-50절).
- (4)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보다더 선명히 볼 수 있으며, 오직 참 믿음과 참 회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사53:5; 행10:36; 롬5:1; 엡2:14; 골1:20).

2. ㉠ 예수께서 전장(前章)의 가르치심을 끝낸 후 들어가신 마을은 어디인가? (1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 (2) 이 '가버나움'(헬, 카페르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편 해안 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나움

의 마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명칭 <코페르나훔>을 음역한 것이다.

- (3) 그러나 '가버나움'은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지명이지만 성경에 보면 이 마을이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나훔(나1:1)과 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 (4) 이곳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장소는 게네사렛 평야 북동편 가에 위치하고, 갈릴리 바다 북동 해안을 따라 전개되는 '키르벳(또는 칸) 민이에'라고 알려진 페허 지대와 그보다 북동쪽으로 약 4km 쯤 떨어진 '텔 훔'(Tell Hum) 유적지이다. 그런데 '텔 훔' 설이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이레(A.D.530) 거의 공식적인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키르벳 민이에와 텔 훔은 다음 지도를 참조하라.



- (5) 최근까지의 발굴을 종합해 보면 B. C. 1세기경 이곳은 성벽이없는 마을로 갈릴리 바다를 따라 동서간의 도시 길이가 455m, 북쪽으로는 폭은 227.5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건대 당시 이곳 주민은 기껏해야 1,000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 (6) 한편 가버나움은 예수의 갈릴리 선교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의 공생애의 중심지였다(4:23, 31-38; 마8:5-13; 17:24-27; 막1:21-28; 2:1-12; 요4:46-54; 6:16-59). 그러나 그곳 주민들은 예수의 메시지 선포에 무감각하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말았다(10:15; 마11:23).

3. Q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먼저 누구를 예수께 보냈는가? (2, 3절)

- A (1)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였다.
- (2) 여기에서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군대의 장교로 오늘날 대위 정도의 계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이어 <들로스>는 노예, 즉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고 주인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가리킨다.
- (3) 이러한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유대교의 장로를 예수께 보냈다는 사실은 그 종이 얼마나 주인을 성심껏 섬겼으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는가를 보여 주며, 백부장 역시 그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껏 보살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 (4) 이와 같은 백부장과 그 종의 관계는 오늘날 회사 경영주와 사원, 정치가와 백성 등과 같은 차원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제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아랫사람은 제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일해야 한다. 그럴 때 상호 신뢰가 조성되고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잠 22:29; 골4:1; 딤후6:1).
- (5) 한편 본사건은 마 8:5-13에도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어 부탁하지 않고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께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로들

이 백부장의 부탁을 대언(代言)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부탁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때 별 어려움은 없다(참조, ㉠4). 그리고 종의 병에 대해서 마태는 ‘중풍 병’(마8:6)이라고 기록하였다.

4. ㉠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 예수께 무엇이라고 부탁하였는가? (4, 5절)

- ㉠ (1) 장로들은 예수께 백부장의 종을 구하시는 일이 합당한 일이라고 부탁하였다.
 (2) 즉 그들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준 백부장의 선행을 예수께 고하면서, 그의 종을 낮게 해주어도 충분할 정도의 자격과 가치가 백부장에게 있음을 역설하였다.
 (3)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간절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행15:1; 갈6:13)이라고 비방하였던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백부장에 대한 유대인 장로들의 태도가 극히 호의적이며 자발적임과 동시에 그를 위해 예수께 정성껏 간구하였음을 잘 나타내 준다.
 (4) 한편 백부장이 직접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장로들을 예수께 보냈다는 사실은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그가 존경받는 장로들을 통해 예수께 큰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5) 어쨌든 우리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백부장의 공로에 대한 장로들의 찬양과 간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격은 인간의 공로나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마9:2).

5. ㉠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6-8절)

- ㉠ (1)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堪當)치 못하겠나이다...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나이다’라고 예수께 말하였다.
 (2) 여기에서 ‘감당’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카노스>는 ‘자격이 있는’, ‘적당한’, ‘어울리는’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백부장의 말은 예수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예수를 모셔 들일 만한 자격도 없는 연약한 존재요,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3)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를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가, 천지 만물의 주권자로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 까닭에 그는 예수를 그의 상관과 비교하면서 예수의 말씀만으로도 족히 그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종의 질병을 낮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4) 그의 믿음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환상을 보는 따위의 외적 증거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몸이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요구하지도 않았다(참조, 행19:12). 단지 예수의 말씀 한 마디면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5) 이와 같이 진실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온 우주의 주권자와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아 가야 한다(참조, 엡4:13-24). 이것이 신앙 생활의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참조, 딤후3:15-17).

6. ㉠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9절)

- ㉠ (1)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기이히 여기시며, 쫓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이 말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경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믿음보다도 더욱 순결하고 고결한 것으로 여기셨음을 잘 나타내 준다.
- (3) 또한 이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당신은 쫓는 무리들에게 하신 까닭은 그들을 권면함과 동시에 백부장의 순진한 믿음을 관찰하며 그들의 신앙에 모본을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4) 예수의 이 권고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칭찬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마25: 21, 23).
- (5) 한편 백부장의 종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예수께서 ‘네 믿음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종이 나왔다고 기록하였고(마8: 13), 누가는 예수께 왔던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종이 강건(康健)하여졌다고 기록하였다(10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을 향하는 데까지 진보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7. **㉠**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 예수께서 가신 곳은 어디인가? (11절)

- ㉠** (1)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키신 후 나인이란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 (2) 이 ‘나인’은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엘리사가 수넵 여인의 아들을 살린 수넵 지방(왕하4: 8-11)과 모례의 언덕(the Hill of Moreh)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 (3)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나인’은 엔돌 지방에서 가까운 헤르몬의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그곳으로 올라가자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길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다. 바로 이 지점 부근에서 예수께서는 나인 성 과부 아들의 장례식 행열과 마주치셨다.
- (4) 한편 당시에는 열 두 제자와 더불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예수를 그림자처럼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그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과(막14: 50) 비교해 볼 때 아이로니칼한 일이라 할 수 있다.

8. **㉠** 예수께서는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살려 주셨는가? (13-15절)

- ㉠** (1)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죽었던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미에게 주셨다.
- (2) 당시 유대 풍속은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손수건이나 수다리움(sudarium)으로 덮어서 뚜껑이 없는 관(棺架)에 넣게 되어 있었는데, 산 사람이 시체나 시체가 누어 있는 관가를 만진다는 것은 매우 불결한 일로 여겨졌다(참조, 레21:11; 민19:13; 31: 19).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셨음은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사랑이 이런 사회적 부정법(不淨法)을 뛰어넘으셨음을 뜻한다.
- (4) 또한 예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애곡한 사건(왕상17:17-24)과 엘리사가 수넵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 시체 위에 반복해서 접촉시킨 사건(왕하4: 32-37)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의 시체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한 사건(행9: 36-43)과는 달리 단지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 한 마디로 그의 영혼을 죽음의 영역에서 다시 이 땅의 존재로 환원시키신 사건이다.
- (5) 이와 같은 사건은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 등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

도했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참조: 롬8: 2; 고후1: 10; 딤후1: 10).

(6)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활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 주셨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신 것이 단지 한 생명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적인 유대의 회복과도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이제 아들을 잃은 고통으로 피멍이 든 과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께서 베푸신 자비와 위로로 가득 차게 되었다.

(7) 한편 성경에는 나인 성 과부의 아들 외에도 예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두 가지 경우가 더 등장한다. 첫째는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열 두 살짜리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8: 40-42, 49-56; 마9: 18-26; 막5: 21-43)과 둘째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요11: 1-44)이다.

9. **㉠ 예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3-15절)**

- ㉠** (1)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회복시킨 이유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수의 태도는 과부를 돌보라는 율법을(출22: 22, 23; 사1: 17) 준수하심과 동시에 사람에게에게 힘입는 과부를 돌보도록 권면하시는 것이다.
- (2) 이러한 교훈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은 딤후전 5: 3-16에서 참과부의 자격과 참과부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성도들과 교회에게 있음을 설교(說破)하였으며, 야고보 사도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약1:27)이라고 칭하였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구제 사업이, 무리한 교회 건축 등과 같이 쓸데없는 경쟁심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외형적인 제반 업무와 교회 내·외에서 허례 허식에 가득 찬 무분별한 성도들의 생활에 휩쓸려서, 저 뒷전에 내팽개쳐져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 (4) 이외에도 예수께서 그 당시 부정한 일로 취급된 관을 만진 사실은 예수의 사랑이 때로는 사회적 관례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규범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관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를 수용(受容)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다.
- (5)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과자들로 가득 찬 교도소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오지(奧地)에서 전도 사업에 열중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0. **㉠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보고 어떤 태도를 나타냈는가? (16절)**

- ㉠** (1)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고 기록하였다.
- (2) 즉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예수를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로 여겼으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세기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 시작했다는 확신을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3)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바로 자신들 앞에서 엄청난 이적

을 베푸신 예수께서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 (4)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단지 '큰 선지자'라고 불렀고, 그런 식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던 것이다(17절).
- (5) 이 사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는 제자들이 대답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마16: 13, 14).
- (6)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성인(聖人) 중의 하나, 이스라엘의 독립 투사 등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성도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마16: 16)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갈1: 6-12).

11. **㉠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세례 요한은 두 명의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고 예수께 질문하였다.
- (2) 그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과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의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과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책망함으로 인해 헤롯 궁에 속한 감옥(참조, 막6: 25-28)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3:19, 20).
- (3) 이 상황이 요한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오실 메시아께서 불의를 행하는 헤롯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 해방의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리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 (4) 요한은 감옥 속에서도 제자들을 통해 예수의 행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사61: 1)과 별 관계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었다.
- (5) 이와 같은 사실이 요한을 절망과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제자들을 파송해 예수께 본질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 (6) 한편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미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요한(마3:13-17)이 그의 메시아성을 의심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Calvin, Jerome). 따라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 파송이 예수의 명성을 시기하고 의심의 품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행적과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견해를 취한다.

12.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1-23절)**

- ㉠** (1) 예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대답하셨다.
- (2) 이러한 예수의 대답은 간접적인 것으로서 여기에 열거된 여섯 가지 이적은 모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적들이며, 나사렛에서 그가 인용한 바 있는 사61장과 사42: 7의 말씀과 일치한다(4: 17- 19).
- (3) 본절과 관계된 구약의 예언은 다음과 같다.

내용	예언	성취
소경이 보게 되며	사29: 18; 35: 5	마15: 31; 막10: 46-52
앉은뱅이가 걸으며	사35: 6; 61: 1	마15: 31; 행3: 6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사61: 1	17: 14; 마8: 3
귀머거리가 들으며	사29: 18; 35: 5	막7: 34, 35; 9: 25-27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사11:2	14, 15 절; 8: 54, 55; 요 11: 43, 44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사11:2; 42: 1-5; 60: 1-3; 61 : 1, 2	마19: 21-29

- (4) 이와 더불어 예수께서는 그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자신을 메시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 (5) 여기에서 '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혼의 축복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현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요3:15-18).

13. **㉠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 (26-28절)**

- ㉠** (1)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26절), '내 사자(使者)'(27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28절)라고 칭하셨다.
- (2)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미 말3:1에서도 메시야의 사자로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탄생하였기 때문이다(1:11-20, 39-44). 이러한 탄생은 성경에서 예수를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 (3) 이처럼 연극을 상영하기 앞서서 사건의 줄거리와 배우를 소개하는 사회자처럼 예수를 메시야로서 백성들 앞에 소개하고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메시야 왕국을 언급하는 등 세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점철(點綴)되었다.
- (4)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라고 말함으로 메시야의 출현을 명백히 선포하였고, 죄인들이 메시야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으로서 회개를 외쳤으며(1:76, 77; 마3:2), 예수께서 메시야로서 무대 위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셨을 때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3:30)고 겸손히 말하면서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 갔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일같이 이루어 가며(갈4:19)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인해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갈2:20).

14. **㉠ 예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 (31, 32절)**

- ㉠** (1) 예수께서는 이 세대 사람을 유흥에 참여치 않는 어린아이들로 비유하셨다. 즉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哀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인용된 비유는 하나는 '결혼식' 놀이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식' 놀이로서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흥과 분위기를 돋구면서 하는 놀이었다. 즉 먼저 한 편이 결혼식 흥내를 내어 피리를 불면 다른 한 편은 그 곡조에 맞추어 춤을 춰야 했고, 장례식 흥내를 내어 슬퍼하며 흐느껴 곡을 하면 다른 한 편은 그 곡(哭)에 맞추어 가슴을 치며 울게 되어 있었다.
- (3) 이처럼 서로 흥을 돋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 의(義)를 내세우며 세례 요한과 예수를 경멸하고 비난하였다.
- (4)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는다는 명목으로(마3:4)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였고(33절), 예수를 와서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매도(罵倒)하였던 것이었다(34절).
- (5) 오늘날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예수를 구세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의한

자들은 복음을 통한 생명의 초대권을 찢어 버리고,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곡해하며, 말썸대로 살려는 경건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자들로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5. **㉠ 지혜를 옳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35절)**

- ㉠** (1) 예수께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지혜’란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며(고전1:24, 30) ‘자기의 모든 자녀’란 지혜를 행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를 가리킨다(롬9:7, 8). 또한 ‘옳다 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디카이오세>는 ‘바르게 선포되다’, ‘옳음이 밝혀진다’, ‘옳다고 인정된다’라는 뜻을 지녔다.
 (3)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록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곡해되고 비난받으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악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그들에 의해 세계 만방에 바르게 선포되며,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16. **㉠ 예수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36절)**

- ㉠** (1)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할 것을 예수께 청하였다.
 (2) 44-46절의 기록을 볼 때 그가 예수를 초청한 이유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며 선지자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39절) 이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 준다.
 (3) 아마도 시몬은 단지 호기심에 이끌려서 또는 사람들이 ‘큰 선지자’(17절)라 부를 만한 무엇인가가 예수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예수와 같은 귀빈이 자기 식탁에 오시므로 해서 그의 명예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것이다. 또한 예수에 대한 고소할 빙거(憑據)를 찾기 위해 초대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4) 어쨌든 이 사건은 아직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죄인시하며 원수시하는 단계는 아님을 나타낸다.
 (5) 한편 예수께서는 시몬의 모든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대에 응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34절)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도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6)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과 이유로 예수를 모셨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단지 자랑하고 우리의 명예로 삼으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시몬의 신앙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

17. **㉠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37, 38절)**

- ㉠** (1) 그 여인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玉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香油)를 부었다.
 (2) 누가는 이 여인을 ‘그 동리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여인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그 동리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당시 가장 경건한 무리에 해당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의 찌꺼기를 얻기 위하여 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갈 수 있었던 관습의 덕택이었다(참조, 16:20, 21).
 (3) 이 여인은 예수와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고,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

의 눈을 뜨게 하였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예수께 대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의로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 (4) 그 결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대단히 의미 심장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유대 여성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푸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당시 유대 식사 풍습은 낮은 안락 의자에 기대어 식탁을 향해 누운 다음,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식사를 했으며, 식사 때에는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 여인은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의 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 (6)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었다. 이 옥합은 설화 석고(alabaster)로 만든 것인데 이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상품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도 최상의 화장수나 값 비싼 향유가 주를 이룬다. 이처럼 귀한 향유를 그 여인이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께 최선의 겸손을 표현한 것이며,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신이지만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표시였다.
- (7) 이와 같이 예수와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어 놓고 헌신하며 감사하게 된다. 이 현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롬8:10; 갈2:20).

18. **㉠**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 하는 행동을 보고 시몬은 예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39절)

- ㉠** (1) 시몬은 그 사건을 보고 꼼꼼히 생각한 결과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① 예수께서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② 만일 예수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더라면 향유를 붓는 것을 허용치 않았을 것이다. ③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이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는 등등의 생각들이다.
- (2) 예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시몬이 입으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빗진 자의 비유를 들어 그의 잘못된 생각과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셨다(참조, ㉠19).

19. **㉠** 예수께서는 시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가? (40-46절)

- ㉠** (1) 예수께서는 빗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미 시몬의 생각을 알고 계셨음을 나타냈고, 그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하셨다.
- (2) 빗진 자의 비유란 빗 주는 사람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각 오백 데나리온과 오십 데나리온을 빗진 자들에게 탕감(湯減)의 은전을 베풀어 주었을 때 오십 데나리온을 빗진 자보다 오백 데나리온을 빗진 자가 빗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로서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
- (3) 이 비유 가운데 오백 데나리온을 빗진 자는 죄인인 그 여인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죄를 용서해 준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자연스러운 문답법(問答法)으로 시몬 자신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셨다.

- (4) 그와 동시에 똑같은 탕감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감사하지 않는 완악한 바리새인에게 그와 그 여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면서 꾸짖으셨다.

시몬	예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팔레스틴은 사막 지대로서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지를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일이었다
여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시몬	예수께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집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게 되면 환영한다는 의미로서 당연히 환영의 입맞춤을 하게 되어 있었다(참조, 창29:13; 45:15)
여인	예수께서 들어올 때부터 예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시몬	예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타는 듯이 뜨거운 태양 빛을 걸어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큰 위로요 신선하게 하는 일이었다. 감람유는 값싸고 흔한 반면, 향유는 값비싼 기름이다
여인	향유를 예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 (5) 한편 빛진 자의 비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죄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기 때문이다(요3:16, 17).
- (6) 이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선포로, 인간들의 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다.
- (7)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책임을 마땅히 갚아야 할 ‘빛’이라고 표현하였다(롬1:14; 8:12; 15:27).

20. ㉠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8-50절)

- ㉠ (1)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페온타이>는 ‘용서하다’는 뜻을 지닌 <아피에미>의 3인칭, 복수, 완료, 수동태, 직설법 형태이다.
- (3) 이것은 이미 그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죄가 사하여진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 여인의 죄 사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서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께 선물로 받은 것임을 나타낸다(엡2:8).
- (4) 이처럼 현재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선언하신 까닭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을 주심과 동시에 당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시기 위함이었다.
- (5)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50절).
- (6) 이와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그토록이나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1:79)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마26:28; 행2:28; 히9:22).

제 8 장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단락구분 1-3 섬기는 여자들 / 4-8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9-15 네 가지 씨앗 비유의 의미 / 16-18 등불의 비유 / 19-21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 / 22-25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 26-39 거라사에서 귀신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 / 40-48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신 예수 / 49-56 회당장(會堂長)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킨 예수

1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2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3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회할 섬기더라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회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 숨은 것이 창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9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20 혹은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22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회에 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회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26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

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29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귀신이 가담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30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34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35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 귀신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37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41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 이는 자기에게 열 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 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43 이에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노라 하시니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49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52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56 그 부모가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경계하시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4-15절), 등불의 비유(16-18절) 등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며, 예수의 공생애(公生涯) 기간 동안 두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49-56절)
- (2) 특히 본장에는 4장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귀신이 4:34에서 예수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라는 호칭을 사용한 반면, 본장에서는 좀더 발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28절)라고 불렀다.
- (3) 지금까지 예수의 주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지만 본장에서부터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성과 촌으로 그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1절). 예수께서는 이러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비유를 통한 교훈과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다.

(4) 이 일들은 모두 메시아의 사역과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

2. **㉠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는가? (1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頒布)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 (2) 이러한 전도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행해졌다. 예수께서 전도하는 대상은 도시인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과 생활 정도가 낮은 시골 사람들도 다 포함되었다.
- (3) 이 같은 예수의 전도 방법은 오늘날 일부 물지각한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복음 전도를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전도자들이 사람 많은 도시로만 몰리는 현상은 예수의 복음 전도 정신을 왜곡하고 역행하는 처사이다.
- (4) 또한 교회 내에서 지식인층은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만 어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복음을 단지 서로 통하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을 협소화(狹小化)시키고, 도태(淘汰)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무리들이라 할 수 없다(참조, 6:33).
- (5) 예수의 전도 여행은 그의 공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28:19, 20)라는 최후의 유언을 제자들에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의 전도 여행을 대행(代行)케 되었고, 그 물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 (6) 우리도 이 물결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또한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신 것처럼 주의 복음을 들고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야 하며, 우리 후세들에게도 그 물결의 파장(波長)을 전해 주어야 한다(막16:15; 행1:8).

3. **㉠ 예수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여인들은 누구인가? (2, 3절)**

- ㉠** (1) 누가는 그 여인들을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라고 적고 있다.
- (2) 먼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과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 막달라 출신의 여인으로서, 일곱 귀신이 들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를 구해 주시므로 인해 일생을 예수를 위해 헌신한 여인이었다.
- (3)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것을 목격하였고(마27:55, 56; 막15:40; 요19:25),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는 곳을 보았으며(23:55; 마27:61; 막15:47),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집에서 일찍 출발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24:10; 마28:1; 막16:1),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최초의 사람이었다(막16:9; 요20:1-18).
- (4)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는 천사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해 들은 여인 중 한 사람이었다(24:10). 그녀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재산 관리자로서 큰 부자였다. 혹자는 그를 예수께서 요4:46이하에서 고쳐 주신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추측하기도 한다(Godet). 만일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요안나가 예수께 헌신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 (5) 그 외에도 '수산나'(백합화라는 뜻)라는 여인과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수산나'에 대해서는 오직 본절에서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진 바가 없다.
- (6) 어쨌든 이 여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그 후로

는 ‘자기들의 모든 소유’로 예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마도 이 여인들로 인해 예수의 전도 사업에 들어가는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 (7) 이와 같이 참된 헌신의 삶은 예수께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 나는 따위의 외형적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비교, 17:12-19). 그런 까닭에 올바른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참조, 행9:1-9).

4. ㉠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사용하신 비유(譬喻)는 무엇인가? (4-8절)

- ㉠ (1) 예수께서는 각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 (2) 이 비유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 주는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법을 인용한 것으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떨어진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었다.
- (3)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11절)을, 그 씨들이 떨어진 네 종류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각각의 마음을 의미한다.
- (4) 이처럼 예수의 비유는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고, 주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항상 그 대상으로 하였다(13:19, 21; 20:9-19).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다(8절).
- (5) 또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문(關門)이 되기도 한다(H. Ridderbos)

5. ㉡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5, 12절)

- ㉡ (1)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 의해 먹힘을 당했다.
- (2) 왜냐하면 그 씨가 떨어진 곳은 농부가 갈아엎으려고 계획한 작은 길 혹은 통행이 많은 큰 길이었기 때문이다.
- (3) 이런 길들은 그 씨를 숨겨 줄 만한 어떤 피난처도 제공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말과 노새와 사람의 발길에 밟혀 깨어지게 만들고, 그 와중에서도 간신히 살아 남은 몇몇 씨들을 공중 나는 새들의 공격 대상으로 내어 주고 만다.
- (4) 이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길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 혹은 보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한 씨를 밟는 자들이나 먹는 공중의 새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때앗는 마귀를 의미한다(12절).
- (5) 성경에서 마귀에게 먹힌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가롯 유다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말씀을 받기는 받되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차버리고, 마귀에게 굴복하며, 다시 죄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멸망의 특급 열차를 탔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계3:16).

6. ㉢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결과는 어떠한가? (6, 13절)

- ㉢ (1)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일단 뿌리를 내렸지만 습기(濕氣)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었다.
- (2) 예수께서는 이 씨가 떨어진 바위 밭을 가리켜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13절)라고 비유하셨다.
- (3) 이들은 즉시 감동되고 흥분하는 성격의 소유자들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말씀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한다(참조, 겔33:32; 막6:20). 그러나 그들 앞에 고통, 번민, 낙심, 핍박 등이 올 때는 한때에 열심 있던 신앙은 뜨거운 태양 밑에 있는 ‘바위 위 씨앗’처럼 말라 버리고 만다.

- (4) 성경에서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데마(골4:14; 딤후4:10; 몬1:24)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좇으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마19:16-22)이 이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 (5) 이와 같이 거짓 신앙은 꾀박과 환난 앞에서 그 위선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참신앙은 오히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精金)같이 순수해지고 더욱 굳건해지며 그로 인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욥23:10; 시66:10; 사48:10; 히12:11; 뵤전1:7).

7. **㉠**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 14절)

- ㉠** (1) 그 이유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므로 인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씨의 기운(氣運)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 (2)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씨가 떨어진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財利)와 일락(逸樂)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를 비유한다고 말씀하셨다(14절).
- (3)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은 의미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때론 말씀대로 행하며 정직하게 살려고도 힘쓴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황금빛 같은 곡식과 더불어 이 세상에 속한 가시덤불이 나란히 자라나고 있었다.
- (4) 결국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므로 해서 그 가시덤불에 의해 참곡식들은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햇빛을 공급받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이들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 데 있다(16:13; 마6:24).
- (5) 물론 처음부터 어떤 계기에 의해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리켜 성화(聖化)라고 한다(참조, 고전13:11).

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가? (8, 15절)

- ㉠** (1)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른 곳에 떨어졌던 씨들과는 달리 백배의 결실을 하였다.
- (2) 실제로 바벨론 평야와 같은 곳에서는 한 번 풍년이 되면 이백 배의 결실은 보통이고 때론 삼백 배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며, 옥수수 종류는 사백 배의 열매를 수확기도 한다.
- (3)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리킨다(15절). 여기에서 ‘착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칼레>는 ‘숭고한’이라는 뜻으로서, 지혜와 신성함과 의로움을 얻는 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좋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제>는 숭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범하게 자기를 포기함과 너그러운 마음과 넘치는 경건을 의미한다(마22:10; 행9:36).
- (4)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함에 있어서 간과(看過)할 수 없는 한 요소는 ‘인내’이다. 비록 현재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합3:17, 18)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의 자세이다(참조, 히10:36; 약1:4; 5:7).
- (5) 한편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그 중 요성을 강조하였고, 그와 더불어 미세한 출발과 최후의 거대한 수확을 비교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현재는 미약하지만 장차 크게 될 것을 암시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9. ㉠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 (2) 이 말은 사 6:9에서 인용된 말로 ‘비밀’에 해당되는 헬라어 <위스테리온>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啓示)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참진리를 의미한다.
- (3) 또한 ‘다른 사람에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이스 로이포스>는 ‘남은 자들에게’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며 막 4:11에서는 ‘외인(外人)에게’라고 번역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므로 인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도 개와 돼지가 깨닫지 못하듯이, 비유를 들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마 7:6).
- (4)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어다’(8절)라고 외치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달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다.
- (5)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의 비유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금광이지만, 단지 일시적인 구경꾼이라든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의(眞意)를 숨기시는 이중적 작용(二重的作用)을 하는 함정임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예수의 비유와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자가 곧 예수의 제자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다(요 1:15; 8:31; 15:8).

10. ㉠ 등불을 등경(燈臺)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平床)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 (2) ‘평상’이란 헬라어로 <클리네>인데 ‘침상’이나 ‘들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본절에서는 ‘아래’(헬, 휘포카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침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 (3) 따라서 등불을 ‘침상’아래 두거나 어떤 기구(그릇, 헬, 스쿠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발하는 등불의 소임을 다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 (4) 예수께서 이러한 등불 비유로 말씀하심은 믿는 자들도 이 등불처럼 자신들의 빛을 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즉 믿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마 5:14-16).
- (5)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불의, 거짓, 탐욕,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세상의 어두움을(막 7:22, 23)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할 책임이 있다(참조, 갈 5:16-24).
- (6)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의 삶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삶인가, 아니면 그릇으로 덮여져 평상 아래 놓여진 등불인가를 자성(自省)해 볼 필요가 있다.

11. ㉠ 진리의 빛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불의가 성도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날 악인들의 모든 죄

악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참조, 고전 13:10, 12).

- (3)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 계획, 말과 행동 등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죄악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죄악들을 책들(계 20:12)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시며,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12:2; 전11:9; 12:14; 마 10:26; 12:36; 16:27; 막 4:22; 롬 2:6, 16; 고전 4:5; 골 3:3, 4; 계 2:23; 20:12, 13).
- (4)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창 16:13; 대상 29:17; 렘 11:20)을 의식하면서 삼가 행동을 조심하며 빛된 성도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참조, 18절).

12. **㉠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어떤 명칭을 사용하셨는가? (21절)**

- ㉠** (1) 예수께서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육적인 가족들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좋은 집단임을 뜻하는 말씀은 더우기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다(요 19:25-27).
- (3)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임을 나타낸다(막 3:35).
- (4) 한편 본질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①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다. ②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이 말씀과 행함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씀과 행함의 균형 있는 삶’이란 다름아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이 되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거나 또는 마차를 끌고 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礎石)이요, 정석(定石)인 것이다(딤후 3:15-17).

13. **㉠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와 동물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어디로 향하셨는가? (22절)**

- ㉠** (1) 누가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라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 (2) 여기에서 언급된 ‘호수’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킨다. 그런데 누가가 ‘호수’(헬, 리무네)라는 명칭을 사용한 반면, 마태, 마가, 요한은 ‘큰 호수’도 의미하고 ‘바다’도 의미하는 헬라어 <달랏사>를 사용하였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번역되었다(마 4:18; 막 7:31; 요 21:1)
- (3) 사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8km이고, 동서의 길이는 약 12.8km 그리고 깊이는 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할 때에 약 213m나 되는 엄청난 호수로서 족히 바다라고 오해받을 만한 호수이다. 비록 이런 사실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명칭이 다르게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성경 원본의 무오성(無誤性)에 대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4) 갈릴리 호수에 대해 좀더 부연하자면 이곳은 육지 가운데 있는 큰 호수로 물도 잔물이 아니라 소금기가 없는 담수이다. 명칭도 초기에는 긴네렛(‘하아프’라는 뜻)이라 했다가(민 34:11) 게네사렛(마 14:34; 막 6:53), 디베락(요 6:1; 21:1) 등으로 불려졌다.

- (5) 한편 누가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사건을 ‘하루는’이라는 말로 대충 넘어갔지만, 마가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시던 날 저녁에 일어났다고 정확히 밝혔다(막4:35).

14. Q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 이유는 무엇인가? (23-25절)

- A (1) 호수에 광풍이 불어 치므로 인해서 그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거의 침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게 위치해 있고 주위에 헤르몬 산이 있으므로 해서 간혹 헤르몬 산으로부터 발생한 태풍이 호수까지 이르러 풍랑을 일으키기도 한다.
- (3)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만 혼비 백산하여 주무시던 예수를 깨우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있었다. 배를 타면서부터 시작된 예수의 잠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제자들이 두 번이나 부를 때까지 계속되었던 사실은 비록 하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음을 잘 나타낸다.
- (4) 여하튼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이 노련한 어부들도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을 것이다.
- (5)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물에 익숙한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스승을 깨운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내었음을 스승께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피곤한 스승을 깨우는 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 (6) 어쨌거나 그들의 노력은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되었다. 더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후에야 그들은 누워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구조의 간청을 하게 되었다.
- (7) 이 간절한 간청이 결국 주무시던 예수를 깨우게 되었고, 잠에서 깨신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참조, 마 8장 Q 20,21).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있다가 절대 절명(絶大絶命)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큰 위로요 축복이다(참조, 살후3:16).
- (8)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존심 등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도움을 청했을 때 문제 해결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힘이 가장 밑바닥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호12:6; 미7:7; 히12:2).

15. Q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와 마주친 귀신들린 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26-29절)

- A (1)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들린 자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
- (2) 사람에게 있어서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며, 인적이 드물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무덤에 거한다는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귀신들린 자는 수치와 공포를 알지 못했다.
- (3) 이 사람은 본래 거라사 지방 사람으로서 전에는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39절) 한때는 이웃 친지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을 것이다. 귀신들린 초기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고

려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그의 손과 발에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서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도 하였다(29절).

- (4) 그러나 귀신에게 붙잡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그 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이웃의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사회의 방해자로 간주하였다.
- (5)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린 자들은 한결같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자해 행위(自害行爲)를 하며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마8:28-34; 9:32, 33; 12:22, 23; 15:22-28; 막1:23-26; 16:9).
- (6) 그 이유는 귀신의 특성이 더럽고(마10:1), 악하며(10:17, 18), 질병을 일으키며(요2:7),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며(9:39), 범죄를 충동하며(요13:2), 사람을 괴롭히는 일 따위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7) 한편 예수께서 도착하신 거라사 성읍은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그 경계가 호수변까지 이르는 큰 지역이었다.

16. **㉠** 귀신에게 나올 것을 명하신 예수의 말씀에 대해 귀신들린 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28-32절)

- ㉠** (1) 귀신들린 자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相關)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 (2) 비록 이 외침은 귀신들린 자의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에게 들어간 귀신의 외침이었다. 이 귀신이 예수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은, 귀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3) 이 두려움은 귀신이 것처럼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사람으로부터 쫓겨 나 사단을 포함한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無底坑) 속으로(계20:1)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귀신은 궁여지책으로 그 부근에 있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 (4) 한편 흑자는 거라사로 오는 도중에 예수께서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이 일으킨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F. E. Gaebelin).
- (5)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귀신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요16:33; 고후2:14; 요일5:4).

17. **㉠** 귀신들린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30절)

- ㉠** (1) 예수께서 이름을 물으시자 귀신들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하였다.
- (2) 여기에서 ‘군대’에 해당되는 헬라어 <레기온>은 라틴어 <레기오>에서 온 말로 당시 약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1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약 6,000마리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단지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렸음’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다.
- (4) 따라서 ‘군대’(헬, 레기온)란 단어는 귀신 중에서도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귀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5) 이와 같은 막강한 공중 권세를 잡은 귀신들도(엡2:2)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

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참조, 롬 12:21; 딤후4:7).

18. **㉠ 귀신들린 자에게서 나온 귀신들은 어떤 것에게로 들어갔는가? (32, 33절)**

- ㉠** (1) 귀신들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
 (2) 그런데 이런 귀신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예수께 간구한 후 그 간구를 예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루어졌다.
 (3) 이 사실은 귀신들의 영역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낸다.
 (4) 한편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간 결과 약 2,000마리나 되었던 돼지 떼(막5:13)는 '비탈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沒死)'하였다. 이 사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도 더욱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이다.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실증해 보이셨다(참조, 마 16:26).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업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자세로 가정 교육, 사회 교육, 학교 교육, 교회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현대 교육의 모든 맹점(盲點)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19. **㉠ 귀신들이 나간 후 귀신들린 자는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35-39절)**

- ㉠** (1) 귀신들렸던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2) 이러한 사실은 옷을 벗고 짐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였던 과거의 상태(27절)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3)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날의 비참한 상태에서 그를 구해 준 예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의 곁을 한시라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예수의 은총에 보답하는 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4)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다.
 (5) 이처럼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와 재능, 전도의 동기 등을 보시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자신을 섬기게 하신다(참조, 요21:21, 22).
 (6) 이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은 이때부터 귀신들린 자가 아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은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들은 거러사 성읍 사람들에게도 '구원'이라는 예수의 초대장이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
 (7)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를 들어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삼으시기도 하신다. 이런 삶의 엄청난 변화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참조, 요5:5-9).

20. **㉠ 아이로가 예수께 자기 집에 오도록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41, 42절)**

- ㉠** (1) 그 이유는 열 두 살 먹은 그의 외딸이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마태는 마가(막5:22)나 누가와는 달리 '내 딸이 방장(方將) 죽었사오나'라고 기록하였다(마 9:18).
 (2) 이 문제는 처음에 아이로가 그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음을 예수께 고하고 난 후 그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듣고 다시 예수께 아뢰었다고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49절).
 (3)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등 회당 예배의 총책임을 맡은 자였

다. 이런 의미에서 회당장 아이로는 정통 유대교의 대표자요 그 동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4) 이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녔고 그 지방에서 매우 유력한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뿐만 아니라 간구(懇求)까지 하였다.
- (5) 이 사실은 그가 딸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였는가를 잘 나타내 주며 예수에 대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증명해 준다. 이 믿음은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마9:18)라는 고백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 (6) 이러한 호소는 너무나도 감동적이며 간절하였다. 왜냐하면 아이로의 딸은 ‘외딸’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외’(헬,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죽었거나 혹은 죽음 직전에 와 있는 하나뿐인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는데(7:12) 이는 연민의 정을 더욱 느끼게 해준다.
- (7) 우리는 아이로의 간구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즉 기도하는 대상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세상적 직책이나 권세 등을 내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단지 겸손하게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시27:9; 31:16; 렘29:13).

21. **㉠ 아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예수의 옷 가를 만진 사람은 누구인가? (43-47절)**

- ㉠** (1) 열 두 해를 혈루증(血漏症)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었다.
- (2) 여기에서 ‘혈루증’이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을 의미하는데 이 병은 죄악과 저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병을 앓는 환자를 부정(不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멸시와 천대를 하였으며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하였던 것이다(레 15:1-12, 25-27).
- (3) 뿐만 아니라 혈루증 환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며(레 15:20) 그들이 사용했던 침상, 옷, 좌석, 심지어 그러한 것들 위에 있던 모든 물건을 만지는 자들조차도 혈루증 환자와 더불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것이다(레 15:21-24).
- (4) 그런 까닭에 그 여인에게는 성전 예배나 기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여인도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사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는 ‘질문에 혹시라도 회복된 유출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의 옷을 만진 것이 큰 잘못은 아닌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께 나아와 엎드렸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47절).
- (5) 그러면서도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는 백방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도 그녀의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였다. 의사인 누가조차도 그녀의 병을 가리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43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불치병’(不治病)으로 선언한 것은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 (6) 이제 이 여인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 일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 주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가 예수께로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예수께 근접한 위치까지 간 그녀는 그만 예수께 자신의 병을 아뢰을 용기를 잃어버리고 단지 믿는 마음으로 예수의 옷 가를 만지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 (7) 바로 이때 이 여인은 자신에게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혀 왔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완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이 여인은 혈루증 환자가 아니라 혈루증을 앓은 경험이 있던 여인으로 변화되었다.

- (8) 이와 같이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사람들의 눈총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참된 믿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엡3:12; 히4:16; 10:19).

22. **㉠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온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47, 48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의 옷 가를 손 댄 연고(緣故)와 곧 나온 것을 말하는 그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 (2) 즉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신 이유는 첫째, 그녀의 병이 깨끗함을 입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둘째, 예수의 옷 가를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녀의 생각 속에 들어 있는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며 세째, 병 나온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며 네째, 그녀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 (3) 한편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딸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 이 호칭은 헬라이어 <뒤가 테르>로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자애스러운 명칭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4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 여인뿐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딸아’라는 예수의 부름에 두려운 마음(47절)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평안히 가라’는 예수의 말씀에 일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며, 사회 생활과 종교 생활, 가정 생활, 사람들과의 친교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은 ‘딸아’라는 호칭을 제외하고는 7:50에 기록된 죄인인 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두려워 떠는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못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본 사건을 통해 믿음과 구원은 등식(等式)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신앙 생활에 대해 말씀과 간증을 통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전해야 할 것이다(39절).

23. **㉠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아이로에게 어떤 말을 전하였는가? (49절)**

- ㉠** (1) 그 전언자(傳言者)는 아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라고 말하였다.
- (2) 즉 예수께서 아이로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이 제안 속에는 바쁜 예수를 위한 배려(配慮)와 더불어 아이로의 딸이 약간의 호흡이라도 붙어 있다면 모를까 완전히 숨이 끊어진 이상 많은 이적을 베푸신 예수라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단정이 들어 있다.
- (3) 이러한 전언자의 태도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23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사로가 당시에 살아나기 보다는 최후 심판의 날에 살아날 줄로 믿었던 마르다의 신앙과 예수께서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마리아의 신앙 자세와 너무나도 흡사하다(요11:17, 32).
- (4) 이들이 공통적으로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산 자의 주이심과 동시에 사망 권세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요11:43, 44).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思考)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 능력

을 제한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의 사고대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 출32:8).

24. **㉠ 예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아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50절)**

- ㉠** (1) 예수께서는 아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전언자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절망과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아이로의 마음에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것이고 꺼져 가는 희망의 촛불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 (3)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아이로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극심한 시련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신앙의 시련은 종지부를 찍었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면서도 확신에 가득 찬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 (4) 그래서 그는 ‘내 딸이 방장(方將)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마9:18)라는 확신있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소유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좇아가는 일이다(참조, 1:79; 살후3:5).

25. **㉠ 예수께서는 아이를 위하여 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52절)**

- ㉠** (1) 예수께서는 통곡(痛哭)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
- (2) 혹자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예수께서 진단한 결과 여전히 아이로의 딸이 살아 있다는 결론을 얻으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 아이의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던 사람들의 태도(53절)나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영(靈)이 돌아왔던 사실(55절)은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이 틀렸음을 입증해 준다.
- (4) 본질의 ‘잔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예수께 있어서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요11:11)고 표현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누가는 스테반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니라’(행7:60)라고 표현하였다.
- (5) 그러나 사람들은 잔다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조소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회당장의 딸이 죽었음을 알린 전언자(49절)와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를 능히 정복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롬6:6-9; 고후1:10).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의 신성(神性)에 관해서 조소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들은 단지 예수를 병 고치는 분, 성인(聖人), 군자, 혁명가, 도덕가라고만 볼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림자 또는 외형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며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예수를 각색한 데서 비롯된다(참조, 마20:20-23).

26. **㉠ 누가는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4,55절)**

- ㉠** (1) 누가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부르시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침마다 아이를 깨울 때 사용했던

부드러운 말씨와 동일한 어투였다. 이는 아람어로 <달리다굴>인데 마가가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한 반면(막5:41), 누가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하였다.

- (3) 살아난 아이의 상태는 죽기 전의 상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누가는 이 상태를 ‘곧 일어났다’라고 간단히 언급한 반면, 마가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막5:42)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 (4) 이 사실을 목격한 아이의 부모와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을 것이고 그 격동의 순간이 지나가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는 또다시 입을 여셔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순간에도 실제적으로 그 소녀에게 필요한 세세한 점들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분이셨다. 이런 자상한 일면은 오병이어(五餅二魚)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요6:12) 나타난다. 바로 이 점이 예수의 이적을 더욱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연모(戀慕)의 정을 더욱 도탑게 해주는 매력이다.
- (6)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일 못지 않게 사소한 일들도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즉 신앙 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사소한 일들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더 기울임으로 해서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크나큰 덕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화보자료

옥토(沃土)와 박토(薄土). 카메라에 잡힌 갈릴리의 풍경은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4-15절)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를 한눈에 보게 해준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서 나타내는 반응은 개인마다 천지 차이이다. 돌밭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있는 반면에 옥토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제 9 장 열 두 제자의 파송

단락구분 1-6 열 두 제자의 파송 / 7-9 헤롯의 붙인 / 10-17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이적 / 18-20 베드로의 신앙 고백 / 21-27 수난과 부활에 대한 첫번째 예고 / 28-38 변화산에서의 예수 / 37-43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심 / 44-45 수난과 부활에 대한 두번째 예고 / 46-48 누가 가장 큰 자인가 / 49-50 포용의 교훈 / 51-56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다 / 57-62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오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3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나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7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8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고 따로 뱃새다라는 고클로 떠나가셨으니

11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2 날이 저물어 가매 열 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읍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삽나이다 하였으니

14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됴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15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17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 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을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 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37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38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라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 을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43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45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

회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6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으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낸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큰 자니라

49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튿날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57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

㉠ (1) 갈릴리 전도가 거의 끝나 갈 무렵 예수께서 마지막 전도대를 파송하셨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본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다.

- (2)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면서도 누가 큰 자인가 논쟁하며, 예수를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멸망시키자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포용, 인자의 오신 목적 등을 가르치셨다.
- (3)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마땅히 지향(指向)해야 될 바른 몸소 실증해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 훈련을 등한시하며 복음 외적인 요소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들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4) 한편 본장에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삼 일 만에 부활하게 될 사건에 대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 두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다(22, 44 절).

2. **㉠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모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열 두 제자를 불러모으셨다.
- (2)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란 율법을 엄하게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각자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 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침은 마귀에게 사로잡힘과 육신적인 질병을 동시에 치유함을 뜻한다.
- (3)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었다(8:1, 26-39, 43-55). 따라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예수 자신의 사역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이 곧 그 결말에 이르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없이도 그 사역이 수행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나 이제껏 이런 일들을 행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일들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制馭)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누가는 마10:1과 막6:7 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능력’(헬, 두나미스)이라는 낱말을 포함시켰다.
- (5) 그런 후 예수께서는 들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다. 이러한 파송 방법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단지 열 두 제자들 내보내었다고 적고 있는 반면, 마가는 ‘들씩 들씩’(막6:7)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들씩 짝을 지은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며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 (6) 한편 혹자는 열 두 제자가 이러한 임무를 받은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열 두 지파를 통해 나타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도록 정하셨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endriksen, 제21: 12, 14).
- (7) 어쨌든 본절의 말씀은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기 앞서서 능력과 권세로 준비시켜 주신 주께서 우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도 먼저 거기에 맞는 능력과 권세로써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창22:12-14).

3. **㉠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3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명령하셨다.
- (2) 이처럼 예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지극히 필요한 것마저도 엄격하게 규제한 것은 사명의 긴급성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뢰는 후에 만족스럽게 성취되었음이 입증되었다(22: 35).
- (3) 한편 ‘주머니’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라>는 양식을 담아 가지고 다닐 때나 사람들이 현납하는 연보돈을 모을 때 사용하는 배낭을 가리킨다. 이 배낭은 지역을 순회하며 선

교할 때 남의 도움을 받던 설교자들의 상징으로 ‘동냥 주머니’라고도 불렀는데 예수께서 이러한 주머니마저도 금하신 것은 구걸하는 흉내조차도 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 (4) 그런데 누가와 마태는(마 10:10) 지팡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적은 반면, 마가는 지팡이와 신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기록하였다(막 6: 8, 9).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설명법이 있다. 첫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 하나만을 제외한 여분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하셨다. 둘째, 마태와 누가의 경우는 가지고 다니기에 짐이 되는 무거운 막대기를 뜻하지만 마가의 경우는 여행자들에게 의지가 되고 편리한 가벼운 지팡이를 뜻한다.
- (5) 현대에 와서 이러한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정신만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복음 전도자들이 이러한 정신을 망각한 채 부흥회 등과 같은 명목으로 성도들의 재물을 탐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다(참조, 왕하5: 20-27).

4.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숙박(宿泊)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는가? (4 점)

- ㉠** (1) 예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留)하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 (2) 이 명령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후한 대접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다급성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한 성읍에서 거하라는 말씀은 일단 복음이 한 성읍에서 선포되었으면 곧장 다른 성읍으로 달려가야 할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 (3) 한편 마태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마 10: 11)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제자들이 머물 집을 ‘합당한 자의 집’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란 숙박 시설과 음식 등이 어떠한 간에 그들을 환대하는 자를 가리킨다.
- (4)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단 이런 집을 만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가르치셨다. 이와 더불어 그 집이 평안에 합당한 집이라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며, 합당한 집이 아니라면 그 평안이 도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 10: 12, 13).
- (5)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언제나 그들을 환대하는 가정을 자신에게 기원하듯 진실하게 평안을 빌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영접하는 가정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 자신이 빈 평안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참조, 딤후 2: 21).

5.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영접지 않는 성읍을 만나거든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셨는가? (5 점)

- ㉠**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가르치셨다.
- (2)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통과한 후에는 자신들의 신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고, 성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의 먼지를 떨어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방은 부정한 곳으로서 그 부정이 자신들을 더럽힐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먼지를 떨어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청결을 위할 뿐 아니라 이방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을 영접지 않는 성읍을 향해 먼지를 떨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과 같다.

- (4) 왜냐하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복음을 거부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실제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참조, 갈 3:26-29).
- (5) 따라서 그런 성음을 향해 먼지를 떠는 것은 그곳이 부정할 곳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일기를 거부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적인 선언을 뜻한다.
- (6)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지구에서 자신들에 대한 박해 활동이 조직화되고 있을 때 이 명령을 준수하였다(행 13: 50, 51).
- (7)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명령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저주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기 때문이다.

6. **㉠ 분봉왕(分封王) 헤롯이 예수에 관한 모든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한 이유는 무엇인가? (7-9절)**

- ㉠** (1)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이 부도덕한 행위였음을 책망하다가(막6:17, 18)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 죽은 인물이었다(마 14: 3-11). 또한 ‘엘리아’는 악한 왕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에 대항하여 평생토록 진리를 위해 투쟁한 위대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참조, 왕상 18: 24-38)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앞에 오리라 고 알려졌던 선지자였다(말 4:5). 이외에도 ‘옛 선지자’라 함은 오실 메시아의 강림을 알리는 선구자로 대망(待望)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뜻한다(참조, 외경 에스드라하 2: 10, 18; 마카비하 2: 4-8; 15: 13-16).
- (3) 그런데 아마도 이 세 가지 소문 가운데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그를 가장 괴롭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을 죽인 이유가 자신이 민중의 소요(騷擾)와 미움을 두려워하여서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와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 (4) 그런 까닭에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9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일을 다시 확인하며 자신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 (5) 더 나아가 그는 과연 예수가 사람들이 말하는 또한 자신의 명령으로 목 베임당한 요한인가라는 의구심이 발동하였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이런 그의 호기심은 훗날 빌라도가 예수를 그에게 보내었을 때 충족되었다(23: 8-11).
- (6) 이처럼 마치 양심이 무디어진 양 마음껏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들도 실상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불안에 떨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의 죄의식은 어디까지나 한 순간의 의식(意識)에 불과할 뿐 회개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이 수반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성도는 죄의식과 더불어 ‘회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된다. 바로 이 점이 악인과 성도의 차이이다(참조, 삼상 26:21; 시 6:6).

7. **㉠ 누가는 헤롯의 직함을 무엇이라고 칭하였는가? (7절)**

- ㉠** (1) 누가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분봉왕’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트라아르케스>는 ‘넷’을 뜻하는 <테트>와 ‘통치’를 뜻하는 <아르케>의 합성어로서 ‘한 주(州)의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의미이다.
- (3) 이 직위를 로마 황제로부터 처음으로 받은 인물은 헤롯(B. C. 37-4)이었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영토는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다. 아켈라오(Archelaus,

B.C.4-A.D.6)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 지역을, 빌립(Philip, B.C.4-A.D.34)은 팔레스틴 북쪽 지역을 그리고 안티파스(Antipas, B.C.4-A.D.39)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각각 되었는데 본절에 등장한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를 가리킨다.

- (4) 한편 누가는 헤롯의 직함을 붙일 때 꼭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반면(3:1, 19; 행13:1) 마가는 '왕'이라고 부르며(막6:14, 22), 마태는 '분봉왕'(마14:1)과 '왕'(마14:9)을 혼용하여 불렀다. 이것은 로마에 있어서 모든 동방의 통치자들을 '왕'이라는 보편적 호칭으로 부르는 관습에 따른 것으로 '왕'과 '분봉왕'이란 직함이 모두 헤롯에게 주어진 것이다.

8. **㉠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10절)**

- ㉠** (1) 예수께서는 '고기잡는 집'이란 뜻을 지닌 벳새다라는 고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 (2)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헤롯의 통치 영역 밖에 있었으며 인적이 드문 조용한 마을이었다. 또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의 고향이기도 했다(막6:45; 요1:44; 12:21).
- (3) 이처럼 예수께서 조용한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미 전도 여행(1-6절)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자를 고쳐 주는 등의 일로 인하여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또한 심신이 매우 피곤해 있음을 잘 알고 계셨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도 외형적인 전도 사역과 더불어서 때로는 연구와 명상을 하기 위해 잠시 은거(隱居)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때에 내실(內實)이 갖추어지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9. **㉠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11절)**

- ㉠** (1) 예수께서는 벳새다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온 무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 주셨다.
- (2) 여기에서 '알고 따라온'이란 표현을 볼 때 이미 사람들은 예수와 제자들의 행적을 날 낚아 주시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이들 가운데는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도 있었고 단순히 병 낫기만을 원하는 자들도 있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따르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 (3) 이들의 출현으로 인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명상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예수의 계획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들을 친절하게 맞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①복음을 전하는 일에 밤이나 낮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참조, 행16:25-34) ②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해자로 여기지 않으신 예수의 인내를 배워야 하며(참조, 살후3:5) ③찾아온 자들을 친절하게 영접해 주신 예수의 인간애를 배워야 한다(참조, 롬12:13).

10. **㉠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기적에 대해 설명하라(12-17절).**

- ㉠** (1) 예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의 수만 해도 오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 (2) 이 사건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함께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다(마14:14-21; 막6:34-44; 요6:5-13).
- (3)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문제

를 다뤄 나가면서 취급하고자 한다.

11. **㉠**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3, 14 절)

- ㉠** (1)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삽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2) 요한복음에는 그 떡이 보리떡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자들의 대답도 두 가지이다. ① 빌립은 이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도 오천 명에 이르고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거의 이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재빨리 계산하고는 이들을 먹으려면 이백 데나리온으로 부족하다고 예수께 아뢰었다(요6:7). ②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쯤 가지고 왔지만 그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께 아뢰었다(요6:8, 9).
- (3) 이와 같은 제자들의 대답은 지극히 산술적(算術的)이고 인본주의적인 대답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 일체(三位一體) 가운데 한 분인 예수께서(요1:3)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다.
- (4) 즉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따위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직접 경험하였고, 자신들의 입으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1-10 절) 그만 자신들 앞에 있는 엄청난 대중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망각하고 말았다.
- (5) 사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측하고 계셨다. 이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요6:6)는 기록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짖지 않으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 (6)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생활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간증도 곧잘 하지만 갑자기 어떤 큰 사건에 부딪히면 그만 받았던 은혜는 모두 사라지고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 현실 앞에 아연해질 때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께서 어떤 일은 함께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함께 하시지 않는 조건적,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

12. **㉠** 예수께서는 한 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16 절)

- ㉠** (1) 예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祝謝)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로서 유대인들의 식사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는 보통 식사 전에 그 집의家長(家長)에 의해서 축사가 행해졌다(행27:35).
- (3) 그 후 예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떡’이란 넓고 얇은 케이크처럼 생긴 보리떡이었고(요6:9), 물고기란 떡의 맛을 내기 위한 찬으로서 작은 물고기인데(헬, 읍싸리온) 보통 손으로 떼어 먹었기에 ‘떼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 (4)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동작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주며’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도미>가 반복을 강조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인 <에디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며’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계속하여 주셨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 (5) 그러므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장정만도 오천 명에 이르는 큰 무리를 풍족

히 먹일 정도로 증가하게 된 시점은 예수께서 축사했을 때부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순간까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 (6) 어쨌든 이 사건은 예수께서 물질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 준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는 한 아이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다. 비록 이것은 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적은 양이었지만 예수를 위해서 사용될 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가르쳐 준다(참조, 마6:24; 빌4:19; 요일3:17).

13. **㉠** **우리가 먹고 남긴 음식 조각은 얼마나 되었는가? (17절)**

- ㉠** (1) 그 남긴 음식 조각은 열 두 바구니에 이르렀다.
 (2) 이것은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6:12)는 예수의 명령을 받고 행한 결과였다.
 (3)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다. ① 주께서는 허비와 낭비를 싫어하신다. ② 주께서는 큰 일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 자상한 분이시다. ③ 주께서는 너그러우시며 관대한 분이시다.
 (4) 특히 장정만도 오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은 음식의 양이 최초의 음식량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의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였음을 뜻한다(요12:24).
 (5) 그러면 이 음식 조각들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막6:37과 요13:29에는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은 열 두 바구니의 음식들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6) 이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음식 조각들도 예수로 인하여서 가장 고귀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듯이 별레만도 못한 우리 역시(요25:6)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딤후1:15, 16).

14. **㉠** **제자들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의 물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18, 19절)**

- ㉠** (1) 제자들은 '세헤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더라고 전하였다.
 (2)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은 분봉왕 헤롯이 들었던 소문들과 유사한데(7, 8절)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그토록이나 기다려 왔던 메시아로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의 선구자나 다시 살아난 요한으로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6).
 (3) 한편 본서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16:13과 막8:27로부터 우리는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부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그 지역은 분봉왕 빌립(Philip, B. C. 4-A. D. 34)에 의해 확장되고 미화(美化)되었으며 가이사 아구스토(B. C. 27-A. D. 14)의 명으로 이름지어졌다. 그 부근에는 일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2815m 높이의 장엄한 헤르몬 산이 있으므로 해서 그곳에서 발원하는 요단 강의 수원지들 가운데 하나에 인접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경치는 천하 일품이었다.
 (5) 따라서 그곳은 예수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매우 적절한 장소였다.

15. **㉠**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20절)**

- ㉠** (1)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이다.
- (3)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어떤 선지자나 혹은 메시아의 선구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여 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 (4) 그러나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22절).

16. **㉠**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21절)

- ㉠** (1) 예수께서는 경계(警戒)하시면서 그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다.
- (2) 이것을 NEB에는 ‘그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셨다’(gave them strict orders)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 (3)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로마의 속국민으로 살아온 관제로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4) 사실 당시에는 로마를 대항해서 많은 소규모의 반란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었다. 백성들은 언제든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를 따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 (5)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경우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침묵시킨 것이었다.
- (6)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류에 대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부터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선포하셨다(참조, 요 14:6).

17. **㉠**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22절)

- ㉠** (1) 예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 평의회 겸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Sanhedrin)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들로 유대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이었다.
- (3) 이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선 자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자들이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단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 (5) 한편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안나스(A. D. 6-15)와 가야바(A. D. 18-37)를 지칭한다. 가야바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던 해의 대제사장인 반면, 안나스는 그의 장인으로서 가야바의 전임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제사장이라는 권위와 칭호를 보유했다. ② 대제사장과 성전 두목, 성전 감독자들, 재정 관리인들을 포함하는 성전 관리들의 특수 집단을 가리킨다(J. Jeremias).

18. **㉠**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23절)

- ㉠** (1)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좇아가야 한다.
- (2) 즉 이것을 세분하면 첫째, 자기 부정(自己否定)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며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 (3) 둘째,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당시 로마에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죄인 자신이 직접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십자가는 결코 부귀와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것이다.
- (4) 그런 까닭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 부정(自我否定)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 (5) 세째, 이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 즉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위와 쾌락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성화’(聖化)라고 한다.
- (6) 한편 누가는 본질에서 최초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7)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안일주의적 신앙 자세를 가질 때가 많다. 결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십자가의 길이 예수께서 가신 골고다의 길을 가는 것이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19. ㉠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4절)

- ㉠ (1) 예수께서는 이 길에 대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설명하셨다.
- (2) 즉 이것은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는 천국의 소유가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 (3)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열쇠는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 (4) 이 말씀은 역설적(逆說的)인 표현으로서 세상적인 시각과 감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된다.

20. ㉠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 (26절)

- ㉠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구세주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안일만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 (3)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 때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날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한 계집종의 말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가? (요 18:17. 물론 베드로는 후에 회개하고 주를 위해 순교하였다)
- (4)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행10:42) 오히려 그 상황은 뒤바뀌어 그러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 (5)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7:23)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마16:27).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과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전파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예수와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귀(尊貴)의 대상이다(참조, 요 5:24).

21. ㉠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 (1) 이 말씀은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단지 그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자 한다.
- (2) 첫째, 베드로와 야보고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변모를 목격한 것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28-32절). 그러나 본질의 ‘여기 섰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세 명 이상임을 가리킨다.
- (3) 둘째,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였다는 것이다(행 1:11).
- (4) 셋째,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르킨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개념을 실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으나 알 수는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어쨌거나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목격하게 되었고 어떤 자들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참조, 행 2:9-11).
- (5) 이외에도 A. 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대 나라의 멸망설, 예수의 재림설 등의 견해들이 있다.

22. ㉠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르침을 끝내신 후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가? (28절)

- Ⓐ (1) 예수께서는 8일 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 (2) 이때에 올라가신 ‘산’에 대해서 누가 및 마태(마17:1-8)와 마가(막9:2-8)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3) 그래서 이 산이 다블 산이나 헤르몬 산 또는 에벨 에르막 산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있다.
- (4) 이중에서도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에스드라엘론 평야에 우뚝 솟아 오른 다블 산이라는 주장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요새지로서 그곳은 성읍과 성채가 있었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해발 약 1,222m로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인, 북부 갈릴리의 에벨 에르막 산이라는 주장이나 요단 강의 근원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헤르몬 산의 낮은 봉우리라는 주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 (6) 그런 까닭에 이 산을 단지 통상적으로 ‘변화산’(變化山)이라고 칭한다.

23. ㉠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은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9절)

- Ⓐ (1) 누가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에 대해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마17:2) 그리고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막9:3)고 표현하였다.
- (3)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니’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어떤 내부의 근원으로부터 ‘광채가 쏟아져 나옴’을 뜻한다. 따라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에 관해서 각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변화된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24. ㉠ 변화산상에서 예수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누구인가? (30절)

- Ⓐ (1)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로서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이다.
- (2) 모세는 이미 시내 산 꼭대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경험을 했다(출 34:30; 고후 3:

7). 또한 그는 율법의 전달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로서 예수의 모형이었다(신 18:18).

- (3)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또한 언젠가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언약에로 돌이키게 할 자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었다(말 4:4-6). 그는 유대 사상에서 종말론적 표상이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서 사용했다.
- (4) 따라서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메시아의 선행자로서 과거(출애굽)를 생각해 하는 예표적인 인물이며, 반면에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 인물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 (5) 이들은 각기 구약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며 또한 특이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으며(왕하 2:11)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신 34:6).

25. **㉠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0절)**

- ㉠** (1) 첫째로는, 출애굽으로부터 미래의 종말론적 성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예수께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보여 준다.
- (2) 둘째로는, 천국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예수의 모습을 보여 줌과 동시에 죽은 성도들이 영광 중에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셋째로는, 예수께서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옛 이스라엘의 영웅들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심을 보여 준다.

26. **㉠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31절)**

- ㉠** (1) 대화의 주제는 예수의 별세(別世)에 관한 것이었다.
- (2)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누가가 '별세'라는 말에 '출발', '떠남'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 (3)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명명하는 말로서 출애굽할 당시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생각나게 한다.
- (4) 따라서 예수의 별세는 예수께서 죄로 '억눌린 당신의 백성들을 그 흉악한 멍에 아래서 구속하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구속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인간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참조, 요 3:14-18).

27. **㉠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예수께 어떤 제안을 하였는가? (32절)**

- ㉠** (1) 두 사람이 떠날 때는 베드로는 예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草幕)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구하였다.
- (2) 여기에서 '초막'이란 숙곳에서 장막절에 사용했던 것(참조, 출 13:20)과 같은 나뭇잎이나 기타 일시적인 재료로 지은 움막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텐트나 장막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 (3) 이런 초막을 베드로가 짓고자 한 이면에는 ①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함 ② 세 개의 초막(아마도 똑같은 초막일 것이다)을 짓자는 그의 제안은 예수를 다른 두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았음 ③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죽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등이 암시되어 있다.
- (4) 아뭏든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온 두 사람이 오래 머물기를 원했다는 사실

이다. 이것은 아직도 그가 22절의 수난 예고와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발생된 사건의 의미(31절)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5) 한편 누가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 후 그 자신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의 성품이 먼저 말을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다혈질적인 인물임을 나타낸다.
- (6) 우리도 주를 섬길 때 단지 감정과 열심에만 이끌려 모든 일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경우가 있다. 우리의 행동 지표는 방향 없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어떤 일이 과연 주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6: 33).

28. **㉠** **하늘로부터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 왔던 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35절)**

- ㉠** (1) 구름 속에서 들려 왔던 소리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이다.
- (2)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들려 왔던 음성의 내용(3:22; 마3:7; 막1:11)이나 예수께서 수난을 받기 바로 직전에 들려 왔던 내용(요12: 28-30)과 유사하다.
- (3) 이 음성들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 (4) 이 속에는 택한 자이신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요3: 16; 롬8:32)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 (5) 더 나아가 이 음성은 구름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는’ 세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면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역경을 딛고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을 것이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이를 들을 수 있는 성도는 예수에 대한 더욱 굳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의 역경 중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참조, 요3: 29).

29. **㉠**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37-50절)**

- ㉠** (1)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광명을 보고 즐거워한 데 반해 어떤 제자들은 산기슭에서 흑암의 권세에게 철저히 패배하였다(40절).
- (2) 또한 그 이후에도 믿음이 없고(41절) 배우는 데 둔하고(45절) 교만하고(46절) 관용심(寬容心)이 없는 좁은 마음을 가진(49절)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한다.
- (3) 이런 모습들은 아직도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예수께서는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30. **㉠** **이튿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이러 소리질렀는가? (37-40절)**

- ㉠** (1)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를 맞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
- (2)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은 ① 외아들 ② 간질병 환자 ③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④ 귀먹은 자이자 병어리였다(막9:17, 25).
- (3)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주기를 부탁한 바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일에 모두 실패하였다(40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전도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제어(制馭)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경험들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다(9:1-6).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침체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 (5) 이제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분이 예수뿐임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가 무섭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막9: 23, 24).
- (6) 그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제자들의 영적 침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의 열심을 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기 때문이다(벧전5 : 8).

31. ㉠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호소를 듣고 무엇이라고 꾸중하셨는가? (41절)

- ㉠ (1)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悖逆)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대답하셨다.
- (2) 이 꾸중은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 나아왔기 때문이다(막9:24).
- (3) 그렇다면 이 꾸중에 믿음 없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놀라운 이적을 흉내내려 했지만 그 믿음들이 약해져 가고 있었으며 거기에 모인 무리들 역시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고 예수의 이적에 대해서 흥미 본위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한 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꾸중뿐이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회복시키시는 자비를 보여 주셨다(42절).
- (6) 오늘날에도 주께서는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총 가운데도 낙망하고 좌절하며 불신앙의 요소를 나타낼 때가 많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안타까운 외침일 것이다.

32. ㉠ 예수께서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4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울 것을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곧 메시아로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말로서 이 가운데는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리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 (3)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제자인 가롯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은 예수를 결박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마 27:1, 2). 또한 전에는 원수같이 지낸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같이 되었다(12절).
- (4)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사59:2) 허물어뜨리는 증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필연적(必然的)인 과정이었다(사53 : 3-8).
- (5)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즉 ‘주의 깊게 들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다음 문제에서 다루겠다.

33. ㉠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5절)

- ㉠ (1) 제자들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 (2) 그 이유를 누가는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고 적고 있다. 즉 이 말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세속적인 기대로 인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 (3)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의 스승 예수께서 장차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리라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 (4)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께 그 말씀에 대해 묻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참조, 마 20: 21) 그들의 환상적인 꿈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5) 이 일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께 수난당하시지 말 것을 청원했던 사건과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마 16:22).
- (6) 현대에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한 십자가상의 모든 과정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요소들이다.

34. **㉠ 제자들은 어떤 문제로 서로 변론(辯論)하였는가? (46-48절)**

- ㉠** (1)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였다.
- (2)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과연 서열(序列)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어떠한 것이며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만 쏠려 있었다.
- (3) 이러한 비신앙적인 논쟁이 제자들간에 쟁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그들이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4) 예수께서는 이들의 변론하는 마음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것이가 큰 자’라고 교훈하셨다.
- (5) 여기에서 ‘어린아이’(헬, 파이다온)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 겸손함과 겸손한 신뢰를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 (6) 우리 삶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히 구는 것보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의 삶의 태도이며 주를 영접하는 삶이다(참조, 고전 13: 1-13).

35. **㉠ 제자들은 어떤 자들을 금하였는가? (49, 50절)**

- ㉠** (1)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
- (2) 제자들은 조금 전에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 찢찢매었는데(40절) 예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쾌한 일이었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에게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3) 따라서 제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예수의 무리에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 (4)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십중 팔구(十中八九) 그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였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단정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참신앙이 없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가 오히려 악귀들린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었던 사건(행 19: 13-16)을 볼 때 가능하다.
- (5) 그런 까닭에 제자들이 이 사람을 금한 것은 편협한 태도요 협소한 배타주의(排他主義)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옳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 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교훈하셨다.

- (6) 복음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나 평판 때문에 형제를 금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같은 독선과 아집(我執)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겠다.

36. **㉠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는 언제인가? (51절)**

- ㉠** (1) 누가는 이때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라고 적고 있다.
 (2) 여기에서 ‘승천’이란 말은 헬라어 <아나페페오스>로 4복음서 가운데 본절에만 등장하는 말이다. 예수의 승천 사건은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연결시키는 그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의 마지막 장소였다.
 (4) 한편 본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음을 보여 준다.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공공연히 자신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등 매우 분주하게 일하셨다.
 (5) 이 말은 곧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고통의 쓴 잔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수하셨음을 의미한다. 이런 예수의 자세는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37. **㉠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서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52-56절)**

- ㉠** (1) 그 이유는 그 사마리아 성읍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므로 인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그들의 말속에 예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이 담겨 있다. 그들은 옛날 하나님 의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명을 받은 오십부장(五十夫長)과 그 오십인의 수하들이 모욕하고 경멸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살랐던 초자연적인 사건(왕하1:10-12)을 기억하였던 것 같다.
 (3)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을 명하기만 하면 불이 내려와 예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한 사마리아 성읍을 사르게 되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성급함이 서려 있다.
 (4) 이러한 불 같은 성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던 것 같다(막3:17). 어쨌든 이러한 그들의 말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19:10; 요3:17; 12:47) 깨닫지 못한 데서 왔다.
 (5)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 까닭은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멸시하며 짐승같이 취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참조, 요4:9)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로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참조, 요4:20).
 (6) 이와 같이 인간적인 성급함을 앞세운 제자들이나 상대방의 경멸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그 어느 편도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는다.
 (7)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열정과 인맥(人脈)에 따른 차별 대우는 결코 예수의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꾸중과 징계의 대상이 될 뿐이다(참조, 마14:31; 17:17; 막4:40).

38. **㉠ 예수께서는 자원해서 당신을 좇으려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57, 58절)**

- A** (1)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窟)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은 기거할 만한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 말속에는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시게 될 사실이 암시되어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도 그 예수께서 가신 길과 같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호사스러운 생활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 교훈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예수를 쫓는 길을 영광과 부와 명예의 지름길로 생각했거나 예수를 쫓겠다고 말로는 제안했을지라도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5)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discipleship)가 결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의 첩경(捷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14:33).

39. C 두번째 사람은 ‘나를 좇으라’는 예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59절)

- A** (1)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하였다.
- (2) 관습에 따르면 장례식은 대체로 사망 직후에 치루었다(요11:1, 14, 17; 행5:5, 6, 10).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이 어느 다른 사회적 관습보다도 고귀한 의무로서 간주되었다.
- (3) 이들은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효도를 표하는 장례식에 참석해야만 했다(참조, 창25:9; 35:29; 수24:29, 30).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의 준비는 종교 의식의 참여와 율법 공부를 포함한 그 어느 행사보다도 우선권을 지닌 것이었다.
- (4) 그러므로 이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지내도록 예수께 요청한 것은 유대 사회의 현실로 보았을 때 당연한 일이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60절)고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靈的)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 (6) 이처럼 예수께서 그 사람의 요구를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①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② 그 사람의 부친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7)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명령은 인륜(人倫)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더욱 시급한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관습에 치우친 그 장례식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영적 품성 함양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 (8) 어쨌거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비장한 결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마16:24; 요8:31).

40. C 세번째 사람은 예수를 좇기 앞서 무엇을 처리하게 해 달라고 예수께 요청하였는가? (61절)

- A** (1) 그 사람은 주여 ‘내가 좇겠나이다’라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였다.
- (2) 이러한 태도는 마치 엘리사가 발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에게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청했던 사건(왕상19:19-21)을 생각나게 한다.
- (3) 이때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合當)치 아니하니라’(62절)고 대답하셨다.

- (4) 즉 이 대답은 예수를 쫓겠다고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채 고개를 돌릴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가는 이랑은 끈게 일구어지지 않고 뺏겨질 수밖에 없다.
- (5)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당도하는 순간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간청을 못 이겨 예수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의 대답이 결코 불공평하다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불평은 타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鑑察)하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요2:25).
- (6) 예수를 쫓기로 결심한 자들이나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즉시 따라갔던 것이나(왕상19:21) 예수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버려 두고 예수를 즉시 쫓았던 것(5:11)과 같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 (7) 순종은 그 어떤 봉사나 희생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참된 예물이다(참조, 삼상15:22).

연구자료

귀신(鬼神)의 정체. 신약 중에서도 특히 사복음서에는 ‘귀신’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 (42절), <다이몬> (마 8:31) 등으로 불리우는데 이 모두는 ‘악령’(demon)이란 뜻이다. 그러면 이러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신약 시대의 헬라인들은 죽은 악인들의 영(靈)이 바로 귀신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참조, 고전 10:20).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노아 홍수 전 사람의 딸들과 천사들과의 성 관계에 의해 생겨난 후손들(창 6:1-4)이 귀신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견해는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된다. 성경에는 귀신들의 왕이 ‘바알세불’(Beelzebub)인 것으로 나와 있다(11:15). 이 바알세불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한 후 하나님을 대적케 된 사단이다. 이 사단은 자기를 추종하는 일단(一團)의 하급 천사들을 두고 있다(엡 6:12).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란 다름 아닌 사단을 추종하는 이들 하급 천사들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대개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괴롭힌다(39절; 마 12:22; 막 5:2-5).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성도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한다. 한편 귀신의 최후에 관하여선 마 25:41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세상 종말에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한다.

제 10 장 칠십 인 전도대의 파송

단락구분 1-12 칠십 인의 파송 / 13-16 주름 영접치 않은 자들의 운명 / 17-20 칠십 인이 돌아오다 / 21-24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 25-28 율법사의 질문 / 29-37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 38-42 마르다와 마리아

1 이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종 각처에 들씩 앞서 보내시며
 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3 갈지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이다 하라
 6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나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나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면 저हां 벌써 배움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4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7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뱀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라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중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든 기록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3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

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8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요 사건이 주는 교훈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사건은 칠십 인 전도대의 파송 사건이다. 칠십 인 전도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 (2) 그들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였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장이었다.
- (3) 한편 본장에는 칠십 인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기뻐하신 장면이 등장한다. 이처럼 예수께서 기뻐한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장이 유일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일이 예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일임을 교훈한다.
- (4) 둘째 사건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만이 참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다.
- (5)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참이웃이란 참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임을 교훈하셨다.
- (6) 세번째 사건은 예수를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이다. 이 사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든 일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일임을 교훈한다.

2. ㉠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신 이후에 누구를 세우셨는가? (1절)

- ㉠ (1) 누가는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라고 기록하였다.
- (2) 여기에서 '칠십 인'은 예수께서 유대의 각 동(各洞)과 각처(各處)에 전도단으로 파송한 사람들의 수자이다.
- (3) 그런데 어떤 사본들에는 난외주(欄外註)에서 이 수자를 '72인'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따라서 본질의 기록을 가지고 전도단의 정확한 수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4) 혹자는 '70'인이라는 수자를 세상 열국의 수자라고 본다(참조, 창10장).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나라에 한 사람씩 70명을 임명하셨다는 것이다.
- (5) 그런데 창10장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70명의 이름들이 있으나 70인역(LXX)에는 72명의 이름들이 나온다. 결국 이 수자는 복음이 전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한다.
- (6)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수자를 모세가 임명한 장로들의 수자와 연관시킨다(민11:16,17, 24, 25; 진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72명).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

들은 예수를 제 2의 모세라고 생각한다.

- (7) 그 외에도 이 수자를 산헤드린 공회의 정원인 70명과 연관시키는 견해가 있다. 그 견해에 따르면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어야 했던 종교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다.
- (8) 한편 '72인'이 타당하다고 보는 헨드릭슨(Hendriksen)과 같은 학자는 '72'가 12의 6을 곱한 수로서 12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틀에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도 12족장과 12지파를 계승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도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진주로 된 12문이 있으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으며 그 성 자체의 크기(길이, 넓이,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1스타디온은 184. 85m)이라는 것이다(참조, 계 21:16).
- (9) 12의 배수와 관련된 것으로도 24장로가 앉아 있는 24보좌들(계4:4, 10; 11:16; 19:4)과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계11:3)이며 인맞은 자의 수가 144,000 명이라는 것이다.

3. **㉠ 70인의 전도대는 몇 명이 1개조로 되었는가? (1점)**

- ㉠** (1) 예수께서는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서 각 동네로 파송하셨다.
- (2) 복음이 전파되었던 초기 시대 뿐만 아니라(막6:7; 행13:2; 15:27, 39, 40; 17:14; 19:22)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들씩' 사자들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
- (3) 또한 신명기 17:6과 19:15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 (4) 들씩 짝을 지은 까닭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으며(참조, 전4:9), 둘이 힘을 합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며 또한 증거를 유효케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민35:30; 마18:16; 요3:17; 고후13:1; 딤후5:19; 10:28).
- (5) 이와 같은 예수의 파견 방법은 연약해지기 쉬운 전도자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면서도 믿음의 성숙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 예수께서는 전도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깨우쳐 주셨는가? (2점)**

- ㉠** (1)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도 대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일깨워 주셨다.
- (2) 여기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추수할 일꾼'은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다.
- (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복음 전도에 대한 긴급성을 뜻한다. 왜냐하면 추수할 밭이 넓은 데도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그 밭의 곡식은 거들 때를 넘겨 결국 썩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복음 전도의 사역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며 지체할 수 없는 과업이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이단 사설(異端邪說)이 팽배하고 온갖 죄의 유혹들이 산재해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주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 오면 오히려 더욱 심각해진다.
- (5)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힘과 생각을 복음 전도에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보다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부과된 또 하나의 의무인 것이다.

5. **㉠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파송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3점)**

- ㉠** (1) 예수께서는 전도대의 파송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이리'(헬, 루코스)는 고대 팔레스틴에서 잘 알려진 개 과에 속하는 동물로 개 과에서 가장 큰 육식 포유 동물이다. 이리는 혼자나 들씩, 또는 떼를 지어 다니며 사냥을 한다.

그들은 대담하고 잔인하며 아무것이나 잘 먹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보통 자기가 먹거나 가져갈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많이 죽이려 하며 양들에게는 특별히 큰 대적이다.

- (3) 성경에서는 곧잘 '이리'라는 말이 불의한 자들, 즉 유다의 대적들(렘5:6), 유다의 방백들(겔22:27), 갈대아인들(합1:8), 예루살렘 재판장들(슥3:3), 거짓 선지자들(마7:15), 거짓 교사들(행20:29)에게 적용되었다.
- (4) 그런데 예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가리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 떼라고 하신 것은 결코 그 상황이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 (5) 즉 도처에는 그들을 상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무수한 위험들이 산재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만한 장소나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 (6) 그러므로 '양 떼'와 같은 연약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목자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4절).
- (7)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요소는 전도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시는 분이 목자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참조, 사6:8).

6. **㉠** 70인의 제자들에게 금하여진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그들에게는 전대(繩帶)나 주머니나 신을 가져가도록 허용되지 않았고 길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 (2) 여기에서 '전대'(헬, 발란티온)란 돈주머니를 말하며 '주머니'(헬, 페라)는 여행 가방을 가리킨다(참조, 9장 **㉠** 3).
- (3) 또한 '신을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맨발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비로 다른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다.
- (4) 이런 사실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말이다.
- (5) 한편 예수께서 문안까지 규제하신 것은 인륜(人倫)이나 예의를 버리라는 권고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과 더불어 담소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동양적인 문안(問安)이란 매우 세밀하므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6) 이런 모든 조항들은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9:3-6).

7. **㉠** 예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숙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명하셨는가? (5-9절)

- ㉡** (1) 9장 **㉠** 4를 참조하라.

8. **㉠** 예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영접지 않은 동네를 만나거든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셨는가? (10, 11절)

- ㉡** (1) 9장 **㉠** 5를 참조하라.

9. **㉠** 복음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영접지 않는 동네들이 받게 될 심판은 어느 정도인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건디기 쉬우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소돔'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므로 인해 고모라와 더불어 유향불로 심판받은 도시였다(창19:24-29). 소돔의 멸망은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었다(벧후2:16).
- (3)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파송한 복음 전도자들의 간절하고도 긴급한 메시지

를 거절한 동네들은 소동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4) 왜냐하면 그 동네들이 그들을 거절한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요 주의 특별한 은총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다(16절).
- (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전하는 태도를 엄숙히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메시지나 태도가 그 동네들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2:16).

10. **㉠ 예수께서는 어느 성읍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고라신’과 ‘벧새다’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셨다.
- (2) 이 표현은 보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슬프도다’라는 깊은 유감(遺憾)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왜냐하면 가버나움 근방에 위치한 그 성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비록 ‘고라신’은 마태복음 11:21과 본절에만 언급되었지만 우리는 그 성읍들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근방,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였기에 예수의 놀라운 기적이 많이 행해졌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참조, 마11:20).
- (5) 이 성읍들의 완악함을 예수께서는 이방 성읍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하다고 비유하셨다(14절).
- (6)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잘못을 겸손히 시인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보다 더욱 인색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렘14:20).

11. **㉠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설명하라 (13, 14절).**

- ㉠** (1) 두로(Tyre)는 팔레스틴 해변 북쪽 페니키아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돌레마이와 시돈 사이에 있는 고대 항해와 상업의 요지였다. 시돈(Sidon)은 두로로부터 그 북쪽으로 약 36km 지점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중요한 성읍이었다.
- (2) 사 23장과 겔 26-28장에 의하면 이 성읍들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교만하였고 물질에 미쳐 있었으며 잔학했다. 이들의 잔학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고(암1:9),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에 팔아 넘긴 과거의 사건(욥3:6)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3) 그래서 이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심판의 대상이었다.
- (4)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성읍들이 오히려 심판 때에는 벧새다나 고라신보다도 견디기가 쉽다고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 (5) 여기에서 ‘베옷을 입고’란 애통을 뜻하며 ‘재에 앉아’는 슬픔을 상징한다. 결국 벧새다나 고라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두로와 시돈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치 않은 패역한 그 세대의 대표적인 성읍들이 되었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이다(참조, 롬2:4, 5).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받았을 때 회개한 니느웨 성읍 백성들처럼 즉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참조, 온3:7-10).

12. **㉠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陰府)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음부’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지옥’, ‘죽은 자의 세계’라는 뜻이다. 이곳이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마25:41), ‘영벌’(마25:46), ‘바깥 어두운 데’(마8:

- 12), ‘영원한 형벌’(살후1:9), ‘유황불 붙는 못’(계19:20)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본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는 ‘음부’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이 지닌 영광의 높이와 음부가 지닌 파멸의 깊이를 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말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가버나움이 파멸의 선고를 받은 이유는 예수의 사랑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즉 가버나움(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5:10; 요1:42)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요, 갈릴리 전도 기간 동안은 활동의 본부였던 곳이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4:23), 규례를 따라 회당에 참석하셨으며 ‘생명의 떡’(요6:24-65) 등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다.
- (6) 이와 같은 가버나움에서의 활동 때문에 마태는 그곳을 ‘본(本)동네’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 (7) 이와 같이 구원의 여부는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오랫동안 예수의 주변에 머물렀던 사실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서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롬10:9; 약1:21).

13. ㉠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은 어떤 보고를 예수께 드렸는가? (17절)

- ㉠ (1) 70인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降伏)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2) 이들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수행했던 12제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항복시키는(헬, 휴포닷소), 즉 귀신들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였을 것이다(9:16).
- (3)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은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은 일이었고 감격과 기쁨을 주는 일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기쁨으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귀신들을 쫓아낸 사실부터 보고하였던 것이다.
- (4) 한편 우리는 70인의 보고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70인 뿐만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행3:6)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 (5)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으로서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참신앙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함부로 부르다가 오히려 악귀들린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었던 사실(행9:13-16)을 감안해 볼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한 기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신앙 태도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4. ㉠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절)

- ㉠ (1)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첫째, 70인의 전도 대원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견해이다.
- (2) 둘째, 과거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추방되었던 이유가 그의 교만에 있었듯이 그들도 자기들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 결과를 가지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견해이다.
- (3) 셋째,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후 그곳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 내셨을 때(막1:12, 13)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는 견해이다.
- (4) 넷째, 70인의 성공한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질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므로 인해서 결국 사단과 그 무리들이 완

전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 (5) 어떤 견해를 취하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70인의 전도 대원들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혜 악의 세력이 흔들렸고 사단이 패배하였다는 것이다.

15. **㉠ 예수께서는 70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 (2) 팔레스틴에는 여러 종류의 뱀들과 약 10종류의 전갈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뱀과 전갈’은 그것들을 가리키지 않고 ‘뱀과 전갈’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킨다(창 3:1-15; 고후 11:3; 계 9:3, 5, 10).
- (3)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능력과 힘을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예수께서 ‘뱀과 전갈의 머리’ 곧 사단을 상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께서는 창 3:15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바 있다.
- (4) 그런 까닭에 이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고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은총을 빼앗아 갈 수 없다(요 10:28; 롬 8:31-39).

16. **㉠ 예수께서는 70인의 전도대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일깨워 주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 (3)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중단되는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보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의 보증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협이나 칼’(롬 8:35)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확고한 것이다.
- (4) 한편 성경이나 여러 유대 문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의 책이나 두루마리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참조, 출 32:32, 33; 시 69:28; 단 12:1; 말 3:16; 계 20:12, 15).

17. **㉠ 예수를 기뻐하게 만든 동인(動因)은 무엇인가? (21절)**

- ㉠** (1) 누가는 그 사실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라’라고 적고 있다. 즉 이것은 성령이 예수의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며 창시자임을 의미한다.
- (2)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정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회개하며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종 노릇할 필요가 없게 된 사실을 보면서 나온 순수한 기쁨이었다.
- (3) 그래서 누가는 이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로 적극적인 환희를 의미하는 헬라이어 <에갈리아사토>를 사용하였다.
- (4) 한편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앞에 놓여진 쓴 잔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완고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슬퍼하셨다. 이런 분이셨기에 혹자는 이제까지 그려진 모든 예수의 성화(聖畵) 속에서 웃는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가 보다!
- (5) 그런데도 바로 본질에서 예수의 기뻐하신 모습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록은 4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기쁨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8. **㉠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셨는가? (21, 22절)**

- A**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① 내 아버지, ② 천지의 주재(主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2) 여기에서 ‘아버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테르>는 매우 다정한 표현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라고 호칭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분이시며 그의 유일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주재’에 해당되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인’, ‘소유자’라는 뜻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을 소유하는 자, 결정권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 (4) 따라서 ‘천지의 주재’라는 명칭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소유자를 의미한다.
- (5) 한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명칭들을 기쁨 가운데 부를 특권이 주어졌다(참조, 롬8:14-16).

19. C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3, 24절)

- A** (1) 그 이유는 오랫동안 대망(待望)하여 왔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아와 더불어 생활했기 때문이다.
- (2)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삶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삶이었다.
- (3) 이런 면에서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어렵듯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 (4) 예를 들자면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도 신앙의 눈을 통하여 환상 중에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고 메시아에 관해 예언하였으며(사52:15), 다윗 같은 경우도 성령에 감동되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시110:1).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성육신(成肉身)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 (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의 왕들이나 선지자들보다 축복받은 백성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확고히 믿을 뿐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20. C 예수께서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그 길을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25-28절)

- A** (1) 율법사의 대답, 즉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대로 행하면 살리라고 하셨다.
- (2) 율법사의 대답은 신6:5과 레19:18을 그대로 전술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全人格)으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종합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洞察力)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하다.
- (3) 그러나 그의 태도는 다분히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이는 ‘시험하여 가로되’(25절)라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예수를 끈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4) 예수는 이런 의도를 가진 율법사의 질문을 시인도 반대로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5) 이와 같이 참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설파(說破)하였다(약4:16, 17).

21. C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는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

가 ? (29-37절)

- A** (1)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 갔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준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 (2) 이 비유는 매우 적절한 것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것이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약 27km, 높이가 약 915m나 되는 가파른 길이었고 황폐한 길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출몰하기에는 안성 마춤이었다.
- (3) 이런 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반 시체와 다름없이 쓰러진 한 사람을 보았으니 이 사람은 그들에게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런 요소와 더불어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시체라면 그것을 만졌을 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함(레21:1이하)을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 그들은 그를 내버려두고 각자의 길로 갔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들은 만에 하나라도 그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런 실수는 그들의 맹목적인 율법주의와 이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그들 뒤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헬, 에스플랑크니스테), 즉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소비하며 그를 도와 주었다.
- (6)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나’고 물었을 때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 (7)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하지 않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희생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국적이나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하신 것이다(30절).
- (8) 한편 예수께서는 율법사에게 비유와 문답법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셨다. 이런 방법은 예수의 독특한 방법으로서 사람의 심리를 최대로 활용하신 훌륭한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의 교육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22. **Q** **예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인가 ? (38절)**

- A** (1)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하였다.
- (2) 아마도 이 촌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이었을 것이 분명하다(요11:1).
- (3) 그곳에서 마르다(‘여주인’이라는 뜻을 지님)는 동생 마리아(‘눅다’는 뜻)와 오빠 나사로(‘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요11:1-44).

23. **Q** **예수께서는 동생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 (40-42절)**

- A** (1) 예수께서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이 좋은 편(便)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교훈하셨다.
- (2) 이 말씀은 마르다의 봉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봉사보다도 ‘이 좋은 편’, 즉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 (3) 사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바쁜 자신을 내버려두고 혼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40절).
- (4) 그러나 그녀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 줄 이 세상의 빵보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 (5) 이런 우선 순위의 실수는 오늘날 종종 우리 자신들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 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참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외형적인 요소에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분주해 하는 경우들이 많다.
- (6)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소홀해지고 단지 열심으로 모든 봉사가 흐르게 되어 결국 그 열심이 식을 때 좌절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 (7)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며 그 우선 순위를 바로잡는 방법뿐이다.
- (8)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일 예컨대 교사, 목사, 집사, 장로 등의 일 중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전자(前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엡4: 11, 12).

화보자료

그리스도를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자가 마리아이며 문 곁에 서서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는 자가 언니 마르다이다. 야코보 홀단스가 그린 17세기 작품으로서 현재 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예수의 방문을 받은 마르다는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마음이 분주하였다(40절). 그러나 이에겐 아랑곳없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39절). 이상과 같은 두 자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마르다처럼 열심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틈나는 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제 11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단락구분 1-4 주기도문 / 5-8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 / 9-13 기도에 대한 격려 / 14-22 귀신의 정복자 예수 / 23-26 귀신이 나간 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겪게 될 비참한 나중 상황 / 27-28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릴 복 / 29-32 악한 세대에 경고로 주어진 요나의 표적 / 33-36 마음의 등불을 밝히라 / 37-41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다 / 42-44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화 / 45-52 외식하는 율법사에게 임할 화 / 53-54 고조되는 지도자들의 적대감

1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할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5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6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4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병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

이히 여겼으나

15 그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 또 더러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17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의 것을 이길 때에는 저의 밀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3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24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26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27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28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9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나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34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 어리석은 자들이 밝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 들지 아니하셨느냐

41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4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6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중인이 되어 옮겨 여기는도다

49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으니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3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54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예수의 활동상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 언급된 예수의 활동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2) 예수께서는 첫째, 기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 자세를 교훈하셨고 둘째, 한 병어리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셨으며 셋째,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화'를 선언하셨다.
- (3)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감(反感)을 나타내게 되었다.
- (4) 이 같은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자의 삶과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화를 선고받은 자들의 삶의 차이점

을 분명히 인식하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2. **㉠ 한 제자가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1절)**

- ㉠** (1) 그 제자는 예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였다.
- (2) 이 요청은 곧 평상시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문장 형태나 모범적 기도 형식, 모든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의 요청을 의미한다.
- (3) 그가 이 요청에서 요한의 예를 들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흔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 (4) 한편 이 요청이 예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제기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그 제자의 눈에 비친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이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보였음을 의미한다.
- (5)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미 실천적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다음에서 제기되는 기도의 교훈을 본받아 그릇된 기도 자세를 교정(矯正)해야 한다(참조, 마6:5-17).

3. **㉠ 본장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비교하라 (2-4절).**

㉠ (1)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누가복음		마태복음(6장)	
2절	아버지여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2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절	나라이 임하옵시며	10절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 수훈(山上垂訓)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의 사역 초기의 말 씀이며 이에 반해 본장의 주기도문은 그보다 훨씬 후대의 교훈이다.

4. **㉠ 주기도문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2절)**

- ㉠** (1) 예수께서는 가장 단순한 호칭인 ‘아버지여’라는 말로 주기도문의 교훈을 시작하셨다.
- (2) ‘아버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테르>는 아람어의 <아바>라는 말(참조, 막14:36)과 통하는 것으로서,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 (3) 이것은 곧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영적(靈的)인 차원에서 부자 관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롬8:15).
- (4)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며 범사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엡6:18; 빌4:6; 골4:2).

5. **㉠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시각에서 말씀하셨는가? (2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대상임을 밝히셨다.
 (2) 여기에서 '이름'이란 존재, 즉 창조와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뜻한다(참조, 요1:1-3).
 (3)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은 마땅히 기도와 예배, 삶 가운데서 찬양을 드려야 하며 최고의 경외심을 표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레22:32; 시79:9; 사29:33).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만홀(漫忽)히 여기는 죄악을 쉽사리 범한다(참조, 사9:17; 숙5:4).
 (5)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리라고 선포하셨다(겔36:22, 2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 영광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면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 인격을 철저히 다스리신다.
 (6) 우리는 인간들이 제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은 능멸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참조, 출20:7; 신5:11).

6. **㉠ '나라이 임하옵시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이 말은 '당신의 통치가 광범위하고 철저히 더욱더 확립되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이다(Hendriksen).
 (2) '나라이 임하옵시며'는 예수의 가르침의 계속된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到來)를 대망하는 것이다.
 (3) 이 말 속에는 그 나라가 현재 이 세상에서, 즉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과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눅17:21).
 (4)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뜻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5) 한편 성도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참조, 9:62; 행14:22; 약2:5).

7. **㉠ 양식(糧食)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간구하여야 하는가? (3절)**

- ㉠** (1)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日用)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교훈을 주셨다.
 (2) 여기에서 양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르토스>는 일반적인 양식을 대표하는 말이다. 양식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필수품으로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 이 교훈 중에서 '날마다'(헬, 토 카타 헤메란)라는 말과 계속적 현재라는 측면에서 사용된 '주옵시고'라는 말을 볼 때 양식에 대한 우리의 간구는 날마다 계속해야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4) 즉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했다가 그것이 충족되면 곧 잊어버리고 마는 타성(惰性)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히12:2).

8. **㉠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여야 하는가? (4절)**

- ㉠** (1)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고백을 하여야 한다.
- (2) 이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3)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和睦)하라 하시지 않았던가!(마5:23, 24)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에게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용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
- (5)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엡4:32; 골3:13).

9. **㉠ 우리는 시험에 대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4절)**

- ㉠**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여야 한다.
- (2) 여기에서 '시험'(헬, 페이라스모스)이란 '유혹'(temptation)을 의미한다. 이 유혹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성도를 미혹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 (3)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test)과는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고전10:13; 약1:2, 3; 계3:10).
-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사단의 시험에 빠질 만한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항상 경성(警醒)하여야 한다.
- (5) 설령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은 주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며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히2:18; 벧후2:9).

10. **㉠ 예수께서 말씀하신 5-8절의 비유는 어떤 내용인가?**

- ㉠** (1) 이 비유는 한밤중에 예상도 못 한 벗의 방문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곤히 식구들과 함께 잠자고 있는 다른 한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는 내용이다.
- (2) 물론 그를 밤중에 방문한 그 친구는 낮에 더위를 피하면서 밤에 여행을 하였을 것이다. 그는 여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음식과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를 방문했을 것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그의 방문은 특별한 일로서 친구를 당황케 하기에 족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막 지대가 아닌 중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낮에 여행하는 것이 흔한 일로 밤에 여행한다는 사실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고 둘째, 찾아온 손님에게 떡을 조금만 대접했다든가 이미 떼어 놓은 떡 조각을 내놓는 것이 손님에 대한 모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아무런 음식이 주인에게는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그 사람은 자구책(自求策)으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온 식구가 방 한 칸에 기거한 것으로 보아 그 친구도 가난했으며 둘째, 자는 식구들을 깨우지 않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친구로부터 빵 세 덩이를 얻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공 요인은 바로 그 사람의 '강청'(強請)에 있었다.

11. **㉠ 5-8절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그 사람이 빵 세 덩이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부대 조건을 초월한 '강청' 때문이었다.

- (2) 여기서 ‘강청’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아나이테이아>는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때나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는 것’이란 뜻을 지녔다.
- (3)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하시고 있다. 즉 성도의 기도 자세는 항상 강청과 열심과 끈기를 지녀야 한다고 하셨다.
- (4)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한 번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든가 또는 장난과 건성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약2:2,3).

12. **㉠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9점)**

- ㉠** (1)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 (2) 구하는 것은 필요에 대한 인식 속에서 겸손히 청원하는 것을 뜻하고, 찾는 것은 구하는 일에 행함을 더한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구하는 일에 행함과 인내를 더한 것이다.
- (3) 이 속에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모두 들어 있다. 즉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지속적인 기도의 노력 등이 내포되어 있다.
- (4)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 속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요소들인 불순종, 의심, 행함이 없는 것, 무관심, 죄를 회개치 않음, 완악함, 방종 등이 전혀 없다.
- (5) 한편 이 세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

13. **㉠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바른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9, 10 점)**

- ㉠** (1)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 (2) 이것은 바른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다(시91:15; 사58:9; 습13:9; 요15:7). 이 약속은 영원히 깨어지거나 약화되는 법이 절대로 없는 확고한 보증 수표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마7:11).
- (4) 그런데 주목할 점은 기도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차치(且置)하고라도, 언제나 기도자의 그릇된 태도에 있다는 사실이다(참조, ㉠12).
- (5)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기도 태도에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4. **㉠ 예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풍족한 응답을 설명하셨는가? (11-13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비유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묘사한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올바른 태도로 간구하는 기도자를 향해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이 담겨 있다.
- (3)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너희가 …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13절)라는 예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4) 한편 누가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마태는 ‘좋은 것’(마7:11)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도 귀한 선물이 성령임을 의미한다.
- (5) 우리는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참조, 요9:31).

15. **㉠ 예수께서 병어리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14-16절)**

- ㉠** (1) 그것을 기이히 여기면서 더러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 (2) 이런 사람들의 태도의 초점이 되는 것은 예수의 권위와 권능의 근원이 무엇이나는 문제였다.
- (3) 사람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더욱더 불신 풍조에 젖어 들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해진 까닭이었다. 귀신들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때(8:28)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아이로니칼하다 아니할 수 없다.
- (4) 예수께서는 17절 이하에서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여긴 사람들의 자세를 책망하시고 29절 이하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논박하셨다.
- (5)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를 하나님께의 아들이로서 보지 못할 때에 범하기 쉬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경책해야 한다.

16. **㉠** 바알세불은 어떤 신인가? (15절)

- ㉠** (1) 바알세불(Beelzebub)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말로 구약의 명칭은 바알세뱌(Beelzebub)이다.
- (2) 바알세뱌는 블레셋 에그론 성읍의 수호신으로서 ‘거주의 신’, ‘높은 곳의 주’라는 의미를 지닌 신이었다(참조, 왕하1:2; 마10:25).
- (3) 바알세뱌이라는 말은 ‘주인’, ‘두목’, ‘남편’이라는 뜻의 <바알>과 ‘파리’라는 뜻을 지닌 <세뱌>의 합성어로서 ‘파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이다. 즉 제물 주변에 몰려드는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를 쫓아내는 신이라는 뜻이다.
- (4)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세뱌>과 히브리어 발음이 유사한, ‘똥’, ‘불결함’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어 <세뱌>를 사용해 이방 신들과 사단의 무리들을 향해 ‘똥’ 또는 ‘불결의 신’이라는 뜻인 <바알세뱌>로 불렀다.
- (5) 그러므로 <바알세뱌>이라는 말 속에는 냉소적이고 경멸적인 조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17. **㉠**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17-19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 말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답변하셨다.
- (2) 즉 이 말씀 속에는 분쟁하는 집이나 그 나라가 분쟁으로 멸망하듯이 자신들도 분쟁하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사단의 무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리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3) 더 나아가 사단의 무리들은 예수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일사 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며 결코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 (4) 이와 더불어서 예수께서는 만약 자신이 바알세불이라면 당시 귀신들을 내쫓는 유대인들도 사단의 무리라고 선언하셨다(19절). 즉 예수께서는 한 편으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귀신 쫓는 것을 비난하는 일이 어불성설(語不成說)임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다.
- (5) 이처럼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즐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계략과 말에 진실성이 없고 행동이 모순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소 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기본 태도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요일3:18).

18. **㉠**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 (2) 즉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자신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 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세계는 결코 협력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철저히 대립되어 있다.
- (4)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음을 나타낸다.
- (5) 그러므로 성도가 어두움의 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관건(關鍵)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엡6:10-13).

19. **㉠**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1, 22절)

- ㉠** (1) 강한 자는 충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사단을 가리키며, 더 강한 자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2) 예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3) 예수께서는 이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 내심으로 강한 자 사단을 물리치기 시작하셨고 순간순간 귀신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와해(瓦解)시키셨다(4:1-13).
- (4) 결국 사단의 완전한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갈6:14; 골2:15)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계20:1-3) 이루어진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4:20).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둠의 영들을 담대히 깨쳐 나가야 한다(딤후6:12).

20. **㉠** 사단의 패배를 성도의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라(21, 22절).

- ㉠** (1)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사단의 종 노릇하는, 즉 우리의 사고(思考)나 행동의 중심은 사망으로 귀결(歸結)되는 육체의 일일 수밖에 없었다.
- (2)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5:19-21)으로 얼룩진 길이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서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3) 하지만 사단보다 더 강한자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이런 사단의 막강한 군세(軍勢)는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만다.
- (4)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님을 뜻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참조, 요5:24). 이것이 중생한 상태이다.
- (5) 그래서 세상 곧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찬 가치관, 인생관, 행위를 벗어버리고 모든 관심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로 바뀌지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더 강한자인 그리스도가 사단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자의 삶은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께서 계속 승리하는 삶이어야 할 것이다(갈5:22-26).

21. **㉠** 신앙에는 중도(中道)가 있을 수 있는가? (23절)

- ㉠** (1) 신앙에는 결코 중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2)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십자가 군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이다.
- (3) 그런 까닭에 사도 요한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져 내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계3:15, 16).

- (4)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성도들을 향해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선언하였다(약 3:10-12).
- (5) 이처럼 신앙 생활에도 결코 회색 지대가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결단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22. ㉠ 예수께서는 일단 귀신이 나갔지만 당신을 영접치 않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하셨는가? (24-26절)

- ㉠ (1) 예수께서는 일단 나온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그 처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므로 인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 (2) 이 경우는 영적인 갱생은 있었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시 않는 경우이다. 즉 귀신이 나간 이후 한동안 증립과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성령을 영접치 않으므로 해서 들이킬 수 없는 도덕적 파국에 빠지게 된 상태이다.
- (3) 그의 도덕적 파국의 정도는 ‘거하니’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카토이코>가 ‘정착하다’, ‘영구히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 (4) 이처럼 신앙의 증립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한편 ‘물 없는 곳’, 즉 광야는 악한 영들의 서식처로서 알려졌다(참조, 마8:28).
- (5)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내어놓아야 한다. 그럴 때에 사단이 주는 수치와 파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소유하게 된다(엡 6:23).

23. ㉠ 예수께서는 ‘당신을 뱀 태(胎)와...’라고 외친 여인을 향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27, 28절)

- ㉠ (1) 예수께서는 ‘오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런 예수의 대답은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즉 마리아가 얼마나 복받은 여성인가 라고 외친 그 여인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신 채 복 있는 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 보다 중요한 진리를 언급하신 것이다.
- (3)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와의 육체적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 생활, 즉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 (4)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롬9:8; 빌2:15).
- (5)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키는’ 것은 행함을 의미한다고 볼 때 진정으로 복된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다(참조, 약2:17-20).

24. ㉠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을 제시하셨는가? (29, 30절)

- ㉠ (1) 예수께서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시면서 요나의 표적(表蹟)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 (2) 그와 더불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자신도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마12장 ㉠ 22, 23).
- (3)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듯이(요1:17) 예수 자신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사건을 가리킨다.
- (4)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리신 것이다.

(5) 현대는 요나 당시나 예수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패역한 세대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참조, 히12:2).

25. **㉠ 예수께서는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자가 누구라고 하셨는가? (31, 32 절)**

㉠ (1) 예수께서는 심판 때에 남방 여인과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본시리즈 마12장 **㉠**24를 참조하라.

26. **㉠ 예수께서는 눈과 몸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34 절)**

㉠ (1)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만일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란 말은 눈이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눈은 몸 밖에 있는 광원(光源)을 인간이 감지(感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3) 그러므로 눈이 건강하면 온몸 또한 그 혜택을 입게 되고 눈이 상해서 빛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영향을 입게 된다.

(4)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의 눈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즉 '성하면'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플루스>는 '단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진리와 선을 행해서 마음의 눈이 단순하게 모아져 있으면 그 영혼과 삶이 밝게 된다는 의미이다.

(5) 반면에 마음의 눈이 '나쁘면' (헬, 포네이로스, 악하다는 뜻), 즉 악에 시선의 초점이 모아지면 그 영혼과 인격도 부패해지고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이처럼 마음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인격의 생사(生死)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온전히 생명되신 그리스도에게 모으도록 날마다 힘써야 할 것이다.

27. **㉠ '네 속에 있는 빛'이란 무엇인가? (35 절)**

㉠ (1) '네 속에 있는 빛'은 양심을 가리킨다.

(2) 이 양심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

(3) 하지만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양심은 무디어지고 왜곡되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것으로 ① 의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화인(火印) 맞은 양심(딤후4:2) ②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하여지고 더러워진 양심(고전8:7; 딤후1:15) ③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들의 선하고 착하며 청결한 양심(행23:1; 딤후1:15; 딤후1:3) 등이 등장한다.

(4)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은 성도들의 선하고 청결한 양심 곧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의미한다(롬9:2). 성도는 이 양심이 항상 육적이고 타락한 생각에 무디어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경성(警省)해야 한다.

28. **㉠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의 어떤 면을 보고 이상히 여겼는가? (37, 38 절)**

㉠ (1) 그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점심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2) 당시 식전(食前)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예의였으며 관습이었다.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결례였다.

(3) 그 바리새인은 위대한 랍비 예수께서 당연히 그 규례를 준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대로 예수께서 행하시지 않자 이상히 여긴 것이다.

29. **㉠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셨는가? (39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지적하셨다.
- (2) 여기에서 ‘잔과 대접의 겉’은 율법의 내면적인 정신은 망각한 채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의미한다(참조, ㉠30).
- (3) 본래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하며 모세의 율법을 생활 전반에 적용하려고 했던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이처럼 그들의 종교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 (4) 이들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표리 부동(表裏不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외형적 아름다움과 경건울 선하다고 하시지 않고 화 있다고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생활해야 할 것이다(참조, 신6:4-9).

30. **㉠ 바리새인들은 어떤 심일조를 바쳤는가? (42절)**

- ㉠** (1) 바리새인들은 박하(薄荷)와 운향(芸香)과 모든 채소의 심일조를 드렸다.
- (2) 여기에서 ‘박하’는 방향 식물로서 잎과 줄기에는 약이나 음식물의 조미료에 사용되는 향내 나는 기름이 들어 있다. 또한 ‘운향’은 강한 냄새가 나는 사철 관목으로 회색이 도는 잎사귀와 노랑색의 꽃송이를 가지고 있으며 양념, 약, 장식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 (3) 이러한 그들의 심일조는 율법에서 지키도록 명령된 심일조 규례(레 27:30; 신 14:22)와 일치하는 것이다.
- (4) 그러나 형식은 일치할지라도 그 본질, 즉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전혀 그 심일조 속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수탈하고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다.
- (5)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예수께서는 책망하셨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낫게 여기시며,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삼상 15:22; 미 6:8).

31. **㉠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기뻐하였는가? (43절)**

- ㉠** (1)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 (2)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든 회중을 바라볼 수 있는 앞자리로서 그곳에 앉으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고 상당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자신의 세속적인 명예와 위치를 자랑함과 동시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나타낸다.
- (3) 이와 같이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한 결과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 버렸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 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던 것이다.
- (4)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평토장(平土葬)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다(44절). 즉 무덤에 아무런 표식이 없으므로 인하여 그 무덤을 접촉한 자로 하여금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의식적인 불결을 갖게 하는 보이지 않은 무덤으로 비유하셨다.
- (5) 주를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인정을 받으려 하기 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와 동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빌 2:3, 4).

32. Q 예수께서는 율법사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셨는가? (46-52절)

- A (1) 첫째, 그들이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46절).
- (2) 즉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전승된 613개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교묘한 말로 이를 피했다는 것이다.
- (3) 둘째, 그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들이 쌓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47절).
- (4)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단지 선지자들이 묻힌 무덤을 높게 쌓고 미화(美化)하는 그들의 태도가 표리 부동한 것임과 동시에 죽은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것보다 살아 있는 성자, 즉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를 존경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임을 알리신 것이다.
- (5) 세째,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던 사실을 지적하셨다(52절).
- (6)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을 인간들이 만든 사소한 규정들과 조항들에 복종함으로써 얻는 구원으로 대체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참된 지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3. Q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담당할 선지자들의 피의 영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셨는가? (50, 51절)

- A (1) 예수께서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 즉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지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아벨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들로(창4:2) 그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창4:8). 예수께서는 이런 아벨을 인류 최초의 순교당한 선지자로 지칭하셨다.
- (3) 사가라는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여호와와 전 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들로 쳐죽임을 당한 선지자 스가라를 가리킨다(대하24:20-22).
- (4)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聖經分類法)에 의하면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사가라를 구약의 마지막 순교당한 선지자로 취급하셨다.
- (5) 그러므로 아벨과 스가라는 최초의 순교자이며 최후의 순교자로서 모든 순교당한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 (6) 결국 예수의 말씀은 이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으면서도 회개치 않은 유대인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완악하게도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의 음모를 지적하신 것이다(53, 54절)
- (7)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A. D.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었다. 이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4. Q 사가라는 어떤 인물인가? (51절)

- A (1) 사가라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라를 가리킨다(참조, Q32).
- (2)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사가라를 가리켜서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마23:35).
- (3) 그래서 혹자는 마태가 '여호야다의 아들'(대하24:20)과 '베레가의 아들'(슌1:1)을 혼동해서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4) 그러나 이런 실수를 마태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마태 자신도 구약이나 이스라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유대교

로부터 개종한 자들, 즉 누구보다도 그들의 관습에 대해 환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학자들은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바라가는 여호야다의 새 이름이거나 추가명(여호야다 바라가)이다. 새 이름 혹은 추가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을 때 보통 붙여진다(창32:28; 사6:32). 이 견해에 따르자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 (6) 두번째로 여호야다는 사가라의 조부의 이름이고 바라가는 아버지의 이름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부가 생존시 또는 조부가 유명한 사람일 경우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조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아들을 ‘...(조부명)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창46:21).
- (7) 그러므로 사가라를 여호야다의 아들 또는 바라가의 아들로 호칭했다고 해서 이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연구자료

올바른 기도. 본장에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은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2절)면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온다(1-4절). 그러므로 본고(本稿)는 주기도문을 참조하는 가운데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도란 다름아닌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이자 영적 교제이다. 그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뿐 아니라 회개와 고백, 간구와 탄원 등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는 ‘아버지여’ (2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참조, 마 7:21). 다음으로 기도에는 영원(永遠)을 사모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 있는 것은 ‘위엿 것’ (골 3:1), 즉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참조, 고전 7:31).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義)와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장차 이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계 20, 21장).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들에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2절)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숨김없는 자기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인격과 언어만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제 12장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分辨)하라

단락구분 1-5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 6-9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 10-15 용서받지 못할 죄 / 16-22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 23-27 어리석은 열려 / 28-30 거룩한 목표에 대한 권면 / 31-33 오직 구할 하나님의 나라 / 34-36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 / 37-38 주의 재림의 대망(待望) / 39-40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 / 41-46 인생의 청지기직 / 47-51 특권에 따른 심판 / 52-53 진리로 인한 분열 / 54-59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영적 무지

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밋밋한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 이렇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4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 참새 다섯이 앓사리온 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있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9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15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16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고 하고

18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은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쭙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이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39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42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많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러 함이로라

52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라

53 아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나 과연 그러하고

55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나 과연 그러하니라

56 의심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58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 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 네게 이르노니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라.

- ㉠ (1) 본장의 무대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의 집 바깥으로 바뀐다. 이때에 수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고 이들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이 본장의 내용이다.
- (2)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요구하셨다(31절).
- (3)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富饒)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무리들을 교훈하셨다(13-21절).

- (4) 그와 더불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시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 즉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하셨다(5절).
- (5)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최후 심판이 임박한 시기임을 경고하시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고 대망하기를 선포하셨다(40, 56절).
- (6)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으며 의식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롬12:2).

2. C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절)

- A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leaven)에 비유하셨다.
- (2) 본래 ‘누룩’(헬, 유메)이란 가루 반죽이나 액체를 발효시키기 위해 넣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전에 사용하던 반죽으로부터 남겨 놓은 약간의 발효된 반죽을 가리킨다.
- (3) 또한 누룩이 반죽의 덩어리를 발효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는 사실로 인해 상징적으로는 점진적인 내적 작용에 의해 전체를 썩어 주거나 조절, 변조, 부패 혹은 변화시키는 요소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종교적인 악한 욕망과 불의와 불경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사람에게는 거룩한 교훈을 요구하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체하며 끝내는 사회와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였다(마16:11; 막8:15).
- (5) 이처럼 우리는 마음과 외형적인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삶이 자신의 인격 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썩먹는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C ‘외식’이란 말의 기원을 설명하라(1절).

- A (1) ‘외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크리세이>는 본래 헬라(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단순히 역(役)을 맡는 것을 뜻한다.
- (2) 이 역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우라고 부르는데 배우는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대본(臺本)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 (3) 그러므로 ‘외식’이란 말은 곧 실체가 아닌 것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가면 뒤에다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는 이중적인 기질을 의미한다.
- (4)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을 범하여 바울의 책망을 받았듯이(갈2:11-13) 우리들도 외식을 범하기 쉬우므로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 코람 데오) 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살전1:3; 3:9, 13).

4. C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숨긴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3절)

- A (1) 그들이 감추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고 숨긴 모든 것들도 적나라하게 알려질 것이다.
- (2) 즉 그들의 외식과 부정직한 모든 행위들이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마16:27; 계20:12).
- (3) 그때에는 외식자들의 화려한 가면들이 벗겨지며 그들의 추잡한 모든 모습들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
- (4)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

에서 진실되고 순결하게 행해야 한다(고전5:8).

5. **㉠ 골방과 집 위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3절)**

- ㉠** (1) 골방은 원래 팡(창고)을 의미한다. 이 ‘팡’은 세계와 차단된 곳이므로 ‘골방’(내실)이라는 제 2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
- (2) 따라서 골방에서 되어드는 모든 이야기들은 은밀하고 비밀한 이야기들로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이야기, 즉 남에 대한 험담이나 음모, 권모 술수(權謀術數)가 주를 이룬다. 이것은 ‘어두운 데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비교, 미2:1).
- (3) 그러나 최후 심판의 날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집 위’에서 전파가 될 것이다.
- (4) 여기서 ‘집 위’란 지붕 꼭대기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공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 (5) 그러므로 집 위에서 전파가 된다는 말은 모든 음모와 권모 술수 등 의식자들의 죄악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폭로될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 곧 ‘광명한 데서 들리고’이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폭로될 음모와 권모 술수를 일삼는 데 우리의 정력을 쏟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날로 진보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도록 힘써야 하겠다(답전4:15).

6. **㉠ 예수께서는 본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셨는가? (4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친구’라고 부르셨다.
- (2) 이 ‘친구’(헬, 필로스)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해 결속된 친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자들은 예수의 택함에 의해 친구가 된 것이다.
- (3) 한편 예수께서는 요15:14에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오늘날 성도들도 곧 예수의 친구임을 의미한다.
- (4)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요15:13).
- (5)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친구로서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었다.
- (6) 우리들은 중국의 고전에서 배반한 친구에 대하여 끝까지 우정을 버리지 않고 이해와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는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아름다운 미덕을 읽기도 한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목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조, 요일4:20, 21).

7. **㉠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인가? (4,5절)**

- ㉠** (1) 예수께서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하셨다.
- (2)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사단의 세력과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당신의 뜻대로 좌지 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잘 비교되어 있다.
- (3) 그런데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가짐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서는 약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만하고 때로는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외적인 권력 행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럼 보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오늘도 권력자와 미천한 자 모두를 다스리시며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신28:56-68).

8. **㉠ 지옥의 어근(語根)은 무엇인가? (5절)**

- ㉠** (1) 지옥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게엔나>이다.
 (2) 이 말은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골짜기로서 어린아이를 물룩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힌놈의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유래되었다(레 18:21; 왕상 11:7).
 (3) 구약 시대에 유대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 자녀를 이방 신에게 바치는 패역한 일들을 행했지만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으로 그런 이방 관습은 근절되게 되었고(왕하 23:16) 그 이후에 힌놈의 골짜기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으로 간주되었다(렘 7:31; 19:6).
 (4) 신약 시대에 와서 그곳은 오물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언제나 오물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 올랐다. 이런 모습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데 안성 마춤이었다.
 (5) 한편 <게엔나> 말고도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로는 <하데스>가 있다. 그러나 <하데스>가 몸을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곳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인 반면, <게엔나>라는 말 속에는 심판의 개념이 들어 있다.

9. **㉠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6, 7절)**

- ㉠** (1) 앓사리온 들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 가운데 1마리조차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2) 당시 로마 화폐 단위 가운데 1앗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했다. 따라서 참새의 가격은 매우 싸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3) 이처럼 새들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값싼 것까지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부르신 우리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4)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표현하셨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까지도 염려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할 것이다(사 41:10).

10. **㉠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 (8절)**

- ㉠**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2) 즉 이 말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핍박 중에서도 당신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인정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의미이다(약 1:12).
 (3)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성도가 힘쓴 일에 대해 풍성하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4) 그 반면에 사람 앞에서 당신을 부인한 자들을 예수 역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다(9절). 결국 그들이 가는 종착역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 불이다(계 20:15).

11. **㉠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10절)**

- ㉠** (1) 말로써 예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冒瀆)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2) 이와 같은 경우가 마 12:31에 기록되어 있다. 즉 예수께서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쳐 주신 일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공로로 돌렸을 때 예수께서 본절과

같이 답변하셨다(참조, 마12장 ㉑19).

- (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령 모독죄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와 같다.
- (4)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결코 진정으로 슬퍼하거나 회개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마음을 강박케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 대한 음모를 획책한다.
- (5) 그러므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죄 용서 곧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진실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6) 이를 역(逆)으로 볼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의 허물이 아무리 불미스러운 것일지라도 죄 용서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의 관건은 '회개'에 있다(사 55:7).

12. 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11절)

- ㉑ (1) 예수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政事) 잡은 이와 권세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이라고 표현하셨다.
- (2) 여기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종교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던 장소이면서도 율법이나 규례를 범한 자를 재판하는 법정이었다.
- (3) 그리고 '정사 잡은 이와 권세있는 이'란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세상의 통치자를 가리킨다.
- (4)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끌려가 무죄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존재한다. 성도는 항상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벧전 4:12, 13).

13. 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받을 때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11절)

- ㉑ (1) 예수께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고 하셨다.
- (2) 여기에서 '대답하며'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폴로게오>는 '법적으로 옹호하고 발언을 하다'라는 법을 용어이다.
- (3)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 의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조차 자기를 옹호하거나 변론하는 발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 (4)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12절).
- (5)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악인들에 의해 고통받고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롬8:26) 그들이 권세있는 자들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도와 주신다(요 14:26).
- (6) 이런 예수의 확신에 찬 보증이 제자들로 하여금 박해에 대한 염려와 공포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벗어 던지게 했고 일생을 주와 그 복음을 위해 살게 했으며 위대한 순교의 길을 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참조, 6장 ㉑10).
- (7) 더우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께서는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늘 평안할 수 있게 만드신다(참조, 요 14:16-18, 26, 27).

14. ㉑ 예수께서는 유업(遺業) 문제로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가? (13-15절)

- ㉑ (1)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수락하시지 않으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권고하셨다.

- (2)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가 유산 상속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 (3) 즉 유산의 상속 문제는 신 21:15-17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선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의 형과 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그 사람의 태도는 전적으로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형제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극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까닭에 물질 앞에서는 형제간의 우애나 다른 사람의 시선도 내팽개친 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이 탐심에 이끌려 물질의 지배를 받을 때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엡5:3).

15. **㉠** 예수께 도움을 청한 무리 중의 한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13절)

- ㉠** (1) 그 사람은 예수를 랍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음이 분명하다.
- (2) 당시 랍비들은 율법 해석의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고 판결을 내려 주기도 하였다.
- (3)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도 다른 랍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 (4) 이런 그의 자세로 보아 예수를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였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 (5) 그러므로 4절의 예수의 말씀은 자신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이 감기운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한 꾸짖음이요 한탄이라고 할 수 있다.

16. **㉠** 탐심은 무엇인가? (15절)

- ㉠** (1) 탐심은 문자적으로 더 많이,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의미한다.
- (2) 일단 이 탐욕에 빠진 자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며 단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물질이나 명예, 육적인 쾌락의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
- (3)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탐욕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행위(시39:6), 항상 불만족(합2:9), 모든 악의 근원(딤펵전6:9-11), 땅에 속한 것, 우상 숭배(골3:5)라고 표현하였다.
- (4) 이와 더불어 욕망을 억제하라(21:34), 항상 자신을 살피라(롬13:13), 예수를 힘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4), 더 이상의 욕심을 멀리하라(딤펵1:7)고 경고하고 있다.

17. **㉠** 예수께서 비유로 들으신 부자는 어떤 자인가? (16-21절)

- ㉠** (1) 첫째, 내일(來日)이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자이다(19, 20절).
- (2) 둘째, 물질이 그의 영혼을 전혀 살찌우지 못하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이다(19절).
- (3) 셋째, 자신의 배부름은 돌아볼 줄 알면서도 형제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자이다(17절).
- (4) 넷째,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이다(21절).

18. **㉠**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물질관(物質觀)은 어떠한가? (16-21절)

- ㉠** (1) 기독교인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2) 그럼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 등을 깨닫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영달과 쾌락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 하였다.

- (3)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로부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富饒)치 못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부자인건 가난한 자인건 간에 물질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참조, 롬42장 연구 자료).

19. **Q 의·식·주에 관한 염려가 성도에게는 합당한 것인가? (22-31절)**

- A** (1)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염려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31절).
- (2) 왜냐하면 들짱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22, 29절).
- (4) 오직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31절; 마6:33, 34).

20. **Q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먹이시는가? (24절)**

- A** (1) 불결한 새로 간주되는 까마귀(레 11:15)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이를 채워 주시며 먹여 주신다(30절).
- (2) 사실 인간과 까마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창2:7).
- (3)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건에서도(요3:16) 인간의 고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 (4) 이와 같이 고귀한 존재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가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참조, 고전10:31; 고후4:6; 뱀전4:11).

21. **Q 남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무엇인가? (33절)**

- A** (1) 남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짐도 먹는 일이 없으며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의미한다.
- (2) 이런 견고한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각자가 가진 소유를 팔아 구제(救濟)하는 것이다.
- (3)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본시리즈 마태복음 6장 **Q** 25를 참조하라.

22. **Q 성도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 A** (1) 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보물’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보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장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 (3) 즉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보물은 돈, 명예, 인기, 명성, 권력 등일 것이고 성도의 보물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아니면 하늘나라일 것이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참조, 마6:24). 즉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다(16:13; 마6:24).
- (5) 한편 원문에는 본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가르>가 나온다. 이것은 본절이 32, 33절의 권고에 대한 이유임을 나타낸다.

23. **Q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준비하라고 명하셨는가? (35, 36절)**

- A**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다.
- (2) 이런 차림은 수종드는 종들의 대표적인 준비 상태에서 여행이나 싸움(엡6:14) 또는 일(참조, 뱀전1:13)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세이다.

- (3) 예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준비를 명하신 이유는 종들의 주인이 혼인 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37절).
- (4) 여기에서 ‘그 주인’은 곧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5) 한편 본절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로 비유된 반면, 마 25:1-13에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되었다.
- (6)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마24:44; 막13:35).

24. **㉠** 주인은 깨어 있는 종을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 (37, 38절)

- ㉠** (1) 주인은 이경(二更)이나 삼경에도 깨어 있는 종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며 나아와 수종(隨從)들 것이다.
- (2) 이런 상태는 종과 주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이다. 이 예기치 못한 태도의 돌변은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선물이다.
- (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준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누리게 될 성도들의 영광과 최상의 축복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요 13:4, 5).
-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재림을 철저히 준비한 성도를 비유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 로다’라고 말씀하셨다.

25. **㉠** 이경이나 삼경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30절)

- ㉠** (1) 이경이나 삼경은 모두 밤을 구분하는 시간 명칭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에는 밤을 사경으로 나누는 로마 시간법과 삼경으로 나누는 유대 시간법이 있었다.
- (2) 그러나 본절의 기록만 볼 때는 예수께서 어떤 시간법을 따랐는지 알 수 없다. 다음 도표에서 로마 시간법과 유대 시간법을 참조하라.

로마 시간법			유대 시간법		
초 경(저물 때)	해질 때-오후10시		초 경	해질 때-오후10시	
이 경(밤 중)	오후10시-오전 1시		이 경	오후10시-오전 2시	
삼 경(닭 울 때)	오전 1시-오전 4시		삼 경	오전 2시-해 뜰 때	
사 경(새 벽)	오전 4시-해 뜰 때		(새 벽)		

- (3)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경, 삼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때는 마치 도적이 올 때와 같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가 될 것이다(39절).
-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계신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치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40절).

26. **㉠**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42절)

- ㉠** (1)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오이코노모스>는 큰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를 가리킨다.
- (2)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주인을 대신하여 가사의 비용을 관리한다.
- (3) 그러면서도 청지기는 상당히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 성경의 대표적인 청지기로는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창 15:2)과 보디발의 청지기로 있었던 요셉(창 39:4-6)을 들 수 있다.
- (4) 한편 영적으로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시간, 재물, 생애, 재능 따위를 관리하는 영적인 청지기이다.

27. **㉠**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42-44절)

- Ⓐ (1)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히 자신의 직무(참조, ㉔26)를 수행하는 자이다.
- (2) 그런 까닭에 주인이 출타 중에도 맡겨진 주인의 재물을 늘이고(마25:14-17) 종들을 잘 관리하며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마24:45).
- (3) 이런 모습을 목격한 주인은 그에게 이전보다 더욱 많은 그의 소유물, 즉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 (4) 그러면서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어다’(마25:21)라고 말할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 등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난 다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참조, 마25:31-46).

28. ㉔ 악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45-48절)

- Ⓐ (1)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의 출타를 틈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노비(奴婢)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이다.
- (2) 이처럼 오늘날 최후 심판의 날이 자신의 세대에는 오지 않으리라고 호언 장담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에 몰두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과 시간 등을 낭비하는 자는 악한 청지기와 다를 바 없다.
- (3) 이런 자들의 결과는 어떠할까? 악한 청지기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렀을 때 엄히 맞고 악한 자가 받을 율(律)에 처해지듯이 최후의 심판 날 그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16:27; 제20:12).

29. ㉔ 예수께서는 심판 날 많이 받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48절)

- Ⓐ (1) 예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하실 것이다.
- (2) 즉 이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는 각기 다른데 예수께서는 그 달란트에 비례해서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예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여받은 달란트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곧 그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마25:15-17).
- (4) 그러므로 심판 날 자신의 달란트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책망과 더불어 그런 행위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25:30).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보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롬12:6-8).

30. 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49절)

- Ⓐ (1) 예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 (2) 그런데 다음 귀절에 보면 아직까지 불이 땅에 던져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심판 또는 성령의 세례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 (4) 이중에 심판설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심판 곧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골1:20; 히12:2).
- (5) 또한 성령의 세례설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보내 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요15:26; 16:7).

31. ㉔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는 무엇인가? (50절)

- A** (1)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란 그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참조, 막 10: 38). 왜냐하면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기 위한 육적인 요소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참조, 골 2: 12).
- (2) 이 십자가 사역은 죄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인이 되는 길이다. 그 길은 결코 기쁨과 즐거운 길이 아니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길이며 죽음이 수반되는 길이다(사 53: 3-9).
- (3)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吐露)하셨으며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22: 42)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다.
- (4) 이런 고통 중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우리는 흔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심정만을 일방적으로 호소하곤 한다. 이런 우리에게 고통 중에 보여 주신 예수의 모습은 귀감(龜鑑)이 된다.

32. **Q** 예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51-53절)

- A** (1)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얼핏 보면 어불성설(語不成說)로 들린다.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1: 79; 사 9: 6),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러 오신 예수께서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모순처럼 보인다.
- (3)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화평은 그런 영적인 화평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의미한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므로 인해 진리에 속한 자와 비진리에 속한 자, 즉 예수를 따르는 자와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 (4) 그런 까닭에 예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작게는 가장 공고(鞏固)한 인간 관계로 맺어진 가정에서조차도 극심하게 발생할 것이다.
- (5) 그래서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52, 53절).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때로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생계의 수단마저도 위협받는 등의 일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결단을 내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참조, 롬 8: 35; 고후 11: 23-27).

33. **Q**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꾸짖으셨는가? (54-56절)

- A** (1) 예수께서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分辨)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다.
- (2) 이러한 꾸짖음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몹시 더울 것이라는 일기 예보는 정확히 맞추면서도 A. D. 70년에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외형적인 경건 생활에 치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힐책하신 것이다(참조, 19: 14-44).
- (3) 이처럼 그들은 종교적 외형주의에 빠져서 땅의 바람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바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 (4)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영적 어두움은 예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더 나아가 깨달으려고 성실하게 노력하지도 않는 그들의 패역함의 결과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몸을 육적인 쾌락에 내던

지고 있다.

(6)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취할 마땅한 태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다(롬 12:2).

34. **㉠** 고소당할 자가 법관에게 가는 중에 해야 할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58절)

- ㉠** (1) 최선의 방책은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고소할 자와 화해하는 것이다.
- (2)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재판장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 재판장은 그를 관속(官屬)에게 넘겨 주며 관속은 그를 옥에 가두게 된다.
- (3) 이것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비유에서 언급된 말이다. 즉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신 말씀이다(참조, 미 7:19).
- (4)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요1:12)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행3:39).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는 방해물은 죄악이기 때문이다(사59:2).
- (5) 오늘날을 가리켜서 최후 심판 날을 향한 노상(路上)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할 자들은 지금이 곧 하나님과 가장 화해하기 알맞은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슌2:2).

35. **㉠** 호리(毫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59절)

- ㉠** (1) 호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렙돈>은 당시 유대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 가장 낮은 단위에 속한다.
- (2) 당시 통용되는 화폐에는 유대 화폐와 로마 화폐, 헬라 화폐가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명 칭	가 치	관계 성경
유	게라(Gerah)	세겔의 1/20	출 30:13
	베가(Beka)	세겔의 1/2	출 38:26
	세겔(Shekel)	금-은의 15배 은-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	대상 21:25 출 30:24 삼하 24:24
대	므나(Minah)	달란트의 1/60	19:13-25
	달란트(Talent)	금-은의 15배 은-6000 드라크마	대상 29:4 출 38:27
로	고드란트(Kodrantēs)	앗사리온의 1/4	마 5:26
마	앗사리온(Assarius)	데나리온의 1/16	마 10:29
	데나리온(Denarius)	하루 품삯	마 18:28
헬라	렙돈(Lepton)	로마 고드란트의 1/2	막 12:42
	드라크마(Drachma)	하루 품삯	15:8

(3) 한편 개역 성경에 ‘호리라도’라고 번역된 귀절이 원문에는 ‘마지막 렙돈까지’(until even the last lepton)라고 표현되어 있다.

제 13 장 회개에의 촉구

단락구분 1-5 억울한 죽음을 예로 들어 회개를 재촉하시다 / 6-9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죄후 / 10-17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던 여자를 고치시다 / 18-19 겨자씨 비유 / 20-21 누룩 비유 / 22-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 25-30 행악하는 자들이 심판 날 받게 될 보응 / 31-33 예수께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다 / 34-35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다

1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매펀이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년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0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 십 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디 하시고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마구에서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십 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때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고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20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고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22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 흑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 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29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30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31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고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설명하라.**

- ㉠** (1) 첫째,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학살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할 경우 그들도 갈릴리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을 권고한 선지자이다(1-5절).
- (2) 둘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이다(6-9절).
- (3) 세째, 18년 동안 귀신들려 앓은 결과 등이 급게 된 여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심으로써 사단을 몰아내시는 정복자이다(10-17절).
- (4) 네째, 등 굽은 여자의 치료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 (5) 다섯째,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보고 분을 낸 회당장을 책망하셨듯이 외식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시다(15-17절).
- (6) 여섯째,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죽음을 마다 하거나 피하지 않고 준비하신 담대한 분이시다(32, 33절).

2. **㉠ 두어 사람이 예수께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하였다.
- (2) 본절의 기록으로만 보아서 이 사건이 언제 무슨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 (3) 다만 당시는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혁명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긴장된 시기라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법이나 그밖에 다른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살육을 당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 (4) 즉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면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빌라도의 군사들에 의해 살육당하여 그들의 피가 그 제물에 묻혀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 (5) 이런 추측은 빌라도가 로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총독으로서 그 위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반란을 일으키기 쉬운 소질을 가졌다는 점에서(Josephus) 상당히 근거가 있다.

3. **㉠ 갈릴리 학살 사건을 듣고 예수는 어떤 태도를 보여 주셨는가? (2, 3절)**

- ㉠** (1) 예수께서는 갈릴리인들의 죽음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통념(通念)을 깨뜨리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 (2) 당시 사람들은 죽음, 병, 과부가 된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등 인생이 겪는 불행의 제반 사항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 (3) 그런 까닭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당한 이유를 자기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4)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예수의 비난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그들보다 결코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수께 와서 질문하던 자들의 죄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5) 우리도 때로 우리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보며

형제를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겸허한 자세이다(마 7:1-5).

4. **㉠ 예수께서는 또한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가?(4,5절)**

- ㉠** (1) 예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망대에 18명의 사람이 치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 (2) 이 사건도 역시 언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실로암의 망대는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악용해 만들었던 수로(水路)의 일부로서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밖 담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 (3) 어쨌든 예수께서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회개의 긴급성을 알리는 경교로 삼으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죽은 18명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수 있다.
- (5)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선고장(宣告狀)이 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발생하는 갖가지 재난과 사고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자신의 심령 상태를 고요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 무화과나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6-9절)**

- ㉠** (1)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나무는 유대 백성울, 열매는 회개를, 주인은 하나님을, 과원지기는 예수를 의미한다.
- (2) 무화과나무는 보통 매년 4월에 그 잎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5월과 6월에 겨울 무화과를, 8월말과 9월에 여름 무화과를 내며 영양 상태에 따라 9m 높이까지도 자랄 수 있다.
- (3) 한편 본질의 무화과나무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나무가 심어진 곳은 포도원으로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주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주인은 과원지기에 찍어 버릴 것을 명하였다.
- (5) 그러나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자신이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 줄테니 1년만 그 시한을 늦추어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 (6) 이처럼 이 비유 속에는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잘 나타나 있다.
- (7) 더우기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서 온갖 특혜를 누린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인내에도 분명하게 정해진 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 무화과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6-9절)**

- ㉠** (1) 첫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
- (2) 둘째, 땅만 축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땅만 버리듯이 회개치 않는 것은 땅의 영향분을 축내는 가치 없는 삶에 불과하다.
- (3) 셋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리기에 앞서 1년이란 기회를 주었듯이 현세대는 심판을 앞둔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4)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라고 선포했던 것이다(롬 2:5).

7. **㉠ 1년의 시한(時限)에도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8,9절)**

- ㉠** (1) 그 무화과나무는 동산지기에 의해 찍혀 버리게 될 것이다.
 (2) 이것은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와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이 받게 될 결과이다.
 (3) 이 비유대로 유대는 회개를 거부한 결과 A.D.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백성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며 온갖 고통을 당하였다.

8. **㉠ 안식일, 회당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11절)**

- ㉠** (1) 그 사람은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였다.
 (2)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은 바로 ‘귀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질병 가운데는 귀신이 원인이 되는 것들도 있다(9:39;11:14).
 (3) 한편 혹자는 그 여인의 병명을 ‘척수염에 의한 비틀림 현상으로 그녀의 척추 뼈는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져 버렸다’고 진단하였다(A. Rendle Short).
 (4)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질병으로 18년이란 생애를 고통과 절망 속에 보냈을 것이다.
 (5)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므로 인해서 병이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삶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6)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여인이 예수께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7)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온 분이시다(참조, 요 15:16).

9. **㉠ 예수께서 안수(按手)하시자 그 여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3절)**

- ㉠** (1) 그 여인은 예수께서 안수하시자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 여기서 안수(laid hands on)란 손을 몸에 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은 것을 가리킨다.
 (3) 이처럼 안수를 받자마자 그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혀 왔던 질병은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치료되었다.
 (4) 완치된 그 여인이 최초로 한 행동은 자신의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가족들에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5) 그것은 그 여인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자신의 질병을 낮게 해주신 분이 곧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6) 이와 같이 육신의 질병 혹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10. **㉠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14절)**

- ㉠** (1) 회당장은 분을 내어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덧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2) 이러한 그의 행동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 그는 권위주의자였

다. 왜냐하면 다분히 그의 분노가 자신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에게 한 마디 언질도 없이 일어났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 (3) 둘째,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십계명의 제 4계명(출 20:9)을 적용시키면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롬 13:10).
- (4) 셋째, 그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의 분노가 예수를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께 그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고 비겁하게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 (5)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그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 놓지 못한 자는 모두가 예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사 1:13; 29:13; 마 23:23).

11. **㉠ 안식일에 관해서 설명하라 (14절).**

㉠ (1) 본 시리즈 느헤미야 13장 연구 자료 ‘안식일과 주일’을 참조하라.

12. **㉠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14절)**

- ㉠** (1) 회당장(헬, 아르키쉬나고고스)은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회당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성전 중심의 제사장과는 대조적으로 회당장은 오늘날의 평신도 계열의 사람이었다.
- (2) 성경에서 나타난 회당장을 살펴보면 ① 본장의 회당장 ② 예수께서 살려 주신 소녀의 아버지 아이로(막 5:22-43) ③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연설할 것을 허용한 사람들(행 13:15) ④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행 18:8) ⑤ 바울의 첫번째 전도 여행시 고린도에서 만났던 회당의 회당장 소스데네(행 18:17) 등이다.

13. **㉠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을 어떤 말로 시작하셨는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馬廐)에서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는 말로 외식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셨다.
- (2) 실제로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다닐 수는 없어도 끌고 다니는 것, 물통 채로 동물의 입에 갖다 대어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되지만 물을 길어 구유에 붓는 것 등은 당시 관례로 인정되고 있었다.
- (3) 이와 같이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지켜졌지만 동물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율법을 철저히 요구하였다.
- (4)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율법의 본질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미 6:8)임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율법의 자구(字句)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 (5) 그러므로 예수의 공격은 안식일의 개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갖는 그릇된 편견 곧 자신들에게만 편리하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문자적으로 적용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 (6)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
- (7)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는 당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자신과 남에게 달리 적용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참조, 마 23:27, 28; 딤편 4:2).

14. **㉠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8-21절)**

- ㉠** (1) 예수께서는 겨자씨 비유(19절)와 누룩 비유(21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

(2) 자세한 것은 본 시리즈 마태복음 13장 ㉑14, 15를 참조하라.

15. ㉑ 어떤 사람이 예수께 대하여 문의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라는 질문의 배경을 설명하라(23절).

- ㉑ (1) 당시 구원에 관한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 (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선포하셨다(요 3:16).
- (3) 즉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명칭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고 선포하셨다.
- (4) 이것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견해와 차이가 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라고 질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6. ㉑ 예수께서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24절)

- ㉑ (1)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에서 ‘좁은 문’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킨다. 이 문은 혈과 육으로 들어가거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요 10:9; 행 4:12).
- (3) 한편 ‘힘쓰라’(헬, 아고니제스테)는 말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공공 시험에서 격투하다’, ‘적과 싸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그런데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들과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다투라는 뜻이다.
- (5) 이와 같이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여정에서(엡 2:8, 9) 날마다 사단과의 의로운 성전(聖戰)을 치루어야 하는 군사이다(담후 2:3, 4).
- (6) 결국 이 싸움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육신을 좇으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므로 인해서 패배하게 되고 성령의 전신 감주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승리하게 된다(엡 6:13).

17. ㉑ 우리들이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㉑ (1) 그 이유는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게 되면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집주인’은 구원 성의 성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3) 일단 집주인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노아의 방주 때처럼(창 7:16)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게 된다.
- (4) 비록 현재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25-27절).
- (5)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받을 만한 때가 따로 있다(고후 6:2). 그러므로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은 더욱 힘써 그 구원을 공고히 해야 한다(참조, 벧후 1:10, 11).

18. **㉠**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닫은 이후에 온 자들은 무엇이라고 요청하게 될 것인가? (25, 26절)

- ㉠** (1) 그들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 주기를 요청할 것이다.
- (2) 이 요청 가운데는 불행히도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한 마디도 들어 있지 않다. 오직 예수께서 제셨던 곳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가 가르치시는 곳에 있었다는 그 사실만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 (3) 이와 같은 요청은 그들의 최후의 심판 날 자신들에게 닥친 재난들을 보고 나서 놀란 나머지 나온 임기 응변(臨機應變)에 불과한 것이었다.
- (4) 이처럼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이, 성경을 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였다라는 사실이,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중직자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형적인 조건과 안면(顔面)만 가지고는 구원의 문을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롬3:30).

19. **㉠**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온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25, 27절)

- ㉠** (1)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 (2) 이미 이런 상태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한 신랑되신 예수의 대답 속에 예시되었다(마25:12).
- (3) 이와 더불어 심판자인 예수께서는 그들을 '행악(行惡)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호칭 하시면서 자기를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 (4) 결국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예수께 행한 멸시와 천대의 대가로 예수께로부터 철저한 멸시와 박대를 받게 되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마25:30).
- (5)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이 두 부류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한 부류와 지옥의 형벌을 맛보는 다른 한 부류로 나뉘게 된다(마25:31-46).

20. **㉠**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28, 29절)

- ㉠** (1) '슬피 울며'라는 말은 끝없는 비참과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음을 가리키며, '이를 갈고 있는'이란 말은 공포와 분노에 대한 표현이다. 이처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2) 첫째,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처지와는 달리 강제로 어두운 세계로 내쫓김을 당케 되었기 때문이다.
- (3) 둘째, 자신들이 무할레자라고 멸시하였던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21. **㉠** 29절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 (1)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킨다.
- (2)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의미한다.
- (3) 이미 이와 같은 이방인의 개종은 이사야(사2:2-4)나 미가(미4:1-5) 선지자 등을 통해서 예언된 바 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천국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들에게만 상속된다고 착각하였다(롬4:13).
- (5) 그러나 정작 최후의 심판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 교만히 행한 육적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 자손들이다(갈 3:29).
- (6)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30절).
 - (7)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은 외적인 직분이나 모습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마 24:44; 막 13:35; 살전 5:5, 6).

22. **㉠** ‘하나님의 나라 잔치’란 무엇을 뜻하는가? (29절)

- ㉠** (1) 하나님의 나라 잔치란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혼인 잔치를 뜻한다(계 19:7).
- (2) 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에 베풀어지는 잔치는 그리스도가 베푸는 승리와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다.
- (3)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릴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흔히 ‘잔치’로 비유되었다(참조, 잠 15:15; 아 2:4).
- (4)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실 잔치보다 더 흥겹고 즐거운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잔치가 배설된 곳은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장소였다.
- (5) 보통 잔치에는 포도주와 풍성한 음식이 나왔다. 아모스는 잔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상아 상에 누으며…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노래를…악기를 제조…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한다’(암 6:4-6).
- (6) 또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경우는 주로 경사(慶事)와 관계 있었다.
- ① 낫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창 19:3)
 - ② 생일(창 40:20; 마 14:6)
 - ③ 아이가 젖을 땔 때(창 21:8)
 - ④ 양털을 깎은 후에(삼상 25:11; 삼하 13:23)
 - ⑤ 포도를 수확할 때(삿 9:27)
 - ⑥ 공공 건물을 완공했을 때(대하 7:8)
 - ⑦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창 26:30; 31:54)
 - ⑧ 결혼식 때(삿 14:10)

23. **㉠** 예수께서 심판에 관해 교훈하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전해 준 소식은 무엇인가? (31절)

- ㉠** (1) 그것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므로 여기를 떠나라는 말이었다.
- (2) 즉 이것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Antipapas, B.C. 4-A.D.39)가 예수를 암살할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유대 지방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었다.
- (3) 그러나 이런 충고는 예수의 대답에서도 나타났듯이(32, 34절) 진실된 것이 아니었고 다분히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 (4) 그것은 비록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로마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서로 적대 관계가 있었지만 예수를 해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상호 보완적이었고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참조, 막 3:6; 12:13).
- (5) 사실 이런 충고로 헤롯이 예수를 자기의 통치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예수께서 민중을 선동해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 둘째, 예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을 보여 준다(9장 **㉠**6).
- (6) 악인들은 예수께 대항하기 위하여 흉악한 간계와 권모 술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시140:5).

- (7) 오늘날도 여전히 악인들은 성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그들의 음모를 진행시킨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함정과 장애물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참조, 시141:9, 10).

24. **㉠ 예수께서는 헤롯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32절)**

- ㉠** (1) 예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다.
 (2) 여기서 여우란 개 과(科) 여우 속(屬)에 속하는 육식 포유 동물로 팔레스틴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3) 여우는 이리보다 크기가 작고 털이 많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빠르고 간교하며 임기 웅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짐승이다.
 (4) 그러므로 예수께서 험박과 속임수로 그를 자신의 관할 지역으로부터 쫓아내려는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여우에 비유하신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5) 한편 혹자는 예수께서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라고 부른 이면에는 '비루(鄙陋)한 자', '추하고 부정직한 녀석'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한다.

25. **㉠ 헤롯의 사주를 받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무엇인가? (32절)**

- ㉠** (1) 예수께서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대답하셨다.
 (2)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라는 말은 예수께서 계속 그의 사역을 수행하시겠다는 의미이다.
 (3) 왜냐하면 12제자(9:1)와 70인의 전도대(10:9)를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고, 예수 자신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그 두 가지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말로 그런 당신의 사역이 무한정하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5) 예수께서 밝힌 '제 삼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라는 의미이다. 또한 '완전하여지리라'(헬, 텔레이우마이)는 말은 '끝맺는다', '완성하다'라는 뜻이다.
 (6) 이와 같이 예수의 구속 사역은 분봉왕 헤롯의 일정표가 아닌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그 완성 곧 십자가상의 죽음과 사흘 내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7)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인간의 일정표에 맞추기 보다는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춰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엡5:15, 16).

26. **㉠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갈 길'이란 무엇인가? (33절)**

- ㉠** (1) '내가 갈 길'이란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길,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상징한다.
 (2)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죄인된 인간이 대신 할 수도, 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런 그 길의 특징을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제셨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 한편 개역 성경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는 표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조적 성격을 지닌 헬라어 <테이>가 그곳에 삽입되어 있다.
 (4) 이것을 살려서 표현하면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가야 하리라'가 된다. 이것은 곧 위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목적과 필연성에 대해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5)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면서도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으신 채 성실히 그 일을 준비하셨다. 이런 예수의 모습은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에 쉽사리 위축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 **㉠**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셨는가? (34절)

- ㉠** (1)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派送)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호칭하셨다.
- (2) 사실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돌로 쳐죽이는 형(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되었다.
- ①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늘의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섬길 때(신17:2-17)
 - ②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행위(신 13:6-11)
 - ③ 신성 모독(레 24:14-23; 왕상 21:10-15)
 - ④ 물럭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레 20:2-5)
 - ⑤ 신접하거나 박수가 될 때(레 20:27)
 - ⑥ 안식일을 범할 때(민 15:32-36)
 - ⑦ 간음 행위(신 22:21-24)
 - ⑧ 부모에게 복종치 않는 아들(신 21:18-21)
 - ⑨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속여 탈취했을 때(수 7:25)
 - ⑩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출 21:18-21)
- (3) 그런데 이 형벌은 대체로 성밖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집행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손을 죄인의 머리 위에 얹어서(레 24:14) 공동체 전체의 죄가 그 죄인에게로 옮겨짐을 표시했다. 그 다음에 증인들이 첫번째 돌을 던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신 17:7).
- (4) 그러므로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며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처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 (5) 그런데 이런 극악한 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친 선지자들과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행하였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가 진리를 대적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 (6) 결국 이런 자들에게 예비된 길은 무엇이겠는가? 회개를 거부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고(창 7:21-23)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창 19:24, 25)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왕하 25:8-12), 북이스라엘 왕국이 앗수르에 의해(왕하 17:6) 칼로 멸망당했듯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다.
- (7)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본질의 호칭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곧 심판이 도래하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 (8) 이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진리를 접할 기회가 많았던 예루살렘이 이토록 패역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참성도들을 대적하며 악인들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참조, 행 7:54).

28. **㉠** 예루살렘이 받을 결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선포하셨는가? (35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선포하셨다.
- (2) 여기에서 '너희 집'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 (3) 결국 이 선포대로 A. D. 66년부터 3년 6개월간 계속된 폭동에 의해 그리고 A. D. 67년

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한 로마 장군 디도(Titus)에 의해 A. D. 70년 8월 6일 성전은 파괴되었고 헤롯이 세운 서쪽의 세 망대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과 그 요새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 (4)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르려는 자들을 향해 애통해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초보이다. 왜냐하면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 당할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기 때문이다(참조, 롬2:5).

29. **㉠**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5절)

- ㉠** (1) 첫째,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들의 마음과 삶에 영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2) 둘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까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다는, 즉 재림의 때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때임을 의미한다.

화보자료

예루살렘을 인하여 애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시가지(市街地)를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34절)라고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인하여 애통한 까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신 때문이었다. 못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참조, 왕상 18:4; 렘 26:20-23)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예수를 배척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었다. 즉 그들의 불의는 A. D. 70년 로마 장군 디도(Titus)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이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뿐이다(히 10:26-29).

제 14 장 예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

단락구분 1-6 안식일에 고창병자(蠱脹病者)를 고치시다 / 7-11 자기를 낮추라 / 12-14 낮은 사람을 청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라 / 15-24 전국 잔치의 비유 / 25-33 제자될 자의 각오 / 34-35 소금의 교훈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잠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2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나

4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7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시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13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들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능히 쌓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못 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

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 ㉠ 본장에는 예수의 어떤 교훈들이 등장하는가?

- ㉠ (1) 때는 안식일로서 본장 전반부의 무대는 바리새인의 한 두령(頭領)의 집이며 예수께서는 그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으셨다.
- (2) 먼저 예수께서는 고창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내셨고 그들의 외형적인 안식일관을 깨뜨리며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교훈하셨다.
- (3)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잔치 비유를 통해 겸손의 필요성을 설교하셨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란 세상적인 자기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비천한 자들임을 교훈하셨다.
- (4) 그 후 식사를 끝내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좇겠다고 나섰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의 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길임을 교훈하셨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 참된 겸손과 제자의 길이 단순히 일순간의 용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 부정의 결단이 요구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2. ㉡ 안식일에 예수를 집으로 초대 한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1점)

- ㉡ (1)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예수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 (2) 여기서 예수를 초대 한 바리새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두령’(헬, 아르콘)이란 말은 ‘지도자’를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예수를 초대 한 그 바리새인은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중 한 사람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위와 힘을 가진 지도급 인물이었을 것이다.

3. ㉢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예수를 안식일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 한 목적은 무엇인가? (1점)

- ㉢ (1) 그 목적은 예수의 행동을 관찰하여서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함이었다.
- (2) 이런 단정은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는 귀절에서 잘 나타난다.
- (3) 즉 ‘엿보고 있더라’(헬, 파라테 메노이)란 말 속에는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매복하다’, ‘노려보다’ 등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
- (4) 이와 같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필요한 안식일 만찬과 특별히 고창병 환자를 준비하였다(2절).
- (5) 이는 마치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울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길에 쳐놓은 폭풍 전야의 상태와 너무나도 흡사하다(시 140:5).
- (6) 이처럼 악인들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다(시 140:4).

4. ㉣ 예수 앞에 누가 있었는가? (2점)

- ㉣ (1) 예수 앞에는 고창병(蠱脹病)든 한 사람이 있었다.
- (2) 그의 병명인 고창병은 전문 용어로 수종병(水腫病, dropsy)이라고 한다. 이 병은 신체의 세포 조직 또는 신체의 각종 강막(腔膜)에 혈장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가리킨다.
- (3) 보통 수종은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신장이 병들었을 때 발생하는데 그 증세는 얼굴이 부어 오르며 팔과 다리는 크게 부풀어 굽지 않은 팽처럼 물렁하게 보인다. 따라서 본절의 수종병자의 수종도 심장, 신장 또는 간장 질병이 수반된 듯하다.

(4)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 예수께서는 고창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는가? (3절)**

- ㉠** (1)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냐’라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다.
- (2) 이 질문은 꽤 까다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자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당시 랍비들의 규제인 관계로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의 병 고침에 동의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 또한 반대한다 할지라도 잔인하다는 평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므로 이 질문에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한 채 잠잠히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4절).
- (4) 이와 같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며 해석하는 자들은 바른 진리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목도(目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 기준을 진리에 두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시 119:72, 105).

6. **㉠ 예수께서는 고창병자를 고치신 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는가? (5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
- (2) 에센파의 하나인 쿰란 공동체(Qumran community)에서는 안식일에 위협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 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이나 대부분의 랍비들의 안식일 규제 가운데는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안식일에 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 (3) 따라서 예수의 질문에는 안식일에 고창병자를 고쳐 주는 것과 같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 결코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 (4)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예수의 질문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를 수궁하였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 악인들의 흉계와 모함을 일축시키고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외적인 요소보다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을 간파하시고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7. **㉠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7절)**

- ㉠** (1)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좌(上座)에 앉으려는 소동이 일어났다.
- (2) 이런 소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을 알아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3인용 탁자를 U자형으로 배치해서 식탁을 배열하였다.
- (3) 이 U자형 식탁 가운데 좌석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앉았고 그의 왼쪽에 두번째로 높은 사람이, 오른쪽에 세번째로 높은 사람이 앉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주빈(主賓)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앉았다.
- (4) 그러므로 상좌에 혹은 상좌로부터 가까운 좌석에 앉을수록 지위나 신분이 고귀한 자임을 나타낸다.
- (5) 따라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툰 것은 자신의 명예나 신분을 남에게 뽐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6) 이처럼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고(잠 13:10), 자기 도취(렘 43:2)와 영적 타락(호 7:9,

10)을 유발시켜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한다(잠 16:18). 성도는 이런 교만을 일생을 두고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자.

8. **㉠ 예수께서는 참된 의미에서 높은 위치에 오를 자와 낮은 위치에 처할 자를 각각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11절)**

- ㉠** (1) 예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고 하셨다.
 (2) 무릇 이 원리는 인간 세상에 적용되기는 하지만(8-10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될 원리이다.
 (3) 이 원리 중 ‘낮아지고’(will be humbled)와 ‘높아지리라’(will be exalted)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
 (4) 이것은 인간을 높이거나 낮아지게 하는 열쇠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5) 한편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낮게 취급하는 자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인정하고 존귀케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다.
 (6)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자를 심판 날 높이시고 하늘나라를 소유케 하실 것이며 당신을 낮추는 자를 심판 날 모른다 하실 것이다(마 7:23).
 (7)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며 복종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임을 기억하자(참조, 왕상 3:6-14; 사 6:1-8; 약 4:10).

9. **㉠ 예수께서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빼플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먼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자선이 올바른 자선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2) 당시 식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상응(相應)하는 식사를 그를 초대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식사에 초대한 사람도 당연히 그 보상을 바라면서 식사를 베풀었던 것이다.
 (3) 특히나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가난한 자들이나 세리 등을 멸시하면서 그들과 분리의 벽을 두텁게 쌓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4) 그래서 자신들과 수준이 맞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만을 식사에 초대하며 그들과 교제하였던 것이다.
 (5) 결국 그들끼리의 식사 교류 및 자선은 복음의 참된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롬 12:13; 딤후전 3:2; 딤후 1:8; 벰전 4:9)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다(마 6:5).
 (6)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선과 교제의 범위를 소위 ‘통하는 사람’, ‘수준 맞는 사람’에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로 넓혀 가야 한다.

10. **㉠ 예수께서는 잔치에 어떤 자들을 청하라고 권유하셨는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잔치를 배설(排設)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권고하셨다.
 (2) 여기에서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은 당시 죄인으로 간주된 대표적인 자들로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가 없었다.
 (4) 그런 까닭에 그들에 대한 초대는 물질과 노력의 희생이 뒤따르는 순수한 자선일 수밖에

에 없다.

- (5)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만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수한 자선을 당신의 장부(帳簿)에 일일이 다 기록해 두셨다가 풍족하게 보상해 주신다(마6:4).
- (6) 그런데 이 보상은 현세적인 보상일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시에도 동참하는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다. 그러므로 불우한 이웃을 향한 자선과 선행은 곧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며, 희생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이 된다.
- (7) 성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볼 뿐더러 자선과 구제 같은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마6:3).

11. **㉠** 예수께서는 천국 잔치의 초대를 어디에 비유하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천국 잔치의 초대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던 것에 비유하셨다.
- (2) 이와 같이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곧잘 잔치에 비유하였다(참조, 13장 ㉠ 22).
- (3)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도는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초대받은 자답게 예복을 준비하는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진실한 삶(참조, 엡5:8, 9; 약1:27)을 살아야 할 것이다.
- (4) 왜냐하면 초대받은 자와 그 잔치에 택함 받은 자는 엄연히 구분되는데 그 기준은 예복을 입고 있는 유무(有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마22:10-14).

12. **㉠** 주인은 누구를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였는가? (17절)

- ㉠** (1) 주인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에 참여하기를 청하였다.
- (2) 한편 팔레스틴 지역의 풍습에서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계획하고서 바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1차 통보를 하고, 잔치 준비가 끝난 후 2차 통보를 하여 잔치에 초대를 한다. 본문에 제시된 초청도 바로 두번째 초청에 해당된다. 그런데 두번째 초청 대상자는 첫번째 초청 때 참석하겠다고 동의한 자들에 해당한다(참조, 예5:8; 6:14).
- (3)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종'은 선지자를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리킨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의 잔치를 말씀의 통해 백성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후에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셨다.
- (5)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교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동참하라는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
- (6)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와 교사, 복음 전도자 등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후3:3).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종'의 직분에 충실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겠다(참조, 19:17, 22).

13. **㉠** 주인의 초청에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18-20절)

- ㉠** (1) 첫번째 초청에 응하였던 그들은 종을 통한 주인의 초청을 약속이나 한듯 모두 거절하였다.
- (2) 그들의 거절 이유는 ①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가불(不可不) 나가 보아야 한다 ②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려 간다 ③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라는 등이다.
- (3)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 14를 참조하라.
- (4) 이런 그들의 거절은 첫째, 처음의 약속을 어긴 행위이며 둘째, 성심 성의껏 잔치를 준

비한 주인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고 모욕한 처사였다.

- (5) 이와 같이 인간들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하면서도 거저 주시는 구원을 완악하게 거절하려는 핑계를 끊임없이 제시해 왔다.
- (6)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자들은 초대 거절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14. Q 주인의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거절 이유는 무엇인가? (18-20절)

- A
- (1) 첫째 사람은 새로 산 밭을 불가불(不可不) 보러 나가야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 (2)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밭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 둔 그 밭은 내일도 모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 (3) 둘째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댔다.
 - (4) 이 사람도 첫번째 사람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를 살 때 소가 일하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소들의 값을 이미 지불한 관계로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 (5) 세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자신이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었다 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 (6) 사실 율법에는 결혼한 첫 해에는 남자에게 군대나 어떤 공적인 직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신부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신 24:5).
 - (7)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은 사회적인 접촉을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내를 잔치 집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 시키며 교제하게 하는 것이 훨씬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이 역시 알량한 거짓말이다.
 - (8) 이와 같이 그들의 이유는 하나같이 주인의 초대를 옹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온 타당성 없고 설득력 없는 것이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15. Q 주인은 종으로부터 사람들의 거절 이유를 보고받고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21절)

- A
- (1) 주인은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 (2)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뀌게 되었다. 그들은 주인의 집 잔치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참조, Q 16, 17).
 - (3)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계층인 그들이 더 축복받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 (4) 한편 주인의 잔치는 반드시 열릴 것이며 그것도 미리 정해진 그 시간에 열릴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 날도 인간들의 무관심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거나 연기됨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다(참조, 벧후 3:9, 10).

16. Q 주인은 남은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였는가? (23절)

- A
- (1)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強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다.
 - (2) 길과 산을 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자들이거나 사회적으로 버림 받은 소위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 (3) 이들은 21절의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보다 더욱 불행한 자들

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자들이었다.

- (4) 그러므로 이렇게 사회의 냉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길과 산에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종들은 이들을 찾아야 하며 또한 강권해서 주인의 집을 채울 임무가 있다.
- (5) 여기에서 ‘강권하다’는 말은 폭력이나 완력을 사용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인 권유를 의미한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宣敎的的使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해 가야 한다(참조, 빌1:12-18).

17. **㉠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16-20절)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24절)**

- ㉠** (1) 그들 가운데는 그들을 초대했던 집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 (2)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인 특권을 부여받아 누렸으며 그의 택하신 기업을 되였었다(신 32:9; 4:37; 사 45:4).
- (3)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하였고(삼상 15:23) 외형적인 신앙에 집착해 있었으며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특권을 상실하였다.
- (4) 이들이 잃어버린 영적 특권은 ‘길과 산을 가’에 있는 사람, 즉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레 자들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들에게 옮겨 갔다(엡 2:11).
- (5)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엡 2:12, 13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이제는 할레나 무할레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관건(關鍵)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의 조건이 되었다.
- (7) 우리는 본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 성도의 특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19:24-26).

18. **㉠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가족 및 자신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26절)**

- ㉠** (1)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야 한다.
- (2) 이 말은 언뜻 보기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마 15:4)과 자신을 사랑할 것(참조, 10:27; 마 22:39; 막 12:31)을 강력히 권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본질의 ‘미워하라’는 말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어휘로 보아야 한다. 즉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상들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농도보다 그 사랑의 농도를 열게 가지라는 것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말씀의 요지(要旨)이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위는 합당하지 못하다.
- (5) 어찌 자신과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요일 4:20)
- (6) 따라서 우리는 본질의 말씀이 성도가 지니는 사랑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에 관한 일임

을 기억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삶의 가장 앞에 두라는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마6:33).

19. **㉠**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27절)**

- ㉠** (1)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지 않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2) 자세한 것은 9장 **㉠** 18을 참조하라.
 (3)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직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알맹이라고 할 수 있다.

20. **㉠**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8-30절)**

- ㉠** (1)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아무 계산도 없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임을 교훈하셨다.
 (2)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그 결심을 하기 앞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안락한 신분이나 풍족한 물질이 보장된 평탄한 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3)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단순히 세상의 명예나 재물만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가룟 유다나 데마(딤후 4:10)의 경우처럼 예수를 팔거나 제자의 길을 포기한 채 세상으로 나가 결국 패망하게 된다(행 1:18).

21. **㉠** **출전하는 왕의 비유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31, 32절)**

- ㉠** (1) 그 차이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에서는 망대를 세우는 여부가 세우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출전하는 왕의 비유에서는 지금 침략을 받고 있는 관계로 단안, 즉 전쟁과 화친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2) 다시 말하면 출전하는 왕의 비유에서는 전쟁과 화친이라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전쟁도 안 하고 화친도 안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의 앞에는 하나님과 화친하느냐, 대적하느냐 이 두 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4) 그런데 이런 선택은 여유를 두면서 천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출전하는 자처럼 단호히 바로 지금 내려야 한다(참조, 시 95:7).
 (5)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가기 전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친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후 6:2).

22. **㉠** **예수께서는 28-32절의 비유를 통해 어떤 자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하셨는가? (33절)**

- ㉠** (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다.
 (2) 여기에 '버린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포타소마이>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작별 인사를 한다'는 의미이고, 사물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포기하다', '버린다'의 뜻이 있다.
 (3) 그런데 본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된 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4)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은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물의 소유주라는 의식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5) 한편 헬라어 <아포타소마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한 순간의 동작이 아니고 계속을 의미한다.
 (6)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항상 견지(堅持)해야 한다.
 (7) 이런 청지기 정신이 결여된 자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며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

23. **㉠** **유대인들은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34절)**

- Ⓐ (1) 소금은 유대인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 (2) 유대인들은 소금을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양념으로 사용하였고 종교 의식에 있어서도 소제(레 2:13)와 번제(렘 43:24)의 예물 위에 뿌렸다.
- (3) 또한 성전에 피우는 향의 성분 속에도 소금이 들어갔으며(출 30:35) 의학적으로도 새로 태어난 아기를 문지룰 때 소금을 사용하였다(렘 16:4). 이외에도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되었다.
- (4) 당시에는 소금이 일반적으로 사해 지역에서 조달되었다.

24. Ⓢ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는가? (34, 35절)

- Ⓐ (1)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사람들에게 의해 내어 버림을 당한다.
- (2)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늪과 개펄이나,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여과시켜서 깨끗한 소금을 만들었다.
- (3) 이때에 걸러진 불순물에는 석회(石灰)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땅을 비옥케 할 수는 없었고 거름더미 위에 버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단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마 5:13).
- (4)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며 동화될 때 하나님과는 무관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 아니라(계 2:16)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 (5) 그러므로 소금이 짠 맛을 낼 때 소금으로서의 진가를 지니듯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분의 성품과 언행을 닮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후 2:15).

연구자료

예수와 관련된 이적(異蹟)의 의미. 예수께서는 생전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병자를 고치시고(2-4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7:15)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등(요 2:9) 그 종류와 수효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예수의 동정녀 탄생 및 부활 사건도 놀라운 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와 관련된 이러한 이적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다(7:16). 물론 이적을 행한 결과 예수께서도 영광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광이었다(참조, 요 1:14). 둘째,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다. 즉 예수를 다만 선생이나 선지자로 알고 따라다니던 자들에게 그의 이적은 예수의 신성(神性)을 확신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요 2:11; 9:16). 셋째, 예수의 이적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시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7:13; 계 21:1-4).

제 15 장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2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아오다 / 3-7 잃은 양의 비유 / 8-10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 11-32 탕자의 비유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가 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들 중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1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서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

1. ㉠ 본장에는 어떤 비유들이 언급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 제시된 비유는 잃었던 양의 비유(3-7절), 잃었던 은전의 비유(8-10절), 잃었던 아들의 비유(11-32절)이다.
- (2) 이 비유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1, 2절)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사람들에게 서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자들이었다.
- (3) 즉 이 비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와 더불어 잃은 양에 대한 주인의 사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여자의 애착,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에 각각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4)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주인, 여자, 아버지의 기쁨도 간과(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 (5) 결국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자,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6) 그러므로 소외받는 자들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 ㉠ 어떤 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는가? (1절)

- ㉠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왔다.
- (2) 당시 세리나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종(相從)치 못할 존재들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다(참조, 3장 ㉠12).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는 사실은 예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을 잘 나타내 준다.
- (4)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록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라도 예수께서는 마다 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 (5) 이런 그의 모습은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일(19:6)이나 세리인 마태가 그의 제자가 된 일(5:27-29),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일(요8:11) 등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 (6) 이것은 예수께서 단지 입으로만 형제와 이웃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셨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의 친구이며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참조, 마9:13).
- (7) 오늘날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참조, 12:4; 살3:3).

3. ㉠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터뜨렸는가? (2절)

- ㉠ (1) 그들은 예수를 향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원망했다.
- (2)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대표적인 예로 세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폐가 되는 집단과 개인을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몰아붙였다.
- (3) 그래서 일단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자들과는 악에 몰들기 쉽다는 이유로 교제를 금하였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과 예수께서 식사를 함께 하시고 교제를 하시니 그들로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참조, 5:30).
- (4) 한편 그들은 예수를 향해 ‘이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단지 권위있는 율법 선생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 (5) 어쨌거나 그들의 원망은 자신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본 죄인들과 구분된 존재라는 교만한 마음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치 못한 영적 무지에서 기인(起因)했다.
- (6)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형제와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의 이유가 되며 신앙의 적이 됨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잠 16:18; 요 8:19).

4. ㉠ 잃은 양의 비유는 어떤 내용인가? (3-7절)

- ㉠ (1) 잃은 양의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뒤로 한 채 산야를 헤맨다.
- (2) 그래서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기쁨으로 돌아와 벗과 이웃을 모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3) 이 비유의 근본 취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으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
- (4)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거했다(롬 8:38, 39).

5. ㉠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는 잃어버린 양 1마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4절)

- ㉠ (1) 그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들(안전한 곳)에 놓아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헤매었다.
- (2)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목자는 샅군 목자가 아닌 참목자에 해당된다(참조, 요 10:11-15). 그는 그 1마리 양을 찾는 노력을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 (3) 왜냐하면 그는 양을 지키고 먹이는 것이 그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양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또한 그는 양의 속성(屬性), 즉 사랑스러운 짐승이긴 하지만(삼하 12:3) 비공격적이고(사 53:7; 렘 11:19; 마 10:3, 4) 무방비적이며(미 5:8; 마 10:16)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민 27:17; 겔 34:5; 마 9:36) 짐승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그 양을 그냥 놔두면 필경(畢竟)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실족해 죽으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 (6) 여기에서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은 죄인들,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신다.
- (7)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1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성도(99마리의 양)에게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잊지 말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을 참조하라.

6. ㉠ 팔레스틴에서는 주로 무엇을 위해 양을 사육(飼育)하는가? (4절)

- ㉠ (1) 양은 성경에서 약 500회 이상 언급되어 있으며 팔레스틴 지역 특산물로 대표될 만한 동물이다.
- (2) 양이 일찍부터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축화되었다는 것은 창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시사되어 있다.
- (3) 양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주된 재산이요 생계 수단이었으며 종교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 도	참고 귀절
식량	삼상 14:32
먹을 것	사 7:21, 22
웃감의 원료인 양털	레 13:47, 48; 욕 31:20; 겔 34:3
가족 웃	슌 13:4; 마 7:15; 히 11:37
장막의 덮개	출 26:14
물물 교환 수단	왕하 3:4; 겔 27:18, 19
번제물	레 1:10
속죄 제물	레 4:32
속건 제물	레 5:15
화목 제물	레 22:21

7. **㉠ 잃어버렸던 1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6, 7절)**

- ㉡** (1) 목자가 취한 첫째 행동은 잃은 양을 찾았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 (2) 사실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전까지 혹시라도 맹수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지 길을 잘못 들어 실족되거나 않았는지 또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라는 사실로 인해 전혀 즐거워할 수 없었다.
- (3) 그러나 그 양이 별 사고 없이 자신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목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이 기쁨은 많은 시간 동안 허비했던 정력과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 (4) 그래서 그는 팔레스틴 특유의 방법대로 양을 어깨 위에 올려서 목 뒤로 엮고 네 발을 붙잡은 채로 집에 돌아와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리며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께 돌아가면 반가이 맞아 주며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께 지체 없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 (6)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 가도록 훈련을 쌓아야 하겠다(참조, 고후 4:10).

8. **㉠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이미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더욱 기뻐하신다는 의미이다.
- (2)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스스로 의인인 체 뽐내는 아흔 아홉 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와 모습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 속에 모시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참조, 마 6:6, 7).
- (4)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져 있는 상한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시 34:18; 마 12:20).
- (5)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죄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온 신경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4:11, 12; 요일 1:9).

9. **㉠ 두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라 (8, 9절).**

- A** (1)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열 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는다든 내용이다.
- (2) 아마도 그녀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으로 몸에 지니고 있던 열 드라크마의 하나이며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아내를 맞아들일 때 그 여자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의 증표로 가이사 화상이 새겨진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관례가 있었다.
- (3)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다. 그 드라크마야말로 남편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물건이었다.
- (4) 그래서 그녀는 그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쓸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일반 유대인들의 집과 같이 그녀의 집도 창이 없거나 있어도 조그만 해서 자연 채광이 어려웠던 관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
- (5) 그런 우여 곡절 끝에 그녀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벗과 이웃을 불러 같이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전(全)내용이다.
- (6)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귀중한 자들이며, 만일 성도 중 누가 낙심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며 그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겔33:11).
- (7)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은 주위를 돌아보아 낙심한 형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며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 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다(겔33:7-9).

10. **Q**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A** (1) 이 비유 중 한 여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는 회개하는 죄인을, 벗과 이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 (2) 그런데 혹자는 한 여자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잃은 양의 비유(3-7절)에서 목자는 성자 예수로 그리고 뒤에 나올 탕자의 비유(11-32절)에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
- (3) 그 외에도 한 여자를 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다(Lenski). 뿐만 아니라 등불을 복음으로, 빛자루(실제로 방을 빛자루로 쓸었다는 언급은 없음)를 율법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 (4)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의 의미가 초석(礎石)이 된다는 사실이다.
- (5) 또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천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죄인의 회개는 개인의 구원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 된다.

11. **Q** 세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2절)

- A** (1) 그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요구하였다.
- (2) 이러한 요구는 그가 신21:17에 나오는 재산 상속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신21:17에 따르면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이 받는 분깃의 두 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에 등장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전재산의 1/3을 요구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 (4) 그런데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관례와 예의에 어긋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臨終)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 (5) 한편 유대의 아버지들은 재산을 자식에게 정식으로 상속해 주기 전까지는 적당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다.

- (6)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것은 평상시 아버지가 준 선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불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례를 무시한 부도덕한 행위였다.
- (7)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급한 목적 성취에 치우쳐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인내와 경건 생활에 박차(拍車)를 가해 성도 본연(本然)의 자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벧후 1:5, 6).

12. **㉠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13절)**

- ㉠** (1)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虛浪放蕩)한 생활로 모두 허비해 버렸다.
- (2) 여기에서 그가 먼 나라로 떠난 것은 그가 얼마나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했는지를 또한 그 계획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
- (3)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모두 허랑 방탕한 생활에 소비해 버린 것은 그가 계획한 모든 생각들이 육적인 쾌락을 향해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 (4)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청운(靑雲)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 (5) 어쨌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는 걸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중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보장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패망뿐이다.
- (7)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뛰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할 때에만 가능하다(참조, 요8:32).

13. **㉠ 13절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듯이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며 그 은총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본성을 지녔다.
- (2) 이 본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다.
- (3) 결국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며(사59:2)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함으로써(요9:41) 탐욕에 빠지게 하며(벧후2:14) 필경(畢竟)은 사망으로 이끈다(롬6:23).
-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기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잠16:20; 요13:15, 17).

14. **㉠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가? (14절)**

- ㉠** (1) 그에게는 ①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② 설상 가상(雪上加霜)으로 기근까지 겹치는 어려움이 몰려왔다.
- (2) 그런데 그 기근이 단지 한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던 그 나라 전체를 엄습했다.
- (3) 이제까지 부족함이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 (4) 그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움은 그의 안목이 새롭게 떠진 기회가 되었고 아버지의 집이 참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으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 (5)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하기 보다는 우리의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조, 롬 5:3; 히 12:5).

15. **㉠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15, 16절)**

- ㉠** (1) 그는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2) 그런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레 11:7)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모든 직업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다(참조, ㉠ 16).
 (3) 이와 같이 부족함 없이 호강과 사랑을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고 종들의 시중을 받았던 그가 이토록 비참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는 불순종한 요나가 이방인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듯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비천한 존재로 타락하게 됨을 알 수 있다(은 1:6-17).

16. **㉠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친 사실과 그가 머문 먼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5절)**

- ㉠** (1) 유대에서는 레 11:7과 신 14:8에서 '돼지는 굵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 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돼지 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으며 또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2) 한편 레 11:7과 신 14:8의 기록은 당시 가나안 지방이나 근동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는 일이나 돼지 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었음을 암시한다.
 (3) 실제로 과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돼지를 자유로이 잡아먹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돼지가 가장 좋은 제사 제물이었고 바벨론과 애굽에서는 특정한 축제나 절기 때에 돼지고기를 먹었다.
 (4)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는 돼지고기를 여러 신들에게 바쳤으며 시리아인들도 담무스 신에게 귀한 제물로 바쳤다.
 (5) 이와 같이 근동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 돼지의 희생 제사는 가장 큰 효험과 거룩함을 의미하였다.
 (6) 따라서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는 돼지의 희생 제사나 먹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이방 국가가 틀림없다.
 (7) 이를 통해 볼 때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머물렀다는 것은 곧 이방인들의 풍습에 빠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 불신 세계의 온갖 풍습과 행위를 본받게 됨을 의미한다.
 (8)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항상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그를 의지하도록 해야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참조, 요일 3:18-24).

17. **㉠ 쥐엄 열매란 어떤 것인가? (16절)**

- ㉠** (1) 쥐엄 열매란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상록 교목(喬木)인 구주콩나무(carob tree)의 깍지를 가리킨다.
 (2) 흔히 이것은 세례 요한의 떡(St. John's bread)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잘못된 견해 때문이었다(참조, 마 3:4; 막 1:6).
 (3) 구주콩나무에는 8-30cm 정도 되는 꼬투리가 맺히는데 그 안에는 5-15개의 열매가 들어 있다.
 (4) 그 열매의 맛은 약간 단데 이것은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며 때로는 기근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되기도 한다.

- (5)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 (6) 그러나 그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서 그곳에 닥친 기근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 (7)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품을 떠나 있으면 그가 돌아오기까지 징계의 채찍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삼하7:14; 욥5:17; 잠3:12).

18. **㉠** 배고픔으로 인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17, 18절)

- ㉠** (1) 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회상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 (2) 흑자에 따르면 ‘스스로 돌이켜’(헬, 에이스 헤아우튼 엘돈)란 말은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인 사고를 표현해 주는 속어이다(Jeremias). 즉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었다.
- (3)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겪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련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의 나태함, 거짓, 허랑 방탕 등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5)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한 것이며 그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일부이다(참조, 시119:67; 히12:11).

19. **㉠** 둘째 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얻었다고 고백하였는가? (18절)

- ㉠** (1)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고백하기로 작정했다.
- (2) 여기에서 ‘하늘’이란 하나님을 의미한다. 어떤 주석가(Hendriksen)는 그 이유를 히브리인들이 종종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3)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대해 불효, 불순종, 불충, 불성실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함께 그토록이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겸손히 시인했다.
- (4) 이런 겸손한 죄의 시인이 그로 하여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21절)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 (5) 우리는 본질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기억해야 한다(물론 육신의 부모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일 때 ; 열6:1-3).

20. **㉠** 자신의 죄를 깨달은 아들은 곧 이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20절)

- ㉠** (1)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 (2) 이것은 곧 완전한 회개를 뜻한다. 즉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적극적인 행위야말로 참다운 회개자의 모습이다.
- (3) 이와 같이 참된 회개는 자신의 범죄를 겸손히 인정하고(욥33:27, 28), 죄를 슬피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며(시34:18; 51:17),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18:13)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21. **㉠**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목격하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20절)

- ㉠** (1)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相距)가 먼데도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 (2) 여기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저를 보고’라는 말은 곧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면서 먼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 (3) 또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는 말은 돌아오는 아들의 물결이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는 것과 더불어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겼음을 의미한다.
- (4) 뿐만 아니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었음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팔레스틴에서 연로한 사람이 달리는 것은 품위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때처럼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다(참조, 삼하14:33).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시34:18; 51:17; 사66:2).

22. ㉠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아들을 위해 내린 아버지의 첫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22절)

- ㉠** (1) 아버지가 종들에게 내린 첫번째 명령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이었다.
- (2) 이러한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다시 아들로써의 지위를 회복시켰음을 의미한다.
- (3) 왜냐하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예복으로 명예로운 손님에게 주는 예복이고, 가락지는 이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 같은 것이며, 신은 당시 노예가 아닌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사55:7)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롬8:15).

23. ㉠ 아버지가 종들에게 내린 두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23절)

- ㉠** (1)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 (2)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와 같은 특별한 때에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들 대접하였다.
- (3) 따라서 두번째 명령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시51:16, 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행3:19).

24. ㉠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4절)

- ㉠** (1)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표현하였다.
- (2)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향한 죄인들은 죽은 자들이요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다(참조, 엠2:1).
- (3)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 잃어버림을 당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참조, 고후5:17).
- (4)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 잃어버림의 위치에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옮겨지는 통로가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겔18:21).

25. ㉠ 25-32절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인가?

- ㉠** (1) 그는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이다.
- (2) 이렇게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에서 맏아들께로 화제의 초점을 옮기셨다.
- (3) 여기서 둘째 아들은 전술(前述)했듯이 죄인을 상징하며(1절) 맏아들은 아흔 아홉 마리의 양들이나 아홉 드라크마와 같이(참조, ㉠ 8)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

인과 서기관들을 상정한다(2절).

- (4)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회개에 분을 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신다.

26. **㉠ 동생을 위해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맏아들이 보여 준 첫 반응은 무엇인가? (28절)**

- ㉠** (1) 맏아들은 집에서 들려오는 풍류(風流)와 춤추는 소리가 돌아온 그의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 때문임을 알게 된 후(25-27절) 노하여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 (2)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2절)라고 예수를 원망 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 (3) 결국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런 모습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한 편협한 특권 의식, 교만, 시기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참조, **㉠** 3).
- (4)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온 형제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웃의 번영을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27. **㉠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유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29절)**

- ㉠** (1) 그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아버지가 그의 친구들과 즐기도록 하기 위해 송아지는 고사하고 고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투덜거렸다.
- (2) 그런데 본질에서 ‘섬겨’에 해당되는 헬라어 <들류오>는 종과 같이 섬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아버지를 상전 혹은 주인처럼 섬겼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란 그의 말은 아버지의 말을 기쁨으로 순종했음을 의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만 복종했음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아들이 아닌 종이 할 바이다.
- (4)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자신들이 그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하였다.
- (5)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아버지의 전재산의 2/3가 상속되리라는 사실을 인식치 못한 맏아들처럼 그들도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을 깨닫지 못하였다(참조, 31절).
- (6) 이처럼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인생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항상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7)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토로(吐露)하는 것이 성도가 추구할 바른 태도가 아님을 잊지 말자(참조, 고전10:10; 빌2:14).

28. **㉠ 맏아들은 돌아온 자기 동생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는가? (30절)**

- ㉠** (1) 그는 돌아온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호칭하였다.
- (2) 이러한 호칭은 동생에 대한 욕임과 동시에 그와 동생과는 별개의 존재임을 의미한다.
- (3) 나아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성실하고 우월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 (4) 그러나 정상적인 형이라면 돌아온 동생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아 주며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그의 그릇된 자세는 동생이 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 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같은 당시의 소위 계층들을 ‘죄인’

이라고 호칭한 것도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식치 못한 데 그 근본 이유가 있다(참조, Q3).

- (7)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파나, 성도간에 파벌이 조성되고 서로 '라가'라고 욕하는 것은 결국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의 소치하고 할 수 있다.

29. Q 아버지지는 불만에 가득 찬 맏아들에게 어떤 말로 타일렀는가? (31, 32절)

- A (1) 아버지는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라고 권유하였다.
- (2) 이러한 아버지의 권유는 더할 수 없이 포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맏아들의 그릇된 사고를 깨우치고 있다.
- (3) 즉 맏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네 동생'이라고 바로잡으면서 바른 형제 의식을 교훈하였고 결국 남아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 (4)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가치 기준과 동족(同族)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을 지적하셨고 그들이 누릴 영적인 특권에 대해 암시하셨다(참조, 롬9:4, 5).
- (5) 더 나아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교훈하셨다.
- (6) 그 이유는 죄인들이 과거에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들과 함께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요 1:12).

화보자료

회개하는 탕자.
아버지로부터 얻은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돼지를 치던 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다(11-19절).



본장에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3-10절) 외에도 '탕자 비유' (11-32절)가 나온다. 그런데 탕자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밝혀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6 장 이 세상의 부(富)에 대해서

단락구분 1-13 악한 청지기의 비유 / 14-18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다 / 19-31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빗긴 자를 낚날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

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18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20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테를 앞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테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할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 이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가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

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

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다 하시니라

1. ㉠ 본장의 비유가 설명하는 바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피를 내어 난처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비유와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모습 그리고 욕심 많은 부자의 말로(末路)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해석하기에 매우 난해한 악한 청지기 비유는 빛의 아들보다 세상의 아들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8절).
- (3) 즉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교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롭고 열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 (4) 따라서 교활한 청지기가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롭다기 보다는 자신이 관리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 (5) 한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현세에서 부(富)를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부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를 가진 자는 그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관리의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참조, 19:8; 마 19:21).

2. ㉡ 청지기의 행위로 보아 우리는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의 책임을 잊고 의무를 소홀히 한 자임을 알 수 있다.
- (2) 특히 그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流用)하여 허비(虛費)하였다.
- (3) 또한 이 같은 소행으로 보아 그가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매우 뻔뻔스러운 자임을 알 수 있다.
- (4) 결국 그는 자신의 소임(所任)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잘 관리해야 할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죄를 지었다.
- (5)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허비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이 청지기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아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19:11-27; 마 25:14-30).

3. ㉢ 주인과 청지기는 어떤 관계인가? (1절)

- ㉢ (1)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이다.
- (2) 여기서 ‘청지기’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집’(헬, 오이코스)이라는 단어와 ‘관리하다’(헬, 네모)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한 가정의 사유 재산이나 집안 전체의 관리를 맡은 ‘관리인’을 가리킨다(1, 3, 8절; 12:42; 고전 4:2; 갈 4:2).
- (3) 따라서 그는 ‘종’이라기 보다는 자유인으로서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예수 당시의 팔레스틴에는 부재(不在) 지주가 많았으며 아마 이 청지기의 주인도 그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곳에 거주하던 자로 여겨진다.
- (4) 그러므로 그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할 기회가 많았던 것이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그러나 노사 관계(勞使關係)에 있어서 고용자는 노동자를 사랑과 폭넓은 이해로 대해야 하며 노동자는 고용자에 대해 신의(信義)가 있어야 한다.
- (6) 더우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생활하는 성도는 자신이 소속된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에게 눈가림하듯이 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실히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참조, 골 3:22).

4. **㉠** ‘네 보던 일을 셈하라’란 어떤 의미의 말인가? (2절)

- ㉠** (1) 이 말은 청지기에게 회계 보고를 요구하는 말이다.
 (2) 즉 이제까지 청지기가 관리하던 재산의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시하라는 말이다.
 (3) 그런데 여기서 ‘셈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도스>는 ‘(즉시)둘러 달라’는 의미이다.
 (4) 즉 청지기의 부정(不正)을 들은 주인은 그를 해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뒤이은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5. **㉠** 청지기의 독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는 비록 부정을 저질렀지만 신속한 판단과 빈틈없는 사고의 소유자였다.
 (2) 즉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파악하고 즉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결단한 것이다.
 (3) 결국 이 같은 결단은 곧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바를 제시해 주고 있다.
 (4) 즉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 있고 결단력 있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 사실 신앙 생활을 한 마디로 특징 지운다면 그것은 결단의 삶이라 할 수 있다.
 (5) 또한 그의 해고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6)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신 24:16; 욥 19:4; 잠 9:12). 더우기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 이 같은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깨달아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3, 4절)

- ㉠** (1)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흥청망청 써 버렸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해고하게 되고 그는 난처한 상황에서 살길을 찾아 헤매게 된다.
 (2)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인간이 소유한 힘과 지혜와 재물 등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의해 스스로 획득한 것으로 여긴다.
 (3)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에 불과하며 우리 인간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창 1:28-31; 욥 1:21).
 (4)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낭비하는 삶은 곧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교만한 소행인 것이다.
 (5)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19:13; 마 25:14, 15; 고전 6:20; 벧전 4:10).

7. **㉠**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청지기가 생각해 낸 ‘살길’은 무엇인가? (4-7절)

- ㉠** (1)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그들의 빚을 경감(輕減)시켰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고된 후에 그들이 자신을 도와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청지기의 이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즉 율법에 의하면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출 22:25; 25:36, 37; 신 15:7, 8; 23:19, 20)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는 흔하였다.
 (3) 따라서 우리는 주인의 전(全)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아 자신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때 그가 주인의 빚을 경감해 준 액수는 곧

이자로 생각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자신의 살길을 찾아 지혜롭게(사실은 불의하지만) 행동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 (5)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가 옳았다기 보다는 지혜롭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6) 이처럼 청지기가 자신의 살길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 일을 위해 앞을 내다보며 면밀한 계획을 세워 게으르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전 4:2). 그러나 올바르게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삼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8. **㉠** 주인에게 빛진 자들은 어느 만큼의 빛을 졌는가? (6, 7절)

- A** (1) 한 사람은 기름 백 말을 빛졌으며 또 한 사람은 밀 백 석을 빛졌다.
- (2) 여기서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바투스>로 히브리어 <베트>에서 온 액체를 재는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감람유’ 곧 ‘올리브유’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한 <바투스>는 약 33ℓ 정도이다. 따라서 기름 백 말은 감람유 약 3,300ℓ에 해당한다.
- (4) 한편 ‘석’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루스>는 히브리어 <코르>에서 온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 한 코루스는 약 36ℓ (10부셀) 정도 된다. 따라서 밀 백 석은 3,600ℓ가 된다.

9. **㉠**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본 주인은 세대(世態)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8절)

- A** (1) 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하였다.
- (2)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롭다는 뜻이다.
- (3)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롭고, 단결이 잘되며, 일을 잘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 (4) 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타인과 갖는 유대(紐帶)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관계보다 더욱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즉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反目)하며 자신들만이 진리에 선 것처럼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 (6)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10. **㉠**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8절)

- A** (1)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떠난 문화권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
- (2) 이들은 세상에 있어서 빈틈없고 약삭빠라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간다. 더우기 이들은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때때로 ‘빛의 아들들’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할 줄 안다.
- (3) 그러나 이들의 삶의 터전은 현 세상에 제한되어 있을 뿐이고 내세(來世)에 대한 기대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즉 이들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 세대’에서만 자신들의 꿈과 행복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세대가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의 무리들이다.

- (4) 이처럼 이들의 삶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 허망한 것이지만 그들의 제한된 삶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절한 삶의 스타일과 지혜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본질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특히 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기에 족하다.

11. **㉠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라(8절).**

- ㉡** (1)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떠난 문화권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문화권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무리들을 가리킨다.
- (2) 즉 ‘빛의 아들들’은 흑암에서 방황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이웃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 안에 보내신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참조, 요3:19-21).
- (3) 이러한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은 결코 이 세대에 대해 집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보화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참조, 마13:44).
- (4) 이처럼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정열과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무신경할 우려가 있다. 특별히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납이라든지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 등에서 소극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12. **㉠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여기서 ‘재물’을 가리키는 헬라어 <맘모나>는 그 기원이 아람어로 추측되는데 ‘돈’ 혹은 ‘부’(富)를 뜻한다.
- (2)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 자체가 불의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재물을 모을 때는 어느 정도 불의가 개입되기 때문이며 그 재물의 축적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불의한 재물’과 ‘참재물’ 곧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과 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사이의 대조 개념이 있었다.
- (4)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이 이 비유의 목적이다.
- (5) 한편 ‘친구를 사귀라’는 귀절은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12:33).
- (6) 결국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는 비록 재물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지며 불의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함을 가리킨다(마25:31-46).

13. **㉠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 결과 그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9절)**

- ㉡** (1) 그 친구들이 그들을 영원한 처소(處所)로 영접할 것이다.
- (2) 그런데 이 앞에 귀절에 ‘없어질 때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는 이 세상이 망하고 새 시대가 와서 재물이 소용되지 않을 때라고 해석된다.
- (3) 따라서 이 말은 재물을 잘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과 친구들 곧 가난한 자들이 그를 잊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구원의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역설하신 것이다.
- (4) 여기서 ‘친구’는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12:

33; 마6:20; 19:21; 25:31-46).

(5) 결국 본질은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재산의 은혜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제자)도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로써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14. **㉠**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귀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 (1) 인간은 그 마음속에 늘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해 하며 단번에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한다(시 139:5; 애 3:7).
- (2) 또한 모든 일이나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視覺)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중요하며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정확치 못하다(참조, 고전 13:12).
- (3)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를 아는 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바다를 이루며 작은 수고들이 모여 큰 과업을 이루듯이 하루하루의 날들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정확히 바라보며 한 순간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곧 전체를 사는 것이 된다.
- (4)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재능, 시간, 재물 등에 대해 우리 모두가 청지기가 됨을 잊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교훈과도 연결된다.
- (5)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들에 충성된 자는 저 세상에서 크고 좋은 일을 맡게 됨을 가리킨다(19:17; 마 25:21-23).

15. **㉠**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1, 12절)

- ㉠** (1)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순수하지 못한 이 땅의 재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10절에 나타난 ‘작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 (2) 그리고 ‘참된 것’이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참된 보화를 가리킨다.
- (3) 또한 이 땅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하늘의 보화는 이 땅에서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대상 29:14-16; 마 25:34).
- (4) 이 같은 돈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늘 유혹을 받으며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재물에 대한 훈련을 통해 보다 크고 참된 것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려는 예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16. **㉠** ‘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3절)

- ㉠** (1)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여기서 ‘하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오이케테스>는 집안 일을 맡은 종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주인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자를 가리킨다. 본질은 이 하인이란 단어가 부가된 이외에는 마 6:24과 동일하다.
- (3) 한편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재물은 모두 인간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재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신 위에 두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출 20:3).
- (5) 그러나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면 그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여 결국은 어느 하나만을 섬기며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섬김만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6) 우리가 섬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전 12:13). 이러한 대전제 아래서 물질을 취급하면 그 물질을 우리의 상전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 (7) 그럴 때에 재물은 우리 인류 전체의 평안과 풍요한 삶에 보탬이 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전 5:19).

17. **㉠** 바리새인들(Pharisees)은 어떤 성격의 인물들이라고 표현되었는가? (14절)

- ㉠** (1)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2)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노고에 비추어 그만큼 물질적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 (3)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그들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설명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 (4) 그러므로 그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인 척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관심사는 재물에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따른다면 재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5) 그런데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15:1-16:13)로써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다. 이에 대해 그들은 한낱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선생을 비웃었던 것이다.
- (6)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18:11; 욥33:9; 요9:41; 계 3:17).

18. **㉠**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5절)

- ㉠** (1)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었다. 즉 그들은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다.
- (2)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하였으며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대단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 (3) 따라서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계의 다른 분파(分派)들인 사두개파(Sadducees)와 에센파(Essenes)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였다.
- (4)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적인 율법의 수호자이며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자처(自處)하여 일반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도 그에 합당한 대접받기를 원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속마음을 다 아셨다. 즉 그들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시139:7-18).
- (6)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 (7)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우리 종교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의 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18:11; 요9:41).

19. **㉠** 예수께서는 구속사적 시대 구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6절)

- ㉠** (1)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사실을 밝힌 것이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모세 오경)과 선지자(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왔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세례 요한은 구약 최후의 선지자(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다.
- (3) 그 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제시하셨다(히1:1, 2).

- (4) 즉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들 속에 찾아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약속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전에 이미 예언되었다.
- (5)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찾아오며 많은 수고를 하게 된다.
- (6)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의 의미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데 대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 (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나 교리 준수가 마치 신앙의 전통인 것처럼 주장하여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도 멍에 아래에 있게 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
- (8)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교리 준수나 금욕적인 생활이라기 보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깨우치는 풍성한 삶이다(요8:31, 32; 10:10).

20. **㉠**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는 무슨 의미인가?(17절)

- ㉠** (1) 이 말은 율법과 복음과의 연결을 강조한 말이다.
- (2) 여기서 '획'은 히브리 문자의 '돌기', '뿔'을 가리킨다. 즉 이 '획'은 히브리어에 있어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와 구분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 (3) 예를 들면 히브리 문자의 두번째 글자인 <베드> 자는 오른쪽 밑 쪽에 극히 작은 돌출부를 가지고 있어서 <카프> 자와 구분이 된다.
- (4) 따라서 본질의 의미는 '율법의 한 획(획, 케라야)', 즉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성취되기 전에는 그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뜻이다.
- (5) 즉 이 말은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구약의 말씀이 변치 않으리라는 의미이다.
- (6)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비록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 복음의 시대가 임했지만 구약의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다(마5:18).
- (7)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의 완성에서 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결실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나누어질 수 없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과 완전한 의미의 해석을 하셨을 뿐 율법을 폐기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21. **㉠** 예수께서는 이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제셨는가?(18절)

- ㉠** (1)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며 버리운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음행을 저지를 경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그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만(신24:1-4) 예수의 본질 말씀은 음행에 대한 언급 없이 이혼을 금하고 있다(비교, 마5:32; 19:9; 막10:11).
- (3)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던 힐렐(Hillel, B.C. 60-A.D. 20)은 여자 음식 솥씨 여하에 따라 이혼도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그 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은 무척 부도덕한 양상을 보였다.
- (4) 따라서 본질은 결혼의 신성함을 무시하고 율법의 해석에 얽매어서 가정의 파탄을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견해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이혼에 뒤따르는 가정의 파탄과 가족의 불행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 (6) 특히 예수께서는 이혼의 부당함을 바리새인들이 신성시하는 율법에 적용시켜 설명하셨다. 즉 남편이 새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결국 간음을 행하는 꼴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 (7) 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이상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 가는 가운데 화합과 용서가 싹트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참조, 고전7:27).
- (8) 그렇지만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들추어서 이혼을 강행하는 경우는 매우 비겁하고 나약하다 하겠다.
- (9)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이 인간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맺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창2:24; 막10:9).

22. ㉠ 19절에 묘사된 부자의 생활을 설명하라.

- ㉠ (1) 그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 (2) 그의 의복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었는데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던 매우 비싼 옷이었으며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두 배나 더 비쌌다. 또한 그는 매일 잔치를 벌여 세상 연락(宴樂)을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 (3) 우리 주위에도 이같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부(富)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만 지혜가 부족한 그들의 생활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12:16-20).

23. ㉠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20, 21절)

- ㉠ (1)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며 지냈다.
- (2) 그의 이름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엘르아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이름은 그가 지금은 고통 중에 있으나 죽은 후에는 평안을 누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22절).
- (3) 그러나 현재 그의 삶은 호화로운 부자의 삶과는 반대로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누워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으며 더우기 개들이 그의 몸에 생긴 부스럼을 핥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
- (4) 오늘날도 이 같은 빈부(貧富)의 격차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즉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이 빈부의 차이는 심화되고 있다.
- (5)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가진 자들의 의식이 바뀌어 사회 전체에 소득 재분배의 생각들이 퍼져 나가야 한다.
- (6)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에 새로운 의식들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어둠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마25:35-40).

24. ㉠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각각 어디로 갔는가? (22, 23절)

- ㉠ (1)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반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 (2) 여기서 '음부'라 하면 히브리어 <스울>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하데스>를 가리키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곳이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창37:35; 욥14:13; 삼하12:23). 즉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죽은 자 모두가 거하는 곳으로 생각되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범죄한 자들이 들어갈 심판의 장소(헬, 게엔나)라는 의미로 발전하였고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마8:12; 25: 41, 46; 롬2:8, 9; 살후1:9; 벧후2:4).
- (3)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혹은 '영광의 집'으로 이해되었다(참조, 마8:11).

- (4) 그런데 이 같은 형편의 역전은 현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제까지 가난에 허덕이던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된 반면, 이제까지 호의 호식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상황은 우리 주위에 많다.
- (5)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으나 인간의 앞길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빈부의 형편을 막론하고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참조, 시23:2; 25:9).
- (6) 한편 이러한 역전은 이 땅에 악의 세력권 아래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인내의 당위성(當爲性)을 제공해 주는 좋은 예화이다(참조, 마5:10-12).

25. **㉠ 부자는 음부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24, 25절)**

- ㉠** (1)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를 보내어 혀에 물을 적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원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 (2)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고통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의 죄는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불쌍한 자에게 관심도 동정심도 없었다는 것이다.
- (3) 즉 자신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대문에서 육체의 질병을 안고 구걸하는 나사로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이제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그는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 이와 같이 자신이 편하고 여유 있을 때는 오히려 자신만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타인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인간의 사정이지만, 우리는 내가 여유 있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
- (6) 부자의 고난을 볼 때 음부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옥이란 타인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상황을 그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사랑과 봉사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하겠다.
- (7)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마4:17). 즉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곧 하늘나라의 삶이 될 것이다(요일4:7, 8).

26. **㉠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는가? (24, 25절)**

- ㉠** (1)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육적인 면에서 조상이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다.
- (2)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막12:26; 행7:32)이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약2:23)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으로 믿었다(요8:56, 58).
- (3) 그런데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불의를 질책하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과 계율을 준수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였기 때문이다(마3:9).
- (4)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부자와 나사로 중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5)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못한 관계로 아브라함과 관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참조, 마3:7-10).
- (6) 이와 같이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받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약2:17, 22).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고 말씀하셨다.

27. **㉠ 아브라함이 부자의 요청을 거절한 두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던 낙원과 부자가 있던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기 때문

- 에 서로 왕래할 수 없었다.
- (2) 유대교의 랍비들에 의하면 낙원과 <게엔나> 간의 거리는 담 하나 혹은 한 뼘의 길이 또는 손가락 하나의 거리라 한다.
 - (3) 그러나 죽음에 의해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이해되었다.
 - (4) 즉 그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사라지고 이제는 변경될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해 그는 한 뼘의 구덩이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되었다.
 - (5)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많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이 기회를 놓치고 결국 음부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잠1:23; 행3:19; 8:22).

28. **㉠ 부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인가? (29-31절)**

- ㉠** (1)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들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혹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한다 하여도 믿지 않으리라고 대답했다.
- (2)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다(16절). 즉 그의 형제들은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할 것이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3) 이 부자의 생각은 오늘날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믿지 않던 자도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은 기적을 본 사람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며 쉽게 그 기적을 잊게 된다.
- (4) 따라서 믿음이란 외부로 나타내는 어떤 징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강권하는 바에 따라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분별하게 나타내는 은사와 기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도록 자신을 주께 맡기는 생활이 우선되어야 한다(참조, 롬5:1; 10:17; 요일3:23).

본장의 요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4절).

제 17 장 성도의 생활과 도래(到來) 할 하나님의 나라

단락구분 1-2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 / 3-4 끝없이 용서하라 / 5-6 믿음의 기적 / 7-10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 11-19 문둥병자가 구원을 얻다 / 20-21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 22-23 말세에 경성하라 / 24-33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 / 34-37 선인과 악인의 분리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땃들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 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너희 중에 뉘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죄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죄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31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발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
이키지 말 것이니라

32 뭇의 처를 생각하라

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
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
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
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매한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
니라

36 (없음)

37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
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
느니라 하시니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가?**

- (A) (1) 예수께서는 19절까지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 용서, 믿음, 인간의 의무, 감사에 대해 비유로써 설명하셨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 (2) 위의 내용을 더욱 세분하면 1, 2 절은 타인을 범죄케 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며, 3, 4절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생활을 그리고 5, 6절은 믿음이 보이는 놀라운 능력, 7-10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11-19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극히 적다는 교훈, 마지막으로 끝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세상의 견해와 상황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3) 특히 1, 2절의 내용은 마18:6과 막9:4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7-10절은 본서에만 나타나는 비유이다. 그리고 20-37절은 마23장과 막13:15,16에 병행되는 부분이다.

2. **㉠ ‘실족케 하는 것’이란 어떤 의미인가? (1절)**

- (A) (1) 이 말은 헬라어 <스칸달리조>를 번역한 말로서 ‘장애물’, ‘움가미’, ‘미끼’, ‘함정으로 유인하는 덫’을 의미한다.
- (2) 즉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인간들이 타인을 죄로 이끌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라도 죄를 짓게 한 자에 대한 심판은 면제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3) 여기서 예수께서는 당시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자들이 영혼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으며(마23:4, 13, 15, 34)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에게 경책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 (4) 인간의 욕심과 미움, 시기, 교만 등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타인을 괴롭히고 아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5)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참조, 요 15:13; 골3:14; 뱀전1:22).

3. **㉠ 예수께서는 타인을 실족케 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절)**

- (A) (1) 예수께서는 그가 그 목에 연자땃들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예수의 이 같은 말씀은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작은 자)들을 죄짓게 한다면 차라리 죽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쌓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단점과 타인에 대한 태도, 신앙 등을 반성하고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한 잘못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참조, 18:9; 잠28:26; 고전10:12).

4. **Q**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3, 4절)

- A** (1)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는 스스로 타인을 넘어뜨리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 (2)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책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까지 권고하셨다.
- (3) 랍비의 말에 의하면 세 번 용서하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하루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 (4) 죄지은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우나 그 죄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한정한 죄의 용서를 요구하셨던 것이다(비교, 마18:22).
- (5) 인간 세상에서 죄와 죄를 짓는 인간이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롬3:23).
- (6) 따라서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인 모든 인간이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이 필요하다.
- (7) 그러나 악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죄지은 자를 책망하고 회개시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할 일이다(마18:15).

5. **Q** 사도들이 예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5절)

- A** (1) 그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 (2)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예수의 엄한 교훈과 자신들의 내적 상태를 비교하고 도저히 그분의 교훈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의 요구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였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의 교훈을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같은 겸손한 태도로 예수의 교훈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해야 한다(참조, 롬8:26, 27; 약1:5-8).

6. **Q** 예수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6절)

- A** (1)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뿔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고 하셨다.
- (2) 즉 제자들은 예수께 은사적인 신앙 곧 믿음의 양(고전13:2)을 요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신앙은 근본적인 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이다.
- (3)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당신께 대한 지극히 작은 신앙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4) 따라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여 그들이 능력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 (6) 한편 마태(17:20)는 동일한 내용의 비유에서 뿔나무 대신 산(山)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마21:21; 막11:23).
- (7) 인간의 말로써 산이나 뿔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제자들은 이 같은 신앙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다(참조, 요15:10; 롬5:19).

7. **Q**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7-10절)

- A** (1) 밭에서 일한 종이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요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종들도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가 할 일이며 인간은 하나님께 그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 (2)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 (3)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보상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 (4)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분의 은혜에 조금도 보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3:16; 엡2:1, 5; 골:13).

8. **㉠ 예수께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만날 때는 어디를 지나고 계시던 중이었는가? (11절)**

- ㉠** (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을 지날 때 그들을 만나셨다.
- (2) 일반적으로 누가는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연대기적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본절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학자들에 따라 예수의 사역 초기와 후기 등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 (3) 그런데 본사건을 예수의 전도 사역 후기에 속한 것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는 지금 벧산(Bethshean) 근처의 요단 강을 건너 베레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통과하시는 중이다(참조, 마19:1; 막10:1).
- (4)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오히려 북쪽 길을 택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9:51-56).

9. **㉠ 예수를 본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친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곁에 올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 (2) 모세의 율법(레13:46)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하였으며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 자신들이 병자임을 알려야 했다. 의식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일반인들과 유지해야 될 거리는 백보였다.
- (3)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다. 따라서 그들은 멀리서나마 필사적으로 예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 (4) 그들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란 외침 속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외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14절; 마7:7, 8).
- (6)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간구를 아뢰는 삶이 되어야겠다(참조, 약5:13).

10. **㉠ 예수께서는 구원을 요청한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왔다.
- (2) 예수께서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셨다. 또한 그들에게 '깨끗함을 받으라'(5:12)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 (3)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도 서로 여러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아 깨끗해졌다.
- (4) 즉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으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병을 고칠 수 있었다.
- (5)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가져온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

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롬14:23; 고후5:7; 히11:1; 약2:17; 요일5:4).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적이란 외부에서 일어난다기 보다는 우리의 내부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

11. **㉠ 예수께 돌아온 자는 누구인가? (15, 16절)**

- ㉠** (1) 그는 열 명의 문둥병자 중 하나인 사마리아인이었다.
 (2)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시는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 정상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일반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했던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다(레13, 14장).
 (3) 한편 누가는 돌아온 자를 ‘사마리아인’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10:30; 요4:9)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4) 더우기 나머지 9명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5) 이처럼 민족과 종교, 교육 정도를 막론하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이웃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신8:10; 골1:12).
 (6) 그리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돌려야 할 감사이다.

12. **㉠ 예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물으신 첫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2) 이 물음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이라고 하신 말씀이며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책의 말씀도 된다.
 (3) 즉 문둥병자 열 명 모두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나 그중에 사마리아인만은 돌아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4) 예수께서는 그들 아홉도 이같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껏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두 배반하고 대적하며 도망친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22:60-62; 23:21, 49).
 (5) 이 같은 예수의 물음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던져지는 물음이다. 우리는 최소한 그 물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13. **㉠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은 그가 육체적 건강 이외의 다른 은혜도 받았음을 가리킨다. 즉 그의 믿음은 육체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였다.
 (3) 이처럼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으나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보다 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전(前)단계라고 할 수 있다.
 (4)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신 사실을 알았으며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다.
 (5)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영적인 구원에도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참조, 요5:24; 11:25).
 (6)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간사하여 조그마한 은혜에도 쉽게 감격하지만 또한 작은 실책에도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7)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에 실패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시34:1-7). 또한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참조, 시37:5; 118:8; 사26:4).

14. **㉠**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대답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질문자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왕국 도래(到來) 시기를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다.
- (3)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땅에 임하여 자신들이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4)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을 압제하던 나라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 (5)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부’와 ‘건강’등이 보장되는 유토피아(Utopia)의 세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조차 없게 된다.
- (6)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헬,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영토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어디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확인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 수 있다.

15. **㉠**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21절)

- ㉠ (1)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안에, 유대인들의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너희 안에’로 번역된 헬라어<엔토스 휘몬>은 그 번역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너희 안에’, 즉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라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외식적이며 예수에 대하여 악의를 가졌던 당시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복음서에도 병행 귀절을 찾을 수 없다.
- (4) 따라서 <엔토스 휘몬>은 ‘너희 가운데’로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11:20).
- (5) 이와 같이 그 나라는 예수의 임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존재했고(7:28; 10:18; 11:20; 13:18-20; 16:16)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役事)를 통해 이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마24장).
- (6)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록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망의 삶을 살아야겠다.

16. **㉠** ‘인자의 날 하루’란 어느 때를 말하는가? (22절)

- ㉠ (1) 그때는 제자들이 고대하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

릴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하루를 가리킨다(벧후3:3-10).

- (2) 한편 흑자는 그때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지내던 과거의 나날들을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그때를 미래적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고난과 형극(刑棘)의 길을 가야 할 제자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를 기다리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하루 속히 그날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계22:12, 20).
- (4) 그러므로 이 부분은 초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계22:20).
- (5)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험벗고 굶주리며 압박받는 생활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참조, 고전1:7; 딤후2:13; 요일2:28).

17. ㉠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23절)

- ㉠ (1)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여기저기에서 떠들썩할 것이다.
- (2)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막9:1)을 이용하여 자칭 재림 예수와 예언자임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선량한 제자들을 현혹하였다.
- (3) 이 같은 현상은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나타났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주위에는 거짓 예수와 거짓 예언자들은 수없이 많다(참조, 마15:9; 딤후1:7; 4:2).
- (4)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고 경고하셨다.
- (5)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명예와 부(富) 그리고 영웅 심리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을 꾀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분수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참조, 약1:15).

18. ㉠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상황을 말하라(24절).

- ㉠ (1) 예수께서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으리라’고 그날의 상황을 말씀하셨다.
- (2) 즉 인자의 오심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마치 하늘 이편에서 비친 번개의 번뜩임이 하늘 전체를 비침과 같이 예수의 임함도 세계적이며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 (3)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다. 또한 자칭 재림 예수나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거짓말장이임에 틀림없다(21, 23절).

19. ㉠ 그러나 그때가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인가? (25절)

- ㉠ (1) 그것은 예수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世代)에게 버림 받는 일이다.
- (2) 재림이 있기 전 또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즉 고난의 메시야는 영광받으실 메시야 전(前)에 있게 된다(마16:21; 17:22; 막8:31).
- (3) 이처럼 예수께서는 고난과 영광을 자주 연결시켜 말씀하셨다(9:22, 44). 그런데 이 같은 고난과 영광은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마10:38; 16:24).
- (4) 즉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며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롬5:2).
- (5)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서 결코 영광을 요구하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절). 또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요구할 수 없다.

20. **㉠**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가 과거의 어느 때와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가? (26, 27 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세상의 상황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셨습니다.
- (2) 마24:37-39에 기록된 수난 주간의 화요일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본절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3)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주의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 (4) 즉 노아 때 사람들의 잘못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삶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세속적이며 불신앙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종말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 (5)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이 교훈은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경종(警鐘)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마24:42, 43; 막13:33).
- (6) 예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어 간 것에 비추어 예수께서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곧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전16:13; 골4:2; 살전5:6).

21. **㉠** 또한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날은 구약 어느 시대의 상황과 같을 것인가? (28-30 절)

- ㉠** (1) 그때는 롯이 살았던 소돔 성의 상황과 같을 것이다(창19장).
- (2)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두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말세의 사람들도 더 높은 명성과 더 많은 재물, 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자신의 곁에 있음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 (3) 그러나 ‘인자가 나타나는 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 알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으나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바람에 예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사실을 탄식할 것이다.
- (4) 한번 잃은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으며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와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

22. **㉠** ‘그날’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31 절)

- ㉠** (1) 그날에는 만일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해서 자신이 쉬기 위해 머물러 있던 지붕(옥상)에서 내려가서는 안 되며 밭에서 일하던 자도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가서는 안 된다.
- (2) 여기서 ‘그날’이란 세상 끝날 곧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며 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되던 날(A. D. 70)을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마24:15-18; 막13:14-16).
- (3) 따라서 ‘그날’이 이르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 소돔 성에서 피난해 나오던 중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화를 입는 것을 면해야 한다(참조, 창19:26).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날’이 자기들의 구원과 직결된 다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 (5)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참조, 마 24:27; 막 13:36; 살전 5:2; 계 3:3; 16:15)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마 26:41; 골 4:2; 벧전 5:8).
- (6) 그러므로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며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특히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긴장 가운데서 우리의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살전 5:6; 딤후 4:5; 벧전 1:13; 4:7; 5:8).

23. ㉠ 삶과 죽음에 대한 예수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33절)

- ㉠ (1)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保存)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살리리라'는 단어는 '구원하여 살리리라'는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딤후 6:13과 행 7:19에도 나온다.
- (3) 그런데 후기 헬라어로서 의학 문헌에 자주 나오는 이 단어는 '살아 있는'을 뜻하는 <조오스>와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노>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 (4) 한편 '살기 위해 죽는다'는 원칙은 육체의 생명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 삶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얻는 삶이다. 즉 자신의 욕심과 주장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삶을 말한다(롬 8:13).
- (5) 이런 삶은 곧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것이며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이다(롬 6:11; 고전 15:43-47).
- (6)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다(갈 2:20).
- (7)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생활은 매일 죽는 삶이다. 나의 욕심과 아집 그리고 생각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려야 한다(갈 5:24).

24. ㉠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와 버림 받는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4, 35절)

- ㉠ (1) 구원받은 자는 그가 어떤 시간(밤, 낮)에 어떤 곳(집, 일터)에 있든지 마지막 날(예수의 재림 때)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살전 4:17).
- (2) 반면에 버림 받는 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에 마지막 날 끝내 멸망당할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다(참조, 마 24:40, 41).
- (3)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자와 버림 받을 자가 본질의 묘사와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마 13:30, 49).
- (4) 그 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다. 즉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열매가 곧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마 25:31-46).
- (5) 그러므로 세상에 흠뻑 빠져서 영원한 삶을 볼 수 없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그 사실에 대해 안타까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10:30-37).

25. ㉠ 36절에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고대 주요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자(Bezae) 사본과 후대 헬라어 사본 및 라틴, 수리아 역 등에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둬를 당할 것이니라'(마 24:40)는 내용과 유사한 글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2)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 생략한 것으로 여겨진다.

26. ㉠ ‘주집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37절)

- ㉠ (1) 예수께서는 ‘어디오나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이 말 뜻은 곧 ‘이 세상 어디에나’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 (2) 제자들은 예수의 재림이 번개의 비침과 같이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차 질문했던 것이다(24절).
- (3) 즉 제자들은 노아나 룻의 때에 있었던 심판이나,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물었다.
- (4)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주집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악이 성행하여 멸망당할 자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5)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의 심판도 죄악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있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 (6) 그런데 이 비유는 욥39:30의 ‘살륙당한 자 있는 곳에서 그것도(독수리) 거기 있느니라’는 귀절을 인용한 말이다.

화보자료

금홀히 여김을 바라는 열 문둥병자. 길에서 예수를 만난 열 문둥병자가 예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 주도록 간청하고 있다 (12, 13절). 한 독일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삽화이다.



열 문둥병자의 간청은 즉각적으로 수락되어졌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예수께 감사를 드린 자는 단 한 명의 이방인뿐이었다 (11-19절). 이러한 사건은 간접적이거나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였던 점을 생각해 해준다. 아웁든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께 감사한 이방인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다.

제 18 장 기도 에 대해 말씀 하시다

단락구분 1-8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 9-14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교 / 15-17 어린이를 용납하시다 / 18-27 어떤 관원의 근심 / 28-30 회생에 대한 상급 / 31-34 수난을 예고하시다 / 35-43 눈먼 거지를 고치시다

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하여

2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꾸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 사람들이 예수의 만저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8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4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대

26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가

27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1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회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뱀음을 받겠으며

33 저희는 재적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5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37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38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41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 **㉠ 본장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의 교훈들은 앞장에서 언급된 청중들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역시 본장도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개괄은 다음과 같다.
- (2) 1-14절에는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의로운 자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 (3) 또한 15-17절에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4) 그리고 18-30절에서 예수께서는 돈 많은 관원의 비유를 통해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를 말씀하셨다.
- (5) 마지막으로 31-43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수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후 여리고에서 간구하는 소경을 고쳐 주셨다.

2. **㉠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2)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쉬 나타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면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됨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 (4) 그러므로 이 비유의 목적은 훗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선교지로 나갈 제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믿음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 (5) 그 뿐 아니라 이 교훈은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소용이 된다(참조, 21:36; 롬12:12).
- (6)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마26:41).

3. **㉠ 이 비유에 나타난 재판관의 성격은 어떠한가? (2절)**

- ㉠** (1)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
- (2) 즉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인간의 양심이나 긍휼, 정의(正義) 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 (3) 따라서 그는 재판관이면서도 법과 공의(公義)를 존중치 않고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며 돈없고 약한 백성에게는 포학을 일삼았다.

- (4) 그런데 이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시비는 재판정에 가지 않고 장로에게 찾아가서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 (5) 또한 유대법에 의한 법정 중재(仲裁)는 원고와 피고가 선정하는 판사 2인과 임명된 판사 1인으로 구성된 재판진(裁判陣)에 의해 이루어진다.
- (6) 그러므로 본질에 나오는 재판관은 예수 당시 통치자인 헤롯(B.C. 4-A. D. 39)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로마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일 것이다.
- (7) 이 같은 재판관은 오늘날에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권력의 하수인이거나 권력과 야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로 정의에 입각한 법정신(法精神)과 법관으로서의 임무마저도 잊어버린 자들이다(참조, 미3:9-11).
- (8) 이러한 자들로 인해 사회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공의는 잊혀져 가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불의(不義)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말3:5).

4. **㉠ 비유 속에 나타난 과부는 재판관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3절)**

- ㉠** (1)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는 귀찮은 존재였다.
- (2)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의 상징인 과부는 돈도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끈기 있게 재판관에게 매어 달려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 (3) 그런데 이 과부의 끈기 있는 호소는 일반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나올 데라고는 전혀 없는 이 과부의 간구를 이미 잊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 같은 끈기는 곧 신념과 희망 등이 어우러진 결정(結晶)이라고 할 수 있다.
- (5) 이 과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암담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 과부와 같은 신념과 끈기를 신앙으로 승화시켜 강인한 믿음을 다져 가야겠다(롬 14:23; 히 11:1)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5. **㉠ 과부의 끈기에 대해 재판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5절)**

- ㉠** (1) 비록 재물과 권력만을 알고 공의(公義)는 잊은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므로 결국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 (2) 이것은 돈과 권력이 없이 끈기 하나만으로 승리한 하나의 예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비록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나 이 같은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3) 하물며 온 우주의 주권자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약과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자포 자기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매우 섬습하게 해드리는 일이 될 것이다(7절).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간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벧전2:9; 약5:7).

6. **㉠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려는 예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6-8절)**

- ㉠** (1)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박해자들의 압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 왔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원대로 속히 나타나기를 소원해 왔다.
- (2)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수많은 기도를 드린다.
- (3)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응답을 받은 자들보다 응답을 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당부하시면서 신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4) 더우기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8절). 즉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 (5)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욕심을 제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롬5:4; 약1:2-4).
- (6)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속히' 오리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응답이 오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응답은 오지 않을 것이다.
- (7) 그리고 그 응답의 때와 형태는 아무도 모른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7. **㉠ 이 비유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신 날 순결한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셨다.
- (2) 현재 우리의 세상에서는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다. 더우기 현대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만한 논리나 이념도 흔치 않다.
- (3) 사람들은 색다른 사상과 철학을 찾아다니지만 찾아서 거기에 혹 만족한다 하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교회도 그 본래의 기능인 교육과 말씀 선포를 잊은 지 오래이다. 비록 교회내에서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
- (4) 그리고 윤리나 도덕도 점점 타락되어 가치관은 혼돈 상태이다. 모두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진정 아는 자는 드물다.
- (5) 예수께서 나태하기 쉽고 미혹되기 쉬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다.
- (6)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욕이나 교리 준수, 정죄, 개혁 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도덕을 위에 거하게 될 것이다.

8. **㉠ 9-14절의 비유는 어떤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가?**

- ㉠** (1)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蔑視)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이다.
- (2) 즉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신앙은 올바르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운 자로 판명되리라고 믿는다.
- (3) 반면 타인들은 이단자이며 불경건하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규정한다.
- (4)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타인은 그에 반해 정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5) 그런데 14절에 의하면 이들은 바리새인이지만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였으며 타인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참조, 19장 ㉠6).

9. **㉠ 바리새인과 세리(稅吏)는 어떠한 대조를 이루는가? (10절)**

- ㉠** (1) 예수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세 번(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 (2)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자신들의 의(義)를 주장했으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였다.
- (3) 그 뿐 아니라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과 제도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다(11:38).
- (4)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율법주의는 형식과 외적인 면에만 치중하였으므로 내면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내면은 썩어 가고 있었다(마23:27).

- (5) 반면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유대인 관리들로서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 (6)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외국의 정복자들을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거둔 세금 중 많은 액수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이다.
- (7) 따라서 그들 자신들도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버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심한 죄의식을 느꼈다(참조, 19:7, 8).
- (8) 오늘날 우리 교회나 사회에도 이같이 경건한 바리새적 교인이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이 외형적인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자들도 많다. 인간의 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쉽게 구별하여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참조, 삼상16:7).

10. **㉠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과 자세는 어떠한가? (11, 12절)**

- ㉠** (1) 먼저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 내용은 자신의 의(義)를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들이었다.
- (2)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는 말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에게’ 혼자서 하는 독백 기도라는 뜻이다.
- (3) 즉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오로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의(義)에만 있었던 것이다.
- (4) 그는 외형적·율법적 죄를 범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하는 자랑의 기도를 드렸으며 더 우기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는 율법 준수의 자랑까지도 덧붙혔다(신14:22,23; 민18:21).
- (5) 오늘날에도 이 같은 바리새적 교인이나 지도자들은 권력과 사회적 지위, 교회의 권위, 재력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의로운 체한다.
- (6)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들의 양심,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그들의 불의(不義)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참조, 렘11:20; 23:24; 암9:3).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자세로 은밀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기도하는 행위가 자랑이나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마6:5, 6, 18).

11. **㉠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는 토색(討索),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 (2) 즉 자신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으며 깨끗함 뿐임을 자랑했다. 유대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게 되어 있었다.
- (3) 그런데 특별한 공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도 금식을 행했으며,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때 얼굴을 희게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구김살이 간 옷을 입고 큰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였다(참조, 마6:16-18).
- (4) 이처럼 자신들의 의(義)를 드러내는 자들은 오히려 의롭지 못한 자들이며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인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지 않았기 때문이다(5:32).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웃 사랑’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마음은 사랑에서가 아니라 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는 의도에서이다(비교, 마6:3).

12. **㉠ 세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13절)**

- Ⓐ (1)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稅吏)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통해 했다.
- (2) 즉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義)만을 얘기했으나 세리는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 (3) 자신은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임을 깨달았기에 감히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
- (4)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정직한 고백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신다(마5:4).
- (5) 그러나 사랑이나 구제도 회개나 애통함도 타인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내는 운동(Movement)이나 의식(儀式)은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참조, 마6:2-4).
- (6)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에나 이같이 선행이나 의로운 일에 대한 칭찬을 듣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이다.
- (7)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생각, 주장, 주의 등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타인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14:10; 22:26; 마18:4; 약4:10).

13. ⓐ 바리새인과 세리 중 칭찬을 들은 자는 누구인가? (14절)

- Ⓐ (1) 당연히 세리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 (2) 우리들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타인을 오히려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 (3) 그러나 나의 선입견과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타인을 저울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이 의로운지 불의한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4)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 할 수 없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義)로써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요3:16; 롬6:23; 8:32; 엡2:8).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숨기거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선행을 하는 자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모두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다(참조, 전1:2).

14. ⓐ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올 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5절)

- Ⓐ (1)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께 다가옴에 대해 그들은 저지하고 꾸짖었다.
- (2) 유대에 있어서 부모들은 자식을 랍비에게 데려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관습이 있었다(마19:13). 본절에 나타난 사람들도 예수께서 자신들의 어린이들을 만져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 (3) 그런데 바태(마19:13)와 마가(막10:13)는 '어린 아기'를 '갓난 아기' 또는 '젖먹이'로 묘사하고 있다(1:44; 뱀전2:2).
- (4) 이렇게 친진한 아이들이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자 접근할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의 부모들을 꾸짖으며 접근을 막았다. 이 같은 제자들의 행위로 보아 아직도 그들은 예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 (5) 왜냐하면 예수는 어린아이를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오히려 사람 취급을 할 만큼 성숙되지 못한 육체적 조건을 갖춘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6)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난하고 못 배운 계층의 사람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하여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흔하다. 우리 성도들은 이들에게 예수의 사신으로서 예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대우해야 한다.

15. **㉠**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16절)

- ㉠** (1) 오히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
- (2) 우리들은 어른이 어린이보다 지식, 기능, 지혜, 경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륜도 어린이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며 신앙도 더 좋을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오히려 그 반대이기도 하다.
- (3)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나쁜 생각과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 순수성을 잃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어린이들은 겸손하게 타인을 신뢰하며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다.
- (5) 그러므로 조금 더 안다는 자와 능력이 있다는 자, 가졌다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경계되어야 할 것은 교만이다.
- (6) 타인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교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잠16:18).

16. **㉠**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17절)

- ㉠** (1)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여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
- (2) 즉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 (3) 하나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않으며 권위에 의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4) 하나님 나라는 순결과 경이감 그리고 신뢰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참조, 요3:3,5).
- (5) 따라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가르쳐진 지금은 누구나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참조, 약2:22,26).

17. **㉠** 어떤 관원이 예수께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는 예수께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 (2) 즉 그의 질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과 수단에 의해 예수께서 영생을 얻으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전부는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성을 다해 그 당시의 교훈들을 열심히 따랐으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 (4) 이처럼 도덕적 행위나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써도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소유한 존재이며 '영생'을 얻은 자로 여겼다.
- (5)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 자체를 의미한다.
- (6) 그리고 그 관원이 요구한 생명은 순간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곧 죽음에 의해 차단이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 (7)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요3:1-15)에서 예수께서는 '영생'은 거듭남으로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8)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은 영생일 것이다.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훈련, 지혜로 이를 수가 없으며 오직 거듭남으로서만 이를 수 있으니 우리가 간구할 것은 거듭남일 것이다(참조, 요3:14, 15; 4:35, 36; 12:25; 17:3; 갈6:8).

18. **㉠** '관원'은 어떤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가? (18절)

- ㉠** (1) 마태(마 19:20)는 그를 청년이라 부르고 마가(막 10:17)는 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 (2) 이같이 본질에 언급된 관원은 상당히 넓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장로나 서기관 및 회당의 관리라기 보다는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이거나 유대 관리로 이해된다.
- (3) 그러나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 종교적으로 상당한 훈련과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4) 그러므로 공관 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 관원은 예수 당시의 지배 계층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19. **㉠** 관원은 예수를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여 불렀는가? (18절)

- ㉠** (1) 그는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 (2) 그런데 랍비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기록은 유대의 어떠한 종교적 문서에도 없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언제나 ‘율법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이 관원이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께 대한 큰 존경을 표시함과 동시에 그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 (4) 사실 이 관원이 ‘선하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로서 오신 선생’(요 3:2)이며 ‘생명의 떡’(요6:48)이자 ‘생명수’(요7:37)이시다.

20. **㉠** ‘선한 선생님’이라는 관원의 말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대답하셨다.
- (2)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원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다.
- (3)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예는 당신께서 완치시켜 주신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17:18)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4)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데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볼 수 다(슌9:9; 마11:29; 요 13:5; 빌2:8).

21. **㉠**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관원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세의 계명(출20:12-16)이다.
- (2)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 같은 율법을 요구하신 이유는 율법은 단지 그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참조, 롬5:20).
- (3) 사람들은 이 같은 율법의 요구를 힘들이지 않고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율법의 준수가 곧 자신의 공(功)과 덕(德)을 하늘에 쌓으며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4) 그러나 그들 내면의 양심은 자신이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쓸 뿐 아니라 그 길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 (5) 율법의 준수나 어떠한 훈련에 의해 이룰 수 있다는 심성의 변화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참조, 롬8:5-8).

22. **㉠**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관원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예수께서는 관원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예수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다.
- (2) 여기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에게 임하는 하늘의 보

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이다.

- (3)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행치 않음이 그에게는 큰 잘못이었다(마19:19).
- (4)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막10:22)였으나 가난한 자에겐 관심도 없었다. 즉 그의 하나님은 평안과 부요였다. 그는 자신의 몸 하나만의 안일을 생각했지 타인의 생활에는 관심도 없었다.
- (5) 그런데 예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그의 전(全)삶을 뒤엎는 것이었다. 즉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 (6)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참된 교제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 같은 포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마19:26).

23. **㉠** 예수의 요구에 대해 그 관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3절)

- ㉠** (1)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다.
- (2) 예수의 말씀은 그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의 내면은 영생을 사모하는 한편 세상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둘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 관원은 부자인 까닭에 궁극적인 문제, 즉 영생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 (5) 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나 권력 혹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9:59; 삼상17:39; 마19:22).

24. **㉠**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것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24, 25절)

- ㉠** (1) 예수께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다.
- (2) 흔히 람비들은 불가능한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
- (3) 그런데 본절의 비유는 다음의 두 가지 근거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대문 옆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기에 알맞는 넓이와 높이를 가진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한다.
- (4) 이 작은 문은 바늘귀 문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약대가 이 작은 문을 억지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 (5) 또 하나는 약대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카멜로스>인데 발음이 이와 유사하게 들리는 <카밀로스>란 단어는 선박용 밧줄을 의미한다.
- (6) 따라서 밧줄을 바늘귀에 꿰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보다 쉽다는 비유가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 (7) 그러므로 이 비유는 결국 인간이 소유하여 즐기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마19:23; 막10:23).

25. **㉠** 부(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22-25절).

- ㉠** (1) 재물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며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데 필요하다.
- (2) 그러나 재물은 인간들에게 욕심을 일으키게 만들어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 (3) 또한 부의 편중(偏重)은 빈부의 격차를 일으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 뿐 아니라 부의 편중이 극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한다.
- (4) 더우기 재물이 많아 그것을 주체하기 힘든 사람들은 차츰 그 재물을 나쁜 곳에 사용하여 자신의 영과 육을 함께 파괴시키기까지 한다.
- (5)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소홀하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 (6)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소유와 사용은 우리들 삶 전체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되, 항상 이웃을 염두에 두고 재물을 소유하고 사용해야겠다.

26. **㉠**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6, 27절)

- ㉠** (1) 예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다.
- (2)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롬3:23, 2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며 인간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전1:18; 요3:16, 17).
- (3)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롬5:8; 엡2:5, 8; 딤후3:5).
- (4)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행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사는 가운데(마10:22)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참조, 요3:3, 5; 16:13).

27. **㉠**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8-30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 (2) 이 부분은 공관 복음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한 주제이다.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데 대해 마태(마19:29)는 '내 이름을 위하여'로, 마가(막10:29)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모두가 동일하며 이것은 초대 교회의 사상이기도 하다.
- (3) 한편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와 마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한 데 반해 마가는 '백 배'라고 하여 최상의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마19:29; 막10:30).
- (4) 그리고 마가는 상급 뿐 아니라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됨을 언급하였지만 누가는 오히려 현세의 보상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마태는 일반적인 축복을 시사하면서 특별히 현세와 내세를 구별하지 않았다.
- (5)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던 제자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행4:3; 5:17, 18; 7:59; 12:1-4) 그러나 그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큰 상급이었다(참조, 사61:10; 렘15:16; 뱀전1:8).
- (6)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는 내세의 구원이나 현세의 축복보다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기쁨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후5:13-17).

28.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은 무엇인가? (31-33절)

- ㉠** (1)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수난을 당하신 후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 나실 것을 예고하셨다.

- (2) 이 같은 수난의 예고는 본서에서만 여섯 번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수난이 자주 예고된 이유는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인데(사53장)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들은 곧 예수의 이 같은 행적을 예표한 것이다.
- (4) 한편 공관 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시기와 살의(殺意)에 의해 이방인 곧 로마인의 손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5) 예수께서는 비록 비참한 죽음을 당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승리를 전하게 만드셨다.
- (6) 결국 그분은 모든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시는 사랑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 흑암의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

29. ㉠ 제자들이 예수의 수난 예고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 ㉠ (1)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데 대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3)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기던 예수께서 그토록 비참한 수난을 당하리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 (4) 또한 그것은 제자들에게 숨겨졌던 사항이며 현대에 이르러 썩어질 구습을 쫓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전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 (5)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 (6) 결국, 원인은 인간들 곧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상(像)에 예수를 끼워 맞추려 하였기 때문이다(마16:22).
- (7)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상(理想)과 욕망에 맞추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어느 무엇에 의해서도 규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다.
- (8)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스스로 그 속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30. ㉠ 예수께 구원을 요구하며 소리친 자는 누구인가? (35-38절)

- ㉠ (1) 그는 여리고 가까운 길가에 앉아 구절을 하던 소경 거지였다.
- (2) 예수께서는 수난당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다.
- (3)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지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몰려 들었다.
- (4) 그때 거지 소경(마가는 그의 이름을 바디매오라고 밝혔다)은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후 예수께 구원을 요청했다.
- (5) 이처럼 기회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즉 구원을 받을 때와 은혜의 때는 속히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시32:6; 69:13; 95:7; 사49:8; 고후6:2).

31. ㉠ 소경은 무엇이라고 예수께 외쳤는가? (38절)

- ㉠ (1)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 (2)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믿었다(참조, 사11:1).
- (3) 그런데 예수께서 이 호칭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그가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군중들에게 드러내며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 (4) 그러나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밝히길 꺼려 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자신들의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 (5) 아람튼 군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으며 소경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생각한 소경은 구원을 얻었다(43절).
- (6)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42절). 즉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마8:13; 9:29, 30; 막9:23; 요3:15; 5:24).

32. **㉠ 소경의 외침에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9절)**

- ㉠** (1) 그들은 소경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위대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의 곁에는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 (3) 예수의 주위에 있던 군중들도 같은 생각으로 소경의 외침을 제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 (4)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코 이 같은 인간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 (5) 하지만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우월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주위의 아침군들에 의해 이러한 인간 차별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무수히 있어 왔다.
- (6)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귀한 만큼 타인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결코 빈부 귀천(貧富貴賤)에 의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33. **㉠ 앞서가는 자들의 제지는 소경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했는가? (39절)**

- ㉠** (1) 그것은 소경으로 하여금 더욱 소리치게 만들었다.
- (2) 비록 비천한 거지라고 하여 거룩한 메시아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사람들의 제지도 불구하고 소경은 오히려 더욱 큰소리로 예수를 불렀다.
- (3) 개인에게 있어서 내적 욕구를 억압한다면 그 욕구가 사회적 제약을 염두에 두거나 스스로의 억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후 예기치 않았던 방향과 예기치 않았던 때에 이상한 형태로 표출된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기본적 욕구가 정책 기관이나 어떤 지도층에 의해 억압을 받아도 그 욕구는 반드시 표출되기 마련이다.
- (5) 그러므로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민에게 있어서 그 욕구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34. **㉠ 예수의 물음에 소경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41절)**

- ㉠** (1) 그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의 물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 (2)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은 헬라어로 <큐리에>인데 이는 '랍비'라는 칭호보다 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그런데 '랍비'라는 칭호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비>에서 유래된 말이다. 신약 시대에 '랍비'라는 칭호는 단순히 존칭으로 쓰여진 것이지 공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 (4) 이것은 일반적으로 율법 교사들에 대한 호칭(마23:7, 8)이었으며 가끔 종에 대한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 (5) 신약에서 '랍비'와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랍오니>는 대체로 예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다(막10:51; 요1:49; 3:2; 4:31; 9:2; 11:8).
- (6) 이처럼 '랍비'라는 칭호보다 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큐리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며 더욱 그분이 중요 인물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7) 그러므로 소경이 예수에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대답한 것은 당신의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께서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

35. **㉠ 예수께서는 그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42절)**

- ㉠** (1) 예수께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소경이 보게 되었다.
- (2) 여기서 ‘보아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다시 보라’ 또는 ‘쳐다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3) 그런데 이 명령은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소경의 믿음과 상호 작용하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다.
- (4) 즉 그 소경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단지 예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룰 수 있었다.
- (5) 그러므로 명령에 대한 순종이 결국 기적을 낳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일반적으로 병 고치는 기적을 이루실 때는 먼저 환자의 믿음을 고취시켜 그 믿음으로 환자의 병을 치유하신다(7:50; 8:48; 17:19; 마9:22; 막5:34).
- (6) 그런데 이 같은 기적적인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막5:36; 9:23; 11:23, 24; 요1:50).

36. **㉠ 눈을 뜨게 된 사실에 대해 소경 자신과 주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3절)**

- ㉠** (1) 그 소경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으며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2) 이처럼 예수의 이 세상에서의 행적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었다(7:16).
- (3) 이것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자신들의 영화만을 위해 애쓰고 있다.
- (4)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회복해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
- (5)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근거 위에서 새롭게 시작될 때 그 삶은 풍성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본장의 요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제 19 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

단락구분 1-7 예수를 만난 삭개오 / 8-10 삭개오의 회개 / 11-27 므나뎀 비유로 말씀하시다 / 28-40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 / 41-44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다 / 45-46 성전 정화 / 47-48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의 음모

- 1 예수께서 여기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 3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 4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됴이러라
- 5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 7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 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 12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 13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 므나뎀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 14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온 준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 16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뎀으로 열 므나뎀을 낳겼나이다
-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 18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뎀으로 다섯 므나뎀을 만들었나이다
-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 20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뎀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뎀을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 25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 26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 27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 29 감람원이라는 산의 벧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30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입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37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가로되 찬송하리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하시니라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 있었다
 43 날이 이롭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46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분류하라.

- ㉠ (1) 본장을 내용상 크게 분류하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부분(1-27절)과 ‘므나 비유’(11-27절) 그리고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부분(28-48절)으로 나눌 수 있다.
 (2) 한편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에만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소경 거지들을 고치신 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3) 여리고에서의 므나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진 제자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즉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의 미래를 요구했다.
 (4)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중 예수로 인해 영광과 존귀를 얻겠다는 자들은 예수께서 걸으신 고난과 모멸의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참조, 사53장; 빌2:7, 8).

2. ㉡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난 때와 장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수난 주간 전 목요일 쯤 될 때였으며 장소는 여리고에서였다.
 (2) 예수께서는 여리고에 머무르려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시는 중이었다.

3. ㉢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2절)

- ㉢ (1) 그는 세리장(稅吏長)이었으며 부자였다.
 (2) 여기서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의로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되었다.
 (3) 한편 그의 직책 ‘세리장’은 그가 여리고 지역 세관의 책임자임을 가르쳐 준다.
 (4) 당시 여리고는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그곳을 통하여 각처로 보내졌으며 그곳은 발삼나무의 주산지였다.
 (5) 이러한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는 국민의 피를 빼앗아 가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 받은 고독한 존재였다.
 (6) 오늘날에 있어서도 삭개오와 같은 인물은 많다. 즉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소와 간구를 묵살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다.

- (7)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말4:1; 마3:12).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져 줄 것이기 때문이다(렘33:5).

4. **㉠**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그것은 첫째, 예수께서 어떤 본인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둘째,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민중의 지도자로 부각된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의 호기심은 그로 하여금 기발한 생각을 하게 한 것이다.
 (3) 즉 키가 작아 많은 군중들에게 가리워진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그는 주위에 있던 뽕나무로 올라갔다.
 (4) 그런데 이 ‘뽕나무’(헬, 쉬코모레안)는 ‘무화과’를 의미하는 헬리어 <쉬콘>과 ‘오디 열매’를 의미하는 <모론>의 합성어로서 무화과 종류의 나무를 의미한다(암7:14).
 (5) 따라서 이 나무는 17:6의 ‘뽕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인데 이 나무의 열매는 주로 빈민들이 따먹었다.
 (6) 한편 이 나무는 여리고의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7)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참조, 수24:15).

5. **㉠** 그 같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는가? (5절)

- ㉠** (1)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2) 즉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다.
 (3) 여리고는 제사장의 성(城)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서 유대인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다.
 (4) 이처럼 삭개오와 같이 버림 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5:32).
 (5)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25:31-46).

6. **㉠** 삭개오의 어떤 점이 예수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된 동기가 되었는가? (3-5절)

- ㉠** (1) 비록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2)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었으나 그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책잡기 위함이었다(20:20, 26; 막12:13).
 (3)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삭개오(8절)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된다.
 (4)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는 구원을 얻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마23:23).
 (5)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아 인식을 찾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도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참조, 6:42; 막8:18; 요9:41).

7. **㉠** 예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6절)

- A** (1) 그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2)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
 (3)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4) 즉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다(참고, 고전 10:12).
 (5)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이다.
 (6)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그 음성에 순종할 뿐이다(참조, 욥8:9; 전9:12; 11:5).

8. Q 예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7절)

- A** (1)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2) 의인이기를 바라며 의인인 척하는 유대인들은 타인을 비판하기에 바빴다.
 (3) 당시 세리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과 교제하려고 들지 않았다(참조, 마9:10, 11; 18:17).
 (4) 그러나 나사렛에서 온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므로 이제껏 율법과 의(義)를 외쳐 온 유대인들은 놀람과 질투로 서로 불평하였다.
 (5) 이처럼 이념이나 주의(主義)와 같은 고정 관념에 빠진 자들은 결코 진리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리란 어떤 교리나 이념의 틀에 갇힐 수 없기 때문이다.
 (6) 오늘날에도 자신의 조그만 지식 혹은 신앙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을 모두 안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많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도 세상도 인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참조, 요9:41).
 (7)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타인을 비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부족과 추함을 먼저 발견 해야 할 것이다.

9. Q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삭개오는 어떤 말을 하였는가? (8절)

- A** (1)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며 만일 타인의 것을 토색(討索)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다고 말했다.
 (2) 율법에 따르면 자발적인 변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에다가 5분의 1을 더 상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레6:5; 민5:7).
 (3) 그런데 그가 예수께 말씀드린 분량은 자발적 변상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었는데 그것은 동물을 훔쳐 죽이거나 판 죄에 해당하는 벌금의 양이었다(출22:1; 삼하12:6).
 (4) 그런데 그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예수의 방문에 감격했기 때문이다.
 (5) 모두가 죄인 취급을 하며 자신을 따돌렸으나 군중들이 메시야로 부르는 예수는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 더우기 그 예수는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6) 단지 예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과 그의 집으로 들어간 것뿐이었다.
 (7) 이와 같이 한 인간을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성분,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대해 줄 때 인간은 모두 서로간의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인 언행(言行)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Q 삭개오가 반환의 말을 하자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9절)

- Ⓐ (1)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그 사죄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되어졌다. 그리고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이다.
- (3) 또한 구원은 ‘오늘’ 그 집안의 가족 모두에게 배워진 것인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4) 그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참유대인임을 의미한다(롬4:12).
- (5) 이제 그는 죄와 허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그가 진정한 믿음의 자손인 유대인임을 모든 이들이 메시아로 떠받드는 예수를 통하여 들었다.
- (6)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외형적 신자(信者)보다는 내적 신자가 진정한 신자라는 것이다. 즉 신앙은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지 요란한 ‘운동’(Movement)이나 ‘개혁’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11. ⓐ 예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10절)

- Ⓐ (1)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잃어버린 자’란 저주받고 파멸될 처지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 (3)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로서 죄와 허물로 인해 자유를 잃은 자들이다.
- (4) 또한 그들은 사악한 종교 지도자의 경직되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은 자들이다.
- (5)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정의와 자유를 잃고 소외된 자들이며 정치적 종교적, 압제자들로부터 회생을 강요당하는 자들이다.
- (6)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 그들의 죄보다 당시의 지도자들의 죄가 더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은 긍휼을 입어야 할 자들이 된 것이다.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야 할 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압제자나 피압제자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들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참조, 롬3:23).

12. ⓐ 예수께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2) 즉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며 따라 자신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임할 예수의 재림을 통해 나타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3)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생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서 복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은 물론 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으로 착각한다.
- (4)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른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욕심은 곧 사망에 이르는 길이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약1:15).

13. ⓐ 마태복음 25: 14-30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와 본장의 ‘므나 비유’를 비교하라(12-27절)

- Ⓐ (1)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와 비유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종들에게 분배된 돈의 분배 방식이 차이가 난다.
- (2) 그런데 이 비유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즉 B.C.4년 헤롯 대왕(Herod, B.C.37-4)이 죽을 때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와 헤롯 빌립(Herod Philip) 그리고 아켈라오(Archelaus)에게 분할해 주었다.
- (4) 그런데 이 분할은 당시 유대의 종주국인 로마 정부의 인준이 있어야 가능했다.
- (5) 따라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는 유산의 영토에 들어가는 허가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 B. C. 27-A. D. 14)에게 청원하기 위해 로마로 갔다.
- (6)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로마로 50명의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왕위(王位) 취득을 저지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 (7) 사실 아우구스투스는 그에게 실제적인 왕의 칭호는 주지 않았지만 헤롯 대왕이 그에게 유산으로 분할해 준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은 인정했다.
- (8) 그러므로 당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는다면 그 역사적 배경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4. ⓐ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12점)

- Ⓐ (1)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실을 비유한 말이다.
- (2)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지내시던 예수께서는 겸손한 희생적 사랑으로 왕위(王位)를 받게 되어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행1:10,11).
- (3)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데 대해 인간들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의 내용을 담고 있다(참조, 창22:1-19).

15. ⓐ 이 신뢰는 또한 어떤 면을 내포하고 있는가? (13점)

- Ⓐ (1) 귀인의 종들에 대한 신뢰는 곧 그들에 대한 시험(test)의 뜻도 담고 있다.
- (2) 즉 귀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돈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맡긴 사실은 그들이 작은 일에도 성실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 (3)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자신의 일이나 남의 일을 막론하고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 일에 있어서도 충실할 수 있으나 작은 일에 불성실한 자는 그 같은 타성(惰性)에 젖어 큰 일에도 불성실한 자세를 보임은 물론 일을 그르치게 된다(16:10-12; 고전4:2).

16. ⓐ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라는 비유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실을 비유한 것인가? (14점)

- Ⓐ (1)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 (2) 유대의 지도자들 곧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비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종교 상태를 혼란케 하는 예수가 마음에 거슬렸다.
- (3) 따라서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형할 것을 주장했으며 당시 처형권이 없었던 그들은 ‘반란죄’에 해당하는 흉악범으로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 줬다(마26:65, 66; 27:1, 2).
- (4) 한편 예수께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으로 믿었던 군중들은 그가 무기력한 말과 자신들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다(마27:20, 21).
- (5)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매한 짓을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증거이다.

17. **㉠** 이 귀인의 행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우리는 귀인이 자신의 종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즉 귀인은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갔으나 그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간섭도 없었고 감독도 두지 않았다.
 (3) 귀인의 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삶을 우리의 재량에 맡기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신다(참조, 딤후4:7).

18. **㉠** 귀인은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긴 종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었는가? (16, 17절)

- ㉠** (1) 그 귀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도 종에게 주었다.
 (2) 이 비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재능에 따라 심판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참조, 고후3:6).

19. **㉠** 주인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상급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6-19절)

- ㉠** (1) 그들은 한 므나로 각각 열 므나와 다섯 므나를 남긴 자들이다.
 (2) 여기서 한 므나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3) 그런데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긴 자들은 그 상급으로 열 고을과 다섯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4) 이것은 그 상급이 단지 먹고 마시는 데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참조, 마24:47).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을 행할 기회인 것이다.

20. **㉠** 마지막 종이 '악한 종'이라고 평을 들은 이유는 무엇인가? (20, 21절)

- ㉠** (1) 그는 주인이 돈을 찾아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무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였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2) 즉 그 종은 주인의 성격과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여기서 '주인은 두지 않은 것(저축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그 당시에 타인의 노동력을 비양심적으로 착취하는 자를 향한 격언이었다.
 (3) 그러므로 그 종의 말은 결국 주인을 자신은 조금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 셈이었다.
 (4) 이 같은 종의 행동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욕하는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21. **㉠** '악한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20, 21절)

- ㉠** (1)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맞보지 못하고 엄격한 도덕률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2)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3)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진노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참조, 롬5:8).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다.

22. **㉠** 주인은 변명과 불평을 늘어놓는 종을 어떻게 꾸짖었는가? (23절)

- A** (1) 그 주인은 종이 자신의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은행에라도 맡겨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은 사실을 꾸짖었다.
- (2) 여기서 ‘은행’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트라이페라>는 ‘넷’을 의미하는 <테트라>와 ‘발’을 의미하는 <푸스>의 합성어인 <테트라페라>에서 온 말이다.
- (3) 따라서 그 말은 ‘탁자’(막7:28), ‘돈 바꾸는 자들의 상’(마21:12; 막11:15; 요2:15)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므로 이 ‘탁자’(헬, 트라이페라)는 돈을 꾸어 주는 탁자 곧 돈 바꾸는 자들이 사용하는 탁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5) 또한 ‘므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 시간 그리고 삶 전체를 의미한다.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므나’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썩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인간 행위’마저도 저버리는 처사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23. Q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주인의 처벌은 어떤 것인가? (24-27절)

- A** (1) 주인은 그에게 주었던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서 주라고 명했다.
- (2) 종에 대한 이 같은 처사는 있는 자를 더욱 부하게 하고 없는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 (3)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감사히 여겨 더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부여받고, 받은 은사를 썩히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그 받은 것마저도 잃게 되리라는 것이다(참조, 고전 15:10).
- (4) 이 같은 원리는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워 계속 활용을 하며 그 기술을 닦아 나간다면 더 많은 곳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술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운 기술마저도 얼마가지 않아 곧 잃게 된다.
- (5)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과 생활 태도는 곧 근면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자에게 더 큰 지혜와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주실 것이다(참조, 고전 12:7; 딤후 3:13; 계 2:26).

24. Q 주인의 왕 됨을 원치 않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

- A** (1) 주인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끌어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다.
- (2) 이 같은 두려운 형벌은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있을 심판을 예시(豫示)한다고 볼 수 있다.
- (3) 즉 이 형벌은 A. D. 70년에 있는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것이다(참조, 43, 44절; 21:24; 마 24:1-51; 막 13:1-37).
- (4) 또한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심판에 앞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찾아 볼 수 있다.
- (5) 그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왕으로 오실 예수께서는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단 9:27; 롬 6:21; 고후 11:15; 계 21:8).

25. Q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의 노정을 설명하라 (28절).

- A** (1) 누가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메시아로서 승리의 입성을 하는 예수의 모습도 그리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다른 복음서(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 (3) 즉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많은 군중들은 여리고를 떠난 후 예수와 제자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했다.

- (4) 반면 예수께서는 여리고에서 약 24km 떨어진 베다니로 향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그곳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틀 밤을 지냈다(마26:6-13; 막 14:3-9).
- (5) 그때에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전개되었다(요11:1-9). 다음 날(종려 주일 첫째 날) 예수께서는 드러어 메시아로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던 것이다.

26. **㉠**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29절)

- ㉠** (1) 벳바게는 구약 성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지명인데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예루살렘 쪽에 더 가까이 있던 근교 촌락이다.
- (2) 그리고 벳바게가 위치한 ‘감람원’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올리브 산)이 감람나무로 뒤덮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3) 이 ‘감람산’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 몇 주일을 보내신 곳이면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다(24:50; 행1:12).
- (4) 한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진 마을로서 감람산 동편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 베다니의 이름은 <엘 아자리에> 또는 <라자리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나사로 이야기와 관련된 듯하다(요11:1-44).

27. **㉠**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겠다고 하셨는가? (30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 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다.
- (2) 예수께서는 스가랴에 의해 예언된(슌9:9) 대로 군대를 거느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려 했다.
- (3) 그런데 이같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나귀가 필요했다(민19:2; 신21:3; 삼상6:7).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전에 아직 어느 누구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 (4) 예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요구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나귀 새끼(한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화평을 선포하는’(슌9:10), ‘평강의 왕 예수’에게는 합당한 것이었다.
- (5) 즉 예수의 삶은 겸손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삶이었지만 그 삶은 결코 나약하거나 비천한 삶이 아니었다.
- (6)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다. 누구나 다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소유한 삶은 대부분 쾌락과 불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딤펵6:10).
- (7)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삶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참조, 요일1:2; 2:25).

28. **㉠** 제자들은 주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왔는가? (31-35절)

- ㉠** (1)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즉 그들이 마을의 나귀 새끼를 데려오려고 할 때 주인들이 그 이유를 묻자 제자들은 그 주인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한 후 데려왔다.
- (2) 예수의 공생애(公生涯)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을 ‘주’(主)라는 호칭으로 가리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주’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 (3)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 주인들은 예수께서 쓰실 것을 깨닫고 허락한 듯하다.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요구에 따를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는 헌신을 보일 것이다(참조, 막6:30-44; 15:43-47; 요12:1-3).

29. **㉠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떤 모습으로 환영했는가? (35, 36절)**

- ㉠** (1) 제자들은 자신들의 겂옷을 안장 대신에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웠으며 예수께서 가시는 앞길에 겂옷을 깔아 드렸다.
 (2) 한편 마태(마21:8)와 마가(막11:8)는 겂옷 뿐 아니라 나뭇가지도 길에 펼쳤다고 했는데 요한(요12:13)은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무의 가지라고 밝혔다.
 (3) 그런데 이 같은 행위는 왕이나 귀인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존경의 표시였다(왕하9:13).
 (4) 예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를 정치적·민족적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영하였다.
 (5) 이처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단지 눈에 띄이며 손에 만져지는 허상에 흥분을 하고 또한 쉽게 실망을 하게 된다.
 (6)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 같이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전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4:10).

30. **㉠ 예수를 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37, 38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사실을 본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영광이로다'라고 외쳤다.
 (2) 이 당시 예루살렘 성과 길가에는 마침 유월절을 지내려고 전국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3)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베다니를 거쳐 오는 동안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며 그 소문은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았다(참조, 요12:17, 18).
 (4) 이처럼 그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며 지금 왕권을 취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여겼다.
 (5) 이와 같이 진리는 인간들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아집(我執)에 의해 왜곡(歪曲)되고 와전(訛傳)되어 오히려 세상을 혼미케 하며 사람들을 엷매이게 하기도 한다.
 (6) 그러나 진리 자체가 그러한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접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에 의해 결코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7)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생활에서나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31. **㉠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들 본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39절)**

- ㉠** (1)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제자들이 그런 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2) 그들이 예수께 이 같은 요청을 한 이유는 첫째, 그들은 사람에게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를 메시아로 찬양함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3) 둘째, 그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군중들의 환호와 물결을 보지 못했으며 이 물결이 시위의 양상을 띠게 된다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인들을 자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비교, 마16:21-23).

32. **㉠ 바리새인의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는 무슨 대답을 주셨는가? (40절)**

- Ⓐ (1)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및 당시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환영에 대해 예수께 자제를 요구했으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위엄 있는 어투로 ‘이 같은 환호가 마땅히 들려야 할 지상에서 들려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 (3)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박국의 예언을 알고 계심을 보여 준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합2:11).
- (4)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상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 전도자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았으나 그럴수록 전도자들은 더욱 크게 외쳤으며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참조, 시22:27; 사9:2).

33. ⓐ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41-44절)

- Ⓐ (1) 예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 성이 파멸될 것을 아시고 우셨다.
- (2) 예수께서는 감람산 서쪽 언덕에 서서 눈앞에 전개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 (3) 장엄한 성전, 부자들의 정원과 왕궁 그리고 큰 성벽 등은 예루살렘의 영화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 (4)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의 통치하에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으나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여호와 경배는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 (5) 그렇지만 지금 그 성에는 불법과 죄악이 남아 있었으며 얼마 있지 않아 그 성은 파멸되고 말 운명에 놓여 있었다.
- (6) 이러한 성의 운명에 대하여 슬퍼하신 예수의 심정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각자 제 길로 갈 때에도 똑같다(참조, 히5:7).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항상 주께 고백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실 그를 의지하도록 힘써야 하겠다(요일1:9). 이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다(겔33:11; 고전1:12).

34. ⓐ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란 무슨 뜻인가? (42절)

- Ⓐ (1) 즉 예루살렘과 유대가 평화의 조건을 배워서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닥칠 환난을 피할 수 있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 (2) 여기서 ‘평화의 조건’이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 (3) 그러나 그들의 독선(獨善)과 아집(我執)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 ‘평화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예수의 이같이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 (4) 이와 같은 예수의 자비와 긍휼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으나 인간 스스로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그 이해와 인식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 (6)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일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35. ⓐ 장차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3, 44절)

- Ⓐ (1) ‘네 원수들이 토성(土城)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A. D. 70년 로마의 디도

(Titus)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을 포위하는 형태의 토성을 쌓았다.

- (2) 그런데 이 토성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을 굽어보기 위해 쌓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종의 기지였다.
- (3) 여기서 '토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라카>의 원뜻은 '말뚝'인데 그것은 포도나무나 천막 등을 지지하는 말뚝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뚝'이란 원뜻을 가진 '토성'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방책을 의미한다.
- (4)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의미한다(참조, 호14:1). 한편 43, 44절 '너'라는 단어가 모두 다섯 번 나오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환난을 당할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137:9).
- (5) '이는 권고(眷顧)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백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 또한 그 사실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행동인 것도 알지 못했다.
- (6)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소리칠 때(잠1:20, 21) 귀를 막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책망과 경책의 소리가 임할 때 귀를 활짝 열자(잠1:23).

36. **㉠**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5, 46절)

- ㉠** (1) 예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窟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이란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 파는 자들'을 가리킨다(마21:12; 막11:15).
- (3)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는데 대부분 유월절 때 성전에서 낸다.
- (4) 그런데 성전세는 '성전 반 세겔'이나 '갈릴리 세겔'로 바쳐야 했다. 따라서 당시 통용되던 헬라, 로마, 두로, 수리아, 애굽의 화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을 위해 돈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 돈 바꾸는 데도 절차가 복잡해서 수수료가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들은 많은 이익을 보았다.
- (5) 그리고 순례자들은 제사를 드리는 데 소용되는 짐승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성전 문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만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성전 구내에 들어와서 10배나 비싼 값을 주고 짐승을 사는 것이 오히려 손쉬웠다.
- (6) 이처럼 성전 문에서 짐승을 검사하는 자들과 구내에서 깨끗한 짐승을 파는 자들은 서로 한편이 되어 순례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짐승을 팔았다.
- (7)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이들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군의 소굴로 더럽힌 것과 순진한 순례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참조, 사56:7; 렘7:11).

37. **㉠**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하라 (45, 46절).

- ㉠** (1) 예수 당시의 유대교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사회를 혼돈 상태로 몰고 갔다.
- (2) 특히 바리새인들은 의식적(儀式的)인 율법에 치중하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철저히 멸시했다.
- (3) 비록 이들이 이방 문화나 종교를 철저히 배척하는 종교적 경건을 보였으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일에만 치중하여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물론 종교를 극단적으로 경직된 상태로 몰고 갔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건에 관심을 잃게 되었다.
- (4) 한편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대제사장 무리들로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

여 부와 권세의 자리를 획득했다.

- (5) 이처럼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나 하는 자들이었다.
- (6) 어떠한 단체이든지 간에 그 단체가 발전하려면 그 단체의 지도자의 영도력이 뛰어나야 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영도력이 없을 때 그 교회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매마른 인간 집단 내지 이익 집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 (7)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차례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교회를 잘못 이끈 지도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참조, 겔33:1-9; 34:1-10; 약3:1; 벰전4:17).

38. ㉠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굴혈’이란 무슨 뜻인가? (46절)

- ㉠ (1)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란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며 ‘강도의 굴혈(窟穴)’이란 ‘강도들의 은신처’를 말한다.
- (2) 예수께서는 사56:7을 인용해서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장소’임을 말씀하셨다.
- (3) 그러나 ‘장사하는 자들’은 그곳을 선량한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강도들의 은신처’로 삼은 것이다(렘7:10).
- (4) 즉 성전이 지나는 참된 본질이 그들에 의해 사라지고 이제는 타인의 물질을 수탈(收奪)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가 ‘복음 증거’와 ‘구원의 장(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삭근 목자들이 순진한 양들을 수탈하는 ‘강도의 굴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실 것이다.

39.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가?(47, 48절)

- ㉠ (1) 눅9:22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의 활동 초기부터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그 기회와 방법을 찾고 있었다.
- (2) 이제 그들은 예수를 일종의 ‘종교 재판’을 통해 제거하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처럼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3)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곧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들이 그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이란 당시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리들을 말한다(참조, 막6:21).
- (4) 한편 48절에서 백성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말의 원뜻은 ‘매달리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로써 우리는 예수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 (5)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으셨다. 한편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도 예수를 체포할 근거를 찾기에 바빴다.
- (6) 여기서 우리는 곧 이어 있을 예수의 고난에 대비해 바빠 움직이는 선과 악의 동향을 볼 수 있다.
- (7)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라고 선포했는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심한 박해가 있을 때 항상 굳게 뭉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제 20 장 예수를 시험(試驗)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단락구분 1-8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다 / 9-18 예수께서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다 / 19-26
예수를 체포할 증거를 찾다 / 27-40 예수를 시험하는 사두개인들 / 41-44 예수께서 자신의 존재를 옹호
하시다 / 45-47 위선자들을 경계하라 하심

1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
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
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5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서라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야

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들로 칠
것이라 하고

7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
니라

9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
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
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 다시 세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
고 내어 쫓은지라

13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고 내 사랑하
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
리라 하였더니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
로 만들자 하고

15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16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
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17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
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뇨

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
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
들어 흙으리라 하시니라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
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 이에 저희가 옛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
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
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
게 하니

21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
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
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
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
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
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27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
들이 와서

28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
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
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
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31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32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에 그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
 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
 집가는 일이 없으며
 36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
 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
 이니라
 37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
 무 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시라 칭하였나니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
 았느니라 하시니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

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40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
 더라
 41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
 저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 내가 네 왼손을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
 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4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
 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5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
 들에게 이르시되
 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
 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
 계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
 시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전개하라.**

- ㉠** (1)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던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받으셨다.
- (2)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를 시험하여 책잡으려 했다. 즉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무슨 근거와 권위에 의한 것인가? (2절) 또한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22절) 그리고 과연 인간은 죽은 후 부활하는가? (28-33절)라는 질문을 하였다.
- (3)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권위에서인가? (4절)라는 질문과 악한 농부의 비유(9-18절) 그리고 지혜(25절)와 진리(38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
- (4)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이 같은 질문의 목적은 예수께로부터 종교적인 위배 사항을 찾아내어 그분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코 진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2.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께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가? (1, 2절)**

- ㉠** (1) 이들은 예수께서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 (2) 유대의 종교 문제 해결권은 모두 이들에게 있었으며 더우기 이들은 성전 관리 및 종교 의식의 관할권을 쥐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의 성전 정화(淨化)와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 (3) 그런데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들이 예수의 활동에 제재(制裁)를 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치리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3: 1).
- (4) 그러나 예수께서 일단 유대 지방에 들어온 이상 이들은 그가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종교적 메시아 운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예수의 인물됨과 약점을 찾기 위해 온 것이다.

(5) 즉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같은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예수를 체포할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3. **㉠** **예수를 찾아와 질문을 던진 자들은 누구인가? (1절)**

- ㉠** (1)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
- (2)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란 사두개인들(the Sadducees)로서 성전 관리와 의식의 집행을 도맡아 하였다.
- (3) 한편 서기관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마7:29; 막2:16; 7:1).
- (4) 그리고 장로(헬, 프레스부테리온)는 유대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대 공동체의 족장(族長)이나 가장(家長) 중에서 선정되었다.
- (5)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의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식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 **산헤드린 대표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했는가? (3, 4절)**

- ㉠** (1) 예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라는 질문을 하셨다.
- (2)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신 의도는 결코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권세(2절)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즉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의 권세를 부인한다면 유대의 모든 백성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된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비밀과 인간과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아시기에 이같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다(참조, 2:40; 사11:2; 마13:54; 고전1:24; 골2:3).
- (5)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마28:18)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5. **㉠** **산헤드린 대표들은 예수의 역(逆)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5-8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질문하신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세에 근거를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2) 이 같은 그들의 대답은 그들 스스로 갖고 있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했으며 백성들이 예언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산헤드린’의 공식 성명(聲明)이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 (3) 그러므로 그들이 ‘모른다’라고 대답하여도 예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그들이 빠진 딜레마에서 나올 수는 없게 되었다.
- (4)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세가 인간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아무 위력도 발휘할 수 없다(참조, 잠19:21).

6. **㉠** **예수께서 새로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9절)**

- ㉠** (1) 예수께서는 ‘산헤드린’의 비리(非理)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 (2) 즉 예수께서는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살인 집단이라는 사실과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무리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3)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같이 악한 무리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강조하셨다(18절).

7. **㉠ 비유에 나타난 인물들과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9-11절)**

- ㉠** (1) 한 사람 : 포도원의 주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2) 포도원 :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킨다(사5:7).
 (3) 농부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다.
 (4) '세(費)로 주었다' :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농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정치적·종교적으로 바른길로 인도하길 바라셨다.
 (5) '타국에 가다'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6) 종 : 이스라엘의 수확을 위해 보내진 구약의 예언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농부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다(대하24:19; 36:15, 16; 느9:26).

8. **㉠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한 농부들의 행위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0-12절)**

- ㉠** (1)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의 농부라는 명예와 특권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자들이었다.
 (2) 즉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자신들에게 소출 곧 율법과 복음, 사랑과 정의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학대하는 사악함을 보여 주었다(참조, 마23:34; 행7:52; 히11:37, 38).
 (3)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공직(公職)에 있는 자들이나 성직(聖職)에 있는 자들 중 자신들이 마치 특권층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도 역시 자신들이 어떤 직책에 있는지를 망각한 행위인 것이다.

9. **㉠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는 포도원 주인의 말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3절)**

- ㉠** (1) 비유 중 이 말은 '산헤드린의 대표'들이 질문한 '예수의 권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르쳐 준다(2절).
 (2) 즉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산헤드린의 대표'들의 질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신적(神的)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示唆)하셨다(참조, 요1:11).

10. **㉠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도를 어찌 하셨는가? (14, 15절)**

- ㉠** (1)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산헤드린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으로써 산헤드린이 은밀히 갖고 있던 생각을 드러내셨다.
 (2) 산헤드린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권(利權)과 권위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살해할 계획을 은밀히 꾸미고 있었다(19:47).

11. **㉠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는 귀절은 어떤 사실을 암시하는가? (15절)**

- ㉠** (1)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끌고다 언덕에서 처형될 사실을 암시한다.
 (2) 산헤드린의 사악한 무리들은 예수를 백성들과 갈라 놓고(23:23)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罪目)을 씌웠으며 로마인들에게는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중(重)죄인으로 넘겨 주었다(23:2).
 (3) 이처럼 산헤드린과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유지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예수를 치밀한 계획하에 예루살렘에서 내어 쫓아 죽였다.
 (4)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계획은 예수를 백성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부터 차단시키려는 목

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이처럼 사단(Satan)과 그를 추종하는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참조, 롬8:35-39).

12. **㉠ 사악한 농부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계획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줄 것을 계획하였다.
 (2)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유대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암시하는데 그 심판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유대의 사악한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3)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유대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를 죽였으며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23:2, 21, 24, 25).
 (4) 그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한 백성이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치리권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이방인에게 옮겼다(19:43, 44). 이것은 곧 유대 정권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기신 재능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마저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신다(19:26).

13. **㉠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7절)**

- ㉠** (1) 이것은 건축자가 버려도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농부들이 죽여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으실 예수 자신의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연결시키는 돌로 조심스럽게 다루어 놓이게 되는 돌을 말한다.
 (3) 시118:22을 인용하신 이 귀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심을 알 수 있다.
 (4)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예수께서 취하신 영광에 버금갈 것임을 믿고 예수의 뒤를 쫓는 데 흐트러짐이 없어야겠다(롬8:18).

14. **㉠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존재로 묘사되었는가? (18절)**

- ㉠** (1)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흙우리라'고 묘사되었다.
 (2)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경우 그리스도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 자가 깨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2:34; 사8:14).
 (3) 그리고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경우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단2:45).
 (4) 그러므로 본질은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서 죽인 주인이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당시에는 비참한 운명에 빠진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5) 결국 이 귀절은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행4:11; 벧전2:7).

15. **㉠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9-26절)**

- ㉠** (1) 산헤드린은 예수의 비유(17, 18절)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선불리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2)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지 않고 로마 당국자들의 권세를 이용하기로 했다.

즉 예수께서 반란과 민중 선동의 죄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 몇을 은밀히 정탐하러 보냈다(마22:15-32; 막12:13-27).

(3) 그런데 그 정탐(偵探)자들은 바리새적 규정의 엄격한 준수자들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예수를 책잡는 질문을 하였다.

16. ㉠ 산헤드린의 정탐(偵探)군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예수께 접근했는가? (21절)

- ㉠ (1) 그들은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取)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 (2) 그들의 이 같은 예수에 대한 평은 지극히 올바른 평이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 그대로 진리에 근거하여 인간이 절어야 할 바른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다.
- (3) 더우기 예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않으셨다’, 즉 사람을 외면적 인격이나 인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비교, 약2:1).
- (4) 그러나 그들을 보낸 산헤드린 지도부의 의중(意中)은 예수로 하여금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답하게 하여 그 말 가운데서 체포의 근거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 (5)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술책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육에 속한 원리이지 결코 지혜와 진리에 속한 원리는 될 수 없다(참조, 고전2:13, 14; 15:50).

17. ㉠ 예수를 옹무에 넣으려는 정탐군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22절)

- ㉠ (1) 정탐군들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라고 질문하였다.
- (2) 여기서 ‘세’는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부과되던 ‘인두세’(人頭稅)를 말한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14-65세까지의 모든 남자와 12-65세까지의 모든 여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다.
- (3) 그러나 유대의 경건한 율법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왕은 여호와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금을 바칠 수 없다’고 납세에 적극 반대하였다.
- (4) 그러므로 정탐군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의중은 만일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관리에게 보고해서 반역 혐의로 체포할 것이요, 또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제까지 그분을 지지하던 백성들이 예수를 저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데 있었다.

18. ㉠ 어려운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3-25절)

- ㉠ (1) 예수께서는 ‘가이사(Caesar)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다.
- (2) 그에 앞서 예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요구하신 후 그것에 누구의 그림과 글이 있는냐고 물으셨고 정탐군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다.
- (3) 당시에는 어느 나라나 왕이 새로 즉위하면 자기 화상(畫像)을 넣은 돈을 만들었다. 또한 자기 돈이 유통되는 곳에서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4) 그런데 당시 유통되던 로마 화폐는 은전(銀錢)인 데나리온이었다. 따라서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 황제(Caesar)인 디베료(Tiberius, A. D. 14-37)의 화상과 글이 앞뒤에 새겨져 있었다.
- (5)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이 대답은 당시 통치자가 부과한 세금은 그 당시 현실 속에서 바쳐야만 할 유대인의 책임이지만, 비록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유대인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소홀히 되거나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 (6) 혁명으로써 로마인들을 몰아내기에는 유대인의 역량이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 땅에서 로마인들을 내몰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 (7) 외적 혁명보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치적 자주 독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적 변화였다. 따라서 예수의 모든 관심은 인간의 내적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었다.
- (8) 즉 모든 사람들 각자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면 결코 이 땅에는 분쟁도 미움도 시기도 없을 것이다.
- (9) 비록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인다면’ 세상은 머지 않아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참조, 마5:13-16; 요3:3).

19. ㉠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27절)

- ㉠** (1)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전승만을 권위로 인정하고 육체의 부활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내세 신앙은 인정하지 않았다.
- (2)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부유한 지배 계층이었다. 그들은 로마와 협력하여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게 되었다.
- (3)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은 받아들이면서도 예언서들은 경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부활에 대한 어떠한 암시나 증거도 없으면서 부활, 천사, 영(靈)을 믿지 않았다.
- (4) 더우기 이들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 의지를 더 강조하였다.
- (5) 이들의 이 같은 신앙 형태는 경건한 바리새인과의 대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참조, 행 23:8) 이것으로 보아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성이 농후한 집단으로 보여진다.
- (6) 그것은 이들이 제사장직과 종교의 이권(利權)을 사고파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만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위신을 내세우기 위해 예수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 (7) 이처럼 진리를 가장(假裝)하는 자들은 자신들 앞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면 불안과 초조에 싸여 오히려 진리에 대항하려고 한다.

20. ㉠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어떠한 질문으로 시험하였는가? (27-33절)

- ㉠** (1) 그들은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신명기 법을 언급함으로써 부활 사상에 대해 예수를 시험하였다.
- (2) 여기서 결혼에 관한 신명기 법이란 신 25:5-10에 나타난 계대(繼代) 결혼을 가리키는데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다.
- (3) 그 계대 결혼의 목적은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과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 (4) 이 계대 결혼의 규정은 원래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으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모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 (5)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결혼법을 들먹이면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은 은근히 예수께 비쳤다.
- (6) 즉 그들은 이제까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 부활에 관한 것을 예수께 질문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적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하였다(참조, 행 23:8).
- (7) 이와 같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은 항상 자그마한 꼬투리를 잡아 진리를 대적하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행이다.

21. ㉠ 예수께서는 부활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가? (34-36절)

- ㉠ (1) 예수께서는 인간은 사후에 천사와 동등하게 변하며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유대인들의 부활관을 보면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세상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것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혼, 생식, 출산 등의 개념과 일들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한정된다고 말씀하셨다. 한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후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삶과는 달리 죽음이 없는 세상인 것이다.
- (4) 또한 그 삶에 있어서 결혼이 없다는 말은 결혼과 가정(家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고 부요의 삶을 사는 생(生)을 가리키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관은 사람들의 삶이 죽은 후에도 지속되고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 (6) 이처럼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그 출발부터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진리와는 절대로 같이할 수 없다.

22. ㉠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셨는가? (37, 38절)

- ㉠ (1)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 (2)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모세 율법을 근거로 부활 신앙을 공박했듯이 예수께서도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출3:1-6)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변호하셨다.
- (3)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지만 그들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참조, 롬6:10; 14:8).
-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증거 속에 암시된 부활 사상을 들어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물리치셨다.
- (5) 이 같은 부활 사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죽음이 우리 눈에는 종말로 비쳐질지라도 그 죽음이 결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롬8:38,39).

23. ㉠ 예수께서는 어떤 의도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란 질문을 하셨는가? (41-44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이 결코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의 시기를 가져올 민족의 영웅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셨다.
- (2)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스라엘을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로 기억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 자손 가운데서 누군가 나타나 왕국을 재건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키길 갈망하였다(참조, 삼하7:12-16; 마9:27; 12:23; 15:22; 막10:46-48; 요7:42).
- (3) 그런데 예수의 이 질문은 44절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께서는 다윗과 같은 왕 이상의 존재임을 내포하고 있다.
- (4) 즉 그 의미는 부활을 통해서 다윗 자손인 예수께서 다윗의 주(主)로서 높여졌다는 것이다.
- (5) 즉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와는 다른 존재인 이 세상의 구주로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편협한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민족주의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셨다.
- (6)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생각에 맞는 예수, 자신이 요구하는 예수를 마음에 두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주의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24. ㉠ 시편에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인가? (42, 43절)

- Ⓐ (1)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라고 메시아에 대해 언급했다.
- (2)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히, 아도나이)께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내 주’는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主)이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참조, 마 22:41-46).
- (3)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한 43절은 다윗의 주 곧 메시아가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막 12:36) 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전우주(全宇宙)를 다스릴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이 인용문은 41, 44절과 함께 예수를 막연히 다윗의 후손 곧 정치적·민족적 메시아로 여기는 군중들을 깨우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5)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主), 메시아로 모시려면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려 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께 우리를 맞추어야 한다(참조, 딤후 2:15; 롬 11:35).

25. ⓐ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45절)

- Ⓐ (1)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많은 순례자들과 군중들에게 하셨다.
- (2) 예수의 주위에는 많은 군중이 몰려 있었는데(19, 26, 39절) 그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섞여 있었다.
- (3) 그런데 이 경계의 말씀(45-47절)은 그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26. ⓐ 예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교만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 (46절)

- Ⓐ (1)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上座)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였다.
- (2)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했다(마 23:1, 2).
- (3) 더우기 그들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장을 방문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 (4) 또한 회당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길 원했다. 그 뿐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잔치에서마저도 상석에 앉길 좋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의 위엄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다.
- (5) 이들의 이 같은 종교적 교만은 오늘날에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목사, 전도사, 신학생, 장로, 집사 등도 이 같은 흉내를 내어 마치 자신들이 고귀하고 특별한 인물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경건의 탈을 쓴 교만은 가장 유치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 8:39; 9:41).

27. ⓐ 경건을 가장하는 서기관들의 위선된 행위를 설명하라(47절).

- Ⓐ (1)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과 위엄을 갖추어 기도를 길게 하지만 실상은 과부의 가산(家産)을 삼키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
- (2) 이 사실은 서기관들이 남편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맡아 달라고 유언한 과부의 법적 대리인임을 가리켜 준다.
- (3)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죽을 때 안심하고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맡기지만 서기관들은 그 재산을 자신이 가로채서 무력한 과부를 거지의 신세로 만들었다.
- (4)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여전히 거룩하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교사로서 장황한 기도를 늘어놓기 때문이다.

- (5) 그들이 이처럼 과부를 괴롭히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위선을 행했지만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 (6) 오늘날의 성직자들 중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그 양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악의 길로 이끌 뿐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참조, 습3:3,4).

화보자료

로마 시대의 동전. 로마 시대의 테나리온(Denarius) 은화이다. 동전 표면에 새겨진 것은 디베리우스(Tiberius, A. D. 14 - 37)의 초상과 기호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가져오라고 명하셨던 테나리온은 바로 위의 사진과 같은 것이다. 그는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이 가이사의 초상과 글임을 지적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25절)고 분부하셨다. 이 같은 예수의 말씀은 성도들의 두 가지 의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지적해 주고 있다.

제 21 장 종말을 예고하시는 예수

단락구분 1-4 과부들 칭찬하시다 / 5-6 성전 파멸을 예언하시다 / 7-9 환난의 날에 두려워 말라 / 10-19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리라 / 20-24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 25-28 예수의 재림 / 29-33 재림의 징조 / 34-36 깨어 있으라 / 37-38 가르치시는 예수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케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7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8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9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23 그날에는 아이뎨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24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돌려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리라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뿔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어 있으라 하시니라
 37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
 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
 침에 성전에 나아가거러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1) 본장의 서두(1-4절)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장(20장)의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 내용과 연관이 된다.
- (2) 그러므로 본장의 특징적인 내용은 5절부터 시작되는 성전 파괴 예언부터라고 할 수 있다.
- (3)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환난의 날, 즉 심판의 날(사13:9; 욥2:1, 30, 31; 암5:15-20; 습1:14-18; 벴후3:10)에 대한 예언이다. 이는 고통과 치욕 그리고 심판의 환난이 임하는 날이다.
- (4) 둘째, 예루살렘이 함락되리라는 예언이다(5, 6, 20-24절). 실제로 예루살렘은 A. D. 70년 로마 군대에게 포위 함락되어 많은 사람이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성파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 (5) 셋째,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 재림 이전에는 징조로서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꾀박당하게 될 것이다.
- (6)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 (7) 이 가르침은 오늘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혼미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12:37; 18:1; 마25:13; 26:41; 살전5:6; 벴전5:8).

2. **㉡ 1-4절은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었는가?**

- ㉡** (1) 이 부분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인 과부의 대조를 통해서 거짓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대조시키고 있다.
- (2) 그런데 이 사건은 헌금으로 얼마를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느냐가 중요함을 가르쳐 준다.
- (3) 즉 과부는 두 렵돈의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으나 그 헌금은 그녀의 전재산이었으며 위선과 경건을 가장하지 않은 순수한 헌물이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헌물에도 정성과 순결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헌물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출25:2; 대상29:9; 롬12:8).

3. **㉢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과부가 헌금드리는 것을 보았는가? (1-4절)**

- ㉢** (1) 성전 내 귀증품을 보관하는 방 근처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방은 '여인들의 뜰'로 통해 있었으며 그곳에는 열 세 개의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었다.
- (2)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 그 액수와 헌금의 목적을 성직자들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바친 액수와 목적을 아셨을 것이다.
- (3) 한편 '렵돈'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화폐 가운데 가장 단위가 적었던 작은 동전이다.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연보께에 한 렵돈은 넣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두 렵돈은 당시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던 최소의 합당한 헌금이었다.
- (4)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거창한 목적으로 내는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정성과 믿음이 담긴 적은 헌금을 더 높게 평가하셨다.
- (5) 오늘날 도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바쳐진 귀중한 헌금 중에는 교회의 권위와 성직자 개인의 명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헌금을 쓰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4. **㉠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5, 6절)**

- ㉠** (1)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대리석과 거룩한 헌물인 온갖 보석으로 꾸며 찬란하게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철저히 파괴되어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 (3)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납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일장 춘몽(一場春夢)인 것이다(참조, 시127:1).

5. **㉠ 환난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해 물은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무엇이냐 대답하셨는가? (7-9절)**

- ㉠** (1) 이 같은 무리(마가는 제자들이라고 함; 막13:1, 3)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때를 말하지 않으셨다(마24:36; 막13:32).
- (2) 즉 그때에 앞서 나타날 징조만을 말씀하셨다. 때가 가까와 오면 도처에서 재림 예수를 자칭(自稱)하는 자들이 나타나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 (3) 또한 예수께서는 곳곳에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 (4) 이 같은 거짓 예수의 출현과 말세에 대한 소문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때는 아니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칭 재림 예수의 미혹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6. **㉠ 계속되는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기근과 온역(瘟疫)이 있을 뿐 아니라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 (2) 이러한 징조들은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질 상태를 지적하는 것들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적인 재앙으로 인해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과 자원의 결핍으로 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 (3)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역사상 수많은 시대에 나타났었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같은 징조는 인류의 종말이 가까왔음을 가리킨다.
- (4)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할 이와 같은 종말을 예비하여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며(36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7. **㉠ 종말의 징조 이전에 나타날 일들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제자들이 받을 환난이다.
- (2) 제자들은 예수께 대한 충성으로 회당 곧 유대의 회당 법정에 끌려가 심문을 받게 될 것이며 그중에는 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참조, 행4:5-7; 6:12-14; 7:57-60).
- (3) 또한 그들은 임금이나 관장(官長) 곧 이방 임금이나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행5:40; 12:1-4; 24:1-26:32).
- (4) 이 같은 핍박은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인내로 싸워 이겨야 한다(참조, 롬8:17; 벧전5:10).

8. **㉠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13-15절)**

- ㉠** (1) 그 핍박이 제자들에게 고난이지만 그때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
- (2) 즉 고난 가운데서 보여 주는 제자들의 신앙 투쟁은 대적들 앞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 (3) 더우기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변명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 것을 명하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을 능히 물리칠 말재주와 지혜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 같은 예수의 약속이 실현된 예를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행7장)와 로마 총독 벨릭스(행25장), 아그립바 왕 앞에서(행26장) 행한 사도 바울의 변론에서 볼 수 있다.
- (5) 믿음의 선진(先進)들에게 보여 주셨던 이 같은 예수의 약속은 오늘날같이 신뢰를 상실해 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든다.

9. **㉠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6, 17절)**

- ㉠** (1)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음에 넘겨 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 (2) 이토록 부모 형제까지도 예수의 제자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 (3) 자기 중심적이며 물질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자기 희생을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이 전파되고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것조차 거부한다(참조, 요1:5).
- (4) 그렇기 때문에 때가 오면 피를 나는 부모 형제라도 예수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죽음에 넘겨 주게 되는 것이다(참조, 요15:18-21).
- (5) 실제로 본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며(행24:5; 28:22; 벰전2:12) 로마의 네로 황제(A. D. 54-68)나 도미티안 황제(A. D. 81-96) 재위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

10. **㉠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18, 19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오히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이 말은 제자들이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의 머리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마10:30, 31).
- (3)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고 그분을 위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9:24; 마10:22; 24:13).
- (4) 이것은 곧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해매듯이 사단이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1. **㉠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와 그 상황은 어떠한가? (20, 21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될 때 그들이 멸망당하게 됨을 알 것이다.
- (2) 그런데 이 포위는 A. D.70년 로마 군대의 침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백성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피신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3) 유대 사가(史家)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주의 경고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이전에 그곳을 떠나 요단 동편 땅인 베레아의 켈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위험을 모면하였다고 한다.
- (4)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선민을 버리신 사실을 모른 채 구원이 거룩한 성과 성전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다.
- (5) 이 같은 피난민의 유입(流入)은 포위된 예루살렘의 식량 사정을 악화시켜 오히려 아

사자(餓死者)만 증가시켰다.

(6) 이와 같이 주의 뜻이나 경고를 무시한 채 맹목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요구는 오히려 자신과 이웃의 파멸을 재촉할 뿐이다.

12. **㉠ 예수께서는 이날을 어떤 날이라고 규정하셨는가? (22절)**

- ㉠** (1)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말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전부를 말한다(왕상9:6-9; 단9:26; 미3:12; 스11:4-14:2; 말3:1).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언은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 (4) 그런데 ‘형벌의 날’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이 멸망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참조, 시139:7-12).

13. **㉠ 이스라엘이 당할 참상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3, 24절)**

- ㉠** (1) 그날에는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젓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갓 난애를 가진 여인들이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 것이다(23:29; 고전7:26-31).
- (2) 또한 그들은 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유대 사가(史家)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그때 로마인에 의해 살해된 유대인이 110만 명이고 포로된 자들의 수자(數字)가 9만 7천 명이나 되었다.
- (3) 더우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란 유대인이 회개할 때까지를 가리킨다(롬11:25).
- (4) 실제로 로마의 원정군 사령관 디도(Titus) 장군은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한 번도 산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만큼 철저하게 파괴시키라’고 명령했다. 그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사라센 제국과 터키인이 차례로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 (5)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참조, 왕하25장).

14. **㉠ 25-2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

- ㉠** (1) 이 부분은 ‘이방인의 때가 찬’ 후 있을 예수의 재림과 그 이전에 나타날 재림에 대한 징조를 예언한 말씀이다.
- (2) 즉 24절까지는 유대 민족이 당할 멸망에 대해 기술된 반면, 25절부터는 온 인류에게 임할 종말의 때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 (3) 그런데 이 온 인류가 당할 종말도 인류가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띄고 있다.
- (4)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환난의 때에 임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비교, 마6:45).

15. **㉠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은 어떤 혼란에 빠질 것인가? (25, 26절)**

- ㉠** (1) 일원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태(마24:29)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받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표현했다.
- (2)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 선지자들이 왕의 멸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사용하였던 표현법이다(참조, 사 13:10; 34:4; 겔32:7).
- (3) 그런데 예수의 이 예언은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종말의 조짐들이 보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 (4) 또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므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즉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자연의 조화가 깨져서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사람들은 불안에 빠질 것이다.
- (5) 이 같은 상황은 인류의 종말이 전우주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16. **㉠** 이 같은 혼란의 때에 전인류는 무엇을 볼 것인가? (27절)

- ㉠** (1)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2)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용어이며(참조, 단7:13) '능력과 큰 영광'은 고난당한 예수께서 그 본래의 속성을 갖고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3)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때에 모든 인류가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을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속12:10; 계1:7).
- (4) 이 같은 때는 예수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우리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요, 모든 고난을 인내로써 이겨 낸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참조, 겔36:7-15).

17. **㉠** 그때를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8절)

- ㉠** (1)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구속이 가까왔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용어는 종말에 대한 우주적 표징을 의미하며 '머리를 들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라는 뜻이다.
- (3) 그런데 이 말은 예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되는 제자와 그때란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와 그들의 생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제자된 신도들을 포함하여 세계 종말시 주의 제자들을 의미하며 인류의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 (4) 결국 예수께서는 종말의 때에 전인류에게는 혼돈이 오지만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쓴 제자들에게는 구원이 찾아움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신다.
- (5)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딤후4:8; 약1:12; 벰전 5:4; 계2:10).

18. **㉠** 종말의 징조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29, 30절)

- ㉠** (1)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싹이 나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와 옴을 알듯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곧 종말이 임할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 (2) 팔레스틴에서는 겨울철에 무화과나무가 일찍 잎을 내면 봄이 가까와 왔음을 알며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왔음을 알았다.
- (3)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와 왔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이다.
- (4)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자의 심판에서 제외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에게는 그 같은 환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 (5) 그러나 자신의 행위와 내면을 정확한 눈으로 본 자라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내면이 항상 더러움으로 가득 차움을 인식하여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이다(참조, 잠3:1-8; 12:1; 13:1).

19. **㉠** 종말의 징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31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와 왔음을 가리킨다.
- (2)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부터 시작됨을 가리

킨다.

- (3)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수의 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리킴을 말한 사실과도 일치한다(참조, 마3:2; 4:17).
- (4)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는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온 인류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가리킨다.
- (5)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평안도 아울러 임하게 되는 것이다.

20. ㉠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32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이 세대’를 정의(定義)하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 뜻은 종말과 때에 속한 ‘세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3) 즉 ‘이 세대’란 지금 예수의 예언을 듣는 청중 곧 얼마 있지 않아 로마인에 의해 멸망당할 유대인 뿐 아니라 이 세상 종말이 올 때의 인류 모두를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모든 일’이란 유대인과 장차 온 인류에게 닥칠 환난에 대한 징조와 멸망 그 자체를 말한다.
- (5)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의 예언은 먼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을 더 강조하고 있다.
- (6)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명심하여 날마다 새로와져서 삶을 살아야 한다.

21. ㉠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을 확증하는 33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그것은 자신의 예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확실성을 시사한 것이다.
- (2) 즉 예수의 모든 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성취 때문에 그의 예언은 영원히 존속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 (3)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뜻을 알고 있다는 권위를 반영한다.
- (4)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처럼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 (5) 이 같은 예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었으며(참조, ㉠13) 또한 앞으로도 그가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임할 것이다(참조, 살후1:9; 계18:21).

22.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충고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34절)

- ㉠ (1) 제자들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마지막 날이 닷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 (2)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이 땅에 없는 동안에도 깨어 있기를 바라셨다.
- (3) 그런데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의미의 헬라이어 <크라이팔레>는 많은 술을 마신 결과 수치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 (4) 또한 ‘생활의 염려’란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고전 6:3, 4).
- (5) 그러므로 예수께서 본질에서 충고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영적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육적 삶에 빠져 있을 때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이다(참조, 마24:36-39).
- (6) 오늘날과 같이 불의(不義)가 정의(正義)를 대신하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뚜렷한 가치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종말은 흡연히 찾아올 것이다.
- (7)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 의식이 흐려져 양심이 무더져 노아의 시대와 같이(마24:

37, 38) 자신의 향락과 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될 때 주의 날은 홀연히 임할 것이다.

23. **㉠ 장차 임할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6절)**

㉠ (1)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본절에서 ‘모든 일을 능히 피하다’라는 귀절은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리고 ‘인자 앞에 서다’란 말은 그날에 재판관이신 예수 앞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거나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5:24).

(4)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들 앞에 닥칠 환난에 굳건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엡6:10-20).

24. **㉠ 본장에서는 예수의 공적 활동을 어떻게 마무리짓고 있는가? (37, 38절)**

㉠ (1) 예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으며,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몰려들었다(참조, 19:47).

(2) 이것은 예수께서 종려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보여 준다.

(3) 즉 예수께서는 화요일 저녁 이후로는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셨다.

(4) 한편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노숙(露宿)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감람산 주변 마을에서 쉬신 것으로 추측된다(참조, 막11:1, 19).

(5)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승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최후의 말씀과도 연관을 갖는다(마28:16-20; 행전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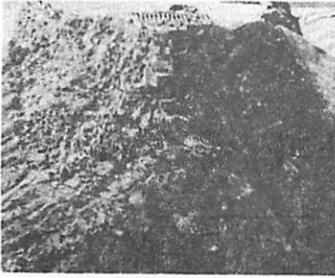
(6)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진리를 전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암5:24; 딤후4:2).

연구자료

맛사다(Masada) 항전(抗戰)

본장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의 예언이 나온다(20, 21절). 이 같은 예언은 A. D. 70년에 이르러 성취되었는데 성읍을 사수(死守)하려는 유대인들과 디도(Titus, 79-81) 장군 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간에 4개월 동안의 치열한 전투가 있는 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말았다. 그러나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에 대항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곧 열심당(the Zealots) 소속원들이었다. 이들의 기원은 A. D. 6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대적으로 로마에 항거하기 시작한 때는 66년경부터이다. 이때 이들이 활동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맛사다(Masada)이다(참조, 본시리즈 10권 신구약 중간사편 P. 603 ㉠10).

맛사다는 사해 부근의 엔게디(En-ge-di)에서 남쪽으로 약 10여 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난공 불락의 바위 성채(城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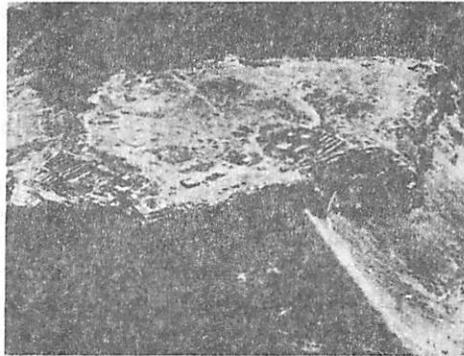


이곳의 높이는 약 200m에 달하는데 옆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세(山勢)가 험하여 외부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곳의 정상(頂上)은 사진에서와 같은 약 0.1km²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각종 건물 및 주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맛사다가 최초로 요새화되기 시작하였던 때는 마카비(Maccabee) 시대(B. C. 166-143)이다. 마카비의 동생이자 후계자였던 대제사장 요나단(Jonathan)은 맛사다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시리아에 대항하였다. 그 후 이곳의 중요성은 헤롯 대왕(Herod the Great, B. C. 37-4)에 의해 더욱더 부각되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의 자구책(自救策)을 강구하던 중 이곳을 자신의 요새로 삼고자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궁전 및 무기고, 각종 창고 등이 세워졌다. 그러나 헤롯의 사후(死後) 이곳은 로마인들에 의해 점거되어졌으며 열심당원들에 의해 탈취되기까지 줄곧 그들의 군사 주둔지로 사용되었다. 열심당원들이 이곳을 탈취한 때는 A. D. 66년 여름이다. 그 후 열심당원들은 반격에 나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이곳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거듭하였다.

한편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유대 광야로 퇴각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곳 맛사다로 피신해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열심당의 지도자인 벤 야이르(Eleazer Ben Yair)의 지휘하에 죽음을 각오하고 맛사다를 방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A. D. 73년 플라비우스 실바가 이끄는 로마 군단은 결국 이 요새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만다. 이때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약 1,000여명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포로가 되기에 앞서 모두 자살을 하고 만다. 이로써 맛사다 항전은 끝나고 이제 그 요새는 옆의 사진에서와 같은 유적만을 남겨 놓고 있을 뿐이다.



제 22 장 최후의 만찬과 예수의 고난

단락구분 1-2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미다 / 3-6 유다가 배반하다 / 7-13 예수께서 유월절을 준비케 하시다 / 14-20 최후의 만찬 / 21-23 배반을 예고하시다 / 24-27 제자들의 논쟁에 대해 말씀하시다 / 28-30 제자들의 미래의 역할 / 31-34 베드로의 부인(否認)을 예고하시다 / 35-38 검(劍)을 사라 / 39-46 고뇌의 기도 / 47-53 예수께서 잡히시다 / 54-62 베드로의 부인 / 63-65 예수께서 모욕당하시다 / 66-71 산헤드린에서 심문을 받으시다

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다라
 3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4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책을 의논하매
 5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되라
 7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2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13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뿐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시니
 23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되라
 24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 너희는 그렇지 않음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34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5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검을 팔아 살지어다

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38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40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고

41 저희를 떠나 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습관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여짜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48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 좌우가 그 뿔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겐으로 치리이까 하고

50 그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52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울더라

61 주께서 들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회롱하고 때리며

64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어

67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69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71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은 예수를 죽이려는 산헤드린의 음모와 가롯 유다의 배반 내용으로 시작된다.
- (2) 한편 예수께서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면서 성만찬을 베풀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베드로의 예수 부인을 예고하셨다.
- (3) 때가 온 것과 앞으로 닥칠 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셨다.

- (4) 반면 하늘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폭력으로 하나님의 섭리(53절)를 저지할 뿐 아니라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을 보였다(60절).
- (5)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관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심문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다.
- (6) 이 같은 본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아무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음을 알 수 있다.
- (7)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결국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2. **㉠ 유월절과 무교절을 비교 설명하라(1절).**

- ㉠** (1)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نيسان 월(태양력 4월)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양을 잡아 그날 저녁에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를 말한다.
- (2)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황급히 음식을 먹은 때를 상기(想起)하며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다(출12장).
- (3) 한편 무교절은 نيسان 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절기로 가정에 누룩을 두지 않는 기간이다. 따라서 그 절기를 '무교병의 축제'라고 부른다(레23:5, 6).
- (4) 그런데 유월절은 무교절 첫날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다.

3.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 (2) 즉 산헤드린(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많은 순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꺼려 했을 뿐 아니라 그 기간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함부로 예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죽이려 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악한 무리들은 진리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며 그 전파를 막지만 이 땅에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4. **㉠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는가? (3-6절)**

- ㉠** (1) 그것은 그의 안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다(3절).
- (2) 그런데 누가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4:13)고 말한 후 다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의 수난과 죽음은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13:2, 27).
- (3) 이에 반해 마태(마26:14, 15)와 마가(막14:4, 5)는 탐욕이 유다의 배반 동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 (4) 어쨌든 누가의 관점은 의(義)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중 사단이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를 배반한 것으로 규정한다.
-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5. **㉠ 유다가 예수를 넘겨 줄 것을 의논하기 위해 찾아간 군관(軍官)들이란 누구인가? (4절)**

- ㉠** (1) 이 군관들이란 성전 수비대장을 가리킨다.
- (2) 한편 이 군관들은 행4:1; 5:24, 26에서는 단수로 사용되어 성전에서 제사장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은 자를 가리키는 데 쓰였다.

(3) 유다는 먼저 이 같은 성전 수비대장을 찾아가서 밀고를 한 다음 대제사장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6. **㉠ 유월절 양은 언제 잡는가? (7절)**

- ㉠** (1) 유월절 제사에 쓰일 양은 니산 월(4월)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잡는다(참조, 출 12:6).
 (2)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서 본절에 기록된 대로 ‘무교절’이라 함보다는 유월절이라 함이 옳다.
 (3) 그러나 누가는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이나 양을 잡기 전에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7. **㉠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지시하셨는가? (8-13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성내(城内)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딘지’를 물으면 주인이 큰 다락방을 줄 것인즉 그곳에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다.
 (2)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사전에 그 집주인과 만나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해 두신 듯하다(12절). 그러므로 물동이를 든 남자를 찾으라는 말씀도 미리 약속하신 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 ‘객실’(客室, 11절)이란 여관이나 여인숙의 방을 의미하기 보다는 개인 주택의 객실을 말한다(2:7).
 (4) 그리고 ‘자리를 베푼’(12절)이란 용단을 깔고 식탁과 의자까지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그 당시 유월절 만찬은 대개 2층 방 곧 다락방에서 행해졌다.
 (5) 예수와 제자들의 경우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까답에 예루살렘에 집이 없었으므로 잘 아는 사람의 다락방을 빌어 사용한 것이었다.

8. **㉠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을 연결지어 설명하라(14-20절).**

- ㉠** (1)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데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고난받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다.
 (2) 예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을 동일시하셨다. 그것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을 위한 삶이었음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3) 그 같은 관점에서 이 만찬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난 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케 하며, 앞으로 있을 고난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사단의 꾀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을 기억케 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듯이 앞으로 있을 영원한 구원을 생각케 하는 잔치라고 할 수 있다.

9. **㉠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 어떤 의미를 두셨는가? (15, 16절)**

- ㉠** (1)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으며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2) 그것은 그분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는 마지막 식사임을 의미한다.
 (3) 또한 이 말씀은 이 지상적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에 제자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때의 유월절은 영광의 유월절일 것임을 의미한다.
 (4)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과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10. **㉠ 잔과 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17-20절)**

- ㉠** (1)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 때에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잔을 나누

는 것은 교제의 표시이다.

- (2) 그리고 식사 후의 잔(20절)은 예수의 수난과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한다.
- (3) 또한 그 잔을 부어 주는 것은 새 언약의 시작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있게 된 것이다(참조, 렘31:31).
- (4) 한편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유월절 잔치의 규례인데 예수께서는 이 행위를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뜯기는 자신의 살에 비유했던 것이다.
- (5) 즉 예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을 기억하여 자신들의 삶 속에 그분을 모시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 대담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 하셨다.
- (6)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의 사랑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11. **㉠** 예수와 제자들이 배운 유월절 만찬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가? (14-20절)

- ㉠** (1) 그때는 유월절 전날이다.
- (2)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관정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요18:28)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유월절의 예비일’(요19:24)이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요한은 만찬의 때를 ‘유월절 전’(요13:1)인 니산 월 13일 저녁으로 보았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니산 월 14일 곧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 몇 시간 전, 즉 유월절 양이 잡혀던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 못박히셨던 것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참조, 고전5:7).

12. **㉠**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예고하셨는가? (21-23절)

- ㉠** (1) 예수께서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중 누군가가 배반하리라고 시사하셨다.
- (2)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는 의도였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
- (4)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인간 유다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도구로 쓰여진 것이다.

13. **㉠** 만찬 후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24, 25절)

- ㉠** (1)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 (2) 예수의 운명과 그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리라고 믿으면서 자신들 중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취하는 행동이다. 이방인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최상의 군주로 행세하는 데서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 (4) 그들은 헬라이어 <유에르게테스> 혹은 <소테르> 곧 ‘은인’(恩人)이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군주(君主)인 자신들이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5) 세상의 모든 다름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려는 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은 반드시 타인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6:31;

마7:12).

14. **㉠** 다무는 제자들에게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26, 27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같은 교훈을 주신 예수께서는 그분이 먼저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요13:4).
- (3) 그런데 일반적으로 섬김의 동기는 섬기는 자를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4) 또한 섬김은 섬김을 받는 자의 인격이나 섬김으로 인한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봉사하신다는 사실이다(요5:17).

15. **㉠**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질 직위는 무엇인가? (28-30절)

- ㉠** (1) 그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다.
- (2) 예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생각들을 했으나(마16:22; 막10:13, 28) 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다.
- (3)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는 세상(29절)은 그들이 복음으로 지배할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 (4)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함께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치리할 권세가 약속되었다.
- (5) 이 같은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는가? 또한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16. **㉠**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31, 32절)

- ㉠** (1) 사단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 (2) 사단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요1장).
- (3) 사단이 밀 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난 사실을 가리킨다(막14:50).
- (4) 뒤이어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 특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형제들의 약한 신앙 상태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 맡은 자로 삼으셨다.
- (5) 이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시험하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참조, 벰전5:8).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다(21:34).

17. **㉠** 예수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33, 34절)

- ㉠** (1)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라고 자신의 굳은 믿음을 표현하였다.
- (2) 베드로는 충동적이며 사랑하는 버릇이 있으나 충성과 사랑의 마음이 강하고 때때로 흘

통한 통찰력을 나타냈다.

- (3) 예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특별히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제자들의 약한 신앙을 돌보라고 명령하셨다(32절).
- (4)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도 알지 못했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를 위해 순교까지 할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로 장담할 때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과시에 불과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죽이는 자이다.

18. **㉠ 베드로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예언은 무엇인가? (34절)**

- ㉠** (1)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오늘 닭 울기 전’이란 새벽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석양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데, 예수의 이 예언이 성취된 때는 그분이 잠피신 다음날 새벽이 되는 것이다.
- (3) 그런데 예수의 이 예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베드로가 닭 울음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여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61절).
- (4)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 생활 속의 작은 부분에게까지 간섭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상고하여야 한다.

19. **㉠ 제자들이 전대와 주머니 그리고 검을 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35, 36절)**

- ㉠** (1)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닥칠 위협과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 내야 하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그들을 각처로 보냈을 때(9:3, 4; 10:3, 4) 그들은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즉 이제는 ‘사단의 때’가 된 것이다(53절). 그들 앞에는 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 (4) 여기서 전대와 주머니 그리고 검은 임박한 재난에 대한 경고의 비유이다. 더우기 ‘검을 사라’는 말씀은 매일의 유혹에 대비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참조, 롬8:35; 엡6:17).
- (5)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즉 우리 성도들은 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20. **㉠ 예수께서는 구약의 어떤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37절)**

- ㉠** (1) 예수께서는 ‘저는 불법자의 동류(同類)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셨다(사53:12).
- (2) 여기서 ‘불법자의 동류’란 ‘악인’을 가리키는데(막15:28) 이는 예수께서 악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며 특히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23:39-43).
- (3)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의 지상 생애가 모두 끝나 감을 가리킴과 동시에 제자들도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해야 함을 지적한다.
- (4) 한편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 (5)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에 의해 언급되어졌으며(사2:4; 8:14; 9:6, 7; 42:2; 53:7; 속9:10) 그것은 그분에 의해 성취되

있거나(마1:22; 2:15; 4:14; 12:17; 요12:38; 15:25; 17:12; 19:24; 행3:18; 13:29)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요14:3, 18, 28)을 굳게 믿고 요동함이 없어야 한다.

21. **㉠ 이 같은 예수의 경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38절)**

- ㉠** (1)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검(劍) 두 자루가 있음을 예수께 알렸다.
 (2) 제자들은 예수의 교훈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다. 즉 예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36절)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그들은 무기가 되는 ‘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참조, ㉠ 19).
 (3) 따라서 이 같은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치자’는 의미에서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려 그릇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같은 경우에 자신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힐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시37:5; 잠16:3).

22. **㉠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예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40절)**

- ㉠** (1) 그것은 예수께서 잡히신 후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께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시키시는 말씀이다.
 (2) 또한 이 말씀은 28-38절과 연결되는데 시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 말씀 속에는 예수 자신도 시험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3) 우리 인간들은 비록 자신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앞에 닥치는 위험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 예수께서 고뇌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41-46절)**

- ㉠** (1) 그것은 이미 그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 즉 수욕을 당하고(18:32) 죄인들과 같이 죽어야 할 것인가? 과연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3) 예수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였다(19:41; 요11:35). 따라서 예수의 이 기도는 번민하는 영혼의 호소이며 용기와 힘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
 (4) 44절에서 ‘힘쓰고 애써’로 번역된 헬라어 <아고니아>는 보통 고민, 고뇌로 번역하나 ‘공포에 싸여 투쟁하는 심정’을 가리킨다.
 (5) 그러나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였다.
 (6)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히 깨달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다(42절). 결국 이 복종이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했다.
 (7)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 기도에서 본받을 바는 순종과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24. **㉠ ‘잔’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42절)**

- ㉠** (1) 이 ‘잔’은 예수의 고난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다(시11:6; 사51:17; 겔23:33).
 (2)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된 징벌의 고통을 가리킨다(사51:22; 막10:38).
 (3) 그러므로 이 ‘잔’을 받음은 세상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4)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 고난과 희생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

끝었다는 사실이다.

- (5)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결코 물러섬이 없이 우리 주께서 보여 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야 한다(참조, 요16:33).

25. **㉠ '하늘의 사자'는 예수께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43, 44절)**

- ㉠** (1) '하늘의 사자'의 도움으로 예수께서는 보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며 이 간절한 기도로 유혹은 극복되었다.
 (2) 그런데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연민의 몸부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3) 한편 그 기도의 간절함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는 귀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땀이 피 방울처럼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색깔이 아니라 '떨어짐'에 있다.
 (4) 그런데 '하늘의 사자'의 도움은 이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였다(참조, 왕상19:5,6; 마4:11).
 (5)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낙심치 말고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신10:17,18; 사41:9,10; 42:6).

26. **㉠ 유다는 어떤 신호로 예수를 체포하게 했는가? (47, 48절)**

- ㉠** (1) 유다는 예수와의 입맞춤을 통해 누가 예수인지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2) 일반적으로 유대에 있어서 제자가 그 사랑하는 랍비를 만나면 자신의 오른손을 선생의 왼쪽 어깨에,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놓고 입을 맞추었다.
 (3) 유다의 이 같은 배신은 그가 예수의 선택된 열 두 제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과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선생에게 드리는 입맞춤으로 체포의 신호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더욱 파렴치하다고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이 사단이 주장하는(요13:27) 사람은 도덕과 윤리도 이미 저버린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가'라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수24:15; 룻1:16; 히11:25).

27. **㉠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찼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49-53절)**

- ㉠** (1) 예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셨다.
 (2) 예수의 제자들은 사태가 험악해짐을 보고 그중 하나(요18:10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기록되어 있다)가 칼을 뽑아 대항하였다.
 (3)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귀절이 RSV에서는 '이만큼 해 두라', '이만하고 그만두어라'로 번역되어 있으며 KJV에는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도 받으리라'로 기록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의미는 '너희의 항거는 이 정도로만 하지 더해선 안 된다'라는 뜻과 함께 '내가 잡히더라도 항거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5) 또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의 때' 곧 악한 일을 하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활동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6)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무리가 활동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임을 가리킨다(요1:6-12).
 (7)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최후까지도 비폭력, 무장항을 주장하시며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삶

의 자세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

28. **㉠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 주는가? (54-62절)**

- ㉠** (1)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음을 보여 준다.
 (2) 자신에게 위협이 닥쳤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즉 자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며, 예수와 함께 있지도 않았으며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3) 그러나 닭이 울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니 그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이나 일순간의 안전을 위해 진리의 길을 버릴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岐路)에 설 때가 있다.
 (5) 그때마다 우리는 번민에 싸이지만 과감히 불의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진리 곁에 서면 이 삶 속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다(참조, 시1편).

29. **㉠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행위는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가? (63-65절)**

- ㉠** (1)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제자들에게 행해졌던 모욕이나 박해에 비교될 수 있다.
 (2)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주(主)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렀으나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고 예수의 이름은 모욕을 당했다.
 (3) 그것은 불의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취니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기 때문이었다(참조, 요1:5).
 (4)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이미 땅 끝까지 전파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의가 자리잡게 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해 있고 진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의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다(요삼1:3, 4).

30. **㉠ 예수께 대한 심문의 절차를 설명하라(54, 63, 66절)**

- ㉠** (1) 그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대제사장들이 유대법에 따라 예수를 정죄하고 어떻게 그를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처형할지를 모의하는 유대인의 심문이 있다.
 (2) 둘째,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민심 소란'의 죄목으로 고소한 후에 오는 로마인의 심문이 있다.
 (3) 그런데 유대인의 심문도 먼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 앞에서 있었다(요18:13).
 (4) 바로 뒤이어 비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유도 심문이 있었으며(마26:57-68) 정식 공회는 어두운 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정식으로 공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심문하였다(66절).
 (5)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비합법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밤중에 심문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것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침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죄 판결은 심문을 한 다음날까지는 집행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미쉬나)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기 때문이다(23:1, 2).
 (6) 이것을 볼 때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히 예수를 제거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 **㉠ 산헤드린의 유도 심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67-69절)**

- ㉠** (1)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대답하셨다.

- (2)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엮어매려는 것이었다.
- (3) 그러나 예수의 메시아관은 그들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에 설혹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지라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 (4) 또한 예수께서는 그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번 메시아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나(20:3-8, 41-44)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께서 메시아에 대해 묻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 (5)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신학적 지식에 능통하고 영적 능력이 있다고 뽐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분을 죄인 취급을 한 것은 결국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였다는 증거이다(참조, 요8:45-59).
- (6)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신학적 지식이 조금 있고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불신자와 형제를 업신여긴다면 그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32. **㉠ 예수께서는 장차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69절)**

- ㉠** (1)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우편'이란 영광의 자리를 가리키며 이 자리에 앉는다 함은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한편 본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자신을 단 7:13,14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인자'와 동일시하는 표현과 같다.
- (4) 그런데 이 '인자'는 이사야가 예언한(사53장) 수난의 종처럼 순종과 수난으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를 가리킨다.
- (5) 오늘날 이와 같은 예수의 모습을 뒤따르는 성도들은 그분께서 가신 고난에 동참할 각오와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2:6).

33. **㉠ 산헤드린의 마지막 질문과 예수의 대답은 무엇인가? (70, 71절)**

- ㉠** (1) 산헤드린은 결정적 증거를 잡을 질문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으며 예수께서도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는 답변은 직접적인 긍정도 아니며 부정도 아니다. 그 표현은 곧 '그것은 너희 말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 나도 부인하지 않겠노라'는 의미이다.
- (3) 예수께서 이 같은 답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예수께서 가지신 본질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31).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셨다.
- (4) 그러나 산헤드린은 이제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답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 (5) 그들은 단지 예수의 이 답변으로 빌라도에게 허위 진술을 내세워 정치적 반란죄로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잡은 것으로 만족했다.
- (6) 우리 성도들은 설사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을 쓰는 비열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짓밟고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못 본 체 말자.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잊지 말자.

제 23 장 십자가에서 처형되다

단락구분 1-7 빌라도에게 심문받으시다 / 8-12 헤롯에게 심문받으시다 / 13-25 백성이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다 / 26-38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 39-43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 / 44-49 예수께서 운명 하시다 / 50-56 예수를 장사지내다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비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6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고소하는 너희의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 (없음)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21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 빌라도가 세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23 저희가 큰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4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 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들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그의 옷을 제

비뺨을새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 때가 제 육 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은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9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부터 따르는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52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54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제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1. **㉠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본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3절; 막15:2; 요18:33),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요구(18절; 마27:21; 막15:12; 요18:40),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 주고 싶어하는 점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의 요구대로 응한다는 것 등은 타(他)복음서와 비슷한 내용들이다.
- (2) 그러나 누가 본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산헤드린이 예수를 끝까지 유죄라고 하는 데 반해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 (3) 그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B. C. 4-A. D. 39)에게 보낸 사실(6,7절)과 예수를 조롱한 자들도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헤롯과 그의 군병들인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11절).
- (4)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사형 집행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처형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 예수께 정치적 죄목을 뒤집어씌워야 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죄가 유대인들로부터 날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신자들이 진리를 왜곡하며 불의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의 죄를 더 많이 묵으실 것이다.

2. **㉠ 빌라도와 헤롯 모두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중요 절기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당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와 주변 국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혹 그 기간 중에 일어날 반란에 대비키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다.

(3) 한편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의 영주(領主)인 헤롯 안티파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다.

3. **㉠ 산헤드린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죄목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첫째, 민심 교란 둘째, 세금 불납(不納) 선동 마지막으로, 왕의 이름을 사칭(詐稱)한 혐의이다.
- (2) 산헤드린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여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으나 그들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는 이 죄목을 거론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기울이지도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정치적 생명과 세입원이 끊어질 것(참조, 19:45-48)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한 것이었다.
- (4) 권력과 명예 그리고 물질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으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권력과 명예, 물질은 바라지 않으며 제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이다.

4. **㉠ 빌라도가 예수께 물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은 어떤 의미인가? (3,4절)**

- ㉠** (1) 그 질문에는 '과연 예수가 정치적 유대인의 왕인가'하는 의문과 함께 멸시하는 뜻도 담겨 있다.
- (2) 그에 반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가이사(Caesar)와 관련시켜 로마에 대적하는 유대의 새로운 '민중 지도자'로 시사하였다(2절).
- (3)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22:70과 요19:37에 있는 긍정과 같은 의미의 대답이었다.
- (4) 예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다(14, 22절; 요18:38; 19:4,6).
- (5) 그가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이 사건이 유대인들의 간계임을 이미 알았으며 예수에게는 어떤 정치적 죄도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그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

5. **㉠ 빌라도의 판결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5-7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의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장본인이라고 그분의 유죄를 주장했다.
- (2) 여기서 '온 유대'라 하면 팔레스틴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는 예수께서 전국적으로 민심을 소란케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 (3) 더우기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밝힌 이유는 당시 갈릴리는 반란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쁜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었다.
- (4)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피할 길을 생각하던 중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다.
- (5)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며 그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기 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자는 더욱 심한 죄책에 시달릴 것이며 끝내는 스스로 파멸케 될 것이다(참조, 막6:20-29).

6. **㉠ 헤롯은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8-12절)**

- ㉠** (1) 처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여 반겼으나 예수께서 침묵하시니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

- (2) 8절에서 ‘이적’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세메이온>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표적’(마 16:1; 요2:11; 행4:16)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현하거나 바리새인들이 보고자 하는 예수의 능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 (3) 그러나 헤롯은 예수를 한낱 마술이나 행하는 자로 여겨 구경거리로 삼으려 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군병들과 함께 희롱한 후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 (4) 한편 ‘빛난 옷’(11절)을 입힘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 했다는 고소(告訴, 2절)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웃음의 뜻을 담고 있다.
- (5)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전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되었다 함은 원래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의 알력 관계에 있던 이들이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수에 대한 재판권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 (6)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가 있으며 쉽게 친해지듯이 악인들도 서로의 성품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성품을 친구를 통해 찾아 보고 반성할 점은 즉시 회개 하여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은 어떻게 냈는가? (13-16절)**

- ㉠** (1)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를 죽일 일이 없다고 하여 단지 때려서 놓겠다고 판결을 내렸다.
- (2)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석방 노력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죄가 없는 자를 벌함은 로마의 영광인 공정을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 (3) 따라서 그는 네 번이나 예수 석방을 유대인에게 말했다던 것이다. 즉 ① 종교 문제이니 유대인들끼리 해결하라(요18:31; 19:6,7)고 했다. ② 그 사건을 헤롯에게 넘기려 했다. ③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유월절 특사(特赦)로 내보내자고 제안했다(막15:6). ④ 예수를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16절).
- (4) 이처럼 누가는 이 부분에서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처형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 (5)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리신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멸망과 2000년간의 방황과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참조, 살후2:12; 딤후4:1).

8. **㉠ 다른 번역본에는 17절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가?**

- ㉠** (1) KJV와 ASV에는 각주로 또는 괄호 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막15:6)라는 내용의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헬라이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이 귀절이 없다.

9. **㉠ 빌라도의 판결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8-20절)**

- ㉠** (1) 그들은 빌라도의 판결에 불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소리 질렀다.
- (2) 유대인들이 놓아 달라는 ‘바라바’는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자였으며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혁명가였다.
- (3)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에는 독립을 위한 반란이 많았으며 반란의 지도자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 (4)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랑과 인내와 순종을 주장하는 예수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며 폭력을 마음대로 일삼는 바라바를 택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다.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작은 사랑을 행하는 실천자보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소리지르는 지도자를 더 요구한다.
- (6)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삶 주변에서 작은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자들이 되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궁핍한 자들의 궁핍을 알아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자. 이러한 삶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청경임을 명심하자.

10. **㉠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는가? (22-25절)**

- ㉠** (1)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고 바라바를 놓아 주라고 명령했다.
- (2) 여기서 누가는 바라바가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혔음’을 기록하여 무죄한 예수께서 잡히신 대신에 한 나라의 사형수가 풀려 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 (3) 그런데 누가는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저서 예수를 그들에게 내주었다고 기록한다.
- (4) 그러나 마가(막15:15)는 그 원인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마태(마27:24)는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여 빌라도가 자신의 적은 병력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러한 결심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5)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는 비록 죄가 없는 자였으나 민중의 반란을 무릅쓰고라도 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였다.
- (6) 그러나 우리는 빈부 귀천(貧富貴賤), 국가와 언어, 민족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의 생명도 해치 말며 생명이 해침을 당하는 자리에 내어 주지 말자(참조, 막 9:42).
- (7)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는 자나 작은 자를 죽음에 내어 주는 자나 모두 같은 자들이다.

11. **㉠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은 누구인가? (26절)**

- ㉠** (1) 그는 구레네 출신으로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 (2) 일반적으로 사형수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나 십자가의 횡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갔다.
- (3) 따라서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고 있었으나 보통 처형 전에 죄수를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기력이 쇠해졌음이 분명하다. 그러자 군인들은 주위에 있던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
- (4) 그런데 시몬은 마가에 의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막15:21). 또한 바울은 로마서(롬 16:13)에서 루포와 그 어머니를 높였는데 이로 보건대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후 그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던 것 같다.
- (5) 한편 시몬의 출신지인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성읍으로 오늘날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다(행2:10;6:9;13:1).
- (6) 시몬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으며 그분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예수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역할을 했다.
- (7)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와 상관이 있으며 그분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12. **㉠ 백성들과 예수를 위해 우는 여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27-31절)**

- ㉠** (1) 여기서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따르던 여자들이다.
- (2)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녀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셨다.
- (3)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그분을 위해 울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울라는 말씀은

얼마 있지 않아 다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비참해질 여인들과 전쟁터에서 죽어 가는 그 여인들의 아들들을 위해 슬퍼하라는 의미이다.

- (4)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자(無子)함이 저주로 간주되거나 이혼의 사유(事由)가 되었으나(비교, 1:7, 25, 36) 이제는 그것이 축복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자식들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 (5) 한편 ‘푸른 나무에도’란 표현은 ‘무죄한 예수의 운명도’ 이러하거나 죄 많은 예루살렘(마른 나무)의 운명일까보나? 반드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고 말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마23:33).
- (6) 예수께서는 그날의 참상과 고통의 극심함을 호 10:8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인해 차라리 천재 지변(天災地變)이 일어나 모두가 일시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을 지적하셨다.
- (7) 이 같은 예수의 안타까움과 긍휼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인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 **㉠ 예수와 함께 사형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32절)**

- ㉠** (1) 누가는 그들을 행악자(行惡者)라고 했으나 마태(마27:38)와 마가(막15:27)는 그들을 강도라고 기록했다.
- (2) 그들의 죄목(罪目)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당시 사회의 범법자들이었다.
- (3) 이처럼 사회는 그 규범을 어기는 자와 무시하는 자를 같이 벌한다. 사회의 비리(非理)와 부도덕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압박이 더 심하다. 그렇기에 선지자는 일반 범법자들보다 더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
- (4) 예수께서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고 공관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이 기록한 것은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사53:12)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22:37).
- (5)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출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천한 곳까지 낮아지셨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잠3:34; 약4:6; 뱀전5:5).

14. **㉠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디인가? (33절)**

- ㉠** (1) 그곳은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이다.
- (2) 이에 대해 다른 복음서(마27:33; 막15:22; 요19:17)들은 히브리적 용어인 ‘골고다’라는 말을 사용했다.
- (3) 한편 ‘해골’은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곧 ‘두개골’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인데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며 히13:12에는 다만 ‘성문 밖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15. **㉠ 예수께서는 어떤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는가? (34절)**

- ㉠** (1) 본절에는 ‘저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정확하지 않지만 십자가 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유대인들과 형집행자들인 로마 군인들도 포함한다(참조, 행2:23; 3:17; 13:27, 28; 고전2:8).
- (2) 그런데 예수의 이 기도는 사람의 악행에 대한 자비의 표시 뿐 아니라 악을 행함은 곧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3) 사람들이 자신과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영이 어두워 그 행위가 정말 잘못된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지금도 지식과 재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타인을 위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오히려 타인을 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 (5)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같은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표본인 것이다(요일3:10, 23, 24).
- (6)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리라.

16. **㉠** ‘하나님의 택하신 자’란 무슨 뜻인가? (35절)

- ㉠** (1) 구약의 외경 에녹서에선 이 말이 ‘하늘의 인자’를 가리키며, 신약에서는 본서 9:35에서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한편 이 단어가 복수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의 선민’을 뜻하며 신약에선 새 이스라엘인 ‘메시아 공동체’를 의미한다.
- (3) 그런데 본절에서 누가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택하신 자’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지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 (4) 한편 이 말은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며 군중들이 예수를 조롱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리를 선포해 나가시는 전능(全能)한 분이시다.

17. **㉠** 예수의 머리 위 십자가에 부착된 명패는 무슨 목적으로 붙여졌는가? (38절)

- ㉠** (1) 그것은 정죄된 사람이 어떤 죄로 처형되는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죄패의 내용은 복음서마다 다른데 3개 국어로 쓰여졌다(요19:20).
- (2) 그런데 그 죄패는 ‘이는’(마27:28)이라는 경멸 조의 말이 덧붙여 결국 예수를 모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 (3) 그렇지만 죄패의 문구에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란 내용은 예수의 우주적 왕권을 상징화한다.
- (4)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곧 예수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길이기 때문이다(참조, 마5:10).

18. **㉠**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은 예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9-42절)

- ㉠** (1)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예수의 행실이 모두 정당했음을 증거하며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였다.
- (2) 관원들, 군인들 이제는 행악자까지도 똑같은 투의 비난을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없는 예수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라고 처음 행악자를 꾸짖었다.
- (3) 더우기 두번째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 삶이 있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 (4) 결국 그의 말은 합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교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예수의 무죄성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일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언제 돌아가도 늦지 않음을 알 수 있다(참조, 15:11-32).

19. **㉠** 두번째 행악자의 요구에 대해 십자가 상의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43절)

- Ⓐ (1)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서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이어 <파라데이소스>는 ‘공원’, ‘정원’ 혹은 ‘담으로 두른 동산’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이다.
- (3) 한편 70인역(LXX)에서는 ‘에덴 동산’(창2:8)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사51:3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거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곳과 같은 의미가 된다(참조, 고후12:3; 계2:7).
- (4) 그리고 미래의 낙원은 에덴 동산과 동일시되면서 의롭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잠정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해되기도 하였다(참조, 에스드라하 7:36)
- (5) 결국 행악자는 미래적 사건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때(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생명을 얻길 희망했으나 예수의 답변은 그에게 즉각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었다.
- (6) 그것은 이제 ‘낙원의 주인’이 되실 예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장에 가능한 것이다(참조, 2:11; 4:21; 5:26; 19:11).
- (7)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19:10)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8)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보다 먼저 타인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20. ⓐ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주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4, 45절)

- Ⓐ (1) 때가 제 육 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내(內) 성소의 휘장(揮帳)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 (2)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지나서 제 6시, 즉 정오에 주위가 캄캄해졌고 이 어두움은 제 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 (3)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제 구 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구절이 다른 번역본들에는 ‘태양이 붕괴되어 흑암이 땅을 덮었다’ 혹은 ‘태양이 어두워졌다’(KJV)고 번역되어 있다.
- (4) 이 어두움에 대한 해석으로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다. 첫째, 이 어두움이 가견적(可見的)으로 임한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이라는 견해이다(Luther, Calvin, Zahn). 둘째, 이 어두움은 천문학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슬픈 사건이었음을 가리킨다(Morris)는 견해이다.
- (5) 또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 휘장(커튼)은 지성소와 성전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격리(隔離)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 (6) 그런데 그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참조, 히9:3,8; 10:19).
- (7) 이처럼 그분의 죽음은 거대한 슬픔을 드리웠지만 그로 말미암아 만인이 다 제사장으로 서(벧전2:9)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21. ⓐ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6절)

- Ⓐ (1)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다.
- (2) 이 기도는 시편(시31:5)에 있는 말씀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드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서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 기도는 신뢰와 신념의 위대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기도는 승리의 선언이었다.
- (4) 한편 여기서 ‘운명하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엑크프네오>는 ‘마지막 숨을 쉬다’라는 의미로서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막15:37,39).
- (5)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 계셔서 자신이 다시 살았고 승리하셨듯이 자신의 사랑과 승리가 영원토록 존속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참조, 마28:20).

22. ㉠ 예수의 운명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7-49절)

- ㉠ (1)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모인 무리들도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멀리서 이 사실을 보고 돌아갔다.
- (2) 이 ‘백부장’은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인 장교였는데 그의 말은 무의식적인 찬양인 듯하다. ‘정녕 의인이었다’는 ‘무죄한 사람이었다’(RSV)라는 뜻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도 포함한다(참조, 막15:39).
- (3) 이 백부장과 무리들은 이 같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감동하여 자신들의 들같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반응을 보였다.
- (4) 한편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가까이 오면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멀리 서서 애통해 했다.

23. ㉠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 자는 누구인가? (50, 51절)

- ㉠ (1) 그는 공회 의원(公會議員)으로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그는 예수의 산헤드린 판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 (2) 마가는 그를 ‘존귀한 공회원’(막15:43)으로 마태는 ‘부자’(마27:57)로 묘사했는데, 누가는 그의 도덕적 성품에 강조점을 두어 ‘성품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그를 묘사했다(눅13:13).
- (3) 또한 마태와 요한은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마27:57; 요19:38)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 (4) 한편 ‘아리마대’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현재의 렌티스(Rentis)인 라마다임소빔(삼상1:1)으로 간주된다.
- (5)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달아난 때 산헤드린이 선고한 사형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청해 장사를 지낸 그의 용기와 예수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산헤드린과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다.
- (6) 오늘날의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많은 사람 중에도 불의를 진리로 가장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그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을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참조, 잠21:3; 엡6:14; 약4:7).

24. ㉠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어디에 장사지냈는가? (52, 53절)

- ㉠ (1) 그는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했다.
- (2)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일반적으로 매장하지 않고 버려 두어 개들과 새들의 밥이 되게 했으며 로마인은 시체를 밤새도록 내버려두어도 개의치 않았다.
- (3)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 죄인은 나무에 매단 후 당일에 장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었다(신21:23). 그래서 요셉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던 것이다.
- (4) 그런데 그들은 화장(火葬)을 하는 로마인의 관습과는 달리 몸을 씻어 세마포로 싸고

유향을 넣어 바위에 판 무덤에 시체를 안치하는 유대의 관습대로 예수의 시체를 장사지냈다.

- (5) 여기서 ‘바위에 판 무덤’은 바위에 큰 공간을 파서 만든 석묘(石墓)를 가리킨다. 한편 요한(요19:41)은 그 무덤이 동산에 있었다고 기록했는데 당시 동산 무덤은 부유층이 사용하던 무덤이었다(참조, 사53:9).
- (6) 이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22:33)라고 열정적으로 고백했으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행위와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행한 용기있는 신앙의 행위였다.
- (7)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약2:14-20).

25. ㉠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지낸 날은 언제이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 보던 여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54-56절)

- ㉠ (1) 그날은 예비일, 즉 안식일이 거의 된 때였으므로 여인들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다.
- (2) ‘예비일’이란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바로 전날을 의미한다(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 (3) 또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고 그때가 거의 저녁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서둘러 장사를 마쳤으나 향유를 바를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돌아갔던 것이다.
- (4) 즉 안식일에는 관(棺)이나 무덤을 준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만질 수도 없었다.
- (5) 집으로 돌아가 안식일을 지낸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서둘러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예비하였던 것이다(막16:1).
- (6) 이같이 급박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들이 보여 준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케 한다.

연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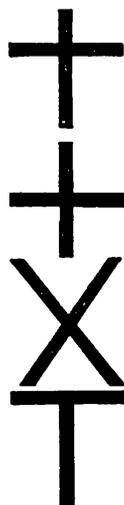
십자가형(十字架刑)과 십자가의 종류

‘십자가’를 뜻하는 헬라이어 <스타우로스>는 본래 ‘말뚝’, ‘기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점차 십자 모양의 처형대를 의미하게 되었다. 한편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관습은 동양에서 기원(起原)하였다. 로마인들은 카르타고(Carthage)의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이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노예나 암살자, 도적, 반란을 일으킨 식민지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실행하였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그렇지만 유대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A. D. 37? - ?)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 치하의 팔레스틴에서는 십자가형이 다반사(茶飯事)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강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본장의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마 32,33).

이제 이와 같은 십자가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십자가형이 언도(言渡)된 죄수는 먼저 쇠나 돌이 붙어 있는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한다(막 15:15). 그러므로 대부분의 죄수는 이미 이때 빈사 상태에 빠져 버린다. 이런 상태에서 죄수는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이를 처형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였다(막 15:21). 그리고 처형지에서 죄수는 옷을 벗기우며 죄명을 기록한 판을 목에 걸게 된다. 그런데 예수의 경우에는 그 죄패를 머리 윗부분 십자가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증거되고 있다(38절).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죄수는 십자가에 못박히거나 묶이운다. 하지만 십자가에는 팔에 가해지는 압박을 덜기 위하여 발을 디딜 수 있는 버팀대가 달려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죄수는 단번에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을 집행하는 자는 항상 죄수의 다리를 꺾어 버려 숨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례였다(요 19:32). 그렇지만 예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의 다리가 꺾이우지 아니하였는데(요 19:33)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시 34:20).

이상과 같은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키케로(Cicero, B. C. 106-43)는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인들로부터 멀리하고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 닿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참조, 고전 1:23; 갈 3:13).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하였다(신 21:22, 23). 그러므로 그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당연스러운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십자가형에 사용된 십자가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라틴 십자가(Latin cross):예수의 머리 위에 죄패(罪牌)가 붙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바로 이 형태인 것 같다(참조, 38절).

그리스 십자가(Greek cross):비교적 후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수직 기둥과 수평 기둥의 길이가 똑같다.

성 안드레 십자가(St. Aandrew's cross):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아가야에서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다는 전설로 말미암아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

성 안토니우스 십자가(St. Antonius' cross):유명한 은둔자인 안토니우스가 평소 집고 다니던 목발의 모양이 이와 같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제 24 장 예수의 부활과 승천

단락구분 1-4 빈 무덤 / 5-12 예수의 부활 / 13-16 예수께서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시다 / 17-2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대화 / 25-27 예수께서 비밀을 가르치시다 / 28-35 떡을 떼시다 / 36-43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 44-49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다 / 50-53 예수의 승천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치 아니하더라
 4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에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8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뵈어 믿지 아니하나
 12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쭈려 들며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침으로 들어가니라
 13 그날에 저희 중 돌이 예루살렘에서 이집으로 가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16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19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

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서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29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라
 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
 30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 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는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도 이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50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51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52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53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1. ㉠ 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 (2) 누가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기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자신들의 기록의 정점을 맞춘다(마28:1-7; 막16:5-12; 요20:1-31).
- (3) 이와 같이 본장에 있어서는 물론 성경 전체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는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가슴에 그분께서 살아나셨음을 확증케 하였다.
- (4) 참다운 교회의 신앙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특히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셨음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줌으로써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암시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사셨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성도들도 영원한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이다.
- (6) 그러나 이 사실은 믿는 자, 즉 눈이 밝아지고(31절) 마음을 여는 자(45절)만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들만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일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2. ㉠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기운 것과 무덤 속의 시체가 없어진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발견했다.
- (2) ‘안식 후 첫날’(일요일) 새벽에 예수에게 바를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목격하였다.
- (3) 대신 그들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된다(마28:2, 5; 요20:13). 그러나 이들의 수자와 모습, 자세에 대해 각 복음서마다 달리 서술되어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표현은 각 복음서 기자가 이미 기록한 자료들을 단순하게 옮겨 쓰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참조, 마28:1-7; 막16:1-7).

3. ㉠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댄 여자들에게 두 천사는 어떤 말을 했는가? (5-7절)

- ㉠ (1)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말을 했다.

- (2) 또한 천사들은 이 사실을 더욱 주지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킨다.
- (3) 이 예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9:22) 이미 하신 말씀이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언급된 말씀이다(18:32,33).
- (4) 그러므로 천사의 말은 예수의 예언을 상기시켜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5)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키심은 많은 제자들에게 큰 신앙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기록을 믿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의 예언(참조, 22:28-30)이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에 대한 성취의 희망을 갖게 한다.

4. **㉠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여자들은 누구인가? (8-10절)**

- ㉠** (1)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이다.
- (2)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신 여자(8:2)로 부활한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이었다(막16:9).
- (3) 또한 ‘요안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8:3)로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이다.
- (4) 그리고 마태(28:1)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는데 헬라어 <마리아 야코부>를 직역하면 ‘야고보의 마리아’로 번역된다. 이에 대해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설(說)과 ‘야고보의 아내’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참조, 마10:3; 27:56; 요19:25).
- (5) 그 외에도 이 사실을 들은 다른 여자들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의 놀라움은 대단한 것이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 (6)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은 이 같은 기쁨과 감동을 잃지 말고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이다.

5. **㉠ 여자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1, 12절)**

- ㉠** (1) 그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虛誕)한 듯이 비어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여기서 ‘허탄’이란 말의 헬라어는 <레로스>로서 ‘잡담’, ‘터무니없는 말’, ‘쓸데없는 말’ 등의 뜻을 갖고 있다.
- (3) 이렇듯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이었다. 즉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우스개 소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들 앞에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 자들이었다.
- (4) 한편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단지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결국 그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한 것이었다.
- (5) 오늘날도 이 같은 사람이 많다. ‘예수가 부활한 증거를 대라’, ‘네가 부활한 예수를 봤느냐?’ 그러나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참조, 요20:27, 29; 히11:1, 2).

6. **㉠ 그날에 예수께서는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13-16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 (2) 여기서 ‘그날’이란 예수께서 부활한 주일 곧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날이다.
- (3) 한편 그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

으나 그곳이 현재의 ‘칼로니에’(Kaloniye, 예루살렘 서쪽 6.5km 지점에 위치)나 ‘암와스’(Amwas, 예루살렘에서 읍바로 가는 도중 32km 지점에 위치)로 추정되는데 ‘암와스’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4)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다(막16:12).
- (5) 그러나 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그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30-32절).
- (6) 이 말씀은 인간이 시·공간적으로 한계를 지닌 눈을 지니고 있기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거나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 (7) 우리 성도들은 부활한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25-27, 39, 44-49절; 요20:21, 28, 29; 21:15-19; 행9:3-6).

7.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의 이름은 글로바이다.
- (2) 요19:25에 의하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 체험을 목격했던 여인 중 하나인 마리아의 남편인 것으로 여겨진다.

8. **㉠** 글로바를 포함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어떤 인물로 보았는가? (19-22절)

- ㉠** (1)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여겼다.
- (2)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救贖)할 것이라고 여겼다.
- (3) 즉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선지자로 여겼으며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인 로마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죽은 지 사흘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범위와 목적이 육적 이스라엘과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영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 자신의 편견과 조그만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참조, 잠13:13; 30:6).

9. **㉠** 제자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5-27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실을 꾸짖으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 (2)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며 그 일로 인해 그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실 사실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음은 가르치셨다.
- (3)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양’(출12장), ‘놋뱀’(민21:9), ‘임마누엘’(사7:14), ‘우리의 슬픔을 진 자’(사53:4,5), ‘겸손한 왕’(슌9:9), ‘매맞은 목자’(슌13:17) 등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했을 것이다.
- (4) 이렇듯 모든 구약 성경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십자가를 정점(頂點)으로 지향하고 있다. 죄악의 심자성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듯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사상이 그 맥을 이루고 있다.
- (5)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영광과 축복의 예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위의 예수도 생각하여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을 다져

야 한다.

10. **㉠**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 제기한 것은 무엇인가? (28, 29절)

- ㉠** (1) 머물지 않고 더 가시려는 그분께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므로 머무시기를 간청했다.
 (2) 그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예수를 초청했음이 분명하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 했으나 그들의 간청으로 머무신 것이다.
 (3)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그냥 가시게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제는 그분을 잡고 놓지 말자.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참조, 요3:16).

11. **㉠**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식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0, 31절)

- ㉠** (1)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은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 알게 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2) 여기서 '보이지 않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안판토스>로 '은폐된'이라는 뜻인데 이 용어가 헬라 문학에서는 '초자연적 은폐'를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3) 즉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비록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드시고(참조, 요21:12, 13) 자신의 제자들이 만져 볼 수 있는 육신을 지니기도 하셨으나(39-43절)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이다(36절; 요20:26, 27).
 (4) 떡을 떼서 축복하십시오 예수께서 흔히 하신 일이다(9:16; 22:19). 그 사실은 초대 교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으므로 그 후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었다.
 (5) 이 같은 감사의 기도와 떡을 나눔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이웃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이다.
 (6) 우리는 이것을 단지 종교적 행사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2. **㉠** 예수께서 사라지자 그들은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가? (32절)

- ㉠** (1) 그때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길에서 예수의 성경 풀이를 들을 때 마음이 뜨겁던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주고 받았다.
 (2) 여기서 '뜨겁다'라는 헬라어 <카이오>는 '불탄다', '불사른다'의 뜻을 갖는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과 확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이 사실은 후대의 사람들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부활한 예수의 임재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5)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서로 주고 받은 적이 많다. 우리는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다짐을 결코 잊지 말자.

13. **㉠** 그 말을 하던 제자들은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33-35절)

- ㉠** (1)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부활한 예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음을 듣고 자신들의 체험을 열 한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2) 예수께서 언제 시몬에게 나타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실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여자들의 부활 소식은 믿지 않았으나 시몬 베드로가 전하는 소식은 틀림 없는 것으로 모두들 여겼다(참조, 고전15:5).
 (3) 더우기 두 제자의 보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모두들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은 그들에게는 진정 복음이었다.

- (4)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자신은 자유롭다고 공언하지만 죄와 불안의 짐을 지고 마음의 방에 갇혀 있는 자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참조, 행8:5-17; 13:1-52; 14:1-27; 15:36-41; 16:1-40; 롬10:12-21).

14. ㉠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6-37절)

- ㉠ (1)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자 모두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를 '영'으로 생각하였다.
- (2) 여기서 예수의 인사말은 유대인의 일상적 인사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3) 그러나 예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달랐다. 즉 반갑기에 앞서 오히려 두려웠다. 왜냐하면 비록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이긴 하였지만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난 모습이 '영'(헬, 프뉴마) 곧 '유령'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그들의 놀라움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요20:26)에 의하면 그들이 있던 방은 닫혀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홀연히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몸이 만져지고 보이기는 하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때와는 다를 수 있다. 즉 그분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줄 어떤 곳이라도 계실 수 있으시다.

15. ㉠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8-41절)

- ㉠ (1)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예수께서는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힐 때 난 상처를 보이시면서 자신은 결코 유령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육신을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 (3) 예수의 손과 발을 본 제자들은 이제는 오히려 기쁜 마음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처음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이제는 극한 기쁨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게 되었다.
- (4)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 그러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만지며 자신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 즉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이다.

16. ㉠ 이때 예수께서는 또 어떤 증거를 보이셨는가? (41-43절)

- ㉠ (1) 예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여 제자들에게 받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증거를 보이셨다.
- (2)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 음식을 잡수심으로 부활의 몸이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꿈이나 환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싸워 이기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 (4)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다.

17.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과 성경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신 목적은 무엇인가? (44-49절)**

- (1) 예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끝까지 나가 증거해야 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성령의 도움에 대해 가르치셨다.
- (2) 첫째,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곧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이제 예수에 의해 성취되었다.
- (3) 둘째,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될 차폐인데 그 증인은 바로 제자들이라 말씀하셨다.
- (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 (5)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행1:8).
- (6)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입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18. **㉠ 예수께서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으며 이에 대한 누가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44-49절)**

- ㉠** (1) 본장의 기술 순서로 보면 이 부분은 아직도 엠마오에서 돌아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날 저녁에 해당되는 것 같다.
- (2) 그리고 행 1:3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신 기간이 40일이나 되지만 복음서에서는 단 하루의 지상 생활로 기록되어 있다.
- (3) 이처럼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의 정확한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누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그들이 이 사건의 시간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한편 누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구약 예언의 완성자로 왔다는 초대 교회의 사상을 강화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 곧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 (5) 그것은 곧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입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 (6) 이와 같은 누가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우리들을 각성케 한다.

19. **㉠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란 무엇인가? (44, 45절)**

- ㉠** (1)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다.
- (2) 즉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서 회롱과 능욕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지만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예언이다(9:22, 44; 17:25; 18:31-33; 22:37).
- (3) 예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그들의 ‘마음’(행, 누스-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이해력, 지성)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을 밝히 알게 되었다.

- (4) 인간은 이처럼 영적으로 무시한 존재이다.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지적, 의지적 노력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참조, 시119:105, 125-127).

20. ㉠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것은 무엇인가? (47절)

- ㉠ (1)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다.
- (2) 이 같은 예수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가 그분의 수난과 부활에서 성취된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시110:2; 사49:6).
- (3) 또한 ‘그의 이름’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며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 어떤 일반적 윤리에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9:48).
- (4) 그런데 그들이 전해야 할 소식은 ‘회개와 용서’로서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참조, 1:77; 3:3).
- (5) 한편 이 선포의 대상은 소수의 의로운 사람이나 민족주의(유대주의)적 열심을 가진 자만이 받기에 합당한 편협한 용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소용되는 용서이다(참조, 마28:19; 행1:8).
- (6) 그리고 그 일은 먼저 복음을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비교, 사2:23; 미4:1, 2).
- (7)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21. ㉠ 제자들은 앞으로 복음 선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케 될 것인가? (48절)

- ㉠ (1) 그들은 이제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예언의 성취를 보았고 예수가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제자들은 예수의 지상 사역 활동시 함께 거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 (3) 그러므로 그들에겐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참조, 막1:16-20; 요21:15-18).
-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전도자들도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다른 어떤 철학이나 학문을 전할 것이 아니라 목격자로서 복음의 사실만을 전해야 한다(참조, 갈1:6-10).

22. ㉠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49절)

- ㉠ (1)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2) 그리고 그 능력은 곧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가리키며 그것은 성령 곧 보혜사(保惠師)를 의미한다(참조, 요2:28, 29; 행2:16). 그런데 이 능력(1:35)은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의 은사를 의미한다.
- (3)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부활의 감격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 (5) 이처럼 오늘날의 전도자들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야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랑과 믿음과 용기의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비교, 엡6:13-17).

23. **㉠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남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50, 51절)**

- ㉠** (1)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모두 끝났음을 가리킨다.
 (2)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선 자신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따르던 시기는 끝났다.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3) 제자들이 앞으로는 예수를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관계만을 갖게 될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길 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것이다.
 (4) 이것은 초대 교인들의 체험일 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이기도 하다.
 (5)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발길은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에서도 그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24. **㉠ 예수를 떠나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했는가? (52, 53절)**

- ㉠** (1) 그들은 이제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후 그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2) 제자들은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의 모습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3) 예수께서는 이제 왕권을 얻으시고 영광스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수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임을 확신케 했으며 그들과 그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4) 그런데 그들은 예수와의 이별에서 슬픔을 갖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비록 예수께서 떠나가시지만 영원히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도 능히 깨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25. **㉠ 50-53절의 문장 구조에 대해 설명하라.**

- ㉠** (1) 51절과 52절에 있어서 대괄호 부분 곧 '하늘로 올리우시니'와 '그에게 경배하고'라는 귀절은 베자 사본과 시내 사본에는 빠져 있으며 NEB에도 빠져 있다.
 (2) 그러나 이 부분을 삭제하기에는 본문상의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삼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누가는 예수의 부활 후 지상 생활을 단 하루에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는 그가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행2:46, 47; 3:1; 5:42).
 (4) 그리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끝맺는다.

본장의 요절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유하라'(49절).